

발 간 등 록 번 호

51-6110000-001494-01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용역

The logo of th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featuring a stylized red circle with a smaller red circle above it, resembling a traditional Korean tteobagi. The text "Seoul Metropolitan Archives" is written in a serif font inside the larger circle.

Seoul
Metropolitan
Archives

2016. 12.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제 출 문

서울특별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특별시에서 의뢰한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사업』
의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6. 12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1장. 연구 개요	1
1. 연구배경	1
2. 연구 목표	3
3. 연구 방법과 개요	4
3.1. 연구팀 구성 및 특징	4
3.2. 연구 방법	5
2장. 서울기록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6
1. 서울기록의 정의	7
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의 배경과 의의	9
2.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의 배경	9
2.2. 외국의 기록물 평가 체계 개발	9
2.3. 소결	10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과정	12
3.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도출	12
3.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항목 도출	23
3.3. 소결	24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26
4.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과 특징	26
4.2. 서울기록화 선별대상 확정	26
4.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정책 유형의 개발	37
4.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주제 유형의 개발	63
4.5. 소결	80
3장. 서울기록화의 범주와 연계	82
1. 서울시 소속부서	83

1.2. 소결 : 소속부서 현황분석 및 시사점	86
2. 유관기관	87
2.2. 유관기관 면담결과	91
2.3. 소결 : 유관기관 현황분석 및 시사점	104
3. 협치기관	106
3.2. 협치기관 면담결과	106
3.3. 소결 : 협치기관 현황분석 및 시사점	110
4. 민간 영역	111
4.1. 조사과정	111
4.2. 민간 영역 면담결과	111
4.3. 소결 : 민간 영역 현황분석 및 시사점	115
5. 서울기록화 연계방안	117
5.1. 서울기록화 연계의 정의와 요소	117
5.2. 서울기록화를 위한 연계요소	118
5.3. 서울기록화 연계를 위한 요소별 방안	119
5.4. 소결	123
4장.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124
1. 국내외 수집 정책 조사분석	125
1.1. 수집정책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25
1.2. 국내 주요기관의 수집정책 분석	129
1.3. 국내 수집정책 연구 사례 분석	134
1.4. 해외의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분석	144
1.5.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수집기관의 연계	151
1.6.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공동체의 연계	155
1.7. 소결	157
2. 수집정책문	162

2.1. 수집정책문 구성요소	162
2.2. 수집정책문	164
2.3. 소결	175
3. 수집실행전략	176
3.1. 수집전략 체계	175
3.2. 분산보존, 연계수집	177
3.3. 이중평가, 선별수집	178
3.4. 쌍방향적 공유와 소통의 수집	178
3.5. 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 협력	179
3.6. 생산자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179
3.7. 소결	180
 5장. 서울기록원 Action Plan	 181
1. Action Plan의 의미	182
2. 부문별 계획수립	183
3. 시기별 계획수립	187
4. 시기별 계획수립	190
 6장. 연구결과 요약	 191
1. 서울기록의 정의	191
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192
3. 서울기록화 연계방안	195
4.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196
5. 서울기록화 Action Plan	196
 [별첨 자료]	 199

〈표 차례〉

〈표 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15
〈표 2〉 실행선별정책(OSPs)의 주제영역과 세부주제	15
〈표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대상 유형 및 세부 내용(안) 예시	21
〈표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 항목	23
〈표 5〉 정책 유형 검토표	27
〈표 6〉 정책 유형 검토결과 :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31
〈표 7〉 주제 유형 검토표	33
〈표 8〉 주제 유형 검토결과 : 서울거리예술축제	36
〈표 9〉 정책유형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	39
〈표 10〉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시정기록) 과정	39
〈표 11〉 유관기관, 협치기구, 민간기록 파악 후 절차	39
〈표 12〉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11개소	45
〈표 13〉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결과	47
〈표 14〉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50
〈표 15〉 SH공사 도시재생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51
〈표 16〉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52
〈표 17〉 도시재생관련 민간기록 현황	53
〈표 18〉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58
〈표 19〉 부속서 : 정책 유형 검토표	62
〈표 20〉 주제분야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	64
〈표 21〉 서울거리예술 축제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69
〈표 22〉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72
〈표 2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	77
〈표 24〉 부속서 : 주제 유형 검토표	79
〈표 25〉 서울시 소속부서 주요 기록화 사업 현황	84
〈표 26〉 서울시 유관기관 기록화 사업 현황	88
〈표 27〉 유관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102
〈표 28〉 협치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109
〈표 29〉 민간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115
〈표 30〉 국내외기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	124

〈표 31〉 수집지침의 우선순위 및 한계에 관한 내용	128
〈표 32〉 국내기관의 수집정책 비교	132
〈표 33〉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약관	137
〈표 34〉 국내의 수집정책 연구 사례 비교	139
〈표 35〉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관련 규정	141
〈표 36〉 이용약관 구성요소	143
〈표 37〉 해외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비교	148
〈표 38〉 국내외 기관별 수집정책 특징	157
〈표 39〉 이용자 참여약관(안)	175
〈표 40〉 서울기록관 시기별 계획표	187
〈표 41〉 서울기록원 Action Plan 종합 표	190
〈표 42〉 서울기록화 Action Plan 요약 표	197

〈그림 차례〉

〈그림 1〉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연구 흐름	5
〈그림 2〉 서울기록의 구성	7
〈그림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및 유형 도출 절차	12
〈그림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구분을 위한 매핑	14
〈그림 5〉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대상 유형화	20
〈그림 6〉 서울형 도시재생 27개 선도지역	43
〈그림 7〉 서울형 도시재생 실행주체 구성	44
〈그림 8〉 뉴타운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46
〈그림 9〉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48
〈그림 10〉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_도시재생	49
〈그림 11〉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66
〈그림 12〉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 공간	67
〈그림 13〉 2016 서울거리예술 축제 공식포스터	68
〈그림 14〉 하이서울페스티벌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69
〈그림 15〉 서울거리예술축제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70
〈그림 16〉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분석_서울거리예술축제	71
〈그림 17〉 서울시 소속부서 기록화 사업 조사를 위한 키워드 추출	83
〈그림 18〉 서울시 유관기관 현황	87
〈그림 19〉 서울기록화 연계를 위한 기관별 요소 매핑	117
〈그림 20〉 수집정책문 작성시 고려사항	127
〈그림 21〉 수집정책문 구성항목	162
〈그림 22〉 서울기록 수집전략 체계	176
〈그림 23〉 수집정책문과 수집실행전략의 관계	177
〈그림 24〉 서울기록화 수집 Action Plan의 의미	182
〈그림 25〉 서울기록의 정의와 구성	191
〈그림 26〉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구성요소	193
〈그림 27〉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구조	194

1장. 연구 개요

1. 연구배경

‘서울기록’ 수집을 위한 정책 마련

- 수집정책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당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물 획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여 수집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임¹⁾
-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기록관이 스스로 표방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수집 계획수립, 수집처 조사 및 연구방법, 수집 대상기록 선정, 수집절차에 대한 표준 프로세스, 수집기록 평가 및 분석방법, 수집기록의 원활한 활용과 서비스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함
- ‘서울기록’이란 서울시의 정체성 및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서울시의 업무과정에서 생산·입수된 기록 즉, ‘시정기록’과 서울시민들의 손으로 직접 생산·소장하고 있는 ‘시민기록’을 포괄함. 특히 ‘시민기록’은 기존의 기록의 유형으로 일컬어지던 문서, 도면, 사진, 영상, 박물류 등을 넘어서 특정 지역, 공간, 문화예술, 행동양식까지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서울기록’ 수집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2018년 개관을 앞둔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며, 서울기록원에서 대상으로 할 기록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서울기록화 수집 방법론 수립

- 수집정책에 따른 수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적절한 평가와 개선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 있음
- 일반적인 매뉴스크립트 수집방법론에 근거한 표준프로세스를 정립하고 단계별 또는 수집행위별로 모듈화하여 대상 기록물의 주체, 지역, 시기, 유형 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프로세스 설계해야 함
- 수집기획, 잠재적 소장처 조사(lead file 및 case file 작성), 우선접촉대상 선정, 협상 및 기증유도, 자발적 기증 대응, (사본)기증·대여·위탁·구매·조건부기증 등에 대한 업무, 사후관리 등에 대한 일련의 업무과정을 일정한 양식으로 표

1) ‘기록학용어사전(2008)’에서는 수집정책을 “보존 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실”이며,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제적(deaccessioning)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된다”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준화 함

- 표준 프로세스를 기본으로 서울기록 영역에서 조사·연구되고 예측 가능한 기록의 유형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유형별 프로세스를 정립함으로써 유연한 프로세스 마련
- 표준 프로세스와 유형별 프로세스를 설계한 뒤에는 각 공정의 세부업무를 수록한 매뉴얼을 작성함. 매뉴얼에는 업무주체의 행위와 대상과의 상호관계 및 각 공정에서 필요한 서식을 포함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서울기록 수집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확보함으로써 서울기록 수집에 대한 장단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즉시 수집 업무에 착수하더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를 확보하게 됨

‘서울기록화 및 콘텐츠 구축 사업’주제 발굴

- 기록을 수집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므로 수집을 기획하는 과정에서부터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 개발을 염두에 두어야 함. 서울기록화의 경우 일반적인 기록뿐만 아니라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을 할 수 있음
- 또한, 기록을 조사, 탐색하기 이전의 기획단계 부터 시민들의 참여로 제보 및 공동조사를 진행하여 의미 있는 기록물을 폭넓게 확보함
- 이를 위해 서울기록에 대한 평가를 또한 공공기관에서 적용하는 역사적 가치, 행정적 가치, 법적 가치를 기반으로 하되 서울의 정체성, 서울시민들의 현재 삶과 미래의 지향이 반영되어야 함. 이를 위해 가칭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의 삶과 지향이 반영된 의미와 가치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수집함
- 시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콘텐츠가 구축되고 지식자원 및 문화자원으로 재가공되어 서비스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나이, 성별, 계급, 계층을 초월하는 소통,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교육교재 개발로 정주의식 고취, 서울의 브랜드 재창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도시인 서울의 미래비전 제시, 서울시민들의 지적, 문화적 역량 제고, 삶의 질 향상 등의 기대효과를 낼 수 있음

2. 연구 목표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 개관을 앞두고 수집정책을 마련함

-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시민사회단체의 급격한 성장과 이에 따른 민간기록물관리의 중요성 확산, 디지털기록의 활성화, 대통령기록의 중요성 확대 등으로 2006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된 이래 실질적으로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논의와 발전은 저조한 편임
- 서울의 경우 최근 수년간 마을공동체의 비약적 활성화, 이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서울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공동체 운영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져 왔으나, 마을공동체의 형성배경과 운영과정의 맥락을 알 수 있는 기록을 확보하는 데에는 성과가 미미한 편임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영구기록관인 서울기록원 개관을 앞두고 마을공동체를 비롯하여 개인, 기업, 단체, 학교 등 다양한 민간영역의 기록물을 수집함으로써 지방영구기록관의 수집정책의 전형을 마련하고 타 지방 및 외국의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음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기록을 수집하는 체계마련

- 기존에 기록관들에서 소장자(처)를 대상화하여 수집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집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계획은 물론 실제수집, 평가, 콘텐츠 개발에 이르는 과정 또한 시민들과 협력하여 진행함
- 일방적 행정행위로서 기록수집을 벗어나 시민 중심적인 소통과정을 통하여 수집 대상의 폭을 넓혀서 서울기록원이 진정한 문화기관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기록수집과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담보
- 또한 시민과 협력 및 소통과정에서 일정한 갈등과 이견도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지혜롭게 협력,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영구기록관 운영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모범사례를 창출할 수 있음

기록의 맥락화, 맥락의 기록화

- 기존의 명망가, 주요사건, 성과 등을 중심에 놓고 기록을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삶에서 출발하여 공공기관의 행정기록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민간영역 전반의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함

- 서울을 이루고 있는 절대적인 주체인 시민사회와 민간단체, 학교, 기업 등의 존재와 활동의 의미에 비중을 둬으로써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제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삶과 활동의 가치에 자부심을 갖고 스스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기계적 기록화가 아닌 서울과 서울시민들의 삶의 내력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배경과 맥락을 확보하여 가치 중심의 기록화 실현

3. 연구 방법과 개요

3.1. 연구팀 구성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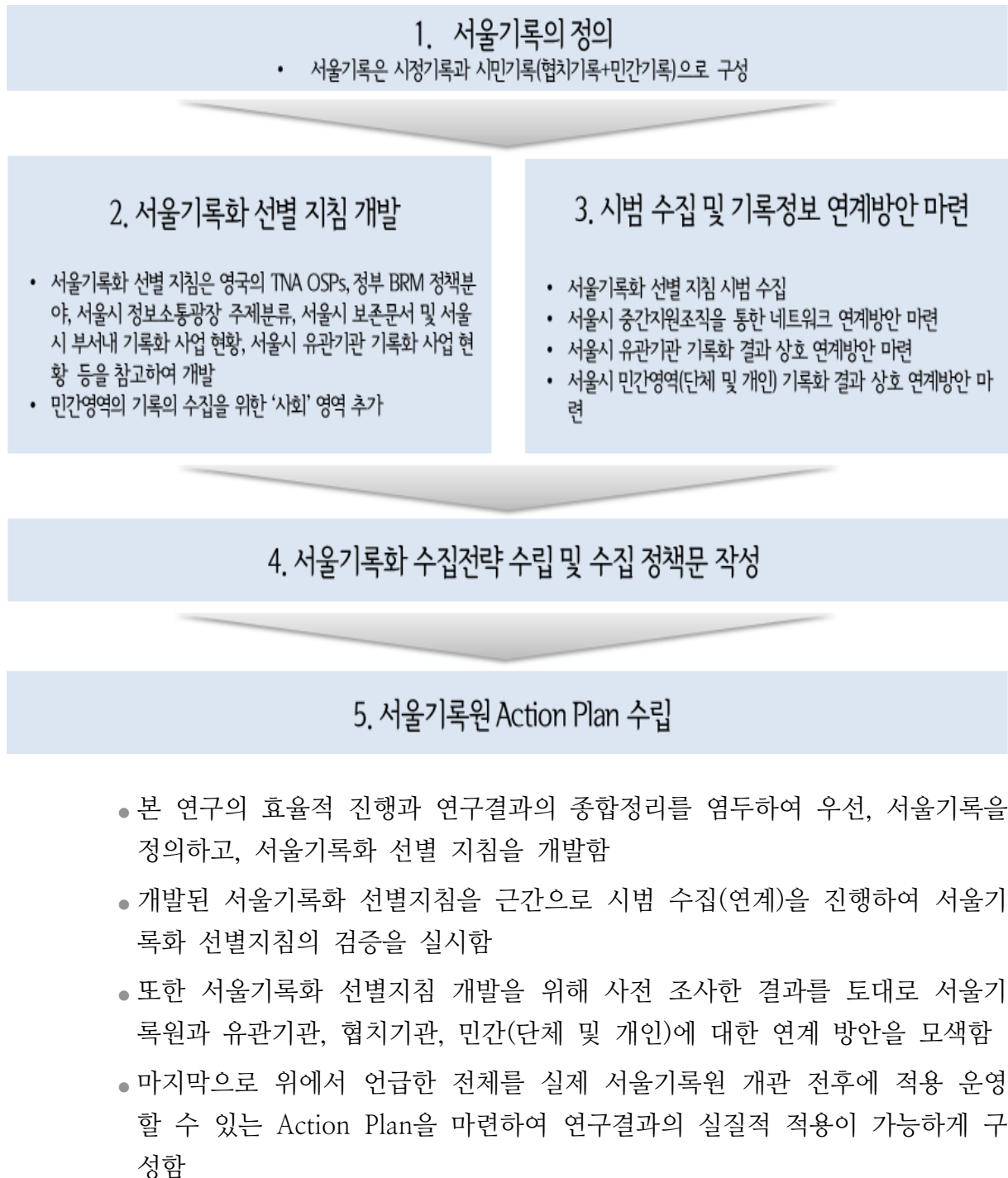
- 본사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유기적인 결합으로 연구팀 구성
 - 본 사업은 기록관리 영역의 사업이며 서울시의 역사와 현재 서울시민들의 기록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따라서 기록학 연구자, 역사학 연구자, 마을공동체 및 시민단체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고 연구를 수행함
- 연구시간을 효율적으로 확보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사전연구를 시작하여 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기본조사를 수행하여 실제 연구기간에는 집중도 높게 연구를 수행함
 - 실제 연구기간 이후 약 1개월간의 보완기간을 설정하여 연구진, 주관부서, 유관부서가 함께하는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더욱 정교하게 마무리 함
- 수집실무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결과물 도출
 - 연구과정에서 ‘조사 -> 연구 -> 활용 ->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함
 - 실제로 ‘조사(사전조사 및 현장실사, 인터뷰, 촬영) -> 연구(문헌연구 및 조사결과 연구) -> 활용(시범수집) -> 검증(워크숍)’을 통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결과물을 도출함

3.2. 연구 방법

3.2.1.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그림 1>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됨

<그림 1>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개발 연구 흐름



2장. 서울기록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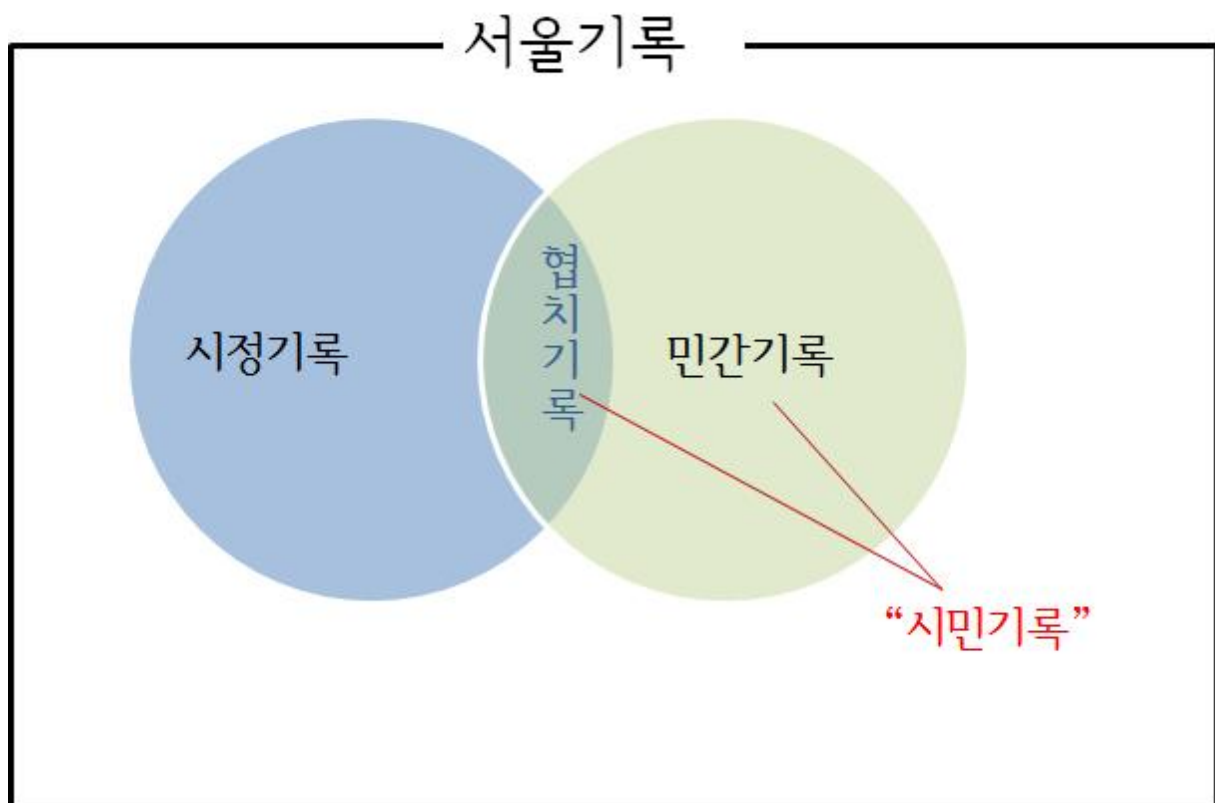
2장 서울기록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서울기록의 정의와 서울기록화를 위한 선별지침의 마련 배경과 의의, 선정절차, 시범적으로 개발된 지침 내용으로 구성

- 본 연구에서는 서울기록의 정의와 개념의 확정을 통해 서울시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기록 콘텐츠를 구축되고, 지식자원 및 문화자원으로 재가공되어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현행 기록관리법규의 원론적인 평가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무 지침이 필요한 점, 공공영역 뿐 아니라 서울시 정부와 서울 시민간의 상호작용 영역과 민간 단체 및 개인에 국한되어 보관 활용되는 영역까지의 포괄이 요청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외 평가체계에 대한 분석과 특히 영국 국가기록원(TNA)의 실행 선별 정책(OSP)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개발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서는 서울시 정부의 행정 영역 외에 민간 영역까지 포괄하기 위해 영역 구분(안)과 대상 유형(안)을 새롭게 도출하였으며, 지침의 구체적인 구성요소 설계와 더불어 서울시 본청 외에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의 기록물, 민간 영역의 기록물까지 수집·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정책 유형 및 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선별대상을 상정하고 시범적으로 도시재생(정책유형)과 서울거리예술축제(사회영역)의 선별지침을 각각 개발함

1. 서울기록의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서울기록의 정의와 개념의 확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기록 콘텐츠를 구축되고, 지식자원 및 문화자원으로 재가공하여 시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서울시민 상호간의 나이, 성별, 계급, 계층을 초월하는 소통, 서울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교육교재 개발, 서울의 브랜드 재창출,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거대도시인 서울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데 활용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서울기록은 서울시민들의 지적, 문화적 역량을 상승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는 기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함

〈그림 2〉 서울기록의 구성



- 가장 큰 범주인 ‘서울기록’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총칭하며 ‘서울 기록’은 당대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정의함
- ‘서울기록’은 서울시 행정, 문화, 역사, 시민, 공동체 등의 포괄하며 그 유형 또한 기존의 기록의 유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함

- 서울기록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시정기록, 시민기록으로 나누며, 시민 기록은 다시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으로 구성됨
 - 시정기록 : 서울시의 공공행정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시적인 모든 유형의 기록
 - 협치기록 : 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시정운영의 특징인 시와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기록
 - 민간기록 : 서울의 시민 개인 또는 개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모든 유형의 기록
 - 시민기록 :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기록물 유형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공간, 문화예술, 행동 양식까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의함

서울기록과 서울기록원

- 2018년도 개관 예정인 서울기록원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향후 건립되어 운영될 서울기록원과 서울기록의 연관성을 밝히고자 함
- 서울의 영구기록물관리관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고 발전시켜 앞서 정의한 서울기록의 확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와 발전 기회를 설정할 수 있음
 -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의 확보를 통해 현재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문화기관(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과는 다른 문화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통해 서울시의 공식적인 행정업무의 결과물인 기록을 바탕으로 협치와 민간 영역을 함께 구성하여 기록으로 확인하는 서울의 모습을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
 - 또한 서울기록원은 기록을 중심으로 구성한 서울의 역사와 문화, 시민의 삶과 생활모습을 기록정보자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기관으로 발전하고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음
 - 이를 위하여 서울기록원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특색과 서울기록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접목하여 새로운 시민지향 디지털 참여 아카이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음

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의 배경과 의의

2.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의 배경

2.1.1. 우리나라 평가체계에 대한 문제인식

- 현재 우리나라의 평가체계는 기록물 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정부 기능별 중요도를 반영하여 기록을 수집하려는 것으로 업무 기능의 분석에 기반을 둔 기록물 평가라고 할 수 있음
- 평가주체는 기록물 전문요원이 아닌 기록물의 생산자이며, 평가 시기는 기록물이 생산되기 전에 결정되는 사전평가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전체적으로 기능평거나 거시평가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음
- 평가체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다는 것임.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만한 가치를 가진 기록물’이란 다소 모호하고 구체성이 떨어지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적용이 힘든 측면이 있음
- 기능분류로 인해 기계적으로 폐기되어 미수집되는 기록물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침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

2.1.2. 시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통한 완전성 있는 기록물의 수집기반 필요

- 외국의 주요 국가들에서는 정부의 기록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의 수집도 고려하고 있는 추세임
- 이에 따라 공공기록(행정기록)의 영역을 벗어나 한 세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기록물 수집이 가능하게 하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
-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기록물을 통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시각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는 필요성이 제기됨

2.2. 외국의 기록물 평가 체계²⁾ 개괄

- 영국의 국가기록원(TNA)은 『평가정책(Appraisal Policy)』을 통해 기록물 평

2) 최재희, 주요 외국의 기록물 평가 체계와 시사점, 기록인(21)

가의 기본 원칙과 프로세스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평가정책의 배경(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이라는 문서를 통해 영국이 이러한 평가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근거, 향후 전망 등을 제시함. 또한 『기록선별을 위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records)』을 통해 당연히 보존해야 할 기록과 연구목적의 평가 기준과 그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호주의 연방기록원(NAA)는 『평가(Appraisal)』, 『기록을 왜 보존하는가(Why records are kept: Directions in Appraisal)』, 『거시평가(Macro-Appraisal)』와 같은 지침을 통해 평가 체계와 기준, 이론적 배경에 대한 정책 문서를 발표하고 있음
- 미국의 국립기록청(NARA) 『평가정책(Appraisal Policy)』과 『전략적 방향: 평가정책(Strategic Directions: Appraisal Policy)』을 통해 평가의 기준 및 체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음
- 캐나다 도서관 기록관(LAC)는 『평가방법론: 거시평가와 기능 분석(Appraisal Methodology: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을 통해 평가의 기준 및 체계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외국의 주요국가들은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제적용이 가능한 지침과 지침의 배경, 근거 등을 제시하는 정책문서들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2.3.소결³⁾

-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물 평가체계 하에서는 각 부처 또는 부서에서 기능·업무 분석을 통해 책정되는 기록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서 생산되는 기록일지라도 각기 다른 평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영구 보존해야하는 특정한 사안 및 기능과 관련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의 기능에 따라 기록의 보존기간이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캐나다 LAC의 토털 아카이브 개념이나 영국 TNA의 OSP는 공공기록(행정 기록)의 영역을 벗어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을 수집함으로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사회의 전 영역에서의 기록물 수집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음

3) 국·별 사례 및 분석은 [별첨 자료]참조

- 특히, 영국 TNA의 OSP는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기록물로써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시각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 영국 TNA의 OSP는 사안별로 평가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실효성이 있으며 균형감있는 기록물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해지며, 수집 전략과 처분전략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수집업무와 평가업무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해짐으로 범국가적인 선별 체계의 기반이 마련됨
-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주제에 대한 기록물의 선정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할 기록이 선별·수집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러한 과정에서 컨선테이션 제도의 운영은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및 수집범위 확대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집단)의 관점을 투영하는 거버넌스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과정

3.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도출

3.1.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도출과정

- 영국 TNA의 실행선별정책(OSP)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마련하고자함
- 서울시의 정부 BRM 정책분야, 정보소통광장 주제분류와 기존에 분석한 영국 TNA의 실행선별정책(OSP)의 상위 주제영역과의 매핑을 통해 서울시에 맞는 상위의 분류범주를 도출하고 이후 중간 유형별 개별 OSP를 개발함



<그림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및 유형 도출 절차

3.1.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상위 분류범주 도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상위의 분류범주 도출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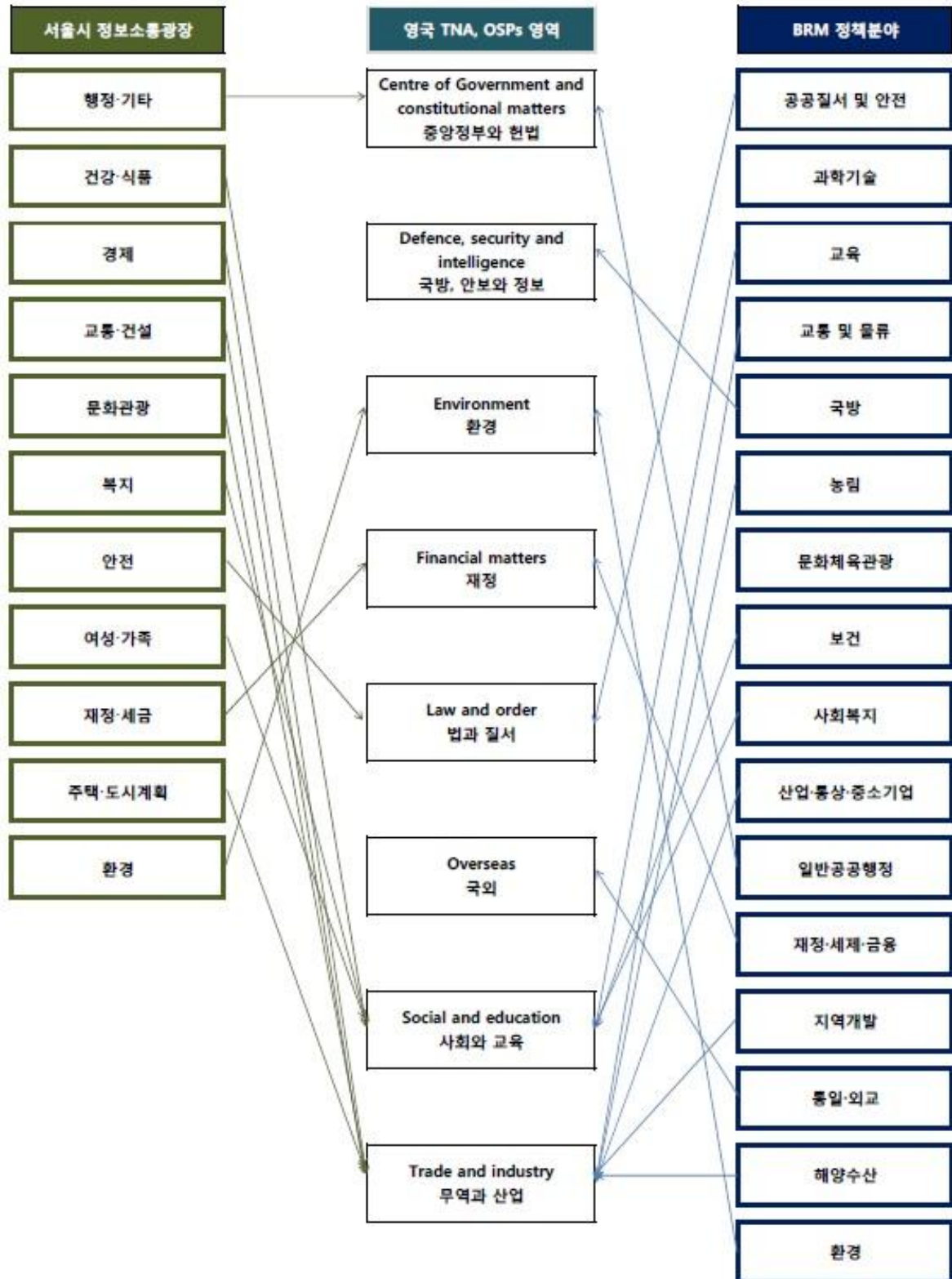
- 정부 BRM 분류체계 중 정책분야, 서울시의 정보소통광장 주제 분류, 영국 OSP의 상위 주제분류를 분석하여 영역 구분에 대한 안을 제시
- 정부 BRM 분류체계 : 15개 정책분야를 살펴보면 기능 또는 정책의 수행과 관련된 내용적 측면에서 영역을 선정함, 정부기능분류체계에서 기능에 기반한

본격적인 분류는 대기능 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정책분야를 살펴봄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주제 분류 : 서울시는 정보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정보소통광장에서 11개의 주제영역을 통해 시정기록을 제공하고 있음. 기록관에서는 기록물에 대해 계층적, 집합적 기술을 통해 정리·기술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직적인 구조의 (기관중심의)검색도구로는 이용자들이 기록물을 검색하고 이해하기 어려움. 서울시는 주제분류를 통해 시정기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주제영역명을 설정하여 검색편의성과 이용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 OSP 상위범주 : 영국 TNA의 OSP 상위범주는 국가단위에서의 정책분야를 분류해 놓은 것으로 특정 주제영역에 대한 기록물 선별정책을 수행하고 있음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상위의 분류범주 도출 과정

- 정부 BRM 정책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교육, 교통 및 물류, 국방, 농림, 문화체육관광, 보건, 사회복지, 산업·통상·중소기업, 일반 공공행정, 재정·세제·금융, 지역개발, 통일·외교, 해양수산, 환경의 15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의 정보소통 광장은 행정·기타, 건강·식품,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안전, 여성·가족, 재정·세금, 주택·도시계획, 환경의 11개의 주제분류로 구성되어 있음
 - 영국 OSP의 분류범주는 중앙정부와 헌법, 국방, 안보와 정보, 환경, 재정, 법과 질서, 국외, 사회와 교육, 무역과 산업의 8가지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
 - 영국 TNA OSP의 분류범주를 중심으로 15개의 정부 BRM 정책분야와 11개의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주제분류범주를 매핑하고 서울시 행정에 맞게 조정함



〈그림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영역 구분을 위한 매핑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상위의 분류범주 도출

- 서울시의 정부 BRM 정책분야, 정보소통광장 주제분류와 영국 TNA의 실행 선별정책(OSP)의 상위 주제영역과의 매핑을 통해 일반행정(시정부), 주택·도시계획, 환경, 안전, 교육, 경제, 재정, 복지, 교통, 문화·관광, 보건 및 민간영역의 기록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영역을 구성하여 총 12개의 영역 구분(안)을 제시함

〈표 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상위의 분류범주	
일반행정(시정부)	재정
주택·도시계획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문화관광
교육	보건
경제	사회

3.1.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대상 유형 도출

TNA OSPs 주제영역 분석

- 실행선별정책(OSPs)은 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정한 사안 및 이슈에 관한 기록을 선별하고 수집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개별 부서와 기관의 기록 또는 부서 간 주제에 관한 수집 정책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9가지 주제 영역과 60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OSPs는 모든 기관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OSPs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만 배포하고 있음

〈표 2〉 실행선별정책(OSPs)의 주제영역과 세부주제

주제영역	주제(Subject)
Centre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atters	Ministry of Defence 1963-2014 appraisal report 국방부 1963-2014년 평가 보고서

중앙정부와 헌법	OSP7: The Welsh Office 1979-97 웨일즈 정부(1979-97년)
	OSP7: Y Swyddfa Gymreig 1979-97
	OSP12: Central direction and oversight of policy, 1970-2000 정책의 주요 방향과 감독(1970-2000년)
	OSP20: Records of the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COI) 중앙 정보국 기록
	OSP24: Records relating to the machinery of govern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vil service from March 1974 to 2000 정부 기구와 공무원 조직 관리와 관련된 기록(1974년 3월-2000년)
	OSP27: UK central government websites 영국 중앙정부 웹사이트
	OSP 59: Welsh Government 1997-2006 웨일즈 정부 1997-2006년
	OSP 60: Welsh Government 2006-2011 웨일즈 정부 2006-2011년
Defence, security and intelligence 국방, 안보와 정보	OSP8: The Security Service 안보 서비스
	OSP11: Nuclear weapons policy 1967-98 핵무기 정책(1967-98년)
	OSP14: Home defence and emergency planning 1972-2001 국가 안보와 비상 계획(1972-2001년)
	OSP28: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and its predecessors 정부 통신 본부와 그 전신
Environment 환경	British Coal Corporation (former National Coal Board) paper records 1947-2004 appraisal report 영국 석탄공사(전 국영석탄공사(NCB)) 1947-2004년 문서기록 평가 보고서
	OSP1: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70-79 환경부(1970-79년)
	OSP2: The Crown Estate, 1975-85 영국왕립토지위원회(1975-85년)
	OSP4: The use and conservation of the countryside for recreational purposes, 1974-83 여가를 위한 시골의 이용과 보전(1974-83년)
	OSP10: Nature conservation in Great Britain 1973-91 영국(잉글랜드, 스코트랜드, 웨일스를 포함)의 자연보호(1973-91년)
	OSP17: Preserva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1970-99 건축 환경(structures and landscapes)의 보전(1970-99년)

	OSP45: English Partnerships 1999-2006 잉글랜드 협력(1999-2008년)
	OSP 58: Environment Agency (1996-2012) 환경부 (1996-2012년)
	OSP 57: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 site records 1940 onwards 원전해체 전담기관(NDA)- 1940년부터의 사이트 기록
Financial matters 재정	OSP9: Fiscal policy 1971-79 회계 정책(1971-79년)
	OSP15: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1969-97 중앙 정부 지출의 통제(1969-97년)
	OSP22: Records of the Royal Mint 1975-2002 영국 조폐국의 기록(1975-2002년)
	OSP27: Web Continuity project ⁴⁾ : The National Archives is currently reviewing its approach towards the capture and preservation of government websites as part of its Web Continuity Project.
	OSP35: Board and committee records 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
	OSP36: Publications / Grey literature 간행물 / 회색 문헌
	OSP37: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cords 기록의 정보공개(자유)법
	OSP38: Records of internal administration 내부 행정부 문서
	OSP39: Inspection records 감사 기록
	OSP42: Records of Departmental legal branches 부서별 법적 기록
	OSP48: Case files 케이스 파일
Law and order 법과 질서	OSP6: Records created by and relating to coroners, 1970-2000 검시관과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1970-2000년)
	OSP16: Probation records, 1965-2001 보호 관찰 기록(1965-2001년)
	OSP21: Records of the Criminal Case Review Commission (CCRC) 범죄사건 재심위원회(CCRC)의 기록
	OSP29: 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records 수도경찰청(MPS) 기록
	OSP32: Records relating to court actions for individual bankruptsy

	개인 파산에 대한 법원의 조치관련 기록
	OSP33: Records relating to court actions for corporate insolvency 기업 부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관련 기록
	OSP40: Records of the Crown Court and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형사지방법원(Crown Court)와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의 기록(범죄별)
	OSP46: Records relating to military law and courts-martial 국법과 군사 법원 관련 기록
	OSP 56: Attorney General's Office (AGO): Paper Records 1987-2012 검찰부(AGO): 1987-2012년 문서기록
Overseas 국외	OSP13: Britain's diplomatic relations, 1973-96 영국의 외교 관계(1973-96년)
	OSP23: Records of Britain's overseas representation,1973- 영국의 국외 대표 기록
	OSP44: Records of UK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uropean Community secondary legislation 유럽 연합의 이차적인 법률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의 영국정부의 관여기록
Social and education 사회와 교육	OSP5: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security, 1979-91 사회보장 관련 행정부(1979-1988년, 보건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DHSS) → 1988-1991년,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 DSS)기록)(1979-91년)
	OSP18: Records of registration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of United Kingdom citizens occuring overseas 출생, 사망신고 기록과 해외에서 발생한 영국 시민의 결혼등록 기록
	OSP19: Records of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1974-1997 교육부 기록(1974-1997년)
	OSP30: Government and people: the interaction of the state with the citizen as documented in electronic casefiles and datasets 정부와 사람: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전자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OSP31: Post 16 education, 1974-1988 16세기 후기의 교육(1974-1988년)
	OSP55: Records of the Pensions Regulator (2005-2011) 연금감독기구 기록 (2005-2011년)
Trade and industry 무역과 산업	OSP3: Industrial policy, 1974-1979 산업 정책(1974-1979년)
	OSP25: The regulation of companies (경제적, 사회적)회사의 규제
	OSP26: The regulation of civil aviation, 1972-2002 민간 항공의 규제(1972-2002년)

	OSP34: Restrictive trade practices, 1956 - 2000 무역 관행의 제한(1956 - 2000년)
	OSP41: Records created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between 1945 and 2000 inherited by the Food Standards Agency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식품규범청에 의해 상속된 농림수산물식품부 기록
	OSP43: Competition - case files 1950-2008 경쟁 - 케이스 파일(1950-2008년)
	OSP47: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OFWAT) paper and electronic records 1989-2010 상하수도서비스규제기구(OFWAT) 문서와 전자기록(1989-2010년)
	OSP 49: Records of the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1978 onwards 1978년부터의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기관(ECGD)의 기록
	OSP50: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1999-2012 지역개발기구(RDA) (1999-2012년)
	OSP51: Records of Royal Mail and its predecessors, 1969-2006 조폐국과 전임 조폐국장 기록 (1969-2006년)
	OSP 54: Food Standards Agency 1 April 2000 - 1 October 2012 식품규범청(2000년 4월 1일-2012년 10월 1일)

■ 실행선별정책(OSPs) 시사점

-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물 평가체계 하에서는 각 부처 또는 부서에서 기능·업무분석을 통해 책정되는 기록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사안에서 생산되는 기록일지라도 각기 다른 평가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 영구 보존해야 하는 특정한 사안 및 기능과 관련된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부처 및 기관의 기능에 따라 기록의 보존여부가 다르게 책정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특정한 사안 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영국 TNA의 OSPs를 벤치마킹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기록의 수집·평가에 반영하여 궁극적으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선별·수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영국 TNA의 OSPs는 단순한 공공기록(행정기록)의 영역을 벗어나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기록물들 수집을 함으로써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전 영역에서의 기록물 수집이 가능하게 함. 기록물으로써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있는 시각의 사회상을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

4) 웹 연속성 프로젝트(The Web Continuity project), TNA가 주도하는 웹 연속성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 사이트의 보관 및 웹 링크 관리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선택된 웹 사이트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영국 정부의 웹 아카이브(UK Government Web Archive)가 2003년 시작되었다.

- 영국 TNA의 OSPs는 사안별로 평가지침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실제 적용에 실효성이 있으며 기록물 평가업무 수행이 가능해짐
- 영국 TNA의 OSPs는 수집전략과 처분전략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수집업무와 평가업무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의 적용이 가능해짐으로 법국가적인 선별 체계의 기반이 마련됨
-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록물의 선정에 컨설팅이론 제도 운영을 통한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및 수집범위 확대로 국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집단)의 관점을 투영하는 거버넌스의 기틀을 마련함

OSP 영역	OSP 주제	카테고리
Centre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atters 중앙정부와 헌법	Ministry of Defence 1983-2014 appraisal report 국방부 1983-2014년 평가 보고서	기관
Environment 환경	British Coal Corporation (former National Coal Board) paper records 1947-2004 appraisal report 영국 석탄공사(전 국영석탄공사(NCB)) 1947-2004년 문서기록 평가 보고서	기관
Environment 환경	OSP1: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70-1979 환경부(1970-1979년)	기관
Environment 환경	OSP2: The Crown Estate, 1975-1985 영국왕립토지위원회(1975-1985년)	위원회
Trade and industry 무역과 산업	OSP3: Industrial policy, 1974-1979 산업 정책(1974-1979년)	정책
Environment 환경	OSP4: The use and conservation of the countryside for recreational purposes, 1974-1983 여가를 위한 시골의 이용과 보존(1974-1983년)	주제
Social and education 사회와 교육	OSP5: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security, 1979-1991 사회보장 관련 행정부(1979-1988년, 보건사회부장관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DHSS) → 1988-1991년, 사회부장관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DSS)기록)(1979-1991년)	기관
Law and order 법과 질서	OSP6: Records created by and relating to coroners, 1970-2000 검시관과 관련하여 생산된 기록(1970-2000년)	기관
Centre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atters 중앙정부와 헌법	OSP7: The Welsh Office 1979-1997 웨일즈 정부(1979-1997년)	기관
Centre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atters 중앙정부와 헌법	OSP7: Y Swyddfa Gymreig 1979-97	기관
Defence, security and intelligence 국방, 안보와 정보	OSP8: The Security Service 영국 안전정보국	기관
Financial matters 재정	OSP9: Fiscal policy 1971-1979 회계 정책(1971-1979년)	정책
Environment 환경	OSP10: Nature conservation in Great Britain 1973-1991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포함)의 자연보호(1973-1991년)	주제
Defence, security and intelligence 국방, 안보와 정보	OSP11: Nuclear weapons policy 1967-1988 핵무기 정책(1967-1988년)	정책

〈그림 5〉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대상 유형화

- TNA의 OSP의 7가지 유형은 기관(명), 정책, 위원회, 규제, 주제, 케이스 파일, 기록물 유형으로, 거시(주제)평가에서의 하향식 분석(Top-down)임에도 불구하고 범주의 층위가 일관적이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 OSP를 일정부분 상향식 분석(Bottom-up)을 통해 설정한 것으로 보임
- 기관(명)은 20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초기 OSP 1-8을 살펴보다도 6개가 기관(명)으로 설정되어 있음. 이것은 정책이나 주제선정에 있어 합의과정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하나의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기관내부에서 담당자들이 영구보존할 기록을 선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서 오는 용이함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짐
- 환경부는 OSP 1로 선정되어 추진됨. 이것은 연구팀에서 서울 로컬리티 기록화를 고민하는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여겨짐. 즉, 국가차원에서의 ‘공간’에 대한 기록화 사업이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할 수 있음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유형은 부서(명), 정책, 사업(명), 주제, 케이스 파일, 기록물 유형, 위원회로 크게 7가지 범주로 제시하고자 함

〈표 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대상 유형 및 세부 내용(안) 예시

유형	세부 내용(안) 예시
부서(명)	▣ 서울형 OSP(안): 00서울시장실(200?~200?) • 근거: 서울시정은 시장중심의 행정체계이다. 가장 중요한 핵심정책이 결정되고 각 정책의 구체적인 플랜이 기획되는 곳이므로~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받는 시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OPI)에 해당. 특히 000시장은 ~
정책	▣ 서울형 OSP(안): 도시개발정책 • 근거: 시정과 시민 삶의 밀접한 연관성, 서울시의 핵심 키워드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기에 들어섬으로 인해 경제성장과 도시개발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활력이 둔화되고 있으며 도시관리의 패러다임 또한 ‘개발’과 ‘재개발’에서 ‘재생(regeneration)’으로 전환되고 있음.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⁵⁾ • 서울시는 도시개발정책으로 뉴타운 개발정책> 도시재생정책으로 전환. 뉴타운개발붐과 더불어 빈민지역에 대한 정책적 사각지역의 피해상황에 집중 => 이와 관련해서 빈민지역 개발관련 기록물 집중 수집 => 뉴타운건설과정은 정책파일선별을 중심으로 등.

	▣ 서울형 OSP(안): 환경(오염)정책 • 근거: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등으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 절감. 특히 대기 오염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관심의 급부상. 서울시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도에 대한 상시 감시를 하고 있음. 대기오염도 상시감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예·경보제 운영은 물론이고, 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수송기관의 설치계획 등 시책입안과 시책시행 후의 평가 등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되고 있음. 또한 서울지역의 ‘생태계’ 구성에 있어 환경오염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임.
사업(명)	▣ 서울형 OSP(안): 주요 사업명(300억 이상) • 근거: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사업들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별도로 선정하여 시민들이 그 추진사항을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시행 → 정책실명제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① 시정운영 주요핵심과제 사업 ② 100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③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업 •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절차(예시) 선정 기준 통보 ↓ •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 마련 • 본부 및 소속기관 부서별로 선정기준 통보 중점관리 대상사업 제출 ↓ •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을 제출 - 국민적 관심 및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검토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부 대상사업 선정 * 위원회 구성 : 위원장(기획조정실장), 내부위원(사업관련 과장 6인) 및 외부위원(우리부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행정자치부의 정책실명제 선정절차〉 • 기록물관리법에서는 300억 이상의 대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함 → 300억 이상의 사업을 목록화(List up) 한 후에 내부적 논의를 거쳐 2-3개 선정함.
주제	▣ 서울형 OSP(안): 사회적 소수자 기록수집 • 근거: 사회적 소수자(성적 소수자, 이주·민노동자, 이주 배우자, 장애인, 주거취약계층(달동네), 노숙인, 노인가구 등)의 기록화는 공적 기록관리 체계에서 철저히 소외된 계층의 기록화이므로 서울기록원이 서울기록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더 나아가 ‘기억의 장’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요한 주제임. ▣ 서울형 OSP(안): 시 부서 웹사이트 (지속적) 수집 • 근거: 영국 OSP 27(UK central government web sites)주제는 TNA가 주도하는 웹 연속성 프로젝트(The Web Continuity project)로 정부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 사이트의 보관 및 웹 링크 관리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선택된 웹 사이트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2003년 영국 정부의 웹 아카이브(UK Government Web Archive)가 시작된 사례를 참조.

	▫ 서울형 OSP(안): 서울 로컬리티 기록화사업 모음 • 근거: 서울시 내부,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에서 서울의 로컬리티를 기록화해 온 다양한 사업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모아서 보여줌
케이스 파일	* 이외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통한 주제선정! ▫ 서울형 OSP(안):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개인이나 회사, 공동체에 대한 기록물을 수집. • 근거: 영국 OSP 30(Government and people: the interaction of the state with the citizen as documented in electronic case files and data sets)를 통해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에 대한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 세트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 참조
기록물유형	▫ 서울형 OSP(안): 사진 컬렉션 • 근거: 서울 기록화 사업의 대부분이 사진 유형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사진기록물을 특화시킴. 해외의 주립 아카이브(플로리다 주립기록관 등)의 경우에도 Special Collection으로 사진기록물을 수집함. * 예: 정보공개정책과의 서울시광장기록화사업, 도시계획과의 서울경관기록화사업 등

3.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항목 도출

3.2.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항목 도출

- 영국의 OSP 세부 지침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지침을 구성하는 항목요소를 개발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지침의 항목은 권한, 범위,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주요 테마,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과 기록물 처리 방법 제안사항 및 연구팀 제안사항으로 유관기관, 관련 협치기록, 관련 민간기록까지 포괄하여 세부지침 항목 요소를 도출함

〈표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 항목

필수 항목	명세	근거
1. 권한	실행 선별 정책은 공공기록의 선별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으로 기록물 이용자 또는 기록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경우, 검토되어 개정될 수 있음	TNA OSP 3. 산업정책 TNA OSP 9. 회계 정책 TNA OSP11. 핵무기 정책

5)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6)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활용되는 기재들을 '기억의 장'이라 명명함. 노라에 의하면, '기억의 장'이란 꼭 장소가 아니라 민족의 얘기가 스며든 국기, 노래, 행사장, 길거리 이름과 각종 기념동상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검토 또는 개정의 범위는 접수되는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2. 범위	지침영역이 수행한 기능에 대한 안내 지침의 영향을 받는 영역의 범위에 대한 안내 별도의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한 안내	TNA OSP 3. 산업정책 TNA OSP 9. 회계 정책 TNA OSP11. 핵무기 정책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생산부서는 ~법에 따라 일반적인 정책과 지원을 담당함. 직접적인 책임을 가지는 소속부서(과)에 가지는 책임 등을 언급함.	TNA OSP 3. 산업정책 TNA OSP 9. 회계 정책 TNA OSP11. 핵무기 정책
4. 주요 테마	관련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영역	TNA OSP 3. 산업정책 TNA OSP 9. 회계 정책 TNA OSP11. 핵무기 정책
5.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기록물 처리 방법 제안	선별주제 영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및 선별 영역과 삭제영역에 대한 안내	TNA OSP 3. 산업정책 TNA OSP 9. 회계 정책 TNA OSP11. 핵무기 정책 TNA OSP 30. 정부와 사람: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 TNA OSP 48. 케이스 파일
6. 유관기관	주제와 관련되는 유관기관	연구팀 제안사항
7. 관련 협치기록	관련 주제영역을 다루고 있는 협치 영역에서의 기록에 대한 안내	연구팀 제안사항
8. 관련 민간기록	관련 주제영역을 다루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기록에 대한 안내	연구팀 제안사항

- 이상에서 제안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지침은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여 최종 작성됨
 - 서울시 기록관(청도)에 있는 현재 서울시 기록물 현황분석
 - 서울시 기록화사업 현황조사(서울역사박물관, 서울시사편찬원 등 기록화 사업분석)
 - 민간부문(개인이나 공동체)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 정보소통광장 (이용)통계 자료 분석

3.3.소결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을 위해 우선적으로 영역을 설정하고자 연구를 진

행함. 영역의 설정은 상위 분류범주의 영역설정과 대상 유형의 도출을 중심으로 함

- 상위 분류범주의 영역설정은 정부 BRM의 15개 정책분야,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11개의 주제분류와 영국 TNA OSP의 8가지 범주를 매핑하여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일반행정(시정부), 주택·도시계획, 환경, 안전, 교육, 경제, 재정, 복지, 교통, 문화·관광, 보건 및 민간영역의 기록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영역을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상위 분류범주로 확정함
- 대상 유형의 설정은 영국 TNA OSP 60개를 분석하여 7가지 유형(기관(명), 정책, 위원회, 규제, 주제, 케이스 파일, 기록물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중간 유형을 부서(명), 정책, 사업(명), 주제, 케이스 파일, 기록물 유형, 위원회의 7가지 유형으로 확정함
- 또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세부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영국 TNA OSP0, OSP1, OSP3, OSP9, OSP 11, OSP30, OSP48을 살펴봄. 영국 TNA OSP 세부항목 분석을 통해 권한, 범위,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주요 테마,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및 기록물 처리 방법 제안 항목을 차용하고, 유관기관, 관련 협치기록, 관련 민간기록 항목을 연구팀 제안사항으로 구성하여 총 8가지 항목으로 확정함

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4.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과 특징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영역별-유형별로 개발될 수 있음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선정절차에 따라 선별지침의 유형이 확정되면, 유형에 대한 테마를 검토함
- 테마 검토과정을 통해서 테마를 선정하는 배경선정 이유를 확인하며,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안을 검토하면서 담당부서를 확인할 수 있음
- 영국 OSP의 경우 정책, 주제, 케이스파일, 부서, 사업(명), 기록물유형 등 6개를 편의적으로 대상 범주로 설정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정책’과 ‘주제’유형을 시범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침을 작성함
- 영국의 OSP 선별방식은 정책유형의 경우 OSP담당자가 정책을 선택하고 기록결정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선정되는 과정임. 또한, 케이스파일의 경우만 유일하게 플로우차트를 제공하여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프로세스를 제공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정책유형과 주제유형 모두 확정을 위한 사전검토 프로세스가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선정근거 산출 프로세스가 영국 OSP와 달리 좀 더 세밀한 과정을 거치기에 상대적으로 수집단계에서의 객관성을 더 확보 할 수 있음
-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 또는 주제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생산되는 기록의 유형을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함

4.2. 서울기록화 선별대상 확정

- 시범적으로 대상유형으로 정책 유형 및 사회 영역에 해당하는 선별대상을 상정함
 - 주택·도시계획 영역 - 정책 유형: 전통적으로 대표적인 시정부의 업무활동이 수행되며, 민간의 사회적·경제적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서울시와 서울시민 상호영향과 그 구조 및 변화상을 전달하기에 적합함
 - 사회 영역 - 주제 유형 : 시민의 직간접적인 참여가 중심이 된 시정부의 활동이며, 관련자(단체·개인)의 사회적·문화적 구조와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함

- 구체적인 시범 선별대상이 각 유형에 적합한지 검증하기 위한 유형별 검토사항과 결과는 아래를 참조
- 공통적으로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과 인문지리적 특수성, 보존 및 활용적 가치에 관련된 내용이 필요하며 개별적인 상세내용은 유형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

4.2.1. 정책 유형 검토사항 및 결과 :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 정책 유형의 경우 시정부, 시의회, 시민의 주요 관심대상인지, 영향도가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 실행되면서 관련 기록이 이미 이관, 수집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5〉 정책 유형 검토표

대상유형	정책	대상명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가 현 시정부의 역점정책(사업)인지 현 시정부 고위 선출직의 주요 공약사항인지		☐ 상 ☐ 중 ☐ 하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시의회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인지		☐ 상 ☐ 중 ☐ 하
	시정 업무에 전반적인 연관도가 높은지 일부 부서에만 해당되는 정책인지 또는 대부분 부서에 해당되는 정책인지		☐ 상 ☐ 중 ☐ 하
	일반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가 연도별 10대 뉴스 또는 별도의 인터뷰 조사 분석		☐ 상 ☐ 중 ☐ 하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사건 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 및 배경인지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 수성	행정구역 및 지명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인구의 증감, 이동 등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생활권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도시산업구조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자연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책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중 : 하 :

- 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가
 - 시장단 등 시정 핵심부에서 판단하는 주요 대상 포함 정도를 확인하는 사항
 - 현 시정부의 역점적인 정책에 포함되는지, 고위 선출직의 주요 공약사항인지를, 정책홍보물, 공약집 분석을 통해 검토
-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지
 - 정책연속성이 높은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시의회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인지

- 시의회 상임위, 의원실에서의 질의 및 발언내역, 자료요청내역 분석을 통해 검토
- 시정 업무에 전반적인 연관도가 높은지
 - 일부 부서 또는 대부분 부서에서 수행하거나 관련된 정책인지 확인하는 사항
 - BRM 현황, 별도의 업무분석 결과 등을 통해 검토
- 일반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가
 - 시민 개인들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추세를 확인하여 반영하는 사항
 - 연도별 10대 뉴스 또는 별도의 인터뷰 조사 분석 등을 통해 검토
-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한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서울시의 일반 업무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중요한 사회적 사건인 경우인지 확인하는 사항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을 통해 검토
- 사건 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 및 배경인지
 - 서울시 정책 변화에 원인 및 배경이 된 사건인 경우인지 확인하는 사항
- 행정구역 및 지명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행정구역 또는 지명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인구의 증감, 이동 등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인구 구성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생활권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생활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도시산업구조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각종 산업 비중과 연관관계 등의 구조적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자연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자연적 구성요소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문화적 공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사항
 - ※ 예를 들어, 한강고수부지는 자연 공간과 문화 공간의 특성을 모두 가짐. 한편으로 작은 단위의 문화 공간에는 특정 공연장, 운동장, 다방, 문화상업지구 등이 해당됨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정책의 영향으로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의 기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해당 정책이 수집되어 활용될 시에 유사업무 수행자, 전문가 집단, 학생 집단, 일반 시민 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사항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이미 해당 정책에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항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백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해당 정책의 취지, 내용, 참고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정리된 도서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항. 홍보용 웹페이지, 백과사전 항목과 같은 일반적인 웹 자료는 도서 자료에 비해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것
-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잠재적 수집대상물이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적인 이용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는 사항

- 본 시범적용시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의 정책 유형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6〉 정책 유형 검토결과 :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

대상유형	정책	대상명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 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가 - 현 시정부의 역점정책(사업)인지 - 현 시정부 고위 선출직의 주요 공약사항인지		■ 상 □ 중 □ 하
	•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시의회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인지		■ 상 □ 중 □ 하
	• 시정 업무에 전반적인 연관도가 높은지 - 일부 부서에만 해당되는 정책인지 또는 대부분 부서에 해당되는 정책인지		□ 상 ■ 중 □ 하
	• 일반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가 - 연도별 10대 뉴스 또는 별도의 인터뷰 조사 분석		■ 상 □ 중 □ 하
	•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 사건 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 및 배경인지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 행정구역 및 지명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인구의 증감, 이동 등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생활권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도시산업구조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자연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책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10 중 : 8 하 : 1

- 시범대상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은 정책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상정
 -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은 서울시 현 시정부의 역점정책이며 1960년대부터 진행된 도시계획, 주택문제 해결 정책의 일환이기에 정책연속성이 높음
 - 일반시민들의 주거문제에 관련되어 있기에 시 의회의 관심사항이기도 함
 - 정책 대상지역의 거주자 및 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가 매우 많고 다양하며 2009년 용산 참사, 2016년 옥바라지골목 사태 등 사회적 사건의 배경이었음
 - 중기적으로 인구이동, 생활권 변화에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며,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및 선거구의 변경, 도시산업구조 및 문화 공간의 구성, 서울시민의 정체성 변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높으나, 관련 부서 및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기에 집중적인 수집 및 연계정보 구축으로 이용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2.2. 주제 유형 검토사항 및 결과 : 서울거리예술축제

- 주제 유형의 경우 자체 연속성과 영향도가 높은지, 진행 및 참여 관련자가 많은지, 다양한 문화적 양상과 변화를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정책 및 부서와 같은 유형보다 시정업무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유형이기에 관련 기록이 미처 이관, 수집되지 않거나 미미할 가능성이 높음

〈표 7〉 주제 유형 검토표

대상유형	주제	대상명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 시정부 및 시의회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정기간 이상으로 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반시민 개인생활에 영향도가 높은지		☐ 상 ☐ 중 ☐ 하
	• 준비·진행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 해당 분야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자연/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일정기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표현하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 생활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책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중 : 하 :

- 시정부 및 시의회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지
 - 해당 주제가 현재 또는 과거 시정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지를 확인하는 사항
- 일정기간 이상으로 연속성이 높은지
 - 해당 주제의 연속성이 높은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일반시민 개인생활에 영향도가 높은지
 - 해당 주제가 시민 개인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도가 높은지를 확인하는 사항
 - ※ 다른 검토사항에 비해 주관적인 판단요소가 많기에 대상별 상대평가가 필요
- 준비·진행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해당 주제의 기획 및 수행에 있어 관련자가 많고 다양한지를 확인하는 사항
 - 관련자가 많고 다양한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해당 주제의 직간접적인 참여자가 많고 다양한지를 확인하는 사항
 - 참여자가 많고 다양한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을 통해 검토
- 해당 분야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해당 주제가 속한 분야 전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분야 전반의 변화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
- 자연/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주제의 영향으로 자연적 구성요소 또는 문화적 공간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그 변화와 관련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
 - ※ 예를 들어, 한강고수부지는 자연 공간과 문화 공간의 특성을 모두 가짐
 - 한편으로 작은 단위의 문화 공간에는 특정 공연장, 운동장, 다방, 문화상업지구 등이 해당 됨
- 일정기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표현하는지
 - 다양한 경우 그만큼 중요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며, 관련 기록자료가 풍부할 가능성이

높음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해당 주제의 영향으로 다양한 측면의 정체성 형성 및 변화의 기반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항
 -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 생활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 해당 주제 자체가 일상적인 생활 모습의 일부를 잘 표현하거나 내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항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해당 정책이 수집되어 활용될 시에 유사업무 수행자, 전문가 집단, 학생 집단, 일반 시민 등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사항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이미 해당 정책에 관련된 기록정보자료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보존하고 활용하고 있는지와 그 효과의 정도를 판단하는 사항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백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해당 정책의 취지, 내용, 참고사항 등이 전반적으로 정리된 도서 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사항. 홍보용 웹페이지, 백과사전 항목과 같은 일반적인 웹 자료는 도서 자료에 비해서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것
 -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해당 정책에 관련된 잠재적 수집대상물이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전자적인 이용가능성이 높은지 확인하는 사항
- 본 시범적용시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주제 유형 적합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8〉 주제 유형 검토결과 : 서울거리예술축제

대상유형	주제	대상명	서울거리예술축제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 시정부 및 시의회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정기간 이상으로 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반시민 개인생활에 영향도가 높은지		□ 상 □ 중 ■ 하
	• 준비·진행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 해당 분야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자연/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일정기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표현하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 생활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책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8 중 : 4 하 : 3

- 시범대상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주제 유형에 적합한 것으로 상정
 - 서울거리예술축제는 1994년 서울 정도(定道) 600년을 기념하여 제정된 ‘서울 시민의 날’ 행사를 기원으로 함
 - 2002년 월드컵 기간에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이 스스로 거리 응원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든 것에 착안해 2003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고 10월에서 5월로 옮겨 진행함
 - 2016년 행사명을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변경하고 매년 가을 9~10월에 열림. 매년 행사 기획과 세부 프로그램을 변경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공연예술, 현장창작예술, 심포지엄 및 세미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행사 전체의 주관을 서울시 및 서울문화재단에서 수행하기에 업무 관련성이 높으며 20년 이상 진행되었기에 연속성이 높은 편이며, 문화예술인과 일반시민의 참여도가 높은 행사임. 최근 들어 종합예술, 신흥 장르 및 조류의 반영도가 높으며, 중장기적으로 서울 시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음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높으나, 관련 부서 및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기에 집중적인 수집 및 연계정보 구축으로 이용가능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4.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정책 유형의 개발

4.3.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의 구성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정책분야의 주요 구성 및 구조는 영국의 OSP를 기본으로 하여 권한, 범위, 주요 테마 및 배경, 담당부서의 책임,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안 등을 도출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유관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협치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민간기록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정기록뿐만 아니라 민간, 협치기록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범위로 서울기록화 수집범위를 확장하여 설계함

- 세부 사항인 권한, 범위, 주요 테마 및 배경, 담당부서의 책임,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안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주요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은 앞서 살펴본 정책유형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선정과정을 분석하여 해당정책의 이슈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 함
- 이슈사항을 바탕으로 해당정책의 입안 배경 및 관련 정책의 존재여부 확인
 - 과거 해당정책과 유사한 정책(또는 사업)의 존재여부 검토
- 과거 정책(또는 사업)과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으로 선정된 정책의 연속성 여부 검토
 - 해당정책의 일회성 또는 연속성 확인
 - 연속적인 정책의 경우 정책의 변화과정 상세 검토
- 유사한 세부정책으로 판단되는 경우 정책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세부테마 확정
- 정책의 변화 및 유사성,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관련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방식으로 시기별로 테마를 확정
- 정책유형에 대한 테마는 선정한 정책의 변화 및 결정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선정 하며, 정책수립과 변화과정을 확인하여 생산되는 기록물을 파악함
- 정책의 변화과정을 단편적인 방식으로 기록화 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책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향후 업무활용 및 대시민 기록서비스에도 효과적임
- 향후 서울 기록화 선별지침으로 확정한 정책이 유사하게 변화(변경)되어도 선별지침의 테마를 추가하는 형태로 확장이 가능하며, 생산기록의 일부를 예측 가능한 동시에 수집대상 기록 또한 사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원활한 기록유형 파악 및 수집을 위해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의 협의과정이 요구됨

〈표 9〉 정책유형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

-
- (1) 정책유형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선정과정 분석
 - (2) 해당 정책이 나온 배경분석 및 유사 정책의 존재여부 검토
 - (3) 정책의 연속성 여부 검토
 - (4) 세부테마 확정
 - (5) 테마 선정과정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설명 작성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의 경우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은 테마와 배경설명을 바탕으로 보존·생산 기록물현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함
- 서울시의 현재 보존기록물현황은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 문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통해서 분석 가능함
- 이와 더불어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생산 또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 현황도 확인할 수 있음
-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분석은 선별지침의 테마로 선정된 세부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최근에 생산한 기록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임
- 서울시 또는 서울연구원, 서울정책아카이브 등의 정책보고서 및 기타자료를 활용하여 선별지침 테마로 선정된 세부정책과 관련한 관련기록을 확인 함
 - 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의 키워드 검색 후 관련 기록물철(건) 유형 및 보존기간, 담당부서 등을 확인 함
 - 〈표 11〉과 같이 정책보고서 및 기타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정책과 관련된 유관기관, 협치기구, 민간기록을 파악할 수 있음
 - 유관기관 파악은 정책의 입안 단계부터 정책을 집행하는 단계까지를 인터뷰 등을 통해 보강

〈표 10〉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시정기록) 과정

-
- (1) 테마와 배경을 바탕으로 현황분석
 - (2)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분석
 - (3)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을 통해 생산기록물 현황분석
 - (4) 정책보고서 및 기타자료 검토
-

- 해당 정책관련 유관기관 파악 → 해당 유관기관의 기록보유현황 파악
- 해당 정책관련 협치기구 파악 → 협치기구가 존재할 경우 기록보유현황파악
- 해당 정책관련 민간기록 파악 → 소장처 및 주요기록 유형파악

4.3.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의 구성 상세설명

주요테마와 배경 세부내용

■ ‘뉴타운 정책’의 배경

- 지난 반세기 동안 대한민국 특히 서울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으며, 한국전쟁의 복구와 산업화, 도시의 확장 및 신시가지 개발, 균형 발전과 성장인프라 확보 등 시대별로 각기 다른 모습과 방법으로 도시 공간이 개발됨
- 1970년대 이래 지속된 ‘도심집중 억제, 강남개발 촉진책’에 의하여 강남·강북 간 지역불균형 문제의 해소를 위해 시작되었으나, 서울의 강남·강북 불균형 문제가 중요한 도시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이며 2000년대부터 시작된 강남의 집값 폭등 이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본격화 되면서 뉴타운 정책이 등장함
- 서울시는 2002년 민선 3기를 맞아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2~2006년)을 수립하여 강북지역의 노후불량주택지를 계획적으로 정비하는 ‘뉴타운사업’을 도입하여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무분별한 뉴타운 설정과 공동체의 해체, 시민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뉴타운 사업은 전국을 불합리가 만연하고 고착화된 비정상적 사회로 만들
-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추출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었으며, 동네상권 붕괴, 전세가 폭등, 사회갈등은 증폭되어 서민들이 갈 곳이 없는 사회가 되었음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추진’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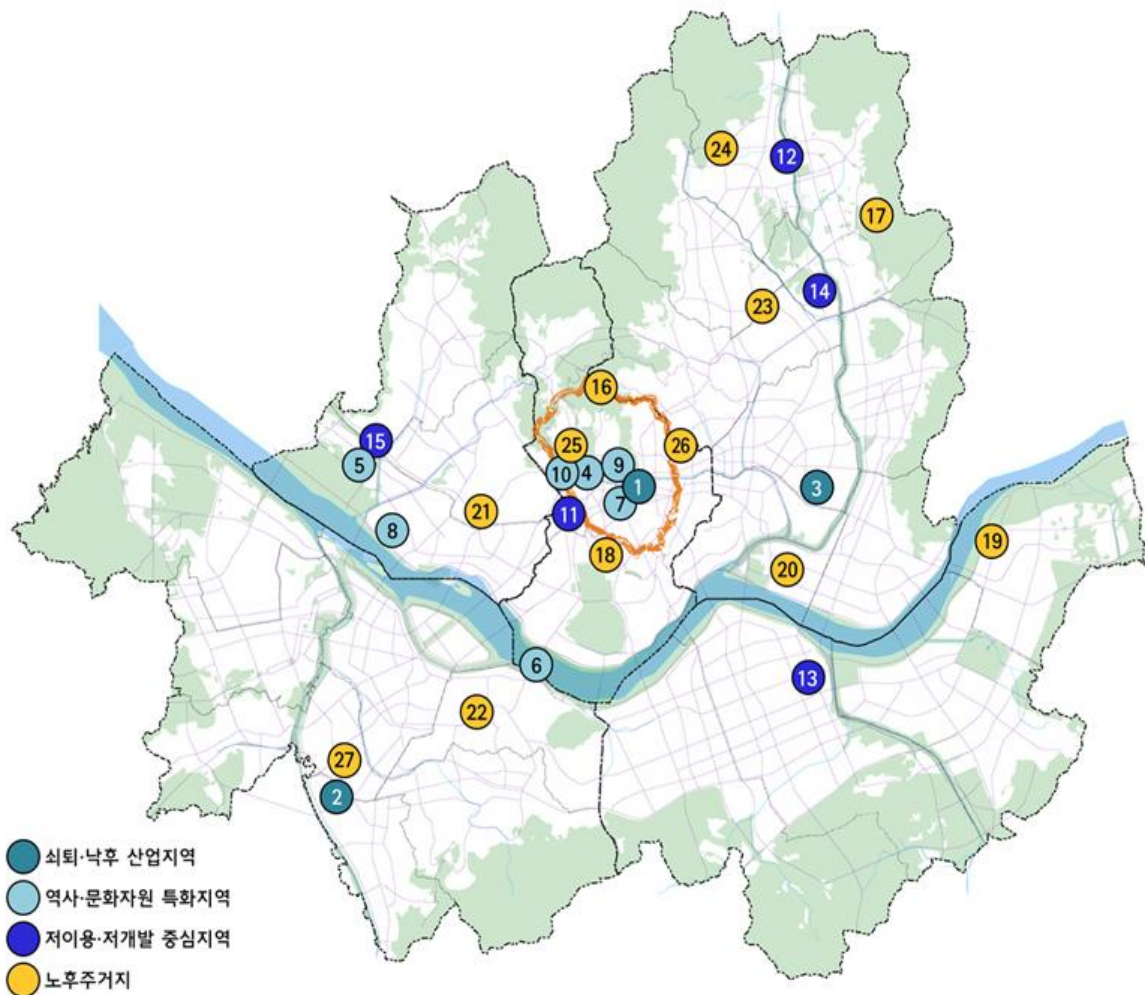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은 뉴타운 사업의 폐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2년 1월 발표된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추진’에서 시작됨

- 신정책구상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고 소유자 중심의 뉴타운·정비사업을 거주자 중심으로, 사업성과 전면철거 중심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전환함과 함께 세입자 재정착 가능 시스템 구축과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 관계없이 임대주택 공급, 동절기 등에 철거 금지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및 주거권 보장 강화에 앞장 서 추진하는 내용임
- 이를 위해 서울시가 이미 지정한 1,300개의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구역 중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61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866개 구역에 대한 갈등조정을 병행하고 시장과 구청장이 책임을 공유하면서 역할을 분담함
- 이후 2013년 4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에 대한 추진현황을 발표했으며,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서울의 도시재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함
- 지난 40여 년간 민간 주도의 철거재개발사업을 통해 물리적 환경만을 정비해오던 정책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주민과 함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정책구상 발표 이후 3년 동안 주민설명회 620회, 주민협의체 525회, 교육 105회, 실태조사관 활동 1,717회 등을 추진 함
- 그 결과 245개 구역을 주민 뜻대로 해제했고, 추진 주체가 있는 327개 구역에 대해서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진로를 결정하기로 함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계획
 -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 제고,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 지역공동체 회복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도시재생 종합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계획
 - 2014년 2월에는 ‘이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주거재생으로 계획’을 발표하여 철거중심의 뉴타운 사업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을 제시함

- 2015년 3월 사람이 중심인 도시를 위한 ‘서울형 도시재생 종합플랜’을 발표하여 실행력에 무게를 둔 서울시 최초의 종합적 재생계획을 추진
-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공간에 재생이 이루어져 왔지만 사람이 소외되고 서울의 자산과 미래 세대도 고려되지 못했기에 이를 반성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는 한편, 함께 만들고 함께 잘살고, 함께 행복한 100년 서울을 지향 함
- 이를 위해 <그림 9>과 같이 27개 선도지역⁸⁾을 선정하였으며, 선도 사업 지역은 쇠퇴·낙후 산업지역 3개소, 역사·문화자원지역 7개소,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노후주거지역 12개소 등 총 27개 지역을 선정함

7)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재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역 문제인식 및 공감 → 지역 미래상 설정 → 실행방안 마련’의 절차를 진행하여, 지역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제고해야 함. 과도한 사업내용 및 계획을 지양하여 사업 시행과정에서의 실행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과정 등을 충분히 거쳐 공감대 형성 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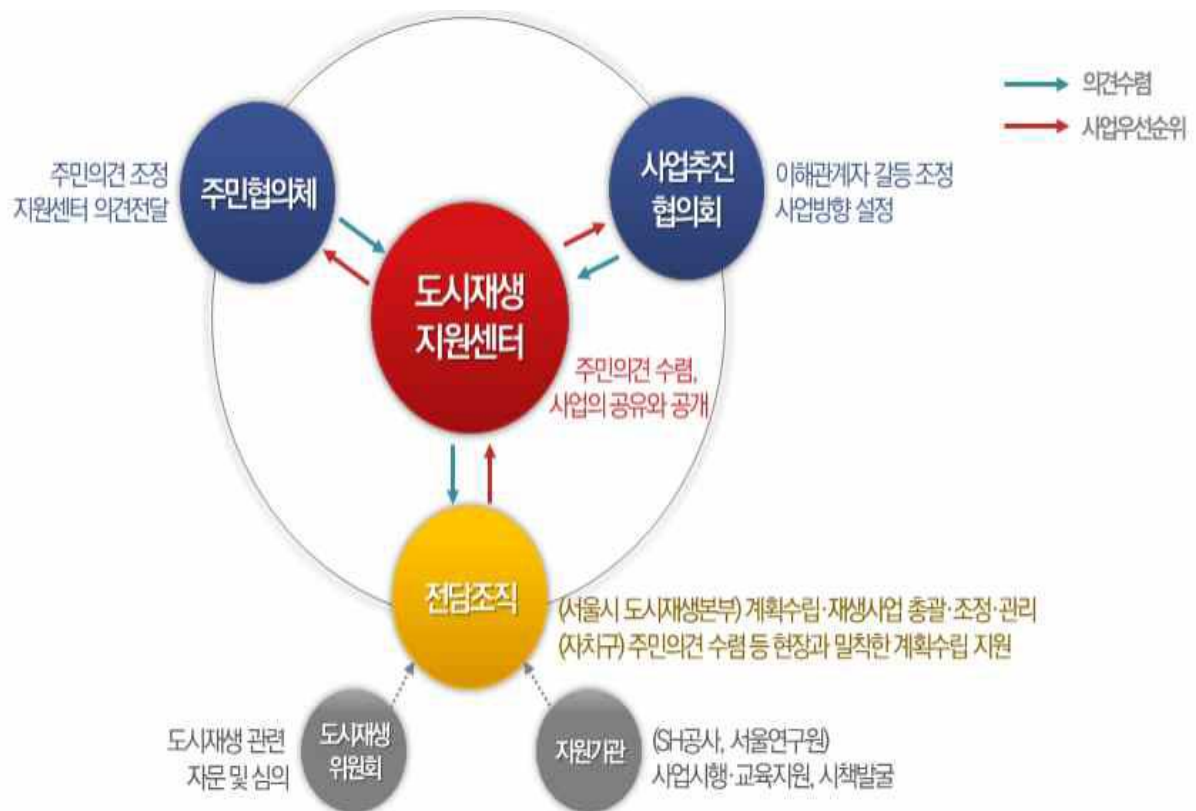
8) 출처: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848010>



쇠퇴·낙후 산업지역 3개소 624억원	1. 세운상가일대 도심산업 재활성화 2. 서남권 준공업 지역(G-Valley) 3. 장안평 일대 자동차산업 재생	노후 주거지 12개소 1조 31억원	16. 성곽마을 보전·관리(9개권역, 22개 마을) 17. 백사마을 주거지 보전 18. 해방촌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도시재생 19~23.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4개소) (암사1동, 성수1·2가동, 신촌동, 상도4동, 장위동) 24. 북한산 주변 주거지 관리 25. 역사문화의 보고 서촌 재생 26. 창신·송인 도시재생 선도지역 27. G-Valley를 품는 마을! 가리봉
역사·문화 자원 특화지역 7개소 2,560억원	4. 세종대로 일대 역사문화 특화공간 조성 5. 마포석유비축기지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 6. 서울과 한강의 미래를 꿈꾸는 노들섬 조성 7. 남산 예정자락 재생사업 8.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9. 낙원상가·돈화문로 주변 재생 10. 돈의문 역사문화공원 조성 (건축도시재생박물관 건립 등)		※ 노후주거지 예산에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포함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 5개소 463억원	11. 서울역 역세권 주변 재생 12. 창동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지 조성 13.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14. 광운대역 역세권 주변 재생 15. 상암DMC·수색 서북권 창조경제거점 육성		

〈그림 6〉 서울형 도시재생 27개 선도지역

- 27개 선도지역 중 서울 도시재생의 정착을 위해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 1개, 자치구(주민)공모지역 5개, 서울시 도시재생선도지역 7개로 구성된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도모델 13개소를 선정하여 우선 추진함
- 선도지역의 도시재생계획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전담조직, 지원기관, 도시재생위원회가 함께 실행주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는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을 추진⁹⁾



〈그림 7〉 서울형 도시재생 실행주체 구성

- 선도모델 13곳 중 주거환경개선과 관련되어 밀접한 연관이 있는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은 11곳이며 주거지 재생유형은 창신송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 암사, 장위, 상도, 신촌 등 8곳 임
- 이중 창신송인 선도지역은 2013년 10월,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2014년 4월, 국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5년 2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선도적으로 운영 중

9)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계획 중 뉴타운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노후주거지역(주거환경 개선)만을 대상으로 선정함.

〈표 12〉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11개소

근린재생형 (11개소)	중심시가지형	3. 세운상가 일대
		4. 낙원상가 일대
		5. 장안평 일대
	일반형	6. 창신송인 선도지역
		7. 가리봉 일대
		8. 해방촌 일대
		9. 성수동 시범사업
		10. 신촌동 시범사업
		11. 암사동 시범사업
		12. 창위 시범사업
		13. 상도4동 시범사업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 세부내용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는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함께 적용함
- 거시평가의 경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테마 선정절차를 걸쳐 생산이 예상·추정되는 기록물 유형 및 생산부서를 선정하는 것임
- 이를 통해 현재 생산되지 않는 기록물의 경우 생산을 강제 또는 유도하여 기록생산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가짐
- 미시평가의 경우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있는 서울시 기록물 현황(시정기록)을 분석 함
- 〈그림 11〉와 같이 비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현황분석은 해당 정책의 시행 및 종료 시기를 고려해서 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기록물철을 추출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철 명과 생산처리과를 확인함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35〉와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과, 토지관리과, 뉴타운총괄반, 뉴타운1담당관,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건축과, 시설계획과, 건축기획과, 재정비과, 뉴타운사업반, 자원순환담당관, 환경협력담당관, 뉴타운총괄반, 조경과, 재무과 등 총 17개임

평구진관외동,구파발동 일대)건축계획심의신청서, 소송관계철 등)

* 서울 서소문 문서고: 1,041개

· 3년: 1개 (감정평가서)

· 5년: 84개 (은평뉴타운민원관계철, 행정심판관계철, 은평뉴타운 홍보자료, 왕십리뉴타운 주민동향철,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 10년: 868개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안), 은평뉴타운 회의관계철, 은평뉴타운 구역 지정 관계철, 은평뉴타운 이주대책(수립근거), 뉴타운 기자촌 방침철, 은평뉴타운 주변공원내 철거민이주대책, 은평뉴타운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관계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

· 30년: 43개 (농지전용 협의철(은평뉴타운), 건축심의도면,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8) 등)

· 준영구: 23개 (뉴타운동향 보고관계철, 환경영향평가서 등)

· 영구: 22개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지속가능성 발전위원회 평가 회의,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왕십리뉴타운 등)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현황분석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을 분석하여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을 살펴며 앞서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확인 방식과 같이 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의 키워드 검색을 1차적으로 진행
- 또한 도시재생과 관련된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정책영역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서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방식도 추가
- <그림 12>과 같이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 77개 단위과제에 217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 됨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의 확인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단위과제를 확인한 것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 기록이 확인됨

1개 정책분야, 1개 정책영역, 2개 대기능, 2개 중기능, 4개 소기능, 46개 단위과제, 112개 단위과제 카드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	단위과제카드	단위과제 설명	생산부서	보존기간	핵심키워드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거버넌스, 직장 아카데미 운영, 현장시장실 등에 관한 업무	재생정책과	10년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거버넌스, 직장 아카데미 운영, 현장시장실 등에 관한 업무	재생정책과	10년	위원회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	직장아카데미운영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거버넌스, 직장 아카데미 운영, 현장시장실 등에 관한 업무	재생정책과	10년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도시재생지원기반조성	현장시장실 운영	도시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 거버넌스, 직장 아카데미 운영, 현장시장실 등에 관한 업무	재생정책과	10년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도시재생도달시스템구축	도시재생도달시스템구축	도시재생 사업의 통합적인 정보제공과 시민참여와 소통에 기초한 커뮤니티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재생도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업무	재생정책과	5년	도시재생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지구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및 자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주거사업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지구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주거사업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지구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위원회 예산관리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주거사업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지구관리	도시재정비위원회운영	지역균형발전위원회운영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	주거사업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지역 및 도시계획	도시계획관리	재정비지구관리	주거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운영	주거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사업계정운영	공공에서 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세입자대체비, 주거안전비 등을 융자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거사업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정비기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201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생활권 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에서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놀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주거재생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정비기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202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생활권 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에서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놀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주거재생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정비기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생활권 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에서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놀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주거재생과	10년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정비기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도시재생이야기 책자발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생활권 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에서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놀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주거재생과	10년	출판	
지역개발	지역 및 도시	주택건설	도시주거환경정비	도시정비기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	저층주거지관리 및 재생모형 개발운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생활권 별 정비보전관리, 방향에서 주거환경관리계획, 생활기반시설계획, 놀이관리계획, 특성관리계획 등의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주거재생과	10년		

<그림 9>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_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이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46개 단위과제, 112개 단위과제 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임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현장시장실 운영,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두레주택 운영 및 관리, 마을주민대표 운영관리, 대안사업 실행방안 연구관리, 저층주거지 관리 및 지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제도정비, 강제철거예방대책추진, 재건축계획협의, 정비사업갈등관리운영, 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 정비구역현장조사운영, 정비사업코디네이터운영, 갈등조정관운영 및 갈등중재,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실태조사관 운영,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주택재건축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운영 등

-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31개 단위과제, 105개 단위과제 카드로 아래와 같은 유형의 기록이 확인됨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 가재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아현 뉴타운, 은평지구, 2차 뉴타운 사업추진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재정비촉진법령 및 제도개선,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의 등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아래 <그림 13>과 같이 대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이며, 공개가 가능한 부분은 도시재생사업 관련 회의 종류의 개최 알림 또는 일부 회의참석비용 경비 지급 등의 기록으로 한정됨

'도시재생' 검색결과 (72,345건)

장학도순
최신순
조회순
15
50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조회수: 0 | 2016-12-13

도시재생 정책확산을 위한 홍보강화

박준현

결정·기타 속속경보 > 서울의 재정

서울 도시재생 포털 오픈심의 요청 조회수: 2 | 2016-12-10

부분공개 서울 도시재생 포털 오픈심의 요청

재정정책과 김보경

주최·도시개발 결재문서 > 결재문서 목록

강북구 도시재생 TF 회의 결과 보고 조회수: 11 | 2016-12-07

강북구 도시재생 TF 회의 결과 보고

주최·도시개발 결재문서 > 결재문서 목록

'뉴타운' 검색결과 (21,021건)

장학도순
최신순
조회순
15
50

한남 뉴타운 조회수: 35 | 2015-09-11

비공개 비공개 문서입니다.

주거사업과 조원길

결정·기타 결재문서 > 결재문서 목록

한남 뉴타운 조회수: 10 | 2015-09-11

비공개 비공개 문서입니다.

주거사업과 조원길

결정·기타 결재문서 > 결재문서 목록

한남 뉴타운 조회수: 4 | 2015-09-11

비공개 비공개 문서입니다.

주거사업과 조원길

결정·기타 결재문서 > 결재문서 목록

문서 설명

비공개 문서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해당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비공개 세부 기준안내

문서 정보

공개구분	비공개		
비공개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		
분류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계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	이광구
전화번호	2133-7166	등록일	2014-09-04
저작권		생산일	2014-09-03
보존기간	10년		

<그림 10>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도시재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을 통해 '도시재생 종합계획' 테마에서 협치기관인 도시재생

지원센터 및 도시재생 민간전문가의 활동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수집 가능한 협치 기록 및 시민기록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음

- 유관기관 기록(서울연구원 및 SH공사, 자치구)
 - 유관기관의 기록파악은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기록을 확인한 후 관련기관의 정보목록확인 및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함
 -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기록의 내용을 알 수 있음
 -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과 가장 연관이 있는 유관기관은 정책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서울연구원과 SH공사, 해당 자치구로 확인됨
- 서울연구원
 - 서울연구원은 도시재생정책의 입안을 위한 분석자료 및 기록을 보유(정책보고서 등)하고 있음
 - 서울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연구 및 정책보고서 등으로 아래 <표 15>과 같음

<표 14> 서울연구원 도시재생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6)
 -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2007)
 -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2009)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10)
 -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11)
 -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2011)
 -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2011)
 -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2014)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2014)
 -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 방안 연구(2016)
 - 정책리포트(홈페이지) : 주택 재건축의 또다른 대안 : 도시형 타운하우스(2007),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2016)
 -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사진기록
 - 사진으로 본 서울 > 컬렉션 > 서울의 주거지 변화 : 9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되어 있음(길음뉴타운, 봉천동 주거지, 은평 뉴타운 등)¹⁰⁾
-

10) <http://data.si.re.kr/collection/view/413>

● SH공사

- SH공사의 경우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한 집행업무를 담당하여 관련 기록을 생산 보유하고 있음
- 주요 생산기록은 주택건축(아파트 등)과 관련한 기록으로, 기록물유형 파악은 SH공사의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표 16>과 같음

※ SH공사와 관련된 세부기록 유형 현황 파악은 추후 실제 수집단계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함

<표 15> SH공사 도시재생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 SH공사 주거재생관련 단위과제
 - 도시재생본부 관련철
 - 갈산지구
 - 길음5 재정비 촉진구역
 - 리모델링
 - 수색중산지구
 - 임대주택 8만호
 - 재개발, 재건축 업무
 - 토지임대주택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등)
 - 정보소통광장 기록물건
 - SH형 주거재생모델 구축 계획(안)
 - SH형 주거·도시재생모델 설명회
 - 뉴타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 SH공사 도시재생 사업참여계획(안) 검토보고
 - 도시재생 공동포럼
-

● 자치구

- 자치구의 경우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작·간접적인 기록을 생산하고 있음
- 특히 뉴타운개발과정에서 자치구에서 생산된 기록은 민원관련기록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모사업기록이 있음
- 주민의견수렴, 현장과 밀착한 계획수립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록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보소통광장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치구 기록물은 ‘창신승인 도시재생 마을탐방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시행(공개), 창신승인 도시재생선도지역내 『안전안심 골목길 조성공사』 설계변경(1회) 시행(바공개)’ 등으로 제한적임

■ 협치기관 기록

- 도시재생(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한 협치기록은 서울형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11개소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함
-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은 역할을 수행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 도시재생 관련 홍보
 -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 11개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중 주거지 재생유형 8곳의 인터뷰를 및 방문을 통하여 주민협의체관련 기록 등을 수집할 수 있으나, 현재 사업이 초기단계인 관계로 선도지역인 창신송인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치기록 및 민간 기록의 유형(종류)파악 후 수집 추진
-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확인·수집가능한 협치기록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활동하는 공동체 코디네이터의 활동기록으로 이 기록들은 별도로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임
- 향후 마을박물관 등을 설치하여 관련기록을 수집할 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확정되지 않았음
-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확인·수집 가능한 협치기록은 아래 <표 17>과 같음

<표 16>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 공동체 코디네이터 생산기록 유형
 - 희망지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 희망지사업 소식지 기획 및 발간
 - 희망지사업 역량강화 스터디 기획
 - 희망지사업 종합 모니터링 관리 및 계획 수립
 - 희망지사업 교육
-

-
- 도시재생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
 - 희망지사업 아카이브 구축 기획
 - 현장재생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자료 기획 및 작성
 - 공동체 코디네이터 활동기록일지
-

■ 민간기록

-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선별지침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뉴타운사업 시기에
는 갈등과 관련된 시민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예상 됨
- 뉴타운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이탈하게 된 원주민들의 민간기록은
다음과 같으며
 - 전국철거민연합회 관련기록
 - 용산참사 백서
 -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 뉴타운 재개발 신정책추진과 도시재생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생산되는 민간기
록은 주민자치기록 및 협의체 기록으로 확인됨
 - 주민협의체 회의록
 - 주택수리협동조합 회의록
 -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경과자료
 - 주민이 만드는 마을재생 매거진
 - 주민자치기록 영상 및 라디오 방송 파일 등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추진과 관련된 민간기록은 추후 수집 실행과정에서 적
극 조사가 요구됨

〈표 17〉 도시재생관련 민간기록 현황

-
- 전국철거민연합회 관련기록
 - 용산참사 백서
 -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의록
 - 주민협의체 회의록
 - 주택수리협동조합 회의록
 - 도시재생사업 사업추진경과자료
 - 주민이 만드는 마을재생 매거진
 - 주민자치기록 영상 및 라디오 방송파일 등
-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상세설명

- 내용
 1. 권한
 2. 범위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4. 주요테마 및 배경
 5.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 방법
 6. 유관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7. 협치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8. 민간기록
 9. 부속서

1. 권한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은 서울시의 도시재생 정책영역에 적용되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의도를 수집하려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수집 지침문에 기술된 컬렉션 테마는 각 부서의 기록물에 적용한다.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은 공공기록의 선별을 위한 작업도구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기록물 이용자 또는 기록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침의 이용에 있어서 부서의 경험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 및 새로운 핵심 데이터 개발로 인하여 개정될 수 있다.
- 공식적인 검토주기는 없지만 수정·변경 의견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검토 또는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2. 범위

- 이 정책은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가 수행한 도시재생 정책기능을 다루며, 향후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 획득될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기술은 아니지만 수집 작업 및 검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정기록물은 현재 서울시 기록관 및 관련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관기록은 유관기관(서울문화원, SH공사, 자치구 등)에, 협치기록은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 보관되어 있다.
-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선별지침은 관련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의미하며, 2002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¹¹⁾

- 2002년 7월 뉴타운사업을 담당하던 서울시 부서는 별도 조직으로 설립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설립 당시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지역계획반, 재래시장대책반, 지역발전사업반의 3개 반으로 도시계획국 산하에 있는 조직으로 출발하였다. 이후 뉴타운사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부시장 직속 체제로 변경하였고, 주택국을 협조부서로 지정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 체제로 정비하였다.
- 지역균형발전추진단은 2004년 2월 뉴타운사업본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2차 뉴타운과 함께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역계획반을 촉진지구사업반으로 개편하였다. 뉴타운총괄반은 12개의 2차 뉴타운지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조정팀, 시설계획팀, 계획관리팀 등 3개 팀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2006년 7월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뉴타운사업본부도 같은 해 8월 균형발전본부로 개편되었다. 균형발전본부는 도심활성화기획관과 뉴타운사업기획관으로 구분되는데, 기존에 있던 뉴타운 총괄반이 사라지고 뉴타운사업기획관 내에 3개의 담당관을 두고, 산하에 1~7팀의 의 사업팀 체제로 전환하였다.
- 2012년 이후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도시재생본부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재생본부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주거환경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역사문화도심 활성화 등의 기록을 생산할 책임이 있다.

11) 출처: <https://seoulsolution.kr/ko/node/3058>

4. 주요테마 및 배경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문은 서울기록원의 향후 평가 및 선별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 수집 테마를 설명하고 있다.
- 다음 테마와 배경은 서울기록원에서 수행하는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정책 기능에 관련이 있다.

• 뉴타운 개발

‘뉴타운 개발’은 서울 강남·강북간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및 서울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정책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뉴타운 설정과 공동체의 해체, 시민간의 갈등이 확대되는 문제를 남기기도 하였으며,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원주민이 추출되고 마을공동체가 해체되었다.

• 뉴타운 재개발 신정책

‘뉴타운 재개발 신정책’은 뉴타운 사업의 폐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에 따라 기존 뉴타운 정책의 수습방안 제시한 정책이었다. 신정책은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 관행을 바꾸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거주자중심으로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중심을 하였다.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계획

2014년 2월 ‘이제는 뉴타운을 넘어 도시주거 재생으로’ 계획 발표에 따라 철거중심의 뉴타운 사업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책이 제시되었다. 도시재생 종합계획은 「도시재생특별법」에 근거하여 수립한 법정계획으로 서울형 도시재생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담고 있다.

5.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처리 방법

-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있는 현재 서울시 기록물 현황(시정기록) 키워드분석(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한 비전자기록 생산 현황 및 생산처리과 확인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 키워드분석(도시재생, 뉴타운,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을 확인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검토하여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영역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서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방식 추가

■ 시정기록의 유형(기록물철)

● 보존기간 30년 이상

- 길음뉴타운 환경색채 및 광고물계획, 2005년17차 은평뉴타운2지구 B공구건설공사(대지 위치: 은평구진관외동,구파발동 일대)건축계획심의신청서, 소송관계철,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자숙가능성 발전위원회 평가회의, 뉴타운개발 기본계획 왕십리뉴타운, 민원처리(왕십리 뉴타운), 정착률(길음뉴타운), 개발 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길음뉴타운), 개발계획(은평뉴타운)(2), GB해제(은평뉴타운), 뉴타운지구지정신청협의, 행정심판청구사등(문화, 뉴타운), 2005년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철, 뉴타운지구지정신청 검토관계철 (수용재결신청서)왕십리뉴타운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005년 집행정지신청 관련철 문화, 뉴타운(3-1), 천호뉴타운 관계철, 농지전용 협의철(은평뉴타운), 건축심의도면, 뉴타운사업의 원주민 재정착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11.8),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 가재울 뉴타운, 노량진 뉴타운, 미아 뉴타운, 아현 뉴타운, 은평지구, 2차 뉴타운 사업추진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재정비촉진법령 및 제도개선, 재정비촉진사업종합계획수립, 도시건축공동위원회심의 등

● 보존기간 10년 이하

- 은평뉴타운3-2지구 도시개발사업 감정평가자료<토지>, 은평뉴타운3-2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등기부등본, 은평뉴타운 제1지구 협의성립 확인신청(SH공사),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1(2지구), 은평뉴타운사업지구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계획(안), 은평뉴타운 회의관계철, 은평뉴타운 구역지정 관계철, 은평뉴타운 이주대책(수립근거), 뉴타운 기자촌 방침철, 은평뉴타운 주변공원내 철거민이주대책, 은평뉴타운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인가관계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미아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안협의회신,종합정밀점검(길음뉴타운 래미안9단지 등15개소), 왕십리뉴타운 관계철, 뉴타운추진협의회, 은평뉴타운민원관계철, 행정심판관계철, 은평뉴타운 홍보자료, 왕십리뉴타운 주민동향철, 서울시 뉴타운사업 7년간의 기록,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감정평가서,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현장시장실 운영,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 시범사업, 두레주택운영 및 관리, 마을주민대표 운영관리, 대안사업 실행방안 연구관리, 자충주거지 관리 및 지원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제도정비, 강제철거예방 대책추진, 재건축계획협의, 정비사업갈등관리운영, 갈등조정코디네이터운영, 정비구역현장 조사운영, 정비사업코디네이터운영, 갈등조정관운영 및 갈등중재, 갈등조정위원회운영, 실태조사관운영,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 주택재건축종합설립추진 위원회 운영 등

-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 수행하면서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기록을 확인

〈표 18〉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도시재생(주거환경 개선)

테 마	배 경	담당부서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처리 방안 ¹²⁾
뉴타운 정책	2002년 ~ 2011년까지 서울 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된 재건축·재개발 정책 지역불균형 문제 해소 노후불량주택지 발전 역세권 개발 및 도시개발 재건축 균형발전 ▶ 뉴타운 정책추진은 주거환경 개선(주거지형) 만을 대상으로 함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과, 토지관리과, 뉴타운총괄반, 뉴타운1담당관,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3담당관, 건축과, 시설계획과, 건축기획과, 재정비과, 뉴타운사업반, 자원순환담당관, 환경협력담당관, 뉴타운총괄반, 조경과, 재무과	뉴타운 건설과정은 정책파일선별을 통해 문서화, 뉴타운 건설의 폐해 사실에 대한 기록은 상세히 기록화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기에 제외 · 1,2,3차 뉴타운 사업추진 및 관리 ·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운영 · 뉴타운사업 운영 · 시범뉴타운 사업추진 및 관리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10년 미만 보존기록으로 재검토 · 뉴타운 재개발 대안사업 관리 · 정비사업 실태조사 민원관리 ·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관련된 민원처리 기록 · 뉴타운과 관련된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 (문서고) 2004년~2006년 생산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도시계획관련 자치구 협의 등 ▶ 전국철거민연합회(뉴타운 정책추진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이탈하게 된 원주민들의 관련기록(시민기록)을 수집),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뉴타운 실태조사, 재개발·재건축 대책위원회, 철거민대책위원회, 뉴타운 사업의 폐해(용산참사 등) 등과 관련된 시민기록은 적극 수집 ▶ 뉴타운 재건축·재개발 등과 관련된 유관기관 기록은 적극 수집(서울연구원, SH공사, 자치구 등)
뉴타운재개발 신청책 추진	뉴타운 사업의 폐해로 인하여 2012년 1월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에 따라 기존 뉴타운 정책의 수습방안 제시	주거재생과, 재생지원과, 주거사업과	뉴타운·재개발 신청책변화 과정 및 정책변화의 의사결정과정 등에 대한 연구 등은 상세히 문서화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기에 제외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구상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실태 조사관 활동 실태조사 후속 6대 지원대책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추진 은 주거환경 개선(주거지형) 만을 대상으로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등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10년 미만 보존기록으로 재검토 ·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 · 뉴타운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 뉴타운지구 해제 추진계획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간담회 · 주민설명회, 주민협의회 등 ▶ 뉴타운-재개발 신정책 추진과 관련된 시민기 록은 적극 조사
서울시 도시재 생 종합계획	2014년 2월 '이제는 뉴타운 을 넘어 도시주거 재생으로' 계획 발표에 따라 철거중심의 뉴타운 사업 폐해를 극복하고 지역주민과 이웃이 주체가 되 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 정 책 제시 사회적 약자 소외와 주민공동 체 와해 극복 정통성 및 역사성 장소의 보 존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노후 주거지역(12개) 선정 ▶ 서울시 도시재생 종합플랜 에서 제시된 도시재생 유형 중 '저이용-저개발 중심지역'과 '쇠퇴·낙후산업지역, 역사·문화 자원 특화지역'을 제외하고 주 거환경 개선(주거지형) 만을 대상으로 함	재생정책과, 재 생지원과, 주거 환경개선과, 주 거재생과, 재생 협력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진행과정 에 대해 상세히 기록화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기에 제외 · 도시재생법관리 · 도시재생전략계획관리 ·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 북한산 주변버층주거지 도시재생사업 · 창조적 정비계획수립 및 추진 등 · 주거환경 관리사업 운영 등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10년 미만 보존기록으로 재검토 ·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 도시재생 위원회 운영 · 현장 시장실 운영 · 도시재생 이야기 책자 발간 · 도시계획을 통한 도심 활성화 · 갈등조정위원회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운영 · 정비사업 주민상담 · 정비사업 현장지원 민원관리 ·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등 ▶ 도시재생지원센터(주민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 는 협치 공간)의 기록 중 뉴타운 사업재검토, 갈 등조정, 실태조사, 주거환경개선, 주민설명회, 주 민협의체 등과 관련된 협치기록과 시민기록의 경 우 우선 수집

			▶ 도시재생 종합플랜과 관련된 유관기관(서울연구원, H공사, 자치구 등)의 기록 연계방안 모색
--	--	--	--

6. 유관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 유관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선별된 시정기록 및 정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확인
 - 서울연구원, SH공사, 자치구 등
- 해당기관 사전 조사 및 정보목록확인(홈페이지 등)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자치구 등)
-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인터뷰를 통한 기록생산·보유 현황 파악

● 서울연구원 수집대상기록물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2006),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 활성화방안 연구(2007), 서울시 주거환경실태와 주택정책방향 연구(2009),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과제(2010), 뉴타운사업의 단계적 시행방안 연구(2011),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주거지 밀도관리(2011), 지역기능 활성화를 위한 기능순응형 도시재생수법 연구(2011),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의 실태조사 분석 연구(2014),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의 대응과제와 방향(2014), 서울시 주거재생 지원모델의 실행 방안 연구(2016), 주택 재건축의 또 다른 대안 : 도시형 타운하우스(2007), 주거지 재생사업 교통계획의 역할(2016),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사진기록 등

● SH공사 수집대상기록물

- 도시재생본부 관련철, 갈산지구, 길음5 재정비 촉진구역, 리모델링, 수색증산지구, 임대주택 8만호, 재개발, 재건축 업무, 토지임대주택 공동체주택(협동조합 등), SH형 주거재생모델 구축 계획(안), SH형 주자도시재생모델 설명회, 뉴타운 재개발임대주택 공급, SH공사 도시재생 사업참여계획(안) 검토보고, 도시재생 공동포럼, 도시재생 공모사업 등

12) 기록물의 상세유형은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법을 참조

- 자치구 수집대상기록물
 - 뉴타운사업관련 기록, 도시재생과 관련한 자치구 공모사업기록, 주민의견수렴기록 등

7. 협치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 협치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선별된 시정기록 및 정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협치기관 확인
 - 도시재생지원센터
 - 해당기관 사전조사(기관의 기능 및 역할 분석)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을 통한 협치기관 기록 분석
 - 인터뷰를 통한 기록생산·보유 현황 파악
 - 도시재생지원센터 수집대상기록물
 - 희망지사업 모니터링 및 지원, 희망지사업 소식지 기획 및 발간, 희망지사업 역량강화 스터디 기획, 희망지사업 종합 모니터링 관리 및 계획 수립, 희망지사업 교육, 도시재생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 희망지사업 아카이브 구축 기획, 현장재생지원센터 근무자 교육자료 기획 및 작성, 활동기록 일지 등

8. 민간기록

- 민간기록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해당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만들어진 민간조직 현황 파악
 - 협치기관 인터뷰를 통한 민간기록 현황 파악
 - 민간기록 수집대상기록물
 - 전국철거민연합회 관련기록, 용산참사 백서,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의록, 주민협의체 회의록, 도시재생사업사업 추진경과자료, 주민이 만드는 마을재생 매거진, 주민자치기록 영상 및 라디오 방송 파일 등

9. 부속서

〈표 19〉 부속서 : 정책 유형 검토표

대상유형	정책	대상명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 시정부의 주요 활동에 포함되는가 - 현 시정부의 역점정책(사업)인지 - 현 시정부 고위 선출직의 주요 공약사항인지		☐ 상 ☐ 중 ☐ 하
	•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책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시의회에서의 주요 관심사항인지		☐ 상 ☐ 중 ☐ 하
	• 시정 업무에 전반적인 연관도가 높은지 - 일부 부서에만 해당되는 정책인지 또는 대부분 부서에 해당되는 정책인지		☐ 상 ☐ 중 ☐ 하
	• 일반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인가 - 연도별 10대 뉴스 또는 별도의 인터뷰 조사 분석		☐ 상 ☐ 중 ☐ 하
	• 이해관계자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 사건 자체가 어떤 정책의 변화를 가져온 원인 및 배경인지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 수성	• 행정구역 및 지명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인구의 증감, 이동 등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생활권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도시산업구조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 자연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백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중 : 하 :

4.4.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주제 유형의 개발

4.4.1.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구성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주제분야의 주요 구성 및 구조는 국의 OSP를 기본으로 하여 권한, 범위, 주요 테마 및 배경, 담당부서의 책임,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안 등을 도출함
- 정책분야의 선별지침과 동일하게 유관기관(명) 및 수집기록물, 협치기관(명) 및 수집기록물, 민간기록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시정기록뿐만 아니라 민간, 협치기록의 영역까지도 포괄하는 범위로 서울기록화 수집범위를 확장하여 설계함
- 세부 사항인 주요 테마 및 배경, 담당부서,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처리방안의 도출 결과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침

주요테마 및 배경설명

-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은 앞서 살펴본 주제유형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선정과정을 분석하여 해당주제의 이슈사항을 우선적으로 확인 함
- 이슈사항을 바탕으로 해당주제가 나온 배경을 분석하여 관련 사업의 존재여부 확인
 - 과거 해당주제와 유사한 사업의 존재여부 검토
 - 현재 해당주제 관련사업의 변동 사항 체크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으로 선정된 주제의 연속성 여부 검토
 - 해당주제의 일회성 또는 연속성 확인
 - 연속적인 주제의 경우 사업의 변화과정 상세 검토
- 유사한 세부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변화과정을 통하여 세부테마 확정
- 위의 과정을 통해 사업의 변화 및 유사성, 연속성이 확인된다면 관련사업의

변화과정을 살필 수 있는 방식으로 시기별로 테마 확정

- 주제에 대한 테마는 선정된 주제의 변화 및 결정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함
- 이러한 방식은 사업의 변화과정을 단편적인 방식으로 기록화 하는 것에서 벗어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여 향후 업무활용 및 대시민 기록서비스에도 효과적임
- 단, 축제관련기록의 경우 과거 보존기간이 5년 미만의 기록이 다수 존재하여 시정기록을 수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 향후 원활한 기록유형 파악 및 수집을 위해 관련 부서 업무담당자의 협의과정이 요구됨

〈표 20〉 주제분야 테마선정 및 배경설명 도출과정

-
- (1) 주제유형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선정과정 분석
 - (2) 해당 주제가 나온 배경분석
 - (3) 주제의 연속성 여부 검토
 - (4) 세부테마 확정
 - (5) 테마 선정과정 검토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설명 작성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

- 시정기록의 경우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를 통해 담당부서를 확인하고 테마와 배경설명을 바탕으로 보존·생산 기록물현황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함
- 서울시 보존기록물현황은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 문서고)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분석함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분석을 통해 현재 생산 또는 보존되고 있는 기록물 현황을 검토함
- 정보소통광장을 통한 분석은 선별지침의 테마로 선정된 세부정책과 관련하여 현재 또는 최근에 생산한 기록물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서울문화재단 및 언론기사를 활용하여 선별지침 테마로 선정된 세부사업과 관련한 기록을 확인 함
- 서울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등의 키워드 검색 후 관련 기록물철(건) 유형 및 보존기간, 담당부서 확인

- 정책유형의 선별지침과 같이 <표 31> 사업보고서 및 기타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해당주제와 관련된 유관기관, 협치기구, 민간기록을 파악할 수 있음
- 유관기관 파악은 <표 32>와 같이 해당 사업의 입안 단계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를 인터뷰 등을 통해 보강
- 단, 주제유형 선별지침의 경우 협치기관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시민 기록의 경우 개별적으로 생산될 수도 있음

4.4.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 구성 상세설명

주요테마와 배경 세부내용

■ 서울시민의 날

- 서울 정도(定道) 600년을 기념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 서울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1994년 제정됨
-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시민, 전문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한양 천도일인 10월 28일을 '서울 시민의 날'로 정하기로 결정, 시의회 의결을 거쳐 1994년 10월 25일 조례 제3121호로 공포함
- 제1·2회 시민의 날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인해 간단한 기념식만 가졌고, 1998년 제5회 행사 때 각계 시민 대표 40명으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 자율축제로 발전시킴
- 주행사로 시민의 날을 상징하는 서울드림페스티벌, 미디어시티 2000 등을 개최하는데, 개막길놀이, 거리축제, 사물놀이, 세계의 북소리 공연 등이 함께 펼쳐졌으며, 그 밖에 서울시 열린 문화 마당, 조선시대 과거시험 재현, 명성황후 가례 재현, 무형문화재 대축제 등 기존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 다채로운 시민의 날 행사를 마련해 추진하였음

■ 하이스쿨페스티벌

-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에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이 스스로 거리응원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든 것에 착안해 2003년부터 행사명을 변경함
- 2003년은 10월에서 5월로 행사기간을 변경하였고 이후 대부분 10월 또는 5

월에 행사를 진행함

-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이라는 민간조직이 구성되어 행사 조직위원회의 기획운영에 참여함
- 2004년부터 서울시 출연 문화기관인 서울문화재단이 지원, 기획, 운영에 참여하였음
- 2008년은 ‘사계절 축제’를 시도하여 71일간 서울 도심 전역에서 행사를 진행함 (행사 예산이 평균적으로 약 10~30억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2008년은 약 100억원 소요)
- 2009년은 ‘궁 축제’를 기획하여 서울시내 5대 고궁 등에서 행사를 진행함
- 2010년, 2011년은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한강공원 등에서 행사를 진행함
- 2012년부터는 도심형 축제로서 거리예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서울시 문화예술과에서 축제를 담당함

구 분		내 용
특별 프로그램	사전프로그램	재생드림통신 / 솔깃발달통신
	개막프로그램	서울환상곡
	폐막프로그램	Re-Mix Seoul
공연 프로그램	초청 프로그램	해외 24개팀 / 국내 41개팀(NaT지원 6팀 포함) / 기타
	참여 프로그램	시민참여 / 마을공동체 공동제작 / 예술가 워크숍
기획 프로그램		아티스트 라운지 / 열린축제 밥상포럼 ‘거리예술, 맛있게 먹기’
		10주년기념 열린축제포럼
협력 프로그램	나눔 캠페인	유니세프 / 월드비전 / 굿네이버스 / 아름다운 가게
	축제 협력	유사기간/장소에서 개최되는 9개 축제 협력운영
연계 프로그램		서울축제 공연투어 / 축제 연계 프로그램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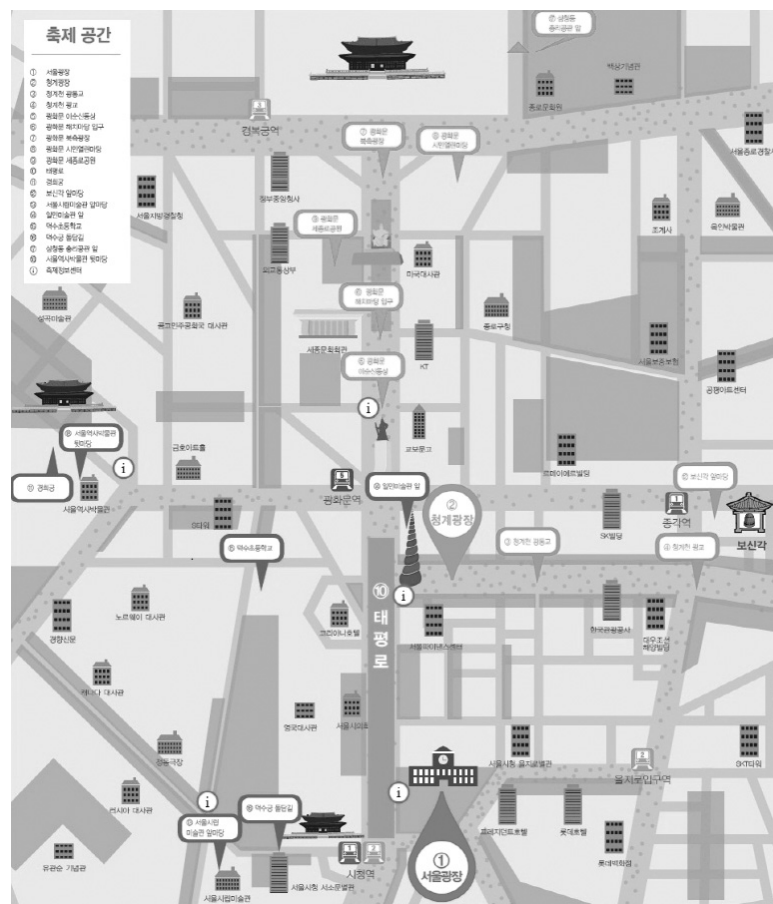
〈그림 11〉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

■ 서울거리예술축제

- 2012년과 2013년에 즈음 거리예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축제의 정체성과 위상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축제관련 주요관계자와 외부전문가, 서울시가 논

의를 진행

- 갑작스런 축제명칭 변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인하여 2013년~2015년 3년간은 하이서울페스티벌이라는 축제명을 유지하고 부제로 '서울거리예술축제'라는 제목을 병기하여 축제를 운영
- 2016년부터 축제의 주관 주체가 서울시에서 서울문화재단으로 이관되면서 그동안 매년 제기되어 왔던 축제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을 정리하고 '서울거리예술축제'라는 명칭을 공식 축제명으로 사용
-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일상의 공간을 공연장으로 바꾸고,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거리예술 축제로 변모
-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거리예술로 서울 거리 곳곳을 누비며 익숙했던 도시 공간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고 그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자 '서울'의 이야기가 만듭



〈그림 12〉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축제 공간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 및 담당부서 확인 세부내용

■ 시정기록

●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검토는 정책유형의 선별지침 개발과정과 동일하게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함께 적용
- 거시평가의 경우,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테마 선정절차를 걸쳐 생산이 예상·추정되는 기록물 유형 및 생산부서를 확인함
- 현재 생산되지 않는 기록물의 경우, 생산을 강제 또는 유도하여 기록생산의 공백을 메우는 효과를 가짐
- 미시평가의 경우, 우선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기록물 현황을 분석 함



〈그림 13〉 2016 서울거리예술 축제 공식포스터

- <그림 17>는 비전자기록으로 생산된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이며 현황 분석은 해당 사업의 시행 및 종료·시작 시기를 고려해서 서울시민의 날, 하 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축제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관련 기 록물철을 추출하고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철 명과 생산처리과를 확인함
- 확인된 기록물철 유형은 아래 <표 44>와 같으며, 관련된 처리과는 도시계획 과, 문화재과, 디자인정책과 등 총 3개임

The screenshot shows a spreadsheet with columns A through F. Column A contains document numbers (e.g., 60200, 27077). Column B contains years (e.g., 1984, 2016). Column C contains management numbers (e.g., 85783). Column D contains department names (e.g., 문화국 문화재과). Column E contains production department names (e.g., ★ 정수점점 이후 관리번호). Column F contains record types (e.g., 기록물철). A search dialog box is open over the spreadsheet, showing search criteria and results.

번호	A	B	C	D	E	F
1	60200	1984	관리번호 끝번호: 85783		★ 정수점점 이후 관리번호	
2	관리번호	2016년 DB번호	처리과 코드	이관부서명	생산부서명	기록물철 분류번호
27077	서소문-10462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78	서소문-10468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79	서소문-50264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0	서소문-50265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1	서소문-2734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2	서소문-10463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3	서소문-10464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4	서소문-10465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5	서소문-10466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6	서소문-10467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7	서소문-10469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8	서소문-10470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89	서소문-10471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90	서소문-10473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91	서소문-10474		문화국 문화재과		문화재과	
27092	서소문-12619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7093	서소문-12620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7094	서소문-12621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27095	서소문-12622		맑은환경본부 자원순환과			

Search Dialog Box:

찾기 및 바꾸기

찾기(F) 바꾸기(B)

찾을 내용(N): 하이서울페스티벌

옵션(O) >>

모두 찾기(I) 다음 찾기(F) 닫기

통합 문서 시트 이름 셀 값

20161024 서소문 보유목록_문화팀.xlsx 보유목록 SH\$27086 하이서울페스티벌종묘대제례어가행렬

1 개의 셀을 찾았습니다.

<그림 14> 하이서울페스티벌 키워드 검색 및 기록물 추출

<표 21> 서울거리예술 축제관련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현황분석

- * 검색어: 서울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축제
- * 검색결과 기록물 수량: 5개(문서, 시청각 자료 등)
- * 청도문서고: 영구 및 준영구 기록물 없음
- * 서울 본관 문서고: 1개
준영구: 1개 (2003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 * 서울 서소문 문서고: 4개
5년: 4개 (하이서울페스티벌 종묘대제례어가행렬-시청각, 2005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화보집, 2007 서울 대표축제 Hi seoul 페스티벌 2007 내외신 기자 설명회 보도자료)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을 분석하여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을 살펴며 앞서 서울시 기록관 보유기록물 확인 방식과 같이 올 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축제 등의 키워드 검색 등을 1차적으로 진행
- 또한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정책영역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서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방식도 추가하여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분석을 진행함
- 그 결과 서울거리예술축제 선별지침과 연관되는 단위과제는 총2개, 5개의 단위과제 카드가 도출됨
- 단위과제 및 단위과제 카드의 확인은 담당부서를 확인하는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으며, 보존기간을 구분하여 단위과제를 확인한 것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시정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

〈그림 15〉 서울거리예술축제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 분석

- 이중 보존기간 10년 미만의 기록은 1개 단위과제, 2개 단위과제 카드로 서울시대표축제 일반,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및 운영 기록임
- 30년 이상 장기보존 기록은 1개 단위과제, 3개 단위과제 카드로 축제안전관리, 축제일반, 축제평가 기록임

● 정보소통광장 현황분석

- 정보소통광장 관련기록 분석도 앞서와 같이 서울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등의 키워드 검색을 진행
- 검색 결과는 아래 <그림 24>와 같으며 ‘시민의 날’ 관련 기록은 1994년 이전의 사진 기록이 대부분임¹³⁾
- 하이서울페스티벌 기록은 행사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간담회 또는 예산관련 기록, 하이서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회의록 등이며,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관련 기록은 축제관련 간담회 또는 예산관련 기록, 업무협조 외에는 현재 기록이 생산중인 관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제한적임

‘시민의날’ 검색결과 (677건)

경향신문 최진순 조회순 15 50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 조회수: 10 | 2016-01-27

강기 제8회 **시민의날** 기념식이 28일 강동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62년 근면하고 깨끗한 서울을 이룩하자 는 이념으로 **시민의 날**을 정한 서울시는 식전에서 35명의 모범시민을 표창했다. (내용출처: 경향신문, 1969.04.28, 8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진·기타 속속정보 > 사진 아카이브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 조회수: 6 | 2016-01-27

강기 제8회 **시민의날** 기념식이 28일 강동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62년 근면하고 깨끗한 서울을 이룩하자 는 이념으로 **시민의 날**을 정한 서울시는 식전에서 35명의 모범시민을 표창했다. (내용출처: 경향신문, 1969.04.28, 8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진·기타 속속정보 > 사진 아카이브

제8회 시민의 날 기념식 조회수: 5 | 2016-01-27

강기 제8회 **시민의날** 기념식이 28일 강동체육관에서 열렸다. 지난 62년 근면하고 깨끗한 서울을 이룩하자 는 이념으로 **시민의 날**을 정한 서울시는 식전에서 35명의 모범시민을 표창했다. (내용출처: 경향신문, 1969.04.28, 8면)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사진·기타 속속정보 > 사진 아카이브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문서 본문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이 직접 만들고 참여하는 서울 고유의 축제브랜드인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국제적인 전통축제로 육성하여 국내 1위 관광자원을 유치하고, 세계 최대의 거리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하여 서울을 아시아 문화예술의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국제 문화도시로서의 위상 강화

예산승률

2012예산	2013예산 (A)	2014예산 (B)	증감 (B-A)	(B-A)/100(A)
-	1,600,000	1,600,000	-	-

(단위: 천원)

*12년 업무협약에 서울문화재단 고시(제12년 예산 2,856,000천원)에서 제지추진사업으로 전환(2012.9.20일자 고지)하면서 문화재단 업무로 이관

관련있는 문서

-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 하이서울페스티벌(2015)
- 시장직인 날인 요청
- 시장직인 날인 요청
- 시장 직인 날인 요청
- 시장 직인 날인 요청

2015-03-18 하이서울페스티벌(2015)

2014-12-02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추진내용 및 장선결과 보고

2014-09-29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세부추진계획

2016-12-13 하이서울페스티벌 (2014)

2016-12-1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014)

서울거리예술축제

문서 본문

서울거리예술축제

1

기 본 헌 장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계방식			
사업위치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등			
총사업비	총 1,600,000천원	[국비]	[시비] 1,600,000천원	(보조율) 0 %
사업내용	○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전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드는 서울시 대표 축제			
사업형태	조직집수형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개요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서울거리예술축제]으로 검색한 결과

- 서울거리예술축제
- 서울거리예술축제 운영 관련 간담회
- 서울거리예술축제 그 환상 속으로
- 서울거리예술축제 중간보고 간담회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6」 촬영합조 요청
- 「서울거리예술축제 2016」 촬영합조 요청

관련있는 문서

- 2016-12-13 **공개** 서울거리예술축제
- 2016-11-16 **부분공개** 서울거리예술축제 운영 관련 간담회
- 2016-10-14 **공개** 서울거리예술축제 그 환상 속으로

<그림 16>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분석_서울거리예술축제

13) 검색결과 해당 사진의 출처 및 촬영일자 등의 오류 등이 다수 확인되었음

■ 유관기관 기록(서울문화재단)

- 유관기관의 기록파악은 시정기록을 바탕으로 대상기록을 확인한 후 대상기록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함
- 특히 서울시와의 업무협력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생산기록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유관기관은 ‘서울문화재단’으로 확인 됨
- 선정된 유관기관의 기록생산 현황 파악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 함
- 서울문화재단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을 기획하고 운영하였으며, 서울문화재단 아카이브¹⁴⁾에서 사진기록 및 백서 등이 확인 됨
- 2016년부터는 서울거리예술축제를 주관하여 축제의 기획 및 운영을 담당함

〈표 22〉 서울문화재단 서울거리예술축제 관련 보유기록물 현황

-
- 서울거리예술축제 운영위원회 회의록
 - 서울거리예술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 모집 및 운영
 -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2010~2012)
 - 하이서울페스티벌 촬영 영상
 -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북
 - 서울거리예술축제 프로그램북
 - 축제신문(도움것통신) 등
-

■ 협치 및 민간기록

-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별도의 협치기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협치기록은 축제 운영방식의 변화에 따라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서울시민의 날의 경우 1998년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치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경향신문, 1998년 10월 28일, 14면)
 -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¹⁵⁾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하이서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만·관이 함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기에 협치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추정됨
-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시민기록은 자원활동가 및 시민들의 축제참여기록으로 한정되며, 추후 수집실행과정에서 적극 수집해야 함

14) <http://archnew.sfac.or.kr/html/main/index.asp>

15) 서울문화재단, 「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p.12.

- 1998년의 경우 시민자율축제로 ‘남대문시장축제, 사랑나누기 운동’등과 관련된 기록이 생산되었을 것으로 파악되기에(한겨레, 1998년 9월 29일, 25면) 적극 수집해야 함

서울 기록화 선별 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 상세설명

■ 내용

1. 권한
2. 범위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
4. 주요테마 및 배경
5.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 방법
6. 유관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7. 협치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8. 민간기록
9. 부속서

1. 권한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는 서울시의 대표축제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의도를 수집하려는 부서에 알려야 한다. 수집 지침문에 기술된 컬렉션 테마는 각 부서의 기록물에 적용한다.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는 공공기록의 선별을 위한 작업도구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기록물 이용자 또는 기록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지침의 이용에 있어서 부서의 경험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 및 새로운 핵심 데이터 개발로 인하여 개정될 수 있다.
- 공식적인 검토주기는 없지만 수정·변경 의견은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으며, 검토 또는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된다.

2. 범위

- 이 주제는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의 대표 축제를 다루며, 향후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 획득 될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기술은 아니지만 수집 작업 및 검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시정기록은 현재 서울시 기록관 및 관련부서에 보관되어 있으며, 유관기관 기록은 유관기관(서울문화재단)에, 협치기록은 일부가 시정기록에 포함되거나 민간기록으로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선별지침은 관련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의미하며, 1994년부터 2016년까지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담당(관련)부서의 책임¹⁶⁾

-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담당한 담당부서는 관련기록이 없는 관계로 확인 할 수 없다.
- 하이서울페스티벌의 경우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문화재과에서 기록을 생산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관련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였는지는 불명확하다.
- 문화예술과는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관련한 계획을 일정기간(2013년 ~ 2015년) 수립하였다.
- 서울거리예술축제의 경우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며 문화예술과가 예산 및 업무협조를 담당하고 있기에 서울거리예술축제 지원과 관련된 기록을 생산할 책임이 있다.

4. 주요테마 및 배경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문은 서울기록원의 향후 평가 및 선별 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 수집 테마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 테마는 서울기록원에서 수행하는 서울거리예술 축제에 관련이 있다.

16) 출처: <https://seoulsolution.kr/ko/node/3058>

• **서울시민의 날**

‘서울시민의 날’ 행사는 서울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여 1994년부터 시작되어 2002년까지 매년 10월에 운영한 축제이다. 주행사로는 시민의 날을 상징하는 서울드럼페스티벌, 미디어시티 2000 등을 개최하였으며, 기존 문화의 달 행사와 연계하여 다채로운 시민의 날 행사를 마련하였다.

• **하이서울페스티벌**

2002년 한일월드컵 기간에 시청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민이 스스로 거리응원을 펼치며 축제 분위기를 만든 것에서 착안해 서울시민의 날 행사를 2003년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로 변경하여 2015년까지 운영한 축제이다. 2003년은 10월에서 5월로 행사기간을 변경하였고, 이후 대부분 10월 또는 5월에 행사를 진행하였다. 2012년부터는 도심형 축제로서 거리예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전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변화하였다.

• **서울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을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동안 제한된 공간에서 운영하던 축제를 일상으로 바꾸고, 관객과 배우의 경계를 허물며,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거리예술 축제로 변모하였다.

5. 문서화 및 보존대상 기록물 처리 방법

- 서울시 기록관(청도, 서소문, 본관)에 있는 서울시 보존기록물 현황(시정기록) 키워드분석(서울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축제 등)을 통한 비전자기록 생산현황 및 생산처리과 확인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단위과제(단위과제 카드) 현황 키워드분석(서울시민의 날, 하이서울페스티벌, 서울거리예술축제, 축제 등)을 통해 전자기록으로 생산되었거나 생산될 기록을 확인
- 서울시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검토하여 서울거리예술축제와 관련된 정책영역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서로 세분화하여 검토하는 방식 추가
- 시정기록의 유형(기록물철)
 - 30년 이상: 2003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 10년 미만: 하이서울페스티벌 종묘대제레어가행렬(시청각), 2005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2009 하이서울페스티벌 화보집, 2007 서울 대표축제 Hi seoul 페스티벌 2007 내외신 기자 설명회 보도자료 등

〈표 23〉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거리예술축제

테 마	배 경	담당부서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처리 방안 ¹⁷⁾
서울시민의 날	서울 정도(定道) 600년을 기념해 서울에 대한 긍지와 애착, 서울 시민의 일체감을 조성할 목적으로 1994년 제정하여 2002년까지 매년 10월에 운영한 축제로 매년 새로운 방식의 축제가 진행됨 서울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서울 드럼페스티벌 세계의 북소리 미디어시티 2000 거리축제 문화의 달 행사 4계절 축제	확인불가	서울시민의 날 관련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시정기록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기에 서울시민의 날 축제 관련 기록은 상세히 기록화 서울시민의 날과 관련된 장기보존 기록 및 10년 미만 보존기록이 없기에 관련 다음과 같은 시정기록은 적극 수집 · 서울시민의 날 제정 조례 · 서울시민의 날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 각 세부행사별 관련 기록 등 ▶ 1998년의 경우 시민자율축제로 진행되었기에 ‘남대문시장축제’ 및 ‘사랑나누기 운동’ 등의 시민기록은 수집 ▶ 상시 진행되는 축제프로그램의 시정기록 및 시민기록은 적극 수집하며, 1회성으로 진행된 축제프로그램(새천년맛이 행사 등)도 수집 ▶ 서울시민의 날과 관련된 협치기록은 현황 파악
하이서울페스티벌	2003년부터 매년 5월에 개최되었으며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서울의 대표축제로 변화함 문화의 달 행사 시민참여형 종합축제 궁 축제 공연예술축제 거리예술축제	도시계획과, 디자인정책과, 문화재과 문화예술과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기록은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과에서 보관하고 있기에 하이서울페스티벌 관련 기록은 상세히 기록화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10년 미만 보존기록으로 재검토 · 2005 하이서울페스티벌 종묘대제례 어가행렬(영상) ·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 · 하이서울페스티벌 화보집 · 하이서울페스티벌 추진계획 및 결과보고 · 각 세부행사별 영상 등 ▶ 2004년부터 2007년까지는 ‘시민참여형 종합축제’ 시민기록 및 협치기록은 적극 수집 ▶ 2012년부터는 거리예술축제로 변화하였기에 시민기록 및 협치기록(서울문화재단 등)은

			적극 수집 · 2006 하이서울페스티벌 기획 등 ▶ 2013~2015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조직위원회는 협치기록을 생산하였기에 적극 수집
서울거리예술축제	하이서울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서울거리예술축제로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시와 사람, 예술이 만나는 거리예술축제로 진행 공연프로그램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획프로그램	문화예술과	2016년부터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된 서울거리예술축제 관련기록은 생산중인 기록으로 업무종료 후 상세히 기록화 아래 유형 시정기록은 장기보존으로 관리되기에 제외 · 축제평가 · 축제안전관리 · 축제일반 등 아래 유형의 10년 미만 보존기록의 경우 재검토 · 하이서울페스티벌 개최 및 운영 ▶ 2016년부터 명칭이 변경하기에 시민기록 및 유관기관기록(서울문화재단 등)은 적극 수집

6. 유관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 유관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선별된 시정기록 및 정책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유관기관 확인
 - 서울문화재단
- 해당기관 사전 조사 및 정보목록확인(홈페이지 등)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
- 기록물분류기준표 및 인터뷰를 통한 기록생산·보유 현황 파악
- 서울문화재단 수집대상기록물
 - 서울거리예술축제 운영위원회 회의록, 서울거리예술축제 주관대행사 선정, 서울거리예술축제 자원활동가 모집 및 운영, 하이서울페스티벌 백서(2010~2012), 하이서울페스티벌 촬영 영상, 하이서울페스티벌 프로그램북, 서울거리예술축제 프로그램북, 축제신문(도움것통신) 등

17) 기록물의 상세유형은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법을 참조

7. 협치기관(명) 및 수집대상기록물

- 협치기관 확인 및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선별된 시정기록 및 정책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치기관 확인
 - 한시적으로 유지된 일부 협치기관의 존재 확인
 - 해당기관 조사(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기관의 기능 및 역할 분석이 어려움)
 - 정보소통광장 키워드 검색을 통한 협치기관 기록 분석(해당기록 없음)
 - 인터뷰를 통한 기록생산·보유 현황 파악(인터뷰 불가)
 - 협치기관 수집대상기록물
 -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 회의록, 하이서울페스티벌 시민모임, 하이서울페스티벌 조직위원회 회의록 등

8. 민간기록

- 민간기록 수집대상기록물 유형
 - 해당정책의 사업과정에서 만들어진 민간조직 현황 파악(관련 기록의 부족으로 실질적 파악이 어려움)
 - 협치기관 인터뷰를 통한 민간기록 현황 파악(대상 선정 불가)
 - 민간기록 수집대상기록물
 - 1998 남대문시장축제, 사랑나누기 운동, 시민참여 기록 등

9. 부속서

〈표 24〉 부속서 : 주제 유형 검토표

대상유형	주제	대상명	
구분	적합 검토사항		적합도
시기적 중요도 및 대표성	· 시정부 및 시의회의 현재 또는 과거 업무, 활동과 관련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정기간 이상으로 연속성이 높은지		☐ 상 ☐ 중 ☐ 하
	· 일반시민 개인생활에 영향도가 높은지		☐ 상 ☐ 중 ☐ 하
	· 준비·진행에 관련된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의 수가 많고 다양한지		☐ 상 ☐ 중 ☐ 하

	- 중요한 사회적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 일정기준 이상의 언론보도 및 소셜미디어 사용빈도 분석	☐ 상 ☐ 중 ☐ 하
인문지리적 특수성	해당 분야의 현황·변천과 그 맥락이 드러나는지	☐ 상 ☐ 중 ☐ 하
	자연/문화 공간의 구성과 변형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일정기준 이상의 다양한 문화적 양상을 표현하는지	☐ 상 ☐ 중 ☐ 하
	서울시민의 정체성 형성·변화에 관련되어 있는지	☐ 상 ☐ 중 ☐ 하
	서울시민의 현재 또는 과거의 일상 생활상을 잘 나타낼 수 있는지	☐ 상 ☐ 중 ☐ 하
보존 및 활용적 가치	잠재적인 연구적 가치 및 정보적 가치가 있는지	☐ 상 ☐ 중 ☐ 하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체계적으로 보존, 활용하고 있지 않는지	☐ 상 ☐ 중 ☐ 하
	관련 사항이 집약된 도서 자료(책서, 자료집)가 존재하는지	☐ 상 ☐ 중 ☐ 하
	전자적 형태로 존재하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활용이 가능한지	☐ 상 ☐ 중 ☐ 하
합계		상 : 중 : 하 :

4.5. 소결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개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됨
 - 영역 구분 및 대상 유형 선택 및 적합도 확인
 - 주요 테마 도출 및 배경 정리
 -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파악
 - 담당부서 확인
 - 유관기관 및 협치기관 유무 파악
 - 민간기록 현황 조사
 - 종합분석 및 선별지침(안) 문서화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영역별-유형별로 개발되어 사용되며 그 구성 항목별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권한 : 해당 지침의 작성 책임과 검토 주기
- 범위 : 해당 지침의 시기적·공간적 범위와 목적
- 담당부서의 책임 : 서울시 관련 부서의 연혁과 역할
- 주요 테마 및 배경 : 해당 사안의 세부 테마 구분 및 배경에 대한 상세 설명
-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 처리방안 :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수행할 문서화 및 보존대상기록물의 처리방안을 제시
- 유관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 해당 사안의 유관기관에서 생산·보관 중인 기록물 유형을 제시
- 협치기관 및 수집대상기록물: 해당 사안의 협치기관에서 생산·보관 중인 기록물 유형을 제시
- 민간기록 : 민간에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생산·수집할 기록물 유형을 제시
- 부속서 : 해당 지침의 내용을 수행하면서 사용될 서식 및 작업도구를 제시

3장. 서울기록화의 범주와 연계

3장은 서울기록화를 위하여 서울시 소속 부서와 서울시의 주요 문화기관을 포함한 본부/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 등의 기록화 사업을 조사하여 정리하며 이를 토대로 서울기록화 연계방안을 구상함

- 또한 최근 서울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형태로 활동중인 중간지원조직의 기록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협치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모색함
- 마지막으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구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영역의 기록의 확인과 연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서울기록화 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하여 대상 기관 별 연계요소를 추출하고 방안을 마련함

1. 서울시 소속부서

- 서울시 소속부서 기록화사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
- 향후 서울기록원으로서의 기록물 이관과 기록정보의 연계 방안 모색

1.1. 조사과정

- 1차 조사 : 서울시 소속부서의 기록화사업 문서 목록 확인
 - 조사방식 : 정보소통광장 특정 키워드 추출 결과물 도
 - 대상 키워드 : 기록, 기록화, 아카이브, 아카이빙, DB, DB구축, 백서
 - 조사결과 : 총 332,050건의 문서 목록 확인

검색어 : 아카이브/아카이빙							
검색어	문서관리번호	제목	생성자명	생성자부서명	작성/생성일자	형식	
아카이브/아카이빙	D000002608728	<H5> 아카이브<H5> 및 중간업무보고 (360713 ~ 360717)	조철훈	기획조정실	20160720	문서열기	
아카이브/아카이빙	D0000026796882	7차지침<H5> 아카이브<H5> (자료지침 관리)시스템 구축<H5> 연행	태우과		20160719	문서열기	
아카이브/아카이빙	D0000026774243	박물관실용 영상(DVD)<H5> 아카이브<H5> 심화위원회 결<H5> 의회지침	조사연구과		20160718	문서열기	
아카이브/아카이빙	D0000026711734	<H5> 아카이브<H5> 및 중간업무보고 (360627 ~ 360710)	조철훈	기획조정실	20160714	문서열기	
검색어 : 백서							
검색어	문서관리번호	제목	생성자명	생성자부서명	작성/생성일자	형식	
백서	D0000025925532	서울역 2017 프로젝트 <H5> 백서<H5> 제작 및 기록화 용역<H5> 집행회	서울역일대통합발전기획단		20160425	문서열기	
백서	D0000025898167	서울역 2017 프로젝트 <H5> 백서<H5> 제작 및 기록화 용역<H5> 집행회	서울역일대통합발전기획단		20160421	문서열기	
백서	D0000025813419	수원계역 일회(서울충무문주차 1주년 <H5> 백서<H5> 열람회대론	도시공간개선단		20160414	문서열기	
백서	D0000025817265	요령요구(장안가)는 통역연세(공가)에서 <H5> 백서<H5> 지상지	자치행정과		20160413	문서열기	
검색어 : DB/DB구축							
검색어	문서관리번호	제목	생성자명	생성자부서명	작성/생성일자	형식	
DB/DB구축	D0000017920832	상수도 기술혁신 과제 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유동수	생산관리과	20140201	문서열기	
DB/DB구축	D0000017915977	2014년 1월중 소방정보활동 실적 통보	최문미	행정지원과	20140203	문서열기	
DB/DB구축	D0000017911841	2014년 01월중 소방정보 확인결과 보고	김현진	공역119안전센터	20140203	문서열기	
DB/DB구축	D0000017922858	2014.1월중 소방관리연료 충전실적 보고	김병구	공역119안전센터	20140201	문서열기	
검색어 : 기록/기록화							
검색어	문서관리번호	제목	생성자명	생성자부서명	작성/생성일자	형식	
기록/기록화	D0000023775334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박경수)	박경수	현장대응단	20153007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75507	화학적 인사<H5> 기록<H5> 카드 사본 송부 요청	이규용	인사과	20153007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76641	외국어 어학성적 인사<H5> 기록<H5> 통제요청	남영준	투자유치과	20153007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76479	인사<H5> 기록<H5> 시스템 내 개인정보 변경 요청	이영미	박물관진흥과	20153007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74090	<H5> 기록<H5> 물관리 용을 위한 물물구매 계획	박인경	자치행정과	20153006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70340	인사관리시스템 인사<H5> 기록<H5> 수정 요청	이현란	유류과	20153006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52585	인사<H5> 기록<H5> 통제요청(한위취득 및 상문)	한병희	3층공정수과	20153005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43905	화학적 인사<H5> 기록<H5> 카드 사본 송부 요청	이규용	인사과	20153005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27541	물물관리 송동<H5> 기록<H5> 일차 작성 제출(한위)	이시영	장원119안전센터	20153002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22084	구급대원 교육훈련 <H5> 기록<H5> 표 보고 (박종진)	박종진	서초119안전센터	20153002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05642	서울오송 <H5> 기록<H5> 물 사진 자료(2차) 제공	박용기	도시관리과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4703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김연환)	김연환	현장대응단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4701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김도균)	김도균	현장대응단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8498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김대훈)	김대훈	현장대응단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4702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허정우)	허정우	현장대응단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8497	구조대원 특별구조훈련 <H5> 기록<H5> 표 (이호준)	이호준	현장대응단	20153001	문서열기	
기록/기록화	D0000023719353	구급대원 교육훈련 <H5> 기록<H5> 표 보고 (최현석)	최현석	방재119안전센터	20153001	문서열기	

<그림 17> 서울시 소속부서 기록화 사업 조사를 위한 키워드 추출

- 2차 조사 : 개별 키워드 조사결과 유효한 서울시 소속부서 기록화 현황 파악
 - 대상선정 : 정보소통광장 특정 키워드 추출 문서목록 가운데 선정
 - 선정기준 : 체계적 아카이빙 계획, 시민기록 수집, 로컬리티 기록화
 - 기록화사업 목록

〈표 25〉 서울시 소속부서 주요 기록화 사업 현황

주관부서 (가나다순)	사업명	내용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서울 도시농업 백서	도시농업 활동 종합정리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 참고자료로 활용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 스포츠 백서	시민 체육활동 현황 종합 체육정책 재수립에 활용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 기록화	95년부터 매 5년마다 지속적으로 서울 모습을 담은 경관 기록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 영상기록화	도심부 옛길을 조선시대부터 역사와 정취를 간직한 중요한 역사자원으로 관리 기록화를 통해 옛길 특성보존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방촌 아카이브	향후 마을박물관 콘텐츠 구성 및 운영방안 기반 마련
사회적경제과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서울시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민활동 상황 기록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웃사이다 백서	아파트공동체 문화확산 및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아파트 방송협력사업 진행 과정 기록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운영 백서	서울시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소통공간인 시민청 운영·활동 기록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서울역 7017프로젝트 백서	서울역고가도로 공원화 사업 기록화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항공사진 통합관리 원스톱 서비스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계기로 촬영한 항공사진 공개 항공사진 촬영분에 대한 DB변환 및 시스템 반영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한옥정보통합시스템 DB구축에 이어 정보들을 모으고 제공하는 한옥 포털 구성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 정립 및 목록화 작업 ‘역사가옥’ 사업 우선순위 선정 및 스토리텔링 DB구축 ‘역사가옥’의 유형별 활용모델 제시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가공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한강영상기록물 제작 영상 아카이빙	한강영상기록물 제작을 통해 생산되는 영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광장 기록화	서울광장 관련 기록 조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행정국 총무과	서울시 청사 이전 백서	청사를 신축하기까지 논의과정, 이사과정, 안정화과정 등을 기록
행정국 총무과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 백서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 합동분향소 및 추모공간 운영 결과 정리

1.2.소결 : 소속부서 현황분석 및 시사점

1.2.1. 소속부서 사례분석 결과

- 기록화사업 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 영상 및 사진 등 시청각 자료 다수 확인. 향후 서울기록원의 시청각 자료 수집과 관리에 대한 절차나 세부지침, 보존환경 등의 마련이 필요함
 - 백서 발간 사업의 경우 서울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이른바 거버넌스형의 사업임. 서울 기록화 선별 지침에서 설정하는 협치기록의 영역이 확인 가능함. 향후 협치 영역의 발견으로 통한 중간지원조직 형태의 협치공간을 서울시 측에 제안할 수 있음
 - 백서 발간을 위해 활용된 다양한 기초자료의 수집이 입안 단계부터 진행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 관점의 사업 중점 추진
 - 서울역 고가, 서울광장, 옛길, 해방촌, 무허가 건물 등 공간을 기반으로 한 로컬리티 기록화사업이 확인됨
 - 각 공간에는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 공동체 조성 사업 또한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 향후 ‘도시재생’을 서울 기록화 선별 지침의 주요한 주제로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1.2.2. 소속부서와의 연계를 위한 시사점

- 기록물 이관·수집 계획
 - 기록물관리법에 의해 서울기록원으로 이관될 기록물과 그 범주에서 누락되는 기록물에 대한 구분과 파악이 필요함
 - 누락되는 기록물에 대한 평가와 수집방안을 수립해야 함
- 따라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수립 및 이에 근거한 대상을 선정·수집하여 중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기록물을 살릴 수 있어야 함

- 유관기관(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 기록물 수집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서울시 유관기관에서 서울의 로컬리티를 기록화해 온 사업들을 정리
- 향후 서울기록원과 기록정보의 연계 방안 모색

- 3단계로 서울시 유관기관 기록물 수집사례 조사
 - 서울시 조직도를 참고하여 조사대상 기관 선정
 - 1차 조사 : 49개 본부·사업소, 공사·출연기관의 기록화사업 수행 내역 확인
 - 조사방식 : 각 유관기관 홈페이지 조사,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조사, 나라장터 조사

분부·사업소

- 도시개발사업본부 <http://kda.seoul.go.kr>
- 강수도사업본부 <http://water.seoul.go.kr>
- 환경사업본부 <http://hmg.seoul.go.kr>
- 문화체육 <http://cph.seoul.go.kr>
- 자살예방센터 <http://gs.seoul.go.kr/archives>
- 기후센터 <http://khs.seoul.go.kr>
- 아동복지센터 <http://thp.seoul.go.kr>
- 사회복지 <http://sgr.seoul.go.kr>
- 농업기술센터 <http://agr.seoul.go.kr>
- 서울다공성 <http://gdg.seoul.go.kr>
- 건축기술원 <http://tbs.seoul.go.kr>
- 전통시장개발원 <http://tsw.seoul.go.kr>
- 체육시설관리사업 <http://tdm.seoul.go.kr>
- 서울종합방화센터 <http://tsh.seoul.go.kr>
- 물질시험소 <http://wts.seoul.go.kr/archives>
- 소방서 <http://fse.seoul.go.kr>
- 보건환경연구원 http://hwhr.seoul.go.kr/tte_jn
- 공원녹지사업소 <http://pws.seoul.go.kr>
- 여객자동차 <http://kthhqp.seoul.go.kr>
- 시립박물관 <http://msm.seoul.go.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museum.seoul.kr>
- 서울시립대학교 <http://www.us.ac.kr>
- 도로사업소 <http://hdk.seoul.go.kr/archives>
- 서울도서관 <http://ls.seoul.go.kr>
- 공공휴먼전당 <http://yem.seoul.go.kr/index>
- 서울역사박물관 <http://hsnyb.seoul.go.kr>
- 물재생센터 <http://mrc.seoul.go.kr/archives>
- 서울시립과학관 <http://fse.seoul.go.kr/sci/men>
- 119비상구조단 <http://fse.seoul.go.kr/sci/men>
- 교통방송 <http://fbs.seoul.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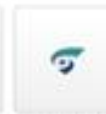
공사·출연기관

공사 · 공단


서울메트로


서울도시발전도


서울수질관리


서울환경관리


서울문화예술

출연기관


서울필하모닉


서울연구원


SBA


서울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보건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출자기관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 대상사업 : 공사·출연기관 자체기록물 및 민간기록물 수집사업

· 조사범위 : 최근 6년 간(2010~2016년)의 기록화사업

● 2차 조사 : 1차 조사결과 유효한 내역 확인, 심층조사 수행

· 대상선정 : 49개 유관기관 기록화사업 중 14개 유관기관의 17개 기록화사업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

· 선정기준 : 체계적 아카이빙 계획, 시민기록 수집, 로컬리티 기록화

· 조사범위 : 최근 1년 간(2015~2016년)의 기록물 수집사업

· 조사방식

- 해당기관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서 검토(264회~271회)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내 해당기관 업무추진 내역 검토
- 해당 기관 홈페이지 내 발주수주 공고 및 보고서 검토
- 나라장터 내 해당 기관 발주수주 내역 검토
-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해당 사업 결과물 확인

· 기록화사업 목록

〈표 26〉 서울시 유관기관 기록화 사업 현황

기관 (가나다순)	사업명	내용
교통방송	서울의 오늘을 기록·보존하는 「역사 아카이빙」	서울의 매일매일을 영상으로 상세히 기록·축적하여 미래유산으로 활용 「서울, 시간을 품다」 / 「空間 사람」 / 「로드다큐 우리동네」
도시기반 시설본부	건설 중요기록물 DB 구축	건설 중요기록물의 정보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박물관과 자료기증	상수도 관련 모든 자료 수집

서울도서관	원문DB 구축	책 실물에 대한 원문 구축 서울시에서 발행·납본한 시정간행물,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원활한 접근환경 조성
서울디자인재단	디자인 아카이브	DDP 개관 이후 기록물, 서울시에서 이관된 DDP 건축관 련 기록물, 향후 생산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
서울문화재단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시민들의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 예술가와 협업하여 문화콘텐츠 창출, 서울에 새로운 문화 예술적 가치 부여
서울문화재단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자원 발굴, 공유기회 마련 ‘사회 공공자산’으로의 인식 제고
서울산업진흥원	「만화의 거리(재미로)」, 「만화 박물관(재미랑)」	만화의 거리(재미로) 정체성 강화 시민·창작자와 함께하는 창의공간 및 프로그램 만화의 거리(재미로) 축제
서울시설 관리공단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생전 인터뷰』	“웰다잉” 캠페인에 참여한 서울시민의 인터뷰 기록 및 전시 제작·설치
서울여성 가족재단	서울여성 시민기록 프로젝트 : Seoul Women's Walk	성평등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장소와 인물의 스토리 영상 아카이빙 시민들이 직접 스토리를 발굴·제작 공유
서울여성 가족재단	여성의 기록을 기억하고 여성이 함께 만드는 공유공간 ‘여기로’ 조성 및 운영	서울여성의 기록을 수집·분석·역사화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운영을 통한 성평등 가치 제고
서울 역사박물관	서울학 연구조사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거나 서울의 뿌리 및 산업화·도시화 특성이 잔존하는 지역 조사기록 향후 서울학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서울 역사편찬원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서울시 공무원과 각종 분야에서 활동한 시민들의 기억·경 험을 구술로 채록, 정리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보급
서울주택 도시공사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기록화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원 구룡마을 개발계획 에 따른 해당지역 거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구룡마 울의 도시사회적 변화과정 기록화
서울주택 도시공사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	근현대 건축물 및 한옥 유형 보존 박물관·공방·상가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 의 마을 재생사업
소방재난본부	재난현장 기록물 관리	재난현장 기록물 DB 구축 재난현장 기록물 촬영 및 운영
시립미술관	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미술 전문자료 확보·관리·보존하여 미술정보 제공 연구논문 발간 아카이브 자료 수집

- 3차 조사 : 2차 조사 결과 중 선정된 주요사업의 담당자 면담
 - 선정기준 : 유의미한 기록화사업 및 자료수집 정책을 가지고 있는 기관
 - 면담진행 과정
 - 사업 담당자와 유선 연락 후 면담일정 조율
 - 관련 질문지 사전 전달 후 기관에 방문하여 면담 진행
 - 면담 참여자 : 연구팀 인원 및 서울시 담당 주무관이 함께 참여

2.2. 유관기관 면담결과

2.2.1. 서울여성가족재단 성평등도서관

- 면담일시 : 2016.11.17.
- 면담장소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성평등도서관 여기



- 기록물 관리 현황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활동기록은 도서관에서 가져오고 있으며, 도서관이 아카이브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서관 자료와 아카이브 기록물이 공존. 기록물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기록물 목록작업을 하고 있으나 도서관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 등록에 한계가 있어, 항목을 수정하여 조금씩 반영하는 상황임
 - 예산, 인력, 시스템의 문제가 있음. 예를 들어 기증 받은 VTR이 많지만 기계가 없어서 열람할 수 없고, 관리 및 재현, 복원 비용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서울기록원 연계방안 및 요구사항
 - 공개 가능 자료의 경우 두 기관 간의 자료보유 현황을 공유하고, 검색결과

등에서 소장위치를 안내하는 수준의 연계가 가능할 것 같음

- 일방적으로 기록물 혹은 정보를 공유하라고 하면 내부적인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시스템, 인력지원, 장비지원 등) 관계에서의 공유라면 호의적일 것 같음
- 서울시 소속기관 등의 실무 담당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임

2.2.2. tbs교통방송

- 면담일시 : 2016.11.17.
- 면담장소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tbs 12층 아카이브 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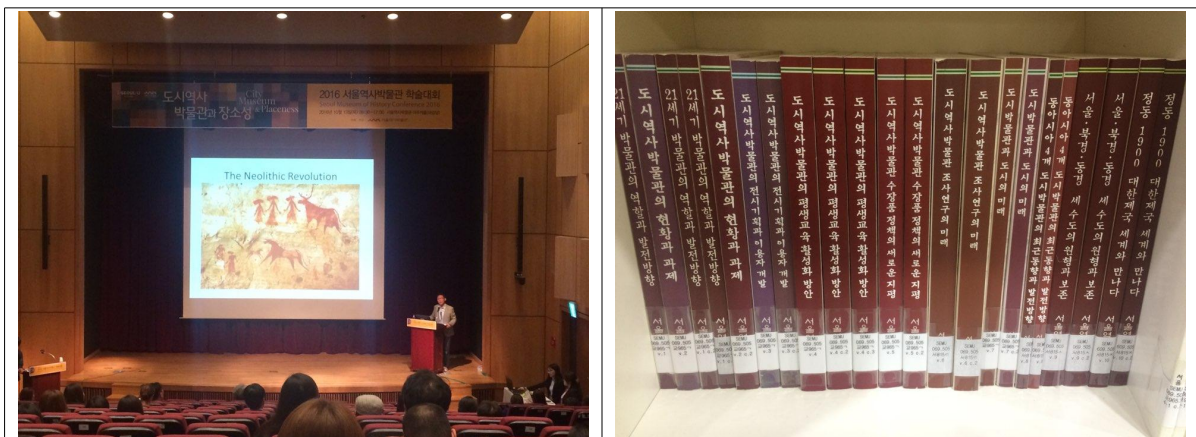


- 기록물 관리 현황
- 디지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 않음
- 아카이브 자료를 자체 사용하거나 다른 곳에서 요청할 시 제공해주고 있으나,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영상 아카이브의 영상자료가 원천자료로서 이윤창출(자료대여시 이용비용 부담)을 하고 있음
- 서울기록원 연계방안 및 요구사항
 - 서울기록원이 tbs의 모든 기록을 이관 받거나, 테잎 등의 실물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선별주제를 통해 주제범주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디지털 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 자료관리 측면에서 자료를 통일하기 위한 포맷을 처음부터 정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음

- 기록물의 분산보존이라는 의미에서 서울기록원에서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서울기록원 제안사항
 - DB값까지 이관한다고 할 경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 선별을 통해 순차적으로 넘기는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간단한 편집 등을 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가 갖춰질 필요가 있음
 - 디지털자료의 스토리지, 실물자료의 모빌렉 등 수요예측을 통해 저장공간을 넉넉하게 상정해야 함

2.2.3. 서울역사박물관

- 면담일시 : 2016.11.23.
- 면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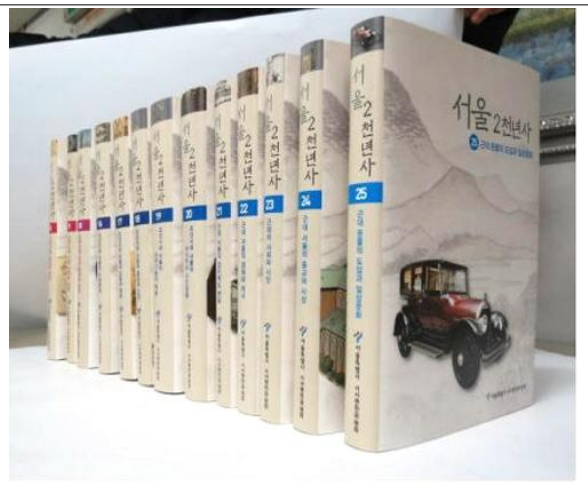
- 서울역사박물관 수집전략
 - 수집대상
 - ․ 조선시대부터 근현대까지 시기적 범주에 해당되며, 근현대는 1990년대까지의 시민 생활 문화에 초점을 맞춤
 - ․ 유형별로는 제한을 두지 않음
 - 기획수집을 위한 전략 및 프레임워크
 - ․ 주요 소장컬렉션을 기반으로 기획하고 있음
 - ․ 5년 주기의 기관 중장기계획 수립시 수집전략 역시 보완함

- 수집정책 결정 프로세스
 - 내부 학예직원 중심의 자료수집실무위원회 예비평가 → 중진급 외부전문가 참여의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평가 → 원로급 외부전문가 참여의 운영자문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서 결정됨
- 생활문화자료 조사 프로세스
 - 생활문화자료 조사는 동 단위의 지역별 주민생활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10년 정도 진행해왔음
 - 경관실측, 주민 구술조사,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내력, 영상사진 촬영까지 해서 보고서로 작성함
 - 초기에는 재개발로 사라지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즘은 서울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제지역을 대상으로 함(신촌의 대안문화, 인현동 창신동은 서울의 도시산업(인쇄) 등)
- 시정사진 기록총서 발간 배경 및 과정
 - 시민소통담당관(구 공보실)에서 입수한 자료(사진필름)를 스캔하여 총서로 발간함
 - 내년까지 스캔을 완료할 예정
- 소장처(자) 조사 방법
 - 학자, 저명인사 등을 소스로 하여 전문 컬렉터와 접촉하는 경우가 있음
- 기증자 관리 방법 (잠재적 기증자 포함)
 - 증서발급, 명판제막, 간행물 발송 정도를 하고 있음
- 저작권 협의 및 확보 방법
 - 저작권 전체를 확보하기는 어렵고, 사진의 경우 이미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정도임
- 수집자료 관리 현황
 - 과거에는 표준 유물관리시스템을 사용했고, 근현대자료 수집이 증가하면서 모든 기능을 연계한 단일시스템(서울역사 유물관리시스템)을 사용함
 - 수집자료 유형별로 약어코드를 추가하여 등록함
 - 디지털아카이브 발전계획
 - 현재는 생활문화조사 자료, 시정사진, 서울 지도를 홈페이지에 올려둔 정도임
 - 앞으로 구한말 시기부터의 자료 및 소장 자료 사진을 보완 예정임
- 자료 서비스 현황 (전시, 교육, 디지털 콘텐츠화)
 - 도시변천에 관련된 전시의 경우 시정기록을 몇 건씩이라도 활용함

- 외부사설 역사강사와 전속 전문안내인(도슨트)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함
- 전시 주제 및 내용 선정
 - 상설전시의 경우 조선시대까지 1/2, 근대기 1/4, 현대기 1/4 정도로 실시 중임
 - 근현대 관련 조사 성과를 기반으로 특별전시를 기획하기도 하고, 다량 기증 유물들을 기반으로 특별전을 하기도 함
- 서울기록원 연계방안 및 제안사항
 - 재개발 지역과 같은 시정 정책의 변화와 관련 깊은 주제·지역 같은 경우 서울기록원과 같이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함
 - 서울기록원의 경우 시정에 참여한 분들-시의원 출신, 고위직 출신 모임(팔각회)-을 매개로 해서 민간에 소장된 시정정책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기존의 자료들과 컬렉팅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협의체는 없음. 자료수집시 자문회의, 사업별 자문회의 정도에서 자문을 듣고 반영하고 있음

2.2.4. 서울역사편찬원

- 면담일시 : 2016.11.25.
- 면담장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역사편찬원 자료실



- 서울역사편찬원 수집전략
 - 수집대상

- 주요 조사수집 대상은 대체로 문서형태의 자료임
- 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수집하고 있음
- 서울에 관련된 자료라면 최대한 구하려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세부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 중이지만, 명확하게 확립된 상태는 아님
- 통일된 원칙이 오히려 자료 수집의 제한요소가 될 수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 수집대상의 평가와 관련해서 위원회는 자문을 얻는 형식이며 직접 평가하지는 않음. 연구원들 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며, 자료의 희소성·역사적 가치 등을 판단하여 수집함
- 서울역사편찬원 수집사업
 - 문화마당 사업
 - 관련 분야 주제를 잡고 기획한 다음, 그에 맞는 전공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원고를 받아 책을 발간하는 형태임
 -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 서울 시정사/주제사/생애사로 구분하여 추진 중임
 - 사업 초기에는 영상채록을 했으나, 구술자들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현재는 음성만 채록 중임. 다시 영상채록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서울시 공무원 구술채록은 역사편찬원이 전담하기로 역사박물관 쪽과 내부협의를 진행했음
- 기록물 관리 현황
 - 구술채록 생산기록물 관리
 - 구술채록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는 특별한 시스템은 없음
 - 녹취록의 경우 사업 진행자가 3부 정도 제본하여 자료실에서 총괄 관리함
 - 음성파일과 영상파일은 CD형태로 보관 중임. 보다 다양한 저장매체에 보관하여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책의 형태로 발간된 구술자료집만 공개되며, 음성·영상 등은 제공하지 않음
 - 보유 사료 관리
 - 사료 자체의 관리를 위한 별도 시스템은 없음
 - 훼손 위험이 있는 사료는 번역하여 출간하고, 디지털화 작업을 하고 있음

- 대부분 문서자료이므로 자료실에서 통합 관리함
- 수집된 자료의 경우 각자 담당자들이 개별적으로 관리함
- 디지털화가 진행되면 연구원 중 1인이 맡는 형태로 아카이브 담당자를 둘 계획임
- 서울기록원 연계방안 및 요구사항
 - 서울기록원과의 통합 관련하여 기능을 서로 어떻게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 서울기록원과 디지털 자료 연계, 정보교환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제공은 재미있는 사업일 것으로 생각함
 - 서울기록원에서 디지털 자료 등의 수집 과정에서 쓰일 공통 양식의 시스템이나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랍
 - 표준의 잦은 변화로 인해 비전공자로서 느끼는 부담이 있음. 이에 대해서 서울기록원 등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하고 싶음
 - 서울기록원에서 관련 강좌가 진행된다면 비전공자나 각 기관별 기록담당 인원들을 위한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좋겠음
 - 기록관리 측면에서 역사편찬원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함. 이에 대해서는 상설협의체 등이 구성되어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2.5. 서울시립미술관

- 면담일시 : 2016.11.29.
- 면담장소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서울시립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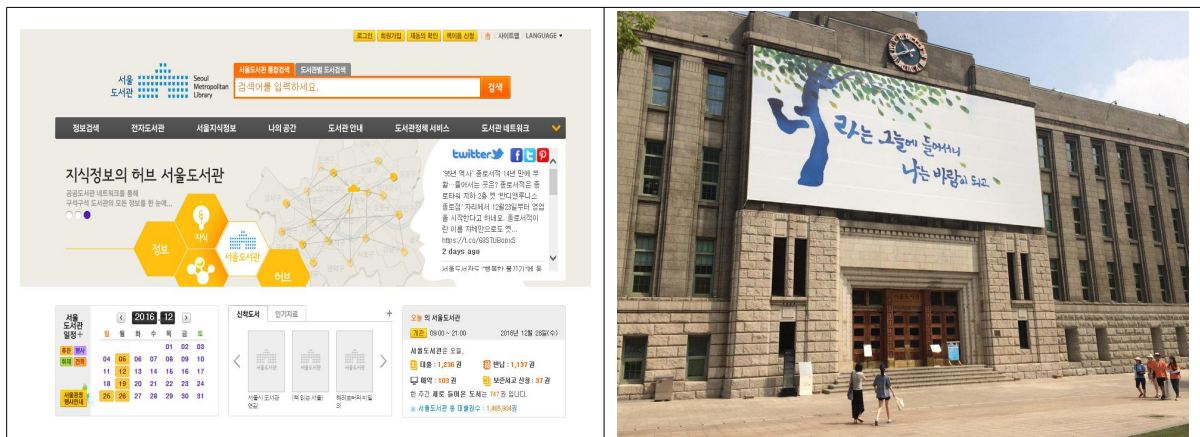


- 서울시립미술관 수집전략
 - 수집계획이 있으나 목표 등이 구체적이지 않음
 - 수집관련 위원회의 경우 실제 수집시 수집추천위원회, 가격평가위원회, 미술관운영위원회 등에서 수집에 대한 결정을 진행함
- 미술관 아카이브
 - 업무 및 사업 관련 자료들이 흩어지고 축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본격적인 미술관 아카이브 부서, 시스템과 담당 인력, 제도는 없음
 - 2012년 신임 관장 부임 이후 필요성 절감, 관련 자료의 수집 시작
 - 수집보존과에서 수집연구과로 변경, 연구와 아카이브 업무를 담당하게 됨
 - 전시 종료 후 관련 자료를 수합하지만 제도 및 규정의 강제가 부재하며 한계가 있음
 - 관리대상의 개념적 범위는 소장작품 + 맥락자료 + 행정자료 정도지만 현재는 소장작품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
 - 전문서적은 미술관 자료실에서 관리함
 - 구술자료는 별도 사업으로 생산하지는 않으며 전시 준비 관련하여 작가 인터뷰가 진행되는 정도임
 - 작품 기증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대규모 개인 아카이브(정기용 등)의 기증 사례는 없음

- 평창동 복합문화공간에 조사·연구·자료가 집중될 예정이며 분관조성팀이 추진 중임
- 기록물 관리 현황
 - 관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현재 소요 제기가 있으며, 매년 유지보수시 조금씩 반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
 - 향후 시스템 재개발시 보완·적용하려 함
- 서울기록원 연계방안
 - 현재 서울시 문화기관 또는 미술관 자료관리 차원의 유관기관 협의체는 없음
 - 향후 협의체 구성 등 서울기록원의 역할 및 도움을 기대함

2.2.6. 서울도서관

- 면담일시 : 2016.12.20.
- 면담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도서관



- 서울도서관 수집정책
 - 간행물 납본 가이드라인과 기증처리기준이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음
 - 기증처리기준에 의해 5년 내 발간된 도서 위주로 입수하며 중복본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전달하여 처리함
 - 개인 유산 성격의 자료 기증 문의가 있어서 서울역사박물관으로 안내한 적이 있음

- 수집대상 결정과 관련하여 별도의 위원회가 존재하지는 않으며 내부 결재라인에서 결정함
- 입수 도서자료 관리현황
 - 도서관리시스템에 입력된 대부분의 동일한 정보가 홈페이지에서 제공됨
 - 주제어는 입수 후 정리팀에서 해당 도서자료별로 부여함
- 도서 열람 및 제공 외 제공 서비스
 - 기획전시 : 대규모 기획전시와 자료실별 주제도서 선정
 - 원문서비스 열람 : 납본된 PDF파일을 가공(저장금지 처리)하여 온라인 열람 제공
 - 콘텐츠 제작 : 책방지도의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제작

2.2.7. 서울문화재단

- 면담일시 : 2016.12.22.
- 면담장소 :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서울문화재단



- 서울문화기관 수집사업
 - 서울을 모아줘
 - 서울시민들이 갖고 있는 물건과 그에 관련된 스토리를 함께 수집
 - 실물자료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시민들이 보관하고 있음 :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의 수량으로 가지고 있는지의 정보를 파악한 것임
 - 캠페인 진행 후 약 1,7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음

- 공예, 학교, 스포츠, 축제, 트렌드, 음악, 의류, IT, 키덜트, 문화예술의 10개 분야 주제로 자료를 수집함
- 자문단이나 기억수집가 같은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음
- 주제발굴 등은 지인의 소개나 ‘메모리 인 서울’ 기억수집가의 자료에서 도움을 받음
- 메모리 인 서울
 - 미사시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고민하면서 시작된 사업임
 - 구술자 발굴과 섭외는 기억수집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짐
 - 수집대상의 결정도 기억수집가가 대부분 결정함. 큰 행사나 축제 때는 이동식 스튜디오를 운영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를 수집함
 - 구술 음성자료의 목록, 구술 내용을 정리하고 키워드를 추출한 기록지가 있음
 - 기록지를 토대로 원본파일을 편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함
 - 원본파일은 양식을 맞춰서 월별로 정리한 다음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음
 - 기억수집가들의 자율에 맞게 수집하였음. 2016년에는 주제를 선정하여 수집을 진행하였는데 그에 따른 기억수집가들의 심리적 저항이 존재했음
 - 2000건 이상의 음성자료가 존재하는데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의 문제가 있음
 - 기억수집가들이 기억제공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하기에, 기억수집작의 역할과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
- 서울기록원에 대한 제언 및 요청사항
 - 어떤 민간기록을 모을 것인지가 아직 잘 드러나지 않으며, 민간기록 영역은 작은 것 같음
 - 시정기록과 민간기록이 8대2의 비율로 구성된다면 연구자 등에게는 유용하지만 시민들에게는 문턱이 높을 것임. 대시민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보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함
 - 자료를 이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관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밝아야 함
 - 기록화사업을 서울기록원으로 이관한다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문화재단의 경우 아카이빙 기관이 아니기에 자료의 정리·보관 등에 고민이 있음. 2차 콘텐츠 제작을 위한 아카이브가 필요하며, 사용자 접근이 용이하게 해주었으면 함

- 이에 대한 도움을 서울기록원 측에서 주었으면 좋겠음
-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들을 모아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표 27〉 유관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구분 (가나다순)	인터뷰 주용내용	요구사항
tbs 교통방송	디지털 서비스는 하고 있지 않음. 요청시 자료를 제공함 모든 기록을 이관하거나 테잎 등의 실물자료의 수집이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음 주제를 선별해서 수집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물자료 보다는 디지털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함 처음부터 포맷과 시스템을 정하고 가야할 것 같음. 포맷 변환시 수작업이 필요함 기록이 소실이나 멸실 위험이 있으므로 기록을 분산·보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함. 서울기록원에서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매체변환 시 고화질, 저화질(간단한 프리뷰용), 카탈로깅(메타데이터 작업용, 일종의 썸네일) 등 3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영상자료의 매체변환을 위한 장비 필요. 간단한 편집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는 갖춰야 함 저장공간(스토리지, 실물공간 등)의 확보 분산보존(이중보존)
서울도서관	도서관 수집정책 보유(간행물 납본 가이드라인과 기증처리기준 있으나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음) 기관과 맞지 않는 자료의 경우,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하고 있음 도서관리시스템으로 도서를 관리하고, 주제어는 입수 후 정리팀에서 해당 도서별로 부여함	적절한 보관소에 대한 정보
서울문화재단	‘메모리 인 서울’의 수집은 기억수집가 집단을 통해 이루어짐 목록과 일부 내용을 정리한 기록지 정도 원본자료는 월별로 정리 후 하드디스크에서 보관 중임 2000건 이상의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기억수집가 혜택:USB 등 기념품 제공 기업수집가는 4,50대 정도의 중장년층이 하면 좋을 것 같음 서울을 모아줘 프로젝트의 경우, 실물자료의 수집은 이루어지지 않음 공예, 학교, 스포츠, 축제, 트렌드, 음악, 의류, IT, 키덜트, 문화예술 총 10개 분야의 주제로 온라인상에서 가상박물관을 만들어 수집함 누가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	이관에 대한 명확한 절차 필요 ‘메모리 인 서울’의 2,000건이 넘는 음성자료에 대한 보관 및 정리 이관자료에 대한 키워드 검색지원, 2차 콘텐츠 제작 가능한 환경마련 자료를 어디에 올려달라거나 무언가를 사용해 달라는 것은 업무부담으로 다가옴

	터는 서울시 문화본부 박물관과, 역박, 시민생활사 박물관으로 자료들이 이관될 것임	
여성가족재단: 성 평등도서관	도서관 자료와 아카이브 자료가 함께 공존 기록물의 목록화 작업시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등록·관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음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의 활동기록이 모이고 있음 VTR 기록의 경우, 재생기계가 없어 돌리지도 못하고 있음 공개에 무리가 없는 소장자료에 대해서는 서로의 정보를 공유해서 제공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음 실무자협의회를 구성한다면 서로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좋을 것 같음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시스템의 문제 등이 있음 VTR 등 별도의 재생장비가 필요한 경우, 관리 및 재현, 복원에 비용에 관한 고민이 있음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보다는 쌍방향적인 정보의 공유는 좋을 것 같음 협의체 구성 좋을 것 같음
서울역사박물관	수집 대상 범주(조선시대-근현대 기록수집) 5년 주기로 중장기 계획 수립 수집정책, 수집대상 위원회 존재 생활문화자료 조사진행 초기) 재개발로 사라지는 지역 대상 → 서울의 특성을 보여주는 주제 및 지역을 선정 학자, 저명인사 등을 매개로 하여 소장처(자)와 접촉을 하고 있음. 시민기록의 수집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기증자 예우제도: 증서발급, 명판제작, 간행물 발송 등 저작권 확보: 저작권 전체는 확보하기 어려움, 사진이 경우 사용권 확보 서울역사 유물관리시스템 사용 서울의 도시변천 관련 내용의 전시인 경우, 시정기록을 활용하고 있음 도슨트 역사 프로그램 - 별도의 교육 실시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현황 생활문화조사 자료, 시정사진, 서울 지도를 올려둔 정도, 앞으로 구한말 시기부터의 자료 및 사진을 보완할 예정임 유관기관 협의체 없음	시의 정책변화와 관련 주제·지역인 경우, 시정기록을 활용하고 있음 시민기록의 수집까지는 고려대상이 아님
서울역사편찬원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최종적으로 책의 형태임. 문서화 가능한 형태로 수집이 이루어짐 생활문화사 시리즈는 주제를 선정하고 원고를 의뢰하여 책을 출간함. 자료수집과는 별개 2009년부터 구술사업 진행 시정사 -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근무 공무원 주제사 - 학교 이전, 토박이, 올림픽, 여성노동자 등 직장생활이나 특정 주제 생애사 - 50년 이상 거주자 대상	자료연계, 정보교환을 통한 새로운 콘텐츠 구축 기록관리 교육지원

	음성파일과 영상파일은 CD형태로 보관, 다양한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보관·이용의 안정성을 높이려고 노력함 구술채록 사업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과 공동작업을 진행함. 필요시 서울역사박물관과 자료 협조 등이 바로 이루어짐 총서로 나온 사료에 대해 수집자료를 따로 관리하지 않음 아카이브 담당자를 따로 둘 예정임 표준이 금방 바뀌어 사업을 기획하고 어그러지는 부분들이 생김 저작권에 대한 고민이 있음 서울기록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면, 일반인 대상보다는 공무원들을 위한 강좌개설을 해줬으면 함 유관기관 간 중복업무 우려	
서울시립미술관	업무 및 사업 관련자료들이 축적되지 못함 시스템, 인력, 제도 부재 수집관련 위원회 운영중 유관기관 협의체 없음	시스템, 인력, 제도 부재

2.3.소결 : 유관기관 현황분석 및 시사점

2.3.1. 유관기관 사례분석 결과

수집현황 및 향후 지원방향

- 영상 및 구술기록 등 기록물 생산을 통한 기록화 활동과 콘텐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열악한 수준이지만 아카이빙이 진행 중인 기관이 있음
- 예산, 인력, 장비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관이 많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원방안 고민이 필요함
- 개별 기관별로 DB 구축 작업 및 기록화사업이 진행되어, DB구축 결과물 및 해당 기록화사업 결과물에 대한 기록 확보와 연계화가 필요함
- 각 기관에서 진행하는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선별하고 수집할 정책수립이 필요함
- 유관기관 수집전략
- 수집전략이 구체적으로 세워진 기관은 많지 않지만, 수집대상 선정 과정에 위원회 형태의 평가·자문 기구가 존재함

2.3.2.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시사점

기록물 수집 방향

- 일방적으로 기록물을 수집해 가는 형태의 활동은 지양해야 함
- 반드시 실물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소장자료의 정보 제공, 디지털 데이터의 연계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유관기관과의 연계 방안

- 서울기록원과 유관기관이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연계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서울기록원 차원에서 기록화사업 및 영상·구술기록 생산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 또는 프로세스 공유와 연계가 가능한 메타데이터 제시가 필요함
- 유관기관의 입장에서 서울기록원의 기록물 수집은 분산보존의 의미를 지니기도 함. 유관기관과 이에 대한 인식 공유가 필요함
- 유관기관 측에서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임. 실무 담당자들의 협의체 구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향후 각 유관기관의 기록화사업 공유를 위한 아카이빙 지침과 결과물 공유가 필요함
- 적극적 기록연계와 서비스, 향후 공동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유관기관과의 연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연계를 통해 서울기록원을 서울 로컬리티 기록화사업의 허브로 자리매김 시킬 수 있음

3. 협치기관

- 서울시와 민간영역을 이어주는 중간지원조직인 협치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기록화사업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리
- 향후 서울기록원과의 연계 및 지원방안 모색

3.1. 조사과정

- 연구팀 및 주무관 기획회의를 통해 인터뷰 대상 선정
 - 여러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아카이브 작업이 진행 중이라 판단된 NPO지원센터 선정
 -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 시업사업 주제로 선정된 ‘도시재생’과 관련되어 있고, 동일한 지원센터 가운데 활동을 오래 해온 창신송인도시재생지원센터 선정

3.2. 협치기관 면담결과

3.2.1. NPO지원센터

- 면담일시 : 2016.10.20.
- 면담장소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NPO지원센터



- 기록물 관리 현황
 - NPO간 편차는 존재하나 나름의 기록 관리는 하고 있음
 - 조직차원에서의 기록 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분류 방식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큼

- 대부분의 NPO들은 NAS나 상용 스토리지를 통해 기록을 저장하고 있음
- 시스템, 기술적인 관리, 인력의 부재 등으로 기록관리가 어려움
- 서울기록원과 NPO 기관의 연계 방안
 - 서울시 자체에서 NPO를 지원하는 것보다 NPO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임. 따라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임
 - 중간지원조직에 시스템을 보급해서 속한 공동체들이 기록 관리에 대해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각 지원센터의 지속가능보고서에 기록 관리 항목이 정책적으로 포함되어 지원하는 단체들에 지침이 나가고 관리 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제안사항
 - 서울기록원이 기록 관리가 잘 되게끔 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함
 - 폐기가 결정된 기록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는 다른 기관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함
 - 공동체는 기록화 과정보다 활동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따라서 공동체가 능동적으로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마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2.2. 창신송인도시재생지원센터

- 면담일시 : 2016.12.12.
- 면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창신송인도시재생지원센터



- 기록물 관리 현황
 - 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돕기 위한 것임. 코디네이터들이 주민들 활동기록을 보관하고 있거나 작성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음
 - 회의록이나 주민들의 자체적인 기록활동에 의한 생산물이 있음
 - 활동기록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수기로 작성하고 월별로 정리하고 있음
 - 주제별로 어떤 자료가 있다는 유형구분만 되어 있으며, 목록이 만들어져 있지 않음
 -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게재함. 홈페이지가 일종의 아카이브 기능을 하고 있음
 - 결정된 사항에 대한 자료만 남고, 과정에 대한 자료들은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 점이 고민임
 - 사업 백서와 총서 같은 책자를 매뉴얼처럼 작성하였으나 출력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님
 - 기록화사업 관련해서는 각 주체들이 갖고 있는 자료 목록화 등이 논의되었으며, 마을박물관과 연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 중임
- 주민자치기록
 - 2016년에 영상기록팀이 생겨서 가능하면 모든 행사나 과정을 기록하고 있으

며, 매월 기록을 받아서 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음

- 기록화작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팀이 매월 잡지를 발간함
- 센터에서 보관하지 않고 있는 영상도 기록화작업팀에서 보유하고 있음
- 지역 라디오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음.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음

■ 요청사항

- 지역에서 기록활동을 하는 팀끼리 모여서 활동을 공유하고 지역 아카이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임. 교육과 관련하여 서울시 혹은 서울기록원 측에서 도움을 주었으면 함
- 주민 단위의 활동을 쉽게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함
- 마을기록활동가들이 한 자리에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를 쉽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28〉 협치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구분 (가나다순)	인터뷰 주용내용	요구사항
NPO지원센터	NPO지원센터의 지속가능보고서 항목에 기록관리 항목이 추가지표로 제시될 필요 NPO들은 나름의 기록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류에 대한 고민, 조직적 기록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중간지원센터를 통한 공동체 기록정보 수집방안 필요 연계의 혜택에 대한 고민 필요 공동체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 공동체는 기록화와 정보다 활동 자체를 중시 현장의 요구를 직접 듣는 기회를 많이 가질 필요	투자출연기관이나 수탁기관 기록의 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 필요. 서울기록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 폐기 결정 기록의 타 기관 활용 방안 마련 공동체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 기록관계 생태계 기반 마련 기록물의 쌍방향 수집 및 이관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생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에 목적이 있음 공모사업의 경우, 관련 자료는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회의록 등을 보관하고 있음 활동기록일지를 작성하고 있음 사진기록물 등을 가지고 있음 기록화작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팀이 있어서 영상을	시스템 필요 기록물 정리 지원 마을 아카이빙 관련 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해주면 좋을 것 같음

	가지고 있으며 월별로 잡지를 발간하기도 함, 또한 라디오 방송 진행 등 주민 자치기록이 있음 기록물을 따로 정리하지 않아서 제대로 된 목록도 없는 상태임 공식적으로 발간되는 자료는 모두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음. 홈페이지가 일종의 아카이브 기능을 하고 있음 마을박물관을 운영할 계획임	
--	---	--

3.3.소결 : 협치기관 현황분석 및 시사점

■ 기록물 관리 현황

- 공동체와 마을 단위에서 자체적인 기록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이를 관리하고 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은 상황임
- 시스템, 기술적인 문제, 인력의 부재 등으로 기록 관리 활동이 어려움
- 여러 활동과 사업의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위주로 기록이 남게 되며, 그 과정과 고민을 담은 기록은 남지 못함

■ 협치기관과의 연계 방안

- 중간지원조직인 협치기관을 통해 공동체나 마을 단위의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중간지원조직에서 기록 관리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기록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과 동기 유발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4. 민간 영역

- 시민기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기록과 관련하여 기록활동을 수행 중인 민간기관의 사례를 분석함
- 향후 서울기록원과 기록정보의 연계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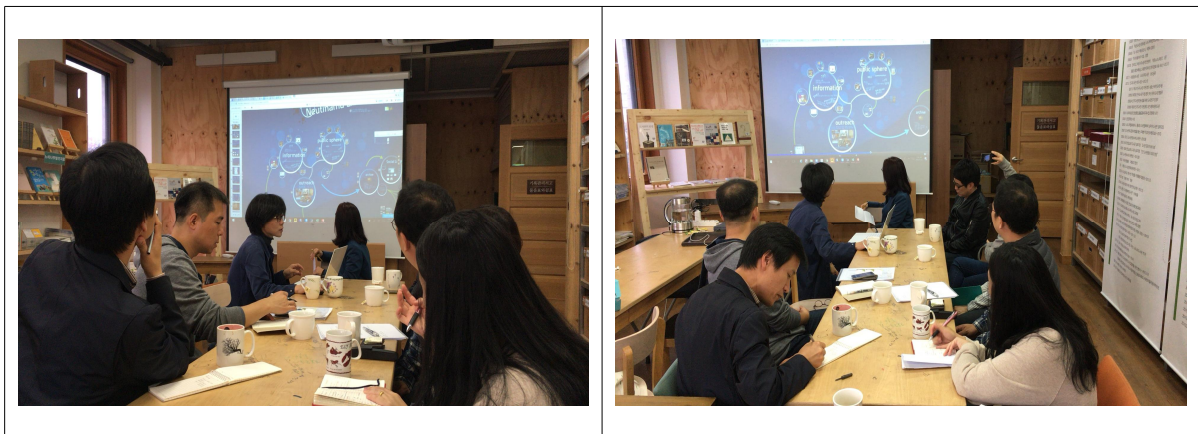
4.1. 조사과정

- 연구팀 및 주무관 기획회의를 통해 인터뷰 대상 선정
 - 민간에서 마련한 도서관을 통해 지역에서 도서관 운동을 진행 중인 느티나무 도서관 선정
 -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기록을 모아 『친구사이 20년사』 등의 기록화 작업을 지속해 온 친구사이 선정

4.2. 민간 영역 면담결과

4.2.1. 느티나무 도서관

- 면담일시 : 2016.10.28.
- 면담장소 : 경기도 용인시 느티나무 도서관



- 도서관리 및 아카이빙 활동
 - 느티나무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기존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KOLAS(도서관리프로그램)이 아닌 느티나무 도서관 맞춤형으로 이미지를 입

력할 수 있고,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해서 입력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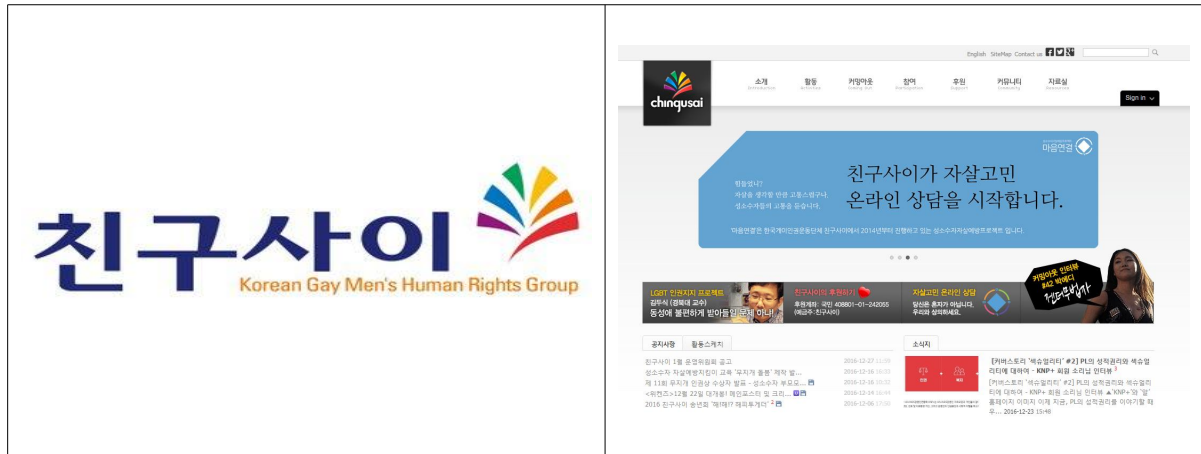
- 한 곳에서 다른 도서관 자료 혹은 도서관 관련 자료에 대해 URL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정보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만이라도 안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간이 없어서 방치된 기록들은 모아서 보존하고 있음
- 망라적 수집이라기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집중하자는 생각으로 눈앞의 기록들을 모으고자 노력함
- 도서관 자료가 단행본에 편중되어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측면에 공백(한계)이 있음. 하나의 사건에 대해 도서관 자료와 기록자료를 통해 공백을 메우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신문사와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준비할 계획임

■ 도서관 운동 진행

- 도서관 운동을 진행하는데, 초기에 설립을 지원한다든지 초기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고 스스로 성장하도록 하고 있음. 배우는 과정이 “교류”라고 생각함
- 도서관 운동은 도서관이 가진 자원으로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함
- 느티나무 도서관은 다른 도서관과는 달리 ‘독자개발’ 팀장이 있음
- 제안사항
- 시민의 아카이브는 협업, 상호작용을 내포함. 대상화된 기록이 아닌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생각함
- 같이 배워나가는 과정이 ‘거버넌스’라는 생각이 들고, 파트너의 가능성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함
- 사업을 진행할 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초기에는 잘하는 곳 위주로 시범 사례를 진행해 보고 점진적으로 못하는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함
- 공공기관과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임

4.2.2. 친구사이

- 면담일시 : 2016.11.10.
- 면담장소 : 서울시 종로구 친구사이



- 기록물 관리 현황
 - 『친구사이 20년사』 발간을 계기로 기록정리를 하게 됨. 활동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음
 - 발간된 일부 자료는 “성평등도서관”에 기증하기도 함
 -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들은 외부공개 하는 것들임
 - 내부 확인을 위한 자료는 따로 관리하고 있음. 기록물을 다른 곳에 기증한 적은 없음
 - 활동기록의 정리와 관련한 내부지침 등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 발간된 책자나 활동기록을 담은 문서 등이 남아 있지만 기록정리가 잘 되지 않음. 관리차원에서의 버거움이 있음
 - 현재 보유 중인 과거 수기기록은 1, 2부만 남기고 폐기하였음. 컴퓨터파일 형태의 기록들은 외장하드나 컴퓨터 본체에 그냥 들어 있는 상태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음
 - 기록자료의 활용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도서 열람을 제공하는 정도임
 - 현재 ‘친구사이’ 상근자는 4명이며, 기록 정리 담당을 하는 인원은 없음
- 기록화 활동

- 매월 웹 뉴스를 발행하고 있음. 뉴스에 실린 글 가운데 선별한 내용들을 모아서 매년 책자 형태로 발간함. 이는 소식지팀 소속 회원들이 작업하여서 만들고 있음
- 『친구사이 20년사』 발간 당시 혹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기록물 수집은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물어보거나, 온라인상으로 문의하는 방식을 취하였음
- 기록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과거 기록을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물어보거나 요청하였음
- 과거 수기기록을 자료집 발간 당시 스캔하여 PDF파일로 변환하였음. 자료공유와 열람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 자료를 PDF로 변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도 함
- 서울기록원과의 연계
 -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는 ‘친구사이’의 활동을 알리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 도서/포스터/음원/영화 등의 자료를 수집대상 영역으로 생각할 수 있음
 - 가지고 있는 자료들의 디지털화(주로 VHS 테이프)를 시도했으나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현재 보유중인 자료들의 목록, 수량 등에 대한 조사조차 되어 있지 않음. 서울기록원 측에서 기록과 컴퓨터 파일의 정리 및 목록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유효한 지원전략이 될 것임
 - 기록물 정리 플랫폼이 제공되고 연결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음
 - 수기문서들을 관리하고 보관할 공간이 필요함
 - 민간단체의 활동이 공공기관인 서울시와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회원들 사이에 존재할 것임

〈표 29〉 민간기관 인터뷰 주요내용 및 요구사항

구분 (가나다순)	인터뷰 주용내용	요구사항
느티나무 도서관	느티나무 도서관은 기존 도서관들의 KOLAS(도서 관리프로그램)이 아닌 느티나무 도서관 맞춤형 시스템(이미지 입력 가능) 사용 타 도서관자료 혹은 도서관 관련 자료 URL 제공 도서관 운동 진행 중. 초기 설립지원,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 스스로 성장케 함. 배우는 과정이 곧 “교류”임 공간이 없어 방치된 기록들은 모아서 보존하고 있음 망라적 수집보다는 현재 눈에 보이는 기록들을 중심으로 수집중 상호작용을 통해 시민의 아카이브를 구축할 필요 공공기관과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회의적 사업진행 시 우수사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선정해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시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지역 도서관을 소개하는 노력이 필요
친구사이	활동기록의 정리, 내부지침 부재 발간책자나 활동기록을 담은 문서는 남아있지만 정리, 관리가 안되는 상황 활동자료의 보관을 어느정도까지 해야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존재한 기록관리 전담 인력이 없음 중이 기록물은 1~2부 정도 보존, 본 디지털 자료는 외장하드나 컴퓨터 본체에서 저장 디지털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실물자료들을 관리하고 보관할 장소부족 연계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음 연계를 한다면, 이용제한(공개설정)범위 설정을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음	기록물 정리 시스템 제공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기록의 장기보존 기록물정리 사업 지원 기록관리 교육지원 보존공간의 마련

4.3.소결 : 민간 영역 현황분석 및 시사점

■ 기록물 관리 현황

- 민간 영역에서 각 기관별로 나름의 기록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
- 기록 관리 활동에 대한 고민은 있으나, 실제 활동으로 만들어 가기에는 인력의 부족이나 관리 방법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기인한 문제점이 도출됨

- 기록물의 디지털화 작업에 대한 필요는 있으나, 관련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고, 디지털화 작업 자체에도 방법상의 어려움이 있음

■ 민간 영역과의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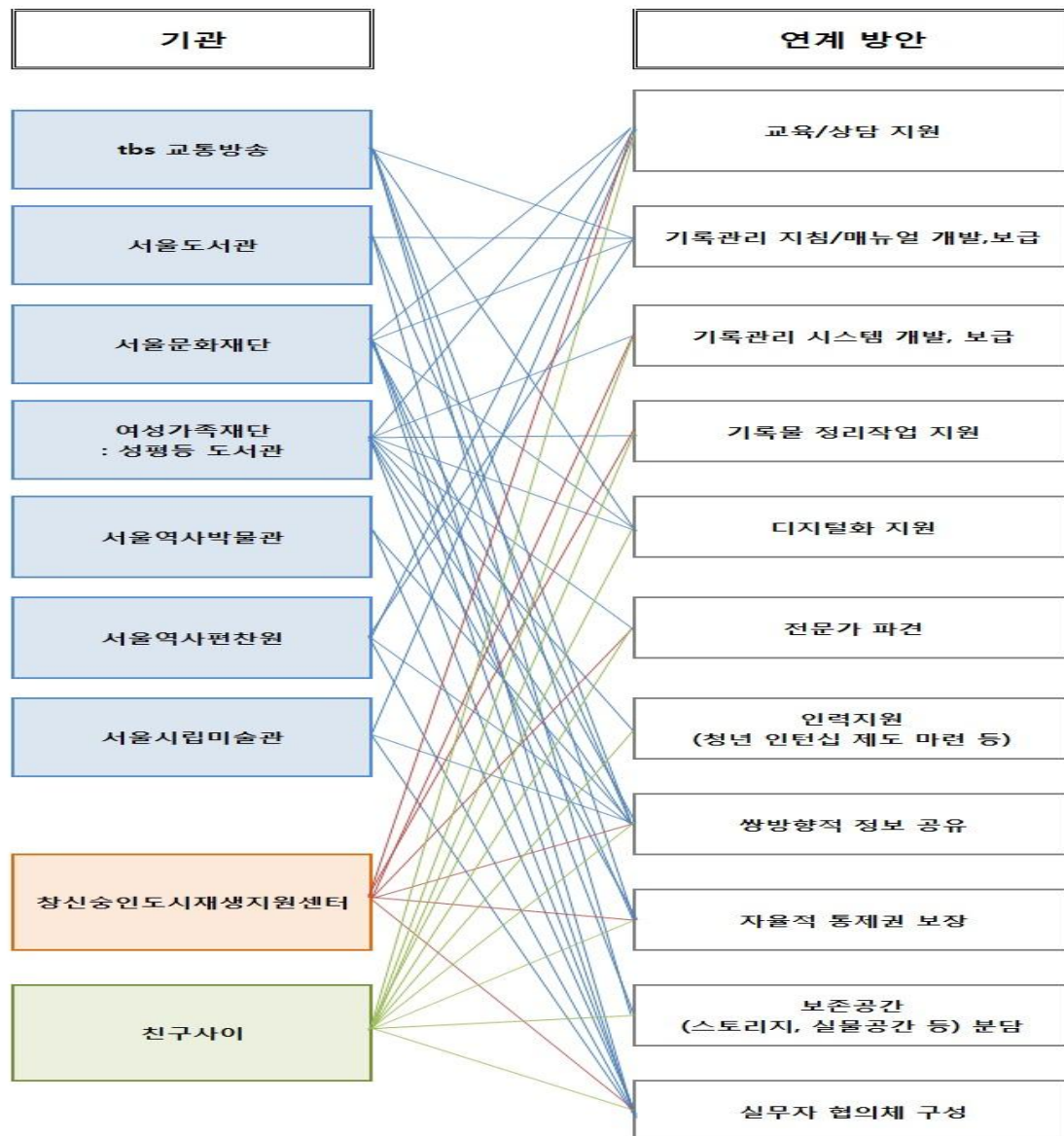
-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는 기관들의 경우 공공 영역으로 분류되는 기관들과의 연결에 대해 우려하거나 꺼리는 분위기가 존재함. 이를 타개해 나갈 방안에 대해서 향후 고민이 필요함
-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는 각 민간기관의 활동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님. 이에 대한 홍보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민간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디지털화에 대한 지원, 기록 관리 교육, 보유기록 목록화 작업 지원 등의 사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5. 서울기록화 연계방안

5.1. 서울기록화 연계의 정의와 요소

- 서울기록화를 위한 연계는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치기관, 민간(개인 및 단체)의 기록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에게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연구팀은 일방향적 수집과 획득의 의미를 넘어서 각자 활동과 업무 속에서 생산되는 기록이 잘 유지되고 적절하게 공유되는 것을 연계의 궁극적 목적으로 설정함

〈그림 19〉 서울기록화 연계를 위한 기관별 요소 매핑



- 이에 따라 앞서 조사하고 분석하고 기관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확인된 연계를 위한 필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추출하고 요소별, 대상별 방안을 구체화하여 정리함

5.2. 서울기록화를 위한 연계요소

오프라인 연계요소

- 기록관리의 효율적 수행과 결과물의 공유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연계요소로 기록관리 업무에 실무적 도움을 주는 요소들로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기록관리 교육 및 상담지원
 - 기록관리 지침 및 매뉴얼 개발과 보급
 - 기록물 정리작업 지원
 - 기록물 디지털화 지원
 - 기록관리 전문인력 파견 및 운용
 - 기록관리 실무인력 지원(청년 인턴십 제도 등)
 - 기관 및 단체간 실무자 협의회

온라인 연계요소

- 온라인 연계요소는 기본적인 기록관리의 인프라가 확정되고 운영되어지는 시점에 점차적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요소들로 실질적인 기록화를 위한 연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핵심 내용으로 다음과 같음
 -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보존공간(온라인 스토리지의 공유 등)
 - 쌍방향적 정보공유

5.3. 서울기록화 연계를 위한 요소별 방안

5.3.1. 오프라인 연계요소

기록관리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교육

- 실무적 운영을 위한 교육에는 실질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교육의 부분을 통한 연계를 의미하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실무적 운영을 위한 교육 측면의 구체적 요소는 교육을 포함하여 상담, 기록관리 업무 지침 또는 정리 매뉴얼 등의 개발과 보급을 포함함
- 기록관리 실무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가능하다면 서울기록원 차원의 전문인력의 파견 또는 인력 교류와 실무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유관기관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와 인프라가 있는 기관부터 그렇지 않은 기관까지 다양하게 확인됨
- 하여 유관기관별 기록관리 업무에 대한 상세한 구분과 확인이 필요함. 이를 바탕으로 기관별 요구수준을 확인하여 개별적 교육 등의 지원과 협력이 요구됨
- 구체적으로는 몇 개의 기관에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명확한 판단으로 제안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물기록의 경우 정리의 지침과 표준 정리 용품의 사용 등을 제시하여 현 시점에서 기관에서 기록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연구를 통해 확인된 협치기관의 기록관리 현황과 공유를 위한 준비상황은 일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다만 협치영역이라는 특수하고 고유한 영역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과 정보는 서울기록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록으로 간주하여야 함
- 협치기관의 연계는 기본적으로 협치조직이 가지는 업무의 기능과 주제를 확인하여 시정영역의 주관부서를 통해 연계를 시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시정영역의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주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치기관의 실무적 효율성과 기록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초기 단계의 연계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협치기관의 경우도 기초적인 기록물의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정리 지침과 표준 정리 용품의 사용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민간기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1개의 단체만을 접촉하여 파악하였으나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의 경우 대부분이 유사한 기록관리의 현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음
- 개인 또는 단체의 자체적 활동의 증거나 후원 회원의 확충과 활동의 홍보 등을 위하여 나름 활동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친구사이의 경우 활동기록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모아내고 있으나 내부적인 정리 지침이나 표준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임
- 서울기록화를 위한 민간영역(단체나 개인)의 연계를 위해서는 서울기록원 차원의 민간 개인, 단체를 위한 간단한 기록관리의 개념과 효용성 등을 포함한 안내 자료 등을 마련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안내 자료에는 기록관리를 통한 개인과 단체의 이익과 이를 위한 실무적, 기초적 기록의 생산, 수집, 정리, 분류, 보존 등을 포괄할 필요가 있음

실물기록의 정리와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연계

-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하고자 하는 중요한 요소는 실물기록의 수집을 통한 일방적인 기록과 정보의 공유가 아닌 개별 현장에서 존재하는 기록의 정보와 디지털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하는 것임
- 본 연구과정에서 연계를 위한 개념을 설명하고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받아본 결과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연계에 대한 개념에 동의를 하였음
- 하지만 연계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 또는 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실물기록을 정리하고 디지털화를 우선 진행해야 하는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유관기관의 경우 비교적 상황이 좋은 기관들이 대부분으로 자체적인 예산과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 기록물을 정리하고 디지털화를 수행하고 있음
- 다만, 일부 기관(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역사편찬원)의 경우 자체적으로 실물기록을 정리하거나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을 확인함
- 유관기관 전체에 대한 실물기록의 정리 지원과 디지털화 지원은 아니더라도 추후 실무협의체 등을 통해 실물기록에 대한 정리 지원 또는 디지털화 지원

의 소요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지원에 따른 기록물의 연계 공유에 대하여 기간관 협의 등을 하여야 함
- 협치기관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협치조직의 업무의 기능과 주제에 해당하는 시정영역의 주관부서를 통해 연계를 시도해야 하며,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지원의 결과로 생산된 기록의 정보와 디지털 자원의 연계 공유를 추진해야 함
- 민간영역의 경우는 가장 기록물의 정리에 대한 지원과 디지털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확인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앞서 연계를 위해 시도한 기록 관리 업무 지침 또는 정리 매뉴얼에 연속선상에서 연계를 추진하여야 함
- 또한 기관의 형편상 기록물의 정리와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인력, 공간 등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서울기록원 개관 이후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민간영역의 단체 또는 개인을 위하여 기록물 정리 및 디지털화 공간과 장비를 대여하거나 민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그 것임

서울기록화 연계 공유를 위한 실무자 협의체

- 연구기간 동안 방문 확인한 모든 기관의 담당자들로부터 공히 확인할 수 있었던 요소는 실무자 간의 정보교류 등을 위한 실무자 협의체 구성과 운영임
- 서울기록원 차원에서는 실무자 협의체에 대한 구성과 대상을 구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내의 주요 문화기관과 서울기록원간의 실무자 협의체, 서울시 직속기관 네트워크, 협치기관 및 주관부서와의 네트워크, 민간영역 기록관리 협의체 등이 있을 수 있음

5.3.2. 온라인 연계요소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본 연구를 통해 파악된 연계를 위한 온라인적 요소는 일종의 약속된 기록의 정리와 시스템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임
- 유관기관, 협치기관, 민간기관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별적으로 각기 다른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체적인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있었음

- 향후 기록의 연계 공유에 대한 기관 또는 실무자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유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음
-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공유 연계에 대한 동의가 있다면 일종의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의 등록과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적 해결 방안을 확인 할 수 있었음
- 특히나 협치기관, 민간기관의 경우는 현재 별도의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 형식을 취하고 있어 서울기록원 차원에서 보급하는 간략한 기록의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그 의미가 있음
- 더불어 오픈소스 등을 활용한 소규모 기관의 기록관리와 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도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온라인 보존공간의 제공을 통한 연계 공유

- 향후 건립되는 서울기록원은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서울기록화를 위하여 서울의 기록생산 주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그 가운데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주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바로 보존공간임
- 보존공간은 오프라인/온라인 모두의 개념을 포괄하며 두 가지 모두 제한이 있지만 보존공간의 제공을 통해 보존되는 기록정보는 서울기록원과 연계 공유를 확정된 기록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오프라인 보존공간의 경우는 협치기관, 민간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제공하여 더 많은 시정영역 이외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보존공간의 경우는 일종의 이중보존의 개념으로 유관기관의 주요 기록정보부터 서울시민의 다양한 온라인 기록을 보존하고 함께 활용하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음
- 물리적, 예산적 한계가 있으나 서울기록원 차원에서의 치밀한 계획과 기준 등을 확정하여 진행하여야 함

5.4.소결

- 서울기록화를 위한 연계의 개념은 서울기록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치기관, 민간(개인 및 단체)의 기록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시민에게 유용하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함
- 또한 서울기록화를 위한 연계는 일방향적 수집과 획득의 개념을 탈피하여 각자 활동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유지되는 기록이 잘 공유되는 것을 연계의 핵심 개념으로 확정함
- 이를 토대로 연구기간 조사 및 방문, 인터뷰를 통해 오프라인과 온라인 연계 요소로 추출하였고 다음과 같음
 - 기록관리의 실무적 운영을 위한 교육
 - 실물기록의 정리와 디지털화 지원을 통한 연계
 - 서울기록화 연계 공유를 위한 실무자 협의체
 - 기록관리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온라인 보존공간의 제공을 통한 연계 공유
- 위에서 언급한 개별 주요 요소들에 대하여 유관기관, 협치기관, 민간기관의 현실과 상황을 고려한 기초 방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조사와 협의, 실무자 차원의 협의체를 통한 장기 지속적 소통과 연계방안 마련을 제시하였음

4장.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4장은 국내외 수집 정책 조사·분석, 수집정책문, 수집실행전략으로 구성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 및 수집실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에서의 수집 정책을 비교·분석
- 수집정책 개발과 관련된 국내 연구사례를 논문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참고할 만한 해외의 주립기록관의 수집과 관련된 사항들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과 시민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기반의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반영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표 30〉 국내외기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

국내기관 (3곳)	연구사례 (4건)	해외의 주립기록관 (5곳)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수집기관-수집기관 연계(5곳)	수집기관-공동체 연계(3곳)
국립중앙도서관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	Connecting Histories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MemoryBC	
국립중앙박물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테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People's Collection Wales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Calisphere	
서울역사박물관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Digital Library of Georgia	CAW(Community Archives Wales)

- 국내외기관의 수집정책 사례분석을 통해 도출된 구성항목과 시사점을 통해 서울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한 수집정책문을 작성하고, 이에 기반한 수집실행전략을 수립함

1. 국내외 수집 정책 조사·분석

1.1. 수집정책의 필요성 및 고려사항

1.1.1. 서울기록화 수집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

- 서구에서는 기록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1975년 햄(Ham)이 기존의 관행적인 수집을 넘어 전략적 수집을 추구하자는 취지에서 ‘활동가 아키비스트(activist archivist)’라는 개념을 제시한 바 있음
- 또한, 1977년 진(Zinn)은 기록관이 기존의 엘리트 위주의 기록화를 벗어나 일반인의 삶, 희망, 요구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들을 기반으로 기록화전략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는 수집정책수립으로 표면화되었음¹⁸⁾
- 수집정책은 기록물관리기관이 당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물 획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문화하여 수집업무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는 것임¹⁹⁾
- 수집정책은 기록물 선별을 위한 토대이자 기록물의 평가를 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한 도구임. 잘 개발된 수집정책은 합리적인 선별 결정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기록관의 소장물을 구성하고 평가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체계적인 지침을 제공함²⁰⁾
-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제적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²¹⁾
- 서울기록원은 수집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집하고자 하는 기록의 영역을 확인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일관성과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함
- 따라서, ‘서울기록원 수집정책문’을 작성하는 것은 2018년 개관을 앞둔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구현하는 첫걸음이며, 서울기록원에서 대상으로 할 기록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록을 수집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18) Zinn, H. (1977). Secrecy, Archives and the Public Interest. *Midwestern Archivist*, 2(2), 14-26. ; Ham, F. G. (1975). The Archival Edge. *The American Archivist*, 38(1), 5-13.

19) ‘기록학용어사전(2008)’에서는 수집정책을 “보존 기록관에서의 기록 평가·선별 절차의 토대로서, 수집을 통한 기록화의 목표 및 그에 따른 실천적 과제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천명된 사실”이며,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 수집의 범위 및 우선순위에 관한 분야별 설계, 수집 지침 및 제한 사항, 타 기록관이나 기록 소장자와의 협력 방향, 제적(deaccessioning)에 관한 설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20) Ham, F. Gerald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번역). 서울: 진리탐구.(원전 발행년 1993).

21)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1.1.2. 수집정책의 일반적인 고려사항²²⁾

수집정책의 장점

- 불필요한 컬렉션을 거절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함
- 재평가와 처분의 근거를 제공함
- 수집활동의 연속성 유지시킴
- 보존, 이용비용을 고려한 수집정책은 기록관의 자원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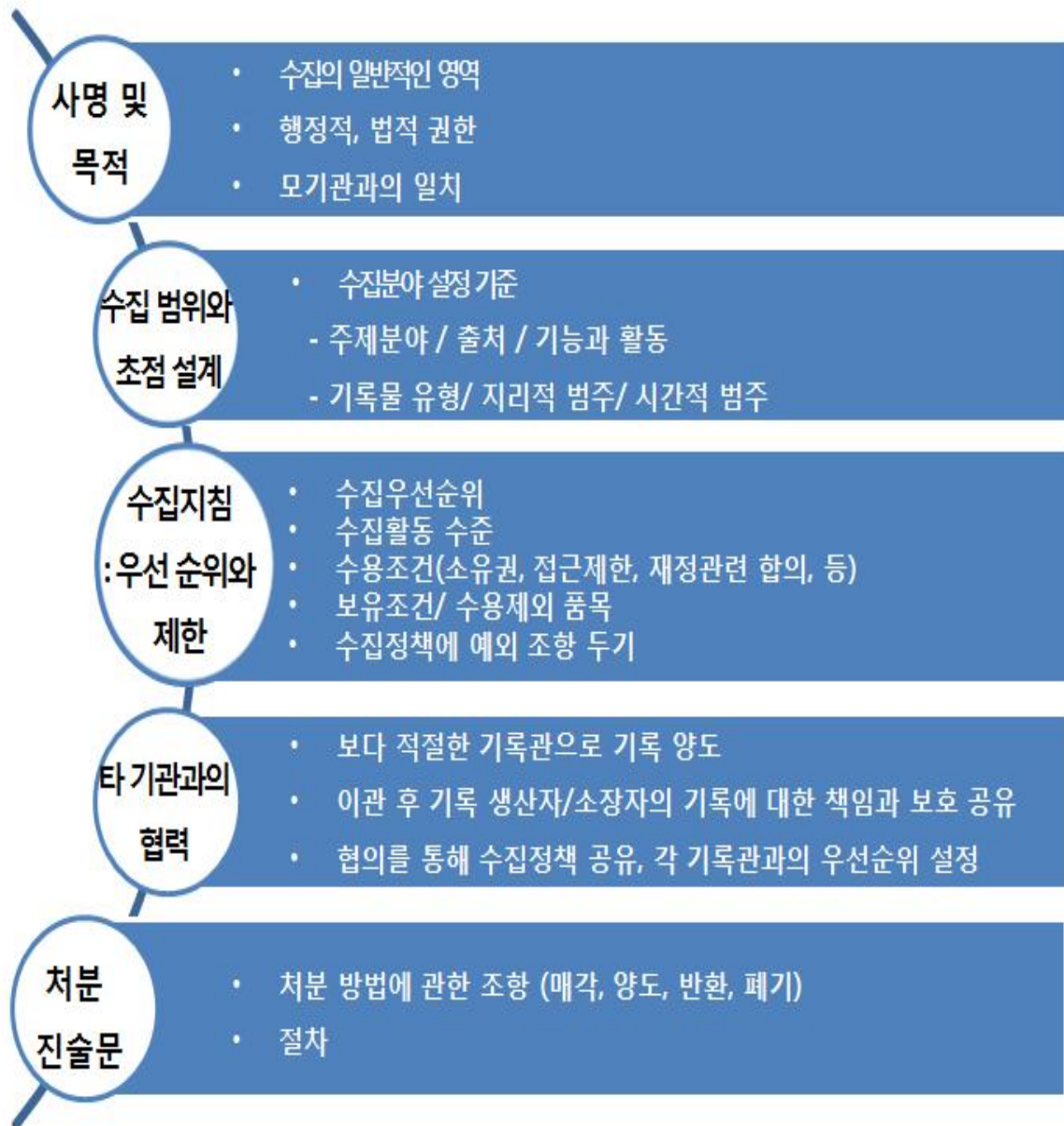
수집정책 수립시 고려요소

- 기록관 자원 이용가능성 고려 - 서고 수용능력, 인적/물적자원, 자원 확보/확장가능성 파악
- 정보의 이용가능성 - 접근 불가능한 정보의 경우 수집을 재고함
- 기록관 컬렉션 파악 - 기존 소장 기록을 보완하는 기록을 수집함(단행본, 신문, 정기간행물 등 소장 여부를 고려함)
- 타 기관의 기록 수집 상황을 파악함 - 타 기관 수집대상/소장 기록을 파악함, 타 기관 수집정책 분석을 통한 수집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함

수집정책의 작성시 구성요소

- 수집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명 및 목적에 대한 진술문, 수집 범위, 수집 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수집의 우선 순위와 제한사항에 대한 설계,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음

22) Ham, F. Gerald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번역). 서울: 진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3).



〈그림 20〉 수집정책문 작성시 고려사항

- 수집지침에서는 수집의 우선순위, 수집활동의 수준, 소유권, 접근제한, 재정관련 합의 사항 등의 수용조건, 보유조건, 수용 제외되는 기록물 유형 및 수집정책의 예외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표 31〉 수집지침의 우선순위 및 한계에 관한 내용

수집지침	세부 내용	
수집 우선순위	기록관의 사명 및 목적성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기록관에 이미 소장되어 있는 기록물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중요한 기능이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기록물 적기에 이관되지 않을 경우, 분실될 위험이 있는 기록물 연구 목적상 추가적인 도큐멘테이션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물로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기록물 아카이브즈가 아닌 정보원(예를 들면 신문, 정기간행물, 단행본, 각종 출판물) 속에 적절하게 도큐멘테이션된 기능이나 주제에 관한 기록물	
수집활동 수준	‘권유’ 수준에서의 수집 : 수집 노력의 적극성이 최상위 (포괄적인 다큐멘테이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수집할 필요성이 높은 기록물에 적절한 수집 수준) ‘수용’수준에서의 수집 : 기존 다큐멘테이션을 더 강화하는 선에서의 수집 수준	
수용조건	소유권	이관물 또는 위탁물에 대한 소유권 법적 절차
	접근제한	접근에 관한 불합리한 제한 금지 접근제한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재정관련 합의	처리, 서비스, 보존에 드는 비용에 대한 조건
	기증자가 제시하는 조건 한계 설정	
보유조건	관련성이 적거나 보유하기 부적절한 기록물 처리에 관한 내용 보존소와 기증자가 원하지 않는 기록물 보유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록물 - 처분(이관, 매각, 폐기) 보존소의 기록물 수용이 영구보존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	
수용제외 품목	수용하지 않을 자료의 유형 제시 유물, 신문기사 스캔, 특정 외국어 (출처에 기반) 자체 기록관을 운영하는 조직의 기록물 제외	
수집정책에 예외 조항 두기	상식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 조항 명시	

1.2. 국내 주요기관의 수집정책 분석

1.2.1. 국립중앙도서관

기관	한글	국립중앙도서관
	영문	National Library of Korea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nl.go.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6.10.기준)		자료구분 : 국내서 7,493,761권, 외국서 1,285,392권, 1,629,183권, 고서 277,274권 (총) 10,685,610권 소장 수입구분 : 납본 7,964,218권, 구입 1,088,564권, 기증 988,545권, 교환 460,810권, 자체생산 83,473권, (총) 10,685,610권 소장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대에 교육 및 연구용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1월 시범 수집을 통해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수집·보존 프로젝트

선정이유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는 국가지식보고,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소외)계층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전국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선도자,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와 역할은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을 근간으로 하기에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업무 중에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개발·수집·제공·보존관리’를 가장 중시하고 주력함
- 시대사조의 수용성, 수집자료의 융합성, 구성체계의 견고성, 현실적 적합성,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하고 있음

1.2.2. 국립중앙박물관

기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영문	National Museum of Korea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www.museum.go.k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5.12. 기준)		(중앙박물관)소장도서 : 단행본 112,783권, 연속간행물 41,070권, 고서 428권, 멀티미디어자료 3,705권, 특수자료 341권 (총) 158,327권 소장품 : 금속 59,118점, 토제 100,481점, 도자기 91,672점, 석 29,038점, 유리/보석 50,428점, 초제 102점, 나무 7,339점, 골각/패갑 4,947점, 지 35,563점, 피모 227점, 사직 5,913점, 종자 151점, 기타 1,257점 (총) 386,236점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외국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실을 지원하여 외국박물관 한국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선정이유

-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수집·보존과 전시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전통문화의 홍보·보급, 외국박물관과의 국제교류 및 국외 홍보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실을 지원하여 외국박물관 한국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1.2.3. 서울역사박물관

기 관	한글	서울역사박물관
	영문	Seoul Museum of Histor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6년 기준)		소장도서 : 도서 37,920권, 비도서 2,946건 (2016. 10.11일 기준) 소장품 : (총) 69,065건 181,685점(2016. 9. 30 기준) 입수경로별 - 구입(31,402건, 77,419점), 기증(36,312건, 96,746점), 관리전환(1,351건, 7,520점) 수장고별 - 석재, 금속(4,646건, 10,637점), 목재, 섬유(4,891건, 20,592점), 도토(2,102건, 3,551점), 지류(43,422건, 82,428점), 석재(대형)(28건, 37점), 가등록유물(13,976건, 64,440점)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소장자료의 구성에 있어서 구입이 45%, 기증이 53%로 기증의 비율이 높음

선정이유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 장소, 기억을 모으고 재해석함으로써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박물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물수집·관리 고도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수집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1.2.4. 국내기관 수집정책 종합분석

- 국내의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수집정책을 분석하여 수집정책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함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을 선정하여 수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요소와 개별적인 요소가 되출됨
- 공통요소
 - 용어정의 : 기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음
 - 사명문 : 미션, 비전, 수집 근거에 대한 내용을 통한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냄
 - 수집장법 : 구입, 수증, 위탁 등의 보편적 방법 및 영인, 제작 등의 기타 수집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자료의 수집(구입, 기증, 위탁 등)에 있어서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집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개별요소
 - 우선수집 대상, 수집(구입, 수증, 위탁 등)의 제한사항, 수혜(이용)집단의 세분, 분담수집, 수집정책의 보완 주기에 관한 사항이 있었음

〈표 32〉 국내기관의 수집정책 비교

기관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사명문	목적, 비전	목적, 비전	목적, 사명 및 비전, 추진목표
용어정의	도서관, 도서관자료, 구입,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문화재 구입, 문화재 수증, 특수자료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박물관, 박물관자료, 수집,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수집 범주	일반자료	유형문화재	근현대 생활자료 및 도시서울 성장 관련 자료 : 1950년 이후, 서울과 관련된 자료(생활기록, 의식주 생활, 개인애장품, 직업, 산업, 상업, 각종 캠페인 자료, 여가 생활, 선거 등 대규모 국책/시책 행사 관련자료 등)
	전자자료	특수자료	
	특수범주자료	도서관자료(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문화재, 고고학,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자료)	
	소속기관자료		

수집 방법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 · 기탁, 영인, 제작, 디지털 아카이빙 등	구입, 수증, 이관 등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 탁보관, 관리전환 등
위원회 운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문화재 구입관련 평가위원회, 문화재 수증심의위원회, 박물 관 소속 도서관의 구입자문위 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 운 영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 별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기타	우선순위 :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 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 쇄매체를 우선으로 함	구입, 수증의 제한 : 출처나 소유권 등과 관련하 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 료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의 성격 규 정
	수집의 제한 :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기 술한 자료로서 납본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지역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		
	보완주기 : 국가정책, 사회 환경, 지식 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3년 주 기), 수시로 보완주기를 설정 함	수증, 이관의 조건 제시 : 무상으로 함을 원칙	액션플랜 구상 : “유물수집·관리 고도화 중 합계획”등의 액션플랜을 구 상

1.3. 국내 수집정책 연구 사례 분석

1.3.1.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²³⁾

연구개요

- 교회기록관인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을 위해 교회의 특징 및 기록관의 수집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사례조사, 담당자 면담을 시행함
- Ham²⁴⁾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영락교회 기록관 수집 정책에 적용, 교회 기록물 수집정책을 분석함

수집정책 개발에서의 고려사항

- 사명문
 - 기관의 사명 및 연혁, 행정사 등의 정보를 토대로 작성
- 기록물의 수집범주
 - (시간적, 주제적 범주)기관의 설립 및 발전과정 관련기록물의 수집 및 기관의 인물(영락교회의 경우, 한경직 목사)의 생애에 관련된 기록물을 수집의 범주로 함
- 기록물 수집의 우선순위
 - 교회의 기록물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
 - 기록물 수집분야를 설정한 후,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기록물을 수집해야 함
 - 교회의 기능별 컬렉션 분석을 통해 기능별, 시대별, 형태별로 부족한 자료의 범주를 파악하고 우선수집 범주로 설정함
- 타기관간의 협력
 - 교회기록관은 유사한 기록물을 수집하는 타 기관과 협력하여 수집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함
 - 타 기관과의 중복수집 방지, 이용자들에게 소장외 자료의 소장처 안내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 등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언급
- 기록물의 처분

23) 이은진, 이유진, 윤은하 (2015).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2), 137-164.

24) Ham, F. Gerald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선별과 평가. (강경무 번역). 서울: 건리탐구. (원전 발행년 1993).

- 기관의 성격과 관련성이 적거나 보유하기에 부적절한 기록물의 처리에 관한 목적, 기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 명시할 수 있음
- 수집절차 마련
 - 수집정책에 따른 수집절차를 마련하여 일반적인 수집 또는 이벤트 수집(기획 수집)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함

연구의 한계

- 교회의 아카이브즈 기록물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현용기록의 이관 및 수집 방안은 포함되지 않음

1.3.2.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²⁵⁾

연구개요

- 매뉴스크립트 기관은 특별한 목적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수집정책이 부재한 경우가 빈번함
- 병무청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산출된 행정기록물을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보적 가치를 지닌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을 수집하고자 연구를 진행함

수집정책 개발에서의 고려사항

수집정책 개발에서의 고려사항에 대해 크게 3가지 영역에서 분석을 진행함

- 사명문
 - 사명문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한 언급만 함
- 수집범주 및 대상
 - 병역제도와 수행방법(시간적 범주)
 - 인물(주제-역대 청장, 자랑스러운 병무인, 병무청 연예인 홍보대상)
 - 병역제도사(시간적 범주/주제-징병검사 도구 변천사, 병역제도 종류, 세계의 병역제도)
 - 병무행정 역사(시간적 범주)

25) 이정희 (2009).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9(1), 5-32.

- 병무청과 관련된 이슈(주제-혁신 사례, 매체별 범주 - 사진기록, 신문기록)
- 수집방법 및 절차
 - 내부 수집 프로세스 : 병무청의 재직, 퇴직, 역대 병무청장 대상
 - 외부 수집 프로세스 : 외부기관 대상
 - 이벤트 수집 프로세스 : 국민(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 대상

1.3.3.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²⁶⁾

연구개요

- 수집정책은 기록관리기관에서 장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법적 당위성과 내용적 일관성을 위해 필요함.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는 구조적, 재정적 지속성이 부족함으로 장서 구축의 가이드라인이 절실함
- 노근리 사건과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반영한 수집정책에 관해 연구함

수집정책 개발에서의 고려사항

수집정책에 포함될 요소로 아카이브의 목적을 규명하는 ‘사명 기술’과 ‘대상 이용자 정의’, ‘수집 범위와 대상’, ‘수집 절차’, ‘저작권 및 기타 결정사항’에 대해 언급함

- 사명과 목적 정의
 - 노근리 아카이브의 사명과 목적
 - 첫째, 노근리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역사자료의 한계를 넘어, 노근리의 경험과 기억을 포괄하는 증언과 자료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공식문서에 실리지 못한 피해자와 희생자의 경험을 수록함
 - 둘째, 노근리의 경험과 기억이 관련 개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여 그들의 삶을 조명하고, 그 삶들의 전체로서 사건의 사회적 의미를 관찰하고 보존하고자 함
 - 셋째, 아카이브에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향후 변화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 환경에서 노근리가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는지를 관찰하고자 함

26)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1-30.

- 이용자에 대한 정의

- 노근리 희생자, 피해자 및 유가족, 학술연구자, 기자, 학생, 문화 예술관련 종사자, 일반인 등을 포함하여 아카이브가 제공하는 기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이용자로 규정하고 있음

- 기록의 출처

- 노근리 평화공원 내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기초로 수집하나 국적 불문, 모든 시민의 자료 모두를 대상으로 함

- 수집범위

- 내용적 범위 : 1999년 AP에 사건 보도 이전, 생존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을 알리기 위해 활동한 기록 등 형태 제한 없음
- 우선수집 대상 : 노근리의 기억을 확장할 수 있는 내용, 매체/ 형식적, 구조적, 내용적 특이성/ 노근리 사건의 주류 기록에서 소외된 주체의 기록/ 사건의 한 단면을 다양한 형태와 관점으로 조명하는 기록

- 수집절차

영속적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만을 선정하여 디지털 기록만을 보존함 (실물기록의 수집은 안함)

- 디지털 변환 후 수집
- 구술기록의 수집
-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표 33〉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의 이용자 참여 약관

이용자 참여 약관(Terms and Services for User Contribution)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록이나 기억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사진, 문학, 기타 자료 등의 일부나 전부에 기초 또는 복제한 것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비밀, 보안,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기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자료 제출은 아카이브가 자료의 영구적인 사용과 배포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아카이브 및 아카이브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귀하의 자료가 기증될 수도 있는 공공도서관이나 기록관)에게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대한 면책권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시 모든 권한을 같이 위임하므로 법률적 책임이나 청원에 있어 면책됩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로의 자료 제출은 아카이브 및 관련된 모든 미디어에서 영구적으로 사용, 배포될 수 있음에 대한 동의를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게시됩니다. 기증한 자료는 아카이브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 이용, 공정이용, 공익적 이용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는 귀하가 제공한 기록을 다른 디지털 포맷으로 변환하여(예: txt파일을 pdf로 변환) 제공 및 활용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에 수록된 자료에는 다른 이용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인용표시를 안내하여 원저작자에 대한 크레딧(credit)를 부여합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기록물 게시가 가능합니다.

약관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이후에도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의 “제출”을 누르시는 것은 위의 약관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제출]

■ 저작권

- 저작권이 없는 공공영역의 기록 수집을 우선함. 보호받는 저작물은 개별적인 협의와 허가를 거쳐 수집을 함

■ 협력 및 기록 공유 정책

- 노근리 디지털아카이브와 목적이나 내용, 지향을 공유하는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와 협력함. 협력의 범위와 내용은 협력 아카이브와 함께 협의하여 결정함
- 협력의 사례로, 아카이브에 저장된 기록의 공유, 협력적 온라인 전시, 아카이브의 지속성을 위한 학술활동,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음

■ 의사결정

- 수집정책 및 선별의 결정은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팀 전체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 필요시 자문위원회 개최함

1.3.4. 국내의 수집정책 연구 사례 종합분석

- 국내 수집정책 연구사례를 분석하여 수집정책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함
-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와 기관별 특징을 반영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공통요소
 - 사명문 : 목적과 미션, 비전, 수집 근거에 대한 내용을 통한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냄
 - 수집절차(수집방법 포함)
 - 기관 내부 자료의 수집, 외부기관 대상 수집, 이벤트 수집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수집의 방법에 대한 내용 포함-디지털변환 후 수집, 구술기록의 수집 등
 - 수집범주 : 기록의 출처, 내용적 범위(시간적 범주 기준 포함) 등에 관한 내용 포함
 - 우선수집 : 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수집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능별, 시대별, 내용별, 형태별 특징에 관한 내용 포함
- 개별요소
 - 타기관간의 협력, 저작권(기증·위탁 사항 포함), 의사결정(기록물의 처분,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있었음

〈표 34〉 국내의 수집정책 연구 사례 비교

연구 항목	영락교회 역사자료실의 수집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연구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연구
사명문	목적, 비전	(기관설립)목적, 수집활동의 방향	목적
			이용자 정의
수집 절차 (수집방법)	개인·기관 등으로부터의 수집	내부 수집 프로세스	디지털변환 후 수집
		외부기관 대상 수집 프로세스	구술기록의 수집
	이벤트 수집	국민(개인) 소장 이벤트 수집	이용자 참여 기록의 수집

수집 범주	교회의 설립 및 발전과정 (시대별 주요 인물과 사건, 교 회조직 내 활동)	병역제도와 수행방법	기록의 출처
		인물	
		병역제도사	내용적 범위
	한경직 목사의 생애	병무행정 역사	
		병무청과 관련한 이슈	
우선 수집	기능별 컬렉션	-	내용적 특징
	시대별 컬렉션		형태적 특징
	형태별 컬렉션		
기타	타기관과의 협력	기증·위탁	저작권
			협력 및 기록 공유 정책
	기록물의 처분	매뉴스크립트 선별·선정위원회	의사결정

1.3.5.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²⁷⁾

연구개요

-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형식의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저작권에 관련하여 어떻게 이용자들을 안내하고, 적법하게 기록물을 수집, 이용하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저작권을 소개, 적용하는 방법에 관해 안내하는 방법을 제안함

이용자기여콘텐츠((User-Contributed Content)의 정의 및 유형

- 이용자제작콘텐츠(User-Created Content, UCC) 등과 함께 포괄적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시스템 제공자가 고용한 사람이 아닌 일반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함. 이런 정보에 있어 일반적으로 ‘기여자’와 ‘이용자’는 그 구분이 분명치 않음²⁸⁾

27) 김수진, 신동희 (2016).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고찰. 한국학연구, 49, 5-49.

28) Jian, L. & MacKie-Mason, J. K. 2012. Incentive-Centered Design for User-Contributed Content. The Oxford Handbook of the Digital Economy. Retrieved from <https://deepblue.lib.umich.edu/bitstream/handle/2027.42/100229/icd4ucc.pdf?sequence=1>

-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용자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소셜태그, 단순한 사실 적시, 의견 게재, 자신이 소장한 자료 공유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창작성의 개념이 중요하게 드러나지 않음. 형식이나 창작성 유무와 상관없이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공표한 콘텐츠라고 정의함
- 이용자기여콘텐츠 관련 국내 저작권 규정
 - 우리나라의 「저작권법」(법률 제14083호)8)에 따르면 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으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고,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이 있다. 이외에 배타적발행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등이 있으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보호하는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및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조항이 있음

국내외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관련 규정

- 국내외의 많은 디지털 아카이브는 이용자의 참여를 받고 있음. 이러한 이용자 기여콘텐츠는 저작물의 원저작자가 기관이 아니라는 점, 제공하는 콘텐츠의 내용이나 형식이 다양하다는 점, 기증방식도 여러 가지라는 점 등 저작권과 관련해서 논의해봐야 하는 부분이 많음

〈표 35〉 디지털 아카이브의 저작권 관련 규정

사이트 사례	이용자로부터 수집하는 콘텐츠 유형	저작권 관련 유형 3가지		
		①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②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여부	③ 이용을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 이야기(Story) • 사진 또는 이미지(Photo or Other Images) • 비디오(Video) • 오디오(Audio)	○	○	•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 • 인용 표시 (콘텐츠 제목, URL, September 11 Digital Archive, 접속일자)명시하도록 함
Hurricane Digital	• 이미지(Images) • 오디오(Audio)	○	○	•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 • 인용 표시 (저자명, 콘텐츠

Memory Bank				제목, Hurricane Digital Memory Bank, 접속일자, URL) 명시하도록 함
Our Marathon, the Boston Marathon Bombing Archive & WUBR Oral History Project	• 이야기(Story) • 이미지(Image) • 이메일(Email) • 비디오(Video) • 텍스트 메시지 (Text Message) • 오디오 녹음 (Audio Recording) • 웹사이트 (Websites)	○	○	• 공정이용을 넘어서는 이용은 별도의 허락을 받을 것을 명시 • 일부 개별 아이템마다 저작권 표시
People's Collection Wales	파일 형태로 올리게 되어있으나, 파일의 유형 제한은 없는 것으로 추정됨	○	○	○
Pictures of the Year International	나와 있지 않음	○	×	• 이용허락 범위 표시 없음 • 인용 표시 (Photographer/Creator, POYi Archive 내 콘텐츠 제목, 아이템 번호, URL, 접속일자)를 명시함
Digital Archive of Japan's 2011 Disasters	• 웹사이트 (Websites) • 이야기(Story) • 이미지(Images)	×	○	×
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 디지털 파일 (문서, 사진/이미지, 음성녹음, 동영상) • 손으로 직접 쓴 기록 원본 또는 스캔/사진촬영본	○	○	× (생산자, 출처, 기여자는 표시)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	• 디지털 파일 (문서, 사진/이미지, 음성녹음, 동영상) • 손으로 직접 쓴 기록 원본 또는 스캔/사진촬영본	○	○	× (생산자는 표시)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관련 제언

-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 디지털 아카이브가 수집할 수 있는 이용자기여콘텐츠는 이용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자신의 콘텐츠와 「저작권법」상 인정되는 수준의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임
 - 아카이브는 이러한 콘텐츠를 수집하여 공개하는 경우 충돌할 수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안내와 아카이브의 입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증뿐만 아니라 이용에도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약관이 필요함

〈표 36〉 이용약관 구성요소

이용약관 구성요소	콘텐츠 기여자의 연령제한 저작권 또는 소유권보유, 양도 (이러한 권한을 바탕으로 아카이브에 면책 등 권한 부여) 콘텐츠 활용 기타(운영상 선택항목) 약관관련 규정
-----------	--

- 콘텐츠 등록 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공유할 때 약관 등을 참고하지 않을 수 있고, 약관은 대체로 포괄적인 정책만을 나타내므로 이용허락에 관한 부분은 내용을 확실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이용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 홈페이지의 약관은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 콘텐츠마다 적용되는 저작권 사항은 다를 수 있고, 같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이 개별 콘텐츠를 이용할 때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안내해주는 것도 좋은 실천방법임
 - 개별 콘텐츠에 저작권자, 출처, 인용표시 예시 등을 제시해 이용자들을 안내할 수 있음

1.4. 해외의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분석

1.4.1.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영문	Archives of Manitoba
	지역	마니토바, 캐나다
	홈페이지	http://www.gov.mb.ca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마니토바 주(state)기록, 민간/학교기록, 허드슨 베이 회사 기록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캐나다 역사와 관련이 깊은 회사(허드슨 베이)의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허드슨 베이 기록물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선정이유

-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은 마니토바 지역의 개인, 가문, 조직, 기업과 커뮤니티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마니토바 지역 사람들과 허드슨 베이 회사의 역사 및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1.4.2.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영문	Archives of Ontario
	지역	캐나다, 온타리오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v.on.ca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개인, 기업, 클럽이나 협회 및 정치적 단체, 노동 단체 등 지방 역사의 중요한 기록물을 수집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기록물을 지역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에 의해 열람할 수 있음

선정이유

- 1903년 설립된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아카

이브로 지속적으로 온타리오의 역사와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함

1.4.3.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영문	Tasmania Archives and Heritage Office, TAHO
	지역	호주, 태즈메이니아
	홈페이지	https://www.linc.tas.gov.au/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태즈메이니아의 유산 컬렉션과 기증 컬렉션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지역 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수집을 제시하고 있음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u>오스트레일리아</u> 의 유죄판결 기록(The Convict Records of Australia)은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

선정이유

-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함
-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상상력의 자극, 문해능력의 지원, 즐거움과 휴식, 오락의 제공, 넓은 범위의 지식과 정보 제공, 전문적인 태즈메이니아의 자료를 목표로 컬렉션을 구성함
- 태즈메이니아 지역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People), 사건(Events), 정부(Government), 사업(Businesses), 조직(Organisations)의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함
- LINC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의 대학, 공공도서관, 정부 부처, 호주의 국립 및 주립도서관(NSLA)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임

1.4.4.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영문	State Archives of Florida
	지역	플로리다, 미국
	홈페이지	http://dls.dos.state.fl.us/archives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주정부기록, 지방정부기록, 매뉴스크립트 기록(비정부 수집기록), 플로리다 사진컬렉션, 족보(계보) 컬렉션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	
특이사항	지방정부의 공공기록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집함, 컬렉션별 수집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며 기록물평가요소로 세금관련 문서인지를 살피고 있음	

선정이유

-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은 주 정부의 아카이브로 중앙 저장소임. 넓은 의미에서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플로리다의 공공기록, 역사적 기록, 민간기록을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임(네모집어넣을 것)

1.4.5.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영문	South Dakota State Archives
	지역	미국, 사우스 다코타
	홈페이지	http://history.sd.gov/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사우스 다코타 주(state), 카운티(county), 마을(town)의 정부 기록, 사진, 지도 및 기타 영구적으로 역사적이고 연구적 가치를 지닌 보존 기록자료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	
특이사항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은 1901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짐. 고고학, 아카이브, 역사 보존, 박물관, 연구 및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선정이유

-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은 역사적인 사회를 이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

(state)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임

- 사우스 다코타 지역의 역사적 사회 컬렉션을 평가, 인수, 기술, 조직, 보존하고 중요성을 결정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이용가능하게 만들

1.4.6. 해외의 주립기록관 수집정책 종합분석

- 해외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을 분석하여 수집정책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함
- 분석결과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와 기관별 특징을 반영한 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 공통요소
 - 사명문
 - 목적과 미션, 비전, 권한에 대한 내용을 통해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음
 - 수집범주
 - 대부분 지역과 관련한 ‘역사성’과 ‘지역성’에 대한 자료를 수집범주에 포함하고 있음
 - 우선수집
 - 주정부의 공공기록은 우선시 하되, 지방정부의 기록들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음
 - 민간기록의 수집에 있어서 지역과 관련된 개인, 가족, 기업, 학교 등의 기록을 수집의 범주로 설정하고 있었음
 - 민간기록물 수집기준 제시하고 있음
 - 기록물의 기증
 - 주립기록관의 경우 대부분 기증을 통한 민간기록물 수집을 하고 있었음
 - 기증시에 제공하는 혜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웹을 통해 기증컬렉션을 구축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기증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 기증유도를 하고 있음
- 개별요소
 - 기증시의 기록물 제한사항, 기록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들을 기재할 수 있도록 구성함

〈표 37〉 해외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비교

기관 항목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Archives of Manitoba)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Archives of Ontario)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Tasmania Archives and Heritage Office, TAHO)
사명문	권한(의무), 비전		비전, 미션, 가치
수집 범주	마니토바의 경험에 대해 상호 보완적으로 균형 잡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함		태즈메이니아의 이야기를 기록화 한 다양한 형식의 역사적, 현대적 자료의 넓 은 범주를 수집함
	마니토바 정부의 기록 (Manitoba government)	정 부 기 록 (O n t a r i o Government Records)	태즈메이니아 정부 기관 (Tasmanian government agencies)
	민간부문의 기록(private sector)	민간부문 기록(Private Sector Records)	산업(businesses)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지역의 기록	도서관(Library) 컬렉션	지역사회 조직 (c o m m u n i t y organisations)
	허드슨 베이 회사 아카이브 (The Hudson's Bay Company Archives, HBCA)	아트 컬렉션(Arts Collection)	개인과 가족(individuals and families)
수집 제외	-출판물(publications) -유물(artifacts) -별개의 기록건(discrete items) -중복된 자료(duplicates) -복사본(copies) -개인적 또는 조직에서 법적인 이유로 필요한 자료 -개인 정보로 구성된 기록	보존기록평가 기준을 제시함	
기증 시 고려사항	-소유권 이전 -저작권의 양도(권장) -기록물 제한(반드시 만료기한 이 있어야 함을 명시)	-소유권 및 보관 -이용 약관 -접근 및 저작권	- 기증시 저작권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이 기록관으로 이전됨 - 위탁시 선택사항을 제시 (□ 공개, □ 25년이 지나 지 않은 기록물에 대한 접근 제한 제공, □ 기타)
기증혜택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 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제공	-시장가치에 근거한 세금계산 서 제공(기증에 대한 감사와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 함)	-시장가치에 해당하는 세 금 공제혜택 제공

		-기증자 안내(개인과 기관 및 단체로 나누어 기증자의 이름 순으로 기증 시기와 기증 기록 물에 대한 설명을 웹 사이트에 제공)				
민간기록물 수집범주	정부와 민간 부문의 기록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rchives(GPSA)) : 마니토바의 경험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균형 잡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함		연령, 인종, 성별, 종교, 능력/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관점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온타리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물		연구적 가치, 역사적 관계, 사회적, 문화적 의미를 지닌 희귀하고 독특한 자료의 수집	
	주제영역	원주민	우선순위	건강	인쇄 및 전자책	
		이주		교육	저널	
		정착		환경	정부기록	
		농업	관심분야 (일부)	농업	원고	
		노동		문화	영화	
		건강			사진	
		예술과 문화		에너지	음성녹음자료	
				산업	예술작품	
					지도	
				계획		
				웹 사이트		
기록물의 처분	기증 기록물 평가위원회 정기적 운영		보존기록평가 기준을 제시함		처분권한을 가지고 폐기 또는 적절한 기관으로 이관함. 기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원하는 다른 처분 조치를 명시하게 함	
기타사항	접근제한에는 반드시 만료기한이 있어야 함을 명시				지역 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수집을 제시 위탁절차를 제시(위탁동의양식을 PDF로 제공)	
기관 항목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사명문	미션, 권한			미션		
수집범주	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과 관련된 공무원의 개인기록만을 수집			지역역사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을 수집		

	주정부 공공기록 컬렉션(State Government Public Records Collection)	정부 기록(Government Records)
	지방 정부 공공기록 컬렉션(Local Government Public Records Collection)	사우스 다코타와 지역의 역사(South Dakota and Regional History)
	매뉴스크립트 컬렉션(비정부기록)/Manuscript Collection (Non-Government Records)	특별한 도서관 자료(Special Library Materials)
	플로리다 사진 컬렉션(Florida Photographic Collection)	디지털 기록(Digital Records)
	족보(계보) 컬렉션(Genealogical Collection)	
우선수집 대상	-주정부 공공기록이 플로리다 아카이브의 핵심기록임.(1821년~현재까지의 플로리다의 영토와 주정부의 활동 기록)	-정부기록 -사우스 다고타와 지역의 역사 계보 참고 도서관에 추가할 자료 디지털 기록
수집제외	지방정부의 공공기록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주립 기록관은 적극적인 수집을 하지 않음 -3차원 객체 -큰 주의 공공기록이나 사우스 다코타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기록자료 -지역의 역사와 관련되지 않은 간행형태의 자료
수집방법	구입을 위한 수집예산이 없음. 오직 기증을 통해서만 민간기록물을 수집함.	구입 또는 기증
기증양식	기증동의양식을 PDF형식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기증동의양식을 PDF형식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저작권	기증시, 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됨과 동시에 저작권에 속한 모든 권리가 주립기록관으로 이전됨을 명시함. 주립기록관은 후에 이용자가 요청하는 기록물의 인용이나 출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	
접근제한	접근제한에 반드시 만료기한이 있어야 함을 명시	
처분사항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증동의양식에 처분에 대한 조항에 따라 처리 조항이 없을 경우, 아키비스트의 재량에 의해 처리(외부에 기록물 판매행위는 금지)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버림, 다른 방식을 원할 경우 직접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1.5.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수집기관의 연계

1.5.1.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

기 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영문명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홈페이지	http://www.oac.cdlib.org/
수집자료 구성		20,000이상의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 220,000이상의 디지털 이미지와 문서 제공
특이사항		지역 내의 기록 소장기관들이 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참여함

선정이유

-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AC)는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소장 기록, 200여 개의 캘리포니아 소재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차자료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웹 사이트임
- OAC는 협력기관들의 가상 아카이브임. 컬렉션 가이드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중앙 저장소로서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컬렉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 정보원을 제공함
- 아카이브, 도서관 및 박물관 컬렉션의 실제 위치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1.5.2. MemoryBC

기 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메모리BC
	영문명	Memory BC
	홈페이지	https://www.memorybc.ca/
수집자료 구성		Memory BC 포털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약 200여 개의 보존소들의 검색 가능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
특이사항		Memory BC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아카이브 네트워크 서비스(BC Archival Network Service)의 일부분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카이브 협회(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AABC)가 관리하고 있었음. 2009년에는 'BCAUL'로 알려졌으나, AABC가 BCAUL의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인 AtoM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Memory BC'로 이미지를 새롭게 할 기회를 가짐

선정이유

- Memory BC는 기록, 문서, 사진.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인 정보 자료에 접근, 검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록컬렉션의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임
- 컬렉션/풍(fonds)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며 일부 원문이 제공됨
-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소장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 가능한 링크를 제공함
-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이용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함

1.5.3. People's Collection Wales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영문명	People's Collection Wales
	홈페이지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
수집자료 구성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는 국가와 지역 조직,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그룹에 의해 기증되고 공유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됨
특이사항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웨일즈의 스토리에 대해 찾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2개 국어(영어/웨일즈어)로 구현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함.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며, 콘텐츠 생산에 이용자가 참여함

선정이유

-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로 웨일즈에 관한 사진, 음성, 문서, 비디오, 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임
- 지역사회, 가문, 마을, 도시, 산업 그리고 전통의 역사를 수집하고 있음

1.5.4. Calisphere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미국 캘리포니아의 캘리스피어(Calisphere)
	영문명	Calisphere
	홈페이지	https://calisphere.org/
수집자료 구성		400,000여 개의 사진, 문서, 편지, 아트 워크, 일기, 구술, 영화, 광고, 음악 등을 서비스함 Calisphere의 컬렉션은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와 다른 중요한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에 의해 기부된 디지털화 자료로 구성됨
특이사항		지역의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함 Calisphere은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의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California Digital Library(CDL)에서 발전·유지되고 있음

선정이유

- Calisphere은 캘리포니아의 기관(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역사협회 등)들이 협력하여 세워진 디지털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집합체로서 캘리포니아의 고유

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연구, 교육, 흥미위주 탐색에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함

- 협력기관들이 소장한 수천의 사진, 문서, 예술작품, 기타 역사자료의 디지털 원문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장서 내 수많은 뛰어난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만듦
- 지역의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한 사례임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에서 협력기관들이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1.5.5. Digital Library of Georgia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
	영문명	Digital Library of Georgia
	홈페이지	http://dlg.galileo.usg.edu/
수집자료 구성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은 60 기관, 100여 개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200개 이상의 컬렉션을 통해 1만여 개의 디지털 객체를 제공함 조지아 문화유산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은 주 전역에 걸쳐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특이사항		텍스트 기반의 원고, 편지, 일기, 책 등과 팸플릿, 사진, 지도, 예술, 유물, 오디오 및 비디오, 건축 계획 및 도면,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 그래픽 자료 형태의 작품 등을 포함하며, 원본 형식을 제공함

선정이유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화 된 책, 원고, 사진, 정부문서, 신문, 지도,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정보원을 제공하는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게이트웨이임
- 자료 또는 컬렉션이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을 준수해야 하며,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 있어야 함

1.6.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공동체의 연계

1.6.1. Connecting Histories

기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영국 버밍엄의 공동체 아카이브 Connecting Histories
	영문명	Connecting Histories
	홈페이지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
수집자료 구성		8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됨(All Faiths For One Race (AFFOR), 버밍엄 반 아파르트 헤이트 (Anti-Apartheid)운동 기록, Pogus Caesar(버밍엄 사진 작가, 예술가 및 영화 제작자)의 사진모음, 교회 선교사 협회/버밍엄 대학교 특수 컬렉션, Nick Hedges(사진 작가), Paul Hill(사진작가), Terry Lo(사진 작가), 노예제도/노예제도 관련 자료, 스파크 부룩 (Sparkbrook)협회의 기록으로 구성됨)
특이사항		2005년 2월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끝난 공공아카이브가 주도한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공동체의 구성원이 기록의 수집,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기록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에 대해 언급함

선정이유

- Connecting Histories는 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버밍엄시 아카이브가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교육대학, 워윅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과, 흑인의 과거와 버밍엄의 미래 그룹(Black Pasts, Birmingham Futures group)과 협력하여 진행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임
- 영국은 다문화국가로 묘사되지만, 새로운 영국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음. Connecting Histories는 20세기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역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아카이브 컬렉션에 잠재되어 있음
-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공유된 정체성, 상식, 여러 문화유산에 대한 토론을 장려할 수 있도록 컬렉션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6.2.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기 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영문명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홈페이지	http://www.ccan.co.uk
수집자료 구성		CCAN은 캠브리셔의 도시와 마을 등 32개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주의 지역 역사를 함께 기록함
특이사항		CCAN은 2008년 중반부터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며, 캠브리셔 주 의회 연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여분의 기금을 지원함 CCAN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가장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 중 하나임 2013년부터 CommunitySites < http://www.communitysites.co.uk/ >로 이전됨

선정이유

- CCAN 프로젝트는 2006년~2008년 지방정부의 지원(Heritage Lottery Fund(HLF)의 재정지원을 받아)을 받아 캠브리지 지역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목표로 구축됨
- 캠브리셔의 지역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업로드 한 기록들에 대한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기록의 맥락을 풍부히 함

1.6.3. CAW(Community Archives Wales)

기 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웨일즈 공동체 아카이브
	영문명	Community Archives Wales(CAW)
	홈페이지	http://www.ourwales.org.uk
수집자료 구성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유함
특이사항		기록관, 아카이브, 대학아카이브, 남웨일즈 광부도서관 등 웨일즈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유산 그룹들이 생산,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하기 위한 웹 사이트임 영어와 웨일즈의 2개 국어로 포털이 서비스되고 있음

선정이유

-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는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화하고 해석을 제시함

-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자신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CAW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사진과 기술(description)을 제시하며, 이용자들은 서로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통해 맥락을 풍부히 하고 있음

1.7.소결

-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 및 수집정책문 작성을 위해 국내 기관 사례(3개 기관), 연구사례(4건), 해외 주립기록관 사례(5개 기관), 해외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5개 기관), 해외 공동체 연계수집(3개 기관)의 사례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음

〈표 38〉 국내외 기관별 수집정책 특징

구분		기관명	특징
국내기관	기관분석	국립중앙도서관	수집영역별 구체적 지침 제공, 웹 아카이빙 수행, 분담수집, 수집정책 보완주기(3년) 설정
		국립중앙박물관	출처, 소유권 등이 논란이 있는 경우 수증제한 평가 및 심의위원회 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기증자에 대한 혜택 제공(기증증서와 감사패 등) 비전: “도시 정체성”언급 목표: 거버넌스 체계 언급 근현대 생활자료 및 도시서울 성장 관련 자료수집
	연구(논문) 분석	영락교회 역사자료실 수집정책	타기관과의 협력에 대해 고려함
		병무행정 매뉴스크립트 수집정책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한 안내
		노근리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정책	저작권이 없는 공공영역의 기록을 우선 수집함 이용자 참여형 아카이브 이용자 기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정책
		참여형 디지털 아카이브에서의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홈페이지 내 이용약관 명시 콘텐츠 등록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동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콘텐츠별 저작권 표시 및 이용허락 범위 명시
	해외기관	주립기록관	정부기록, 민간부문의 기록, 지방단체 및 학교기록 수집 지역의 회사 아카이브를 스페셜 컬렉션으로 구성 기증에 대한 감사와 사례 제공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정부와 시민의 상호협력 반영하는 기록물 우선수집

			함 스페셜 컬렉션으로 아트 컬렉션을 가지고 있음 민간부문의 컬렉션의 범주를 주제별로 설정 위원회 방식이 아닌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기증시 세금혜택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컬렉션 별로 수집영역을 안내 스페셜 컬렉션으로 사진 및 계보 컬렉션 구성 이용접근제한에는 만료기한 명시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디지털 자원에 보존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수집기관과 공동체 연계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	자료를 소장하지 않고 분산보관, 통합검색을 제공 공유 및 협력에 따른 이익 제공
		MemoryBC	오픈 소스인 AtoM 적용 통합검색 제공 주제별 수집
		People's Collection Wales	디지털 플랫폼 무료제공 이용자 참여형 아카이브 교육지원 제공
		Calisphere	주제별 컬렉션 제공, 이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Digital Library of Georgia	이용자집단을 세분화, 디지털 포털서비스에 연계된 디지털 객체에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 구체적인 삭제항목 예시(부정확한 정보, 저작권이 불분명한 경우 등)
		Connecting Histories	수집기관과 공동체의 파트너십,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테마를 사람, 장소, 주제, 시대로 구성 자료의 소유자가 저작권 보유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비영리 목적(공공참조, 교육적 목적)의 사용 허용 자료의 소유자가 저작권 보유 주제별 콘텐츠 구성
		CAW(Community Archives Wales)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 축하여 공유
	수집전략	캐나다 LAC, 토탈 아카이브 전략	분산보존, 연계수집(네트워크) 정부기록과 민간기록 연계를 통한 통합검색 제공
		영국 TNA, 실행선별정책(OSP) 수집전략	주제분류기반, 선별평가지침 제공 그리그 시스템 + 주제분류 → 이중 평가체제 채택

시사점 및 벤치마킹 요소

- 분산보존 , 연계를 통한 수집 및 서비스 방식
 - 기록물의 직접적인 기증은 지양하고, 기관간 연계를 통해 기록의 통합검색을 지원함
 - 캐나다의 토털 아카이브, 수집기관과 수집기관의 연계(OAC 등), 수집기관과 공동체 연계(Connecting Histories 등) 등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에서 알 수 있음
- 무료 플랫폼의 제공
 - 참여기관, 참여공동체, 이용자들이 디지털 사본을 업로딩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함
 - 국가와 지역 조직,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그룹에 의해 기증되고 공유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을 지향함
 -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People's Collection Wales), Community Archives Wales(CAW) 이용자들은 서로의 게시물에 댓글을 통해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고 있음
-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
 - 수집기관, 공동체, 이용자가 참여하여 아카이브의 콘텐츠를 구축함
 - 의사결정 과정에도 이용자들을 참여(영국 TNA, OSP의 컨설팅레이션 제도 운영시 시민의 의견 반영) 시켜 거버넌스 체계의 기반을 마련함
- 소유권 및 저작권 관련 정책을 운영함
 - 주로 생산자(공동체, 수집기관, 이용자 등)들의 저작권을 양도 및 이양 받는 형태가 아니라 개별 기록에 대한 원저작자의 권리를 인정함(Connecting Histories, CCAN, CAW)
 - 대신 활용권을 확보하여 서비스하고 있음(CCAW 등)
- 공유와 협력에 따른 이익(혜택)의 제공

- 기증이나 위탁시 개인이 관리하고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적절한 보존환경,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정리 등)를 기록원에서 책임져주고 다음 세대에 나의 기록이 사회의 일부로 유지되고 이용됨을 명시함
- 해외의 주립 기록관에서는 기증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세금감면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온타리오 주립기록관, 호주의 테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 기증증서와 감사패 제공(서울역사박물관), 기록보존에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People's Collection Wales)하는 등 공유와 협력에 따른 혜택을 안내하고 있음

■ 기록물 평가 위원회(또는 기준) 명시

- 구입자료나 기증자료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정체성과 부합되는 자료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거침(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 보존기록 평가기준 명시 하고 있음(온타리오 주립기록관)

■ 교육지원에 대한 안내

-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화 교육(저작권, 메타데이터, 폴더 생성 등), 웹 기반 학습패키지 개발 등 교육을 지원함.(People's Collection Wales, Connecting Histories)

■ 아키비스트 양성

- 교육을 통해 2명의 피교육생을 아키비스트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영국 Connecting Histories)

■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기록물의 열람서비스 제공

- 기록관의 열람좌석에서 기록물을 열람할 수도 있고, 지역도서관의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해 기록물 열람서비스 제공(온타리오 주립기록관)

■ 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외의 대부분의 주립기록관의 경우)

- 기증자료의 경우,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기증동의서

에 기재된 처분에 대한 조항에 따라 처리를 함

■ 수집제외 대상을 명시

-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은 자료 혹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의 경우 수집에서 제외되고 있음(국립중앙도서관, 국립박물관 등)

■ 수집정책의 보완주기 고려

-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 국가정책, 사회 환경, 지식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의 정보요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기적(3년)/상시적으로 보완하고 있음
- 수집정책의 변화가 생기면 새로운 자료로 업데이트를 통한 수정보완 작업을 꾸준히 해줘야 함(영국 TNA, OSP도 상시적으로 수정보완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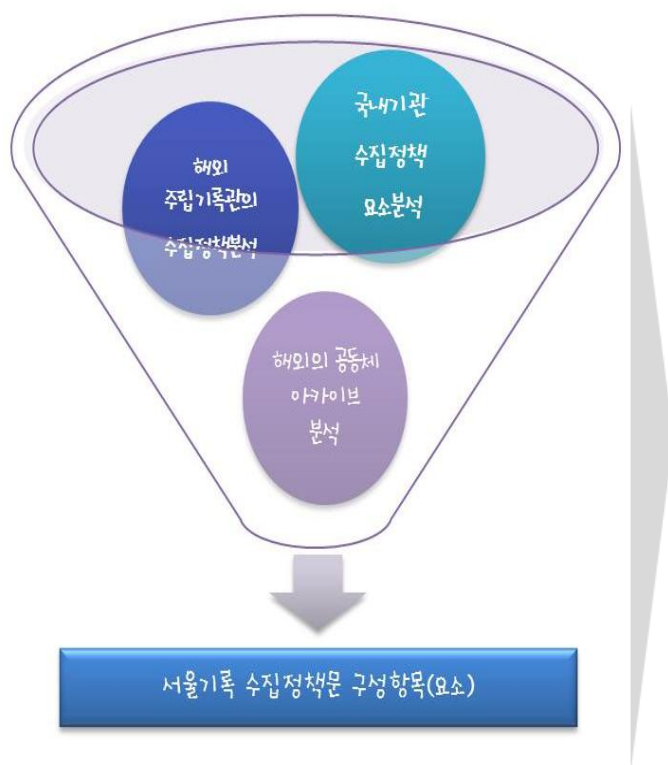
■ 제한사항에 대한 명시

- 수집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에 대한 명시를 통해 기관의 정체성은 물론이고 기록원의 보유자원에 대한 이용 및 기증에 도움을 주고 있음
- 대부분의 해외 주립기록관의 경우, 기록물에 대한 접근제한, 공개시기 등의 제한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 수집정책문

2.1. 수집정책문 구성요소

- 국내기관(3개 기관), 연구사례(4건), 해외 주립기록관(5개 기관), 해외 참여형 아카이브(8개 기관)의 수집정책 항목을 비교·분석하여 수집정책문 구성요소를 도출함
- 도출된 항목으로는 사명문, 수집범주, 우선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수집범주, 수집제외, 수집방법, 기증양식, 저작권, 수집시 고려사항, 기증/연계 혜택, 접근제한, 기록물의 처분, 타기관과의 협력, 기록물(수집/기증)평가위원회, 보완주기 등이 있었음



서울기록 수집정책문 항목요소
사명문
수집범주
우선수집대상
민간기록물의 수집범주
수집제외
수집방법
기증양식
저작권
수집시 고려사항
기증/연계 혜택
접근제한
기록물의 처분
타기관과의 협력
기록물(수집/기증)평가위원회
보완주기

〈그림 21〉 수집정책문 구성항목

- 이 중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과 정체성에 맞는 필수요소를 수집정책문 필수 요소로 도출함

- 서울기록원 수집정책문의 필수요소로 사명/비전/목표, 수집권한, 수집기록물평가위원회 구성, 수집대상 선정기준, 수집범주, 수집시 제한사항, 수집방법, 공유와 협력에 따른 혜택의 제공, 접근제한, 처분사항, 보완주기,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항목을 구성함
- 이용자의 참여를 통한 다대중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경우, 홈페이지 내 이용자 참여약관 동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이용자 참여에 관한 약관을 성문화하여 제공함

2.2.수집정책문

사명

-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시민의 참여와 협치를 통해 서울의 정체성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문화 생태계 조성

비전

- 로컬리티 기록화로 서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체성 및 상호유대감 증진
- 서울사람(들)의 다양한 생활영역과 그 곳에서 벌어지는 활동과 삶을 기록화
- 서울시민(사람)과 서울지역(공간)의 상호작용의 구체적인 모습을 다각도로 기록화
- 서울의 물리적·자연적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의 수집 및 생산

목표

- 민관 협력에 기반한 기록화 체계 구축
-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과 활동, 구조와 의사결정과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서비스
- 서울의 역사·사회적 가치를 지니는 민간기록에 대한 수집 및 보존
- 서울시민의 기억을 아우르는 내러티브 구축
- 인력 · 시스템 · 재정지원 및 교육을 통한 시민들의 기록 활동 활성화

수집권한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 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및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 2014.1.9.] [서울특별시조례 제5661호, 2014.1.9., 제정])의 관련 업무인 기록물관리에 관한 수행을 위해 명문화한 것이다.

기록물수집평가위원회 구성(서울기록원 기존의 운영위원회가 겸무 가능)

■ 위원회의 구성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따른 수집업무의 객관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록물수집의 평가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원은 수집부서의 장,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6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하여 위촉하며, 실무적 지원을 위해 수집부서의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 임기

- 기록물수집평가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신분을 명예직으로 하되 조사위원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서울기록원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 위원회의 기능

- 기록물수집평가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수행한다.
- 특정 수집대상에 대한 가치평가
- 가증, 구입, 사본제작 등에 의한 수집 여부
- 기타 기록물 수집에 관련한 주요 사항
- 이외에 특정 주제 또는 특정한 기록물 분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와 특별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서면 형식으로 대처할 수 있다.

수집대상 선정기준

■ 서울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가

- 도시 서울과 서울 시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특정한 주제관련 기록물을 수집하여야 하므로 타 지역 및 기관과 대비되는 서울기록원만의 정체성, 상징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록이 우선수집 대상이다.

■ 시정기록의 완결성을 보완하는가

- 기능평가로 선별되는 시정기록 영역 중 특정 주제영역을 선정하고 수집기준을 설정하는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을 개발·실행함으로써 시정기록의 결락을 보완하고 생산단계에서부터 완결성을 갖춘 컬렉션을 구축하고자 한다.

■ 다양한 사회상과 문화상을 재현할 수 있는가

- 서울시의 시정기록 뿐만 아니라 시민영역에서의 소규모 단체, 조직의 활동모습을 보여주거나 사회의 소수자집단(여성, 다문화, 소수자 등)영

역의 모습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상을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하여 시대상을 반영하고자 한다.

수집범주

-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비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록자원을 수집하여야 한다. 크게 시정기록, 민간기록, 협치기록, 시민기록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 시정기록

- 영구적인 가치를 지닌 서울시, 시와 그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의 기록물의 모으고 제공하는 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시정부문서 중 공개된 자료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이용을 도모한다.

■ 협치기록

- 서울시와 서울시에 이관의 의무가 없는 기관 사이에서 생산된 기록으로 서울시의 사람, 사건, 활동 등 그들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시정기록, 개인서류와 원고, 민간 조직의 활동기록, 사진, 지도, 도면, 음성 및 비디오, 책, 디지털 자료, 간행물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포함하여 수집하거나 연계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민간기록

- 서울에 현재 살거나 한때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과 도시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서울을 기억하는 다양한 형태의 민간 기록들과 이야기를 공유하여 서울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집단기억으로서의 서울을 포착한다. 서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문화운동 및 축제관련,

문화 프로젝트 속의 민간이 생산한 기록을 대상으로 수집한다.

■ 시민기록

- 시민기록은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시민기록은 기존의 기록 유형을 포함하며 특정 지역, 공간, 문화예술, 행동 양식까지의 범위를 확장한 개념이다.

수집시 제한사항

-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비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기록물의 기증 및 위탁시, 수집이 반려되거나 보다 적합한 수집기관으로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비전, 목표에 부합하는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이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연계를 통해 기록정보를 공유한다.
- 시스템, 인력, 자금 등의 부족으로 체계적인 보존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록화사업을 활성화한다.
- 기록관을 설치하여 기록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기관의 기록은 적극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
- 수집 제외 대상: 서울의 역사와 관련되지 않은 간행물형태의 출판, 유물, 별개의 기록, 중복된 자료, 복사본, 개인적 또는 조직에서 법적인 이유로 필요한 자료, 개인정보로 구성된 기록, 출처가 불분명한 기록

수집방법

- 서울기록원은 정기적 이관을 통한 수집 외에,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따른 수집, 연계수집, 기증 및 위탁의 방식으로 기록물을 수집한다.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따른 수집 시 고려사항
 - 공공기록(시정기록)의 영역을 벗어나 특정 사건이나 주제에 대해 수집함으로써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기록물을 수집한다. 일반행정(시정부), 주택·도시계획, 환경, 안전, 교육, 경제, 재정, 복지, 교통, 문화·관광, 보건 및 시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사회영역을 설정하고, 영역별 핵심적인 주제 영역을 설정하여 기능분류로 인해 폐기되는 영역의 기록물을 수집한다.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의 영역 구분

일반행정(시정부)	재정
주택·도시계획	복지
환경	교통
안전	문화 관광
교육	보건
경제	사회

- 기록결정위원회 구성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모여

서 주제영역을 선정하는 기록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기록결정위원회는 영구 보존을 위한 기록선별 및 처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한다. [※ 기록화선별지침·부속서에 나오는 정책유형검토표, 주제 유형검토표 참조]

- 특정 사안 또는 기능에 따라 당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주제로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한다.

- 시민기록기획위원회 구성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사회’영역의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전문가들로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구성한다.

-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주제는 기록결정위원회를 거쳐 주제가 확정되며 서울기록화선별지침 개발에 적극 활용한다.

- 컨설팅제도 운영

- 기록결정위원회에서 작성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초안을 대상으로 전문가 집단 및 일반 대중의 의견수렴을 위한 컨설팅제도를 운영한다.

- 컨설팅제도 통해 제안된 의견들을 수렴하여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 초안을 수정·보완하여 서울기록화 선별 지침을 확정한다.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초안이 확정되면 서울기록원홈페이지 고시를 통해 확정한다.

- 연계수집시 고려사항

- 서울기록원의 수집대상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유관기관이나 공동체의 경우, 파트너십에 기반한 디지털 연계를 통해 기록물을 수집한다.

- 연계를 통한 기록자료 정보의 제공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이나 해당 기

록물의 개인에게 저작권이 있다.

- 기록 공유와 협력시 이익(혜택)이 제공되는 점을 안내한다.
- 이미 디지털화 되었거나 디지털화가 고려되는 자료를 보유한 다른 기관이나 조직이 있는 경우 협력하거나 다중 컬렉션 이니셔티브를 고려할 수 있다.
- 서울기반의 다른 기관이나 조직에 인력, 장비,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소실위험에 있거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자료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추후 정보의 공유·연계로의 유도를 고려할 수 있다.

■ 기증 및 위탁시 고려사항

- 민간분야의 경우 타당한 사유로 인해 더 이상 기록보존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동체 기록과 단체 기록을 우선하여 수집한다.
- 동의서 작성을 통해 권리, 권한에 대한 명시 및 기록물처분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다.
- 기증 및 위탁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우하고 소정의 혜택을 제공한다.

공유와 협력에 따른 혜택의 제공

■ 기록관리 기반 지원

- 기록 활동을 하는 소규모 집단(공동체, 조직, 마이너리티 활동 집단 포함)에 대해서 기록 활동을 복돋울 수 있도록 인력, 시스템, 교육, 재정(기록관리 용품 포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민의 기록 활동을 활성화한다.

■ 인력 지원 및 교육(상담)

- 기록 관리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소규모 집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서울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요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기록물 관리에 대한 실무적인 교육을 진행한다.

- 요청이 없을 경우에도,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본적인 폴더생성, 저작권, 메타데이터, 스캐닝을 통한 디지털화 등 기본적인 기록 관리에 대한 교육을 지원한다.
- 기록 관리를 하고자 하는 소규모 집단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방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해준다.

■ 시스템 지원

- 서울기록원은 기록관리 오픈 소스를 개발·보급하여 소규모 집단에서의 기록 활동 문화를 조성한다.
- 무료 플랫폼의 제공을 통해 참여기관, 참여공동체, 이용자(시민)들이 디지털 사본을 저장하거나 서로의 게시물에 대한 답글을 통해 풍부한 맥락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준다.

■ 재정 지원

- 비용의 문제로 기록 관리를 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록관리 용품,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일정 부분 지원하여 소실 위험이나 기록화되지 못하는 영역의 기록을 포착할 수 있도록 한다.

■ 소통의 장 마련

- 유관기관실무자협의회(해당 기관 및 서울기록원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포함)를 마련하여 소규모 집단의 기록 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기록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준다.
- 서울기록원의 기록 활동 지원을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추후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한다.

■ 기증자 예우제도 마련 및 운영

- 서울기록원 홈페이지에 기증자 컬렉션 영역을 마련하여 기증자들이 기증한 기록물의 관리와 보존에 대해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기증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개인의 기록이 사회의 일부로 유지되고 이용됨을 명시한다.
- 기록물 기증자에 대한 예우에 대한 체계마련을 통해 고유하고 대체할 수 없는 기록물의 기증을 유도할 수 있다.

접근제한

- 서울기록원에서 협의를 거쳐 입수한 자료는 접근제한의 만료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여 기록물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처분사항

- 기증 및 위탁의 경우,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목적에 따른 기록물이거나 기록물의 정리과정에서 적합하지 않은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 있어 기록물의 반환 및 동의서 상의 처분조항에 따라 처리를 진행함을 명시한다.

보완주기

- 시의 정책변화, 내외부적인 환경변화, 기록 관리의 패러다임, 이용자의 정보요구 등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완주기

를 설정하여 지속적인 수집영역의 개발 및 발전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단, 시정책의 변화 등 시급한 개정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저작권

- 이용자가 콘텐츠를 등록하기 위한 사전준비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시 권리유형(저작권, 공연, 등록 상표, 미등록 상표, 디자인권 등) 및 만료기한, 공개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공유·활용으로 유도한다.
- 서울기록원은 이용자기여 콘텐츠에 대하여 규제를하거나 적법성, 진실성, 정확성을 검토 또는 보장하지 않는다.
- 이용자기여 콘텐츠 제공시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정할 수 있으며, 비공개 선정시 승인된 연구자는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경우에도 개별 저작물에 대해서는 생산자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안내한다.

〈표 39〉 이용자 참여약관(안)

이용자 참여약관(안)
서울기록원에 기록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19세 이상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기증하는 자료는 반드시 스스로 생산/창작한 자료 이어야 하고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 아닌 독창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기증하는 자료는 비밀, 보안, 개인정보보호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서울기록원에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은 서울기록원과 관련해서 모든 매체의 자료를 배포 및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증한 자료는 별도의 요청이 없으면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게시됩니다. 기증한 자료는 서울기록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사적 이용, 공적이용, 공익적 이용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울기록원을 이용하는 승인된 연구자에게는 공개될 것입니다. 기증된 자료라 하더라도 사용되지 않거나 보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익명을 원하는 경우 익명으로 기록물 게시가 가능합니다. 서울기록원에서는 기증자의 이메일이나 다른 정보를 상업적 업체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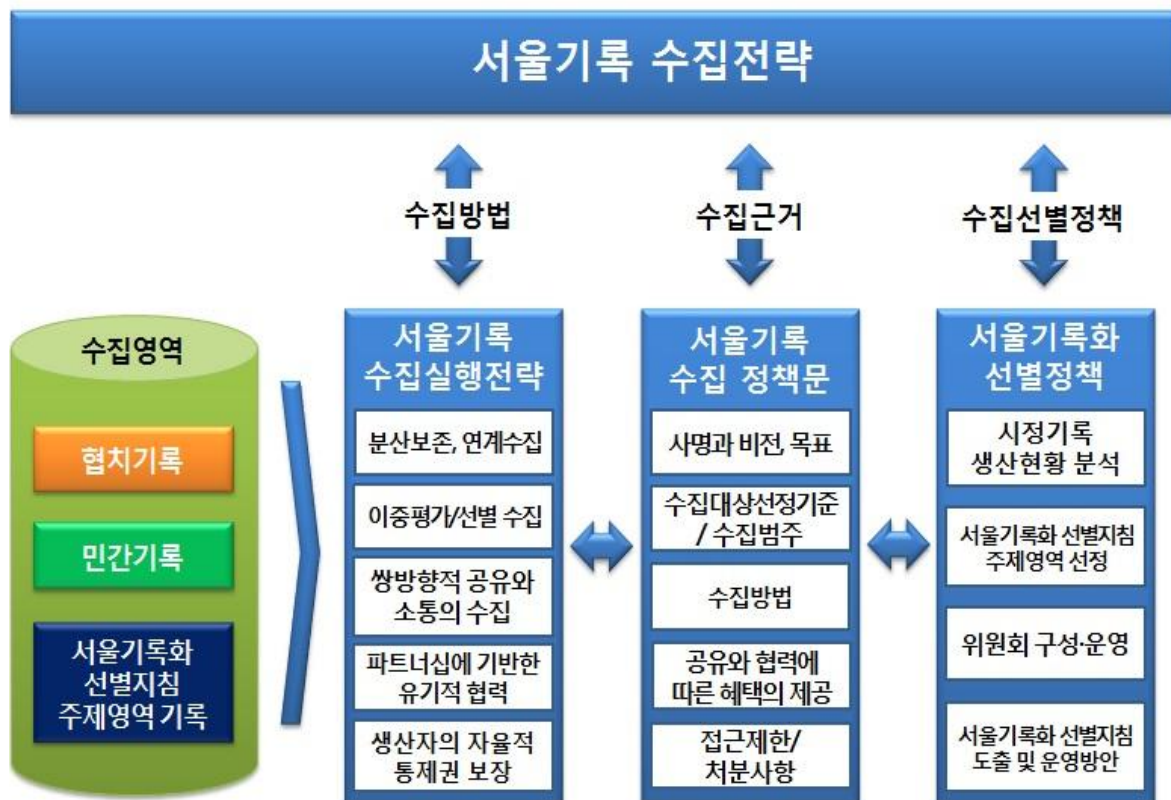
2.3.소결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문은 서울기록원의 정체성과 맞닿아 있음.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은 서울시의 정책적 지향점과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함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문에서는 거버넌스, 협치, 로컬리티를 중심으로 사명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수집범주의 대상을 단순히 행정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시정기록을 포함한 협치기록, 민간기록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정함. 또한 협치와 민간영역의 기록의 합을 시민기록이라고 명명하고 이 모든 기록을 서울기록이라는 큰 틀에서 바라보고자 하였음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문은 사명,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라 목표를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음. 또한 수집기록의 평가를 위한 기록물수집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마련을 위한 기록결정위원회, 민간기록을 수집하고 민간의 기록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적인 협의제도인 컨선테이션 제도를 통해 거버넌스를 실현하고자 작성되었음
- 수집의 범주를 실물자원의 수집에 한정하지 않고, 연계를 통한 디지털기록정보자원의 공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3.수집실행전략

3.1.수집전략 체계

- 서울기록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해서 수집정책, 수집전략, 서울기록화 선별정책을 마련함
- 서울기록의 선별 및 평가의 기준은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통해 제시되며, 수집실행전략과 상호 연동됨



〈그림 22〉 서울기록 수집전략 체계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되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해외의 국가기록원인 캐나다의 LAC, 영국의 TNA의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과 민간기록물 수집정책 및 평가체제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살펴봄
- 서울기록의 수집실행전략은 거시적 수준에서 제안된 ‘수집정책문’을 기반으로 실제적인 수집을 실행하기 위해 설계됨
- 서울기록의 수집을 위해 기록정보자원의 연계와 기관간 소통에 초점을 두고 수집실행전략을 설계함



〈그림 23〉 수집정책문과 수집실행전략의 관계

3.2. 분산보존, 연계수집

- 서울기록원은 후기-보관주의(post-custodianship)에 입각하여 기록자원의 중앙 집중적 관리체계를 지양함
- 기록자원의 물리적 수집 및 보관 중심이 아니라 디지털 네트워킹을 통한 분산 보존 및 연계 수집을 지향함
- 서울기록원의 사명과 비전,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라도 다른 기관이 이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우,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연계를 통해 기록정보를 공유함

- 분산 보존된 기록자원은 시스템적·인적 네트워킹을 통해 연계하여 공유함
- 타수집기관이나 조직에 인력, 장비, 재정 등을 지원하고 소실 위험에 있거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기록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추후 기록의 공유·연계를 유도함

3.3. 이중평가, 선별수집

- 서울기록원은 정부 기록물 평가체계인 거시기능평가로 인해 수집되지 못하는 영역에 대한 수집을 적극 고려하여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개발함
- ‘서울기록화선별지침’은 거시‘주제’평가를 통해 기능평가에서 소외되는 기록화 영역을 포착하고자 함
- 거시평가뿐만 아니라 기록물에 대한 미시평가를 병행하여 보다 면밀한 서울 기록화를 위한 선별수집에 접근함
- 중층적 이중평가체계를 통해 시정의 투명성 및 설명책임성 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성 및 다양성을 대변하는 기록자원을 선별 수집함

3.4. 쌍방향적 공유와 소통의 수집

- 수집의 범주를 시정기록 뿐만 아니라 협치기록, 민간기록의 수집으로까지 확대함
- 타수집기관이나 공동체와의 연계 수집시,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 및 취합이 아닌 서울기록원과 기관의 쌍방향적인 공유와 소통을 전제로 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따른 수집대상의 선정은 ‘사회적 협의제도’(컨설팅 제도)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함. 기관과 시민간의 공유와 소통을 통해 수집대상을 결정함
- 서울기록화선별지침의 상위주제 중 사회영역, 즉 민간영역에서 대표적인 주제를 선정할 경우, 시민으로 구성되는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과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독려함
- 기록관리 담당자들로 구성된 ‘유관기관실무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소규모 집단의 기록관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고민 및 실무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록물의 비공개의 만료기한을 명시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공유 저작물로의

전환을 유도함

- 이용자 참여를 통한 다대중과의 소통을 지원하며, 이용자기여 콘텐츠의 경우, 홈페이지 내 이용자 참여약관 동의를 통해 저작권 문제를 해소함

3.5.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 협력

- 타수집기관이나 공동체와의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연계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함
- 기록 제공자들은 일정기간 서울기록원의 기록에 대한 활용권을 보장하는 대신, 인력, 교육(상담), 시스템, 재정지원, 보존 공간제공 등 기록관리 기반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제공받는 파트너십 형성
- 지원을 통해 서울기록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추후 유기적 협력이 지속가능하도록 유도함

3.6.생산자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 연계수집시 또는 기증 및 위탁시 기록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록의 생산기관이나 생산자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보장함
- 연계수집시, 기록의 생산기관이나 생산자의 저작권 및 소유권을 인정하거나 또는 공동소유권 체제를 확립하여 기록생산자가 일정부분 기록자원에 대한 자율적 통제권을 지속하도록 보장함. 다만 지원을 조건으로 일정기간의 활용권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함
- 기증 및 위탁시 기록물과 이용자 생산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접근제한, 처분사항에 관한 사항은 기록의 생산기관이나 생산자에게 있음을 명시함
- 기록물의 접근제한을 명시하도록 하여 기증자(단체, 조직 포함) 및 생산자가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과 맞지 않은 기록물의 경우, 처분사항에 대해 기증자 및 생산자가 기록물의 반환 및 기타 처분에 대한 것을 작성하도록 하여 자율적 통제권을 보장함

3.7.소결

- 서울기록원의 수집정책문에서 수집의 범주를 실물자원의 수집에 한정하지 않고, 연계를 통한 디지털기록정보자원의 공유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함으로써 수집실행전략에 반영됨
- 국내외 수집정책 관련 사례들에서 도출되는 시사점과 캐나다의 LAC, 영국의 TNA에서의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평가체제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수집실행전략을 도출함
- 이를 통해 제안되는 서울기록의 수집을 위한 실행전략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고자 함
- 첫째, 기록관리를 잘 하고 있는 기관의 자료의 수집은 지양하고, 연계를 통한 기록정보자원의 공유에 초점을 둔 분산보존, 연계수집 전략
- 둘째, 정부의 기능평가 체계에 기반하고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을 통한 수집대상 기록물의 이중평가와 선별수집 전략
- 셋째, 일방적인 정보의 제공에서 벗어나 쌍방향적으로 공유와 소통을 통한 수집전략
- 넷째, 서울기록원의 지원정책으로 인해 형성된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인 협력 전략
- 다섯째, 기록정보자료의 소유권이나 저작권은 소유자자 그대로 유지하되 활용권을 얻는 방식인 생산자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전략을 제시함
- 수집실행전략을 통해 수집정책문에 근거한 수집이 이루어지며, 이는 곧 서울기록원이 정체성을 기록을 통해 알리는 기반을 마련함

5장. 서울기록원 Action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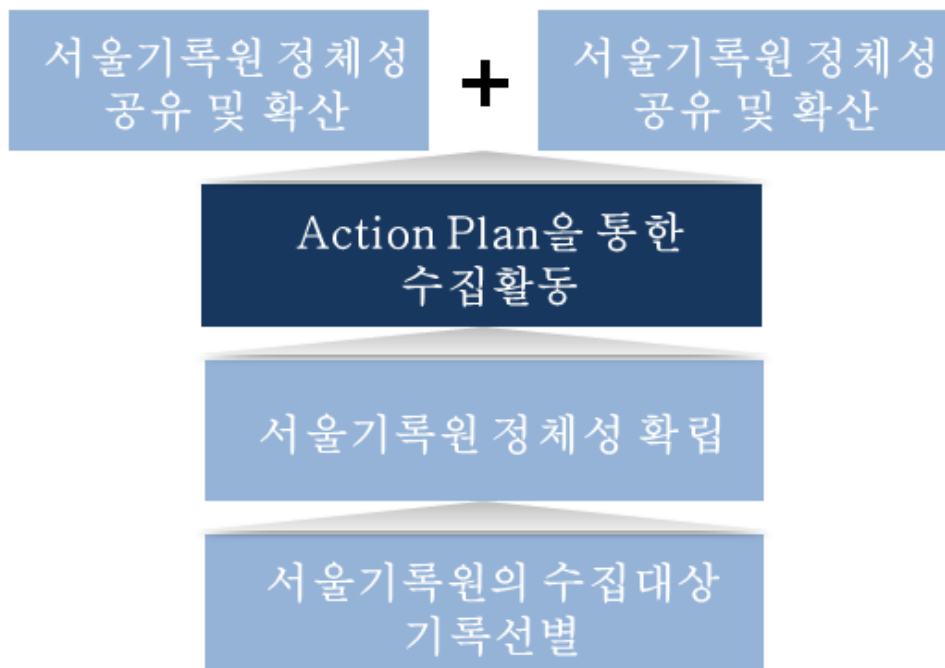
5장에서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기록물 수집관련 활동에 대한 개관 전후에 걸친 계획을 제안함

- 서울기록의 수집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서울기록원 운영규정, 수집정책(문) 등의 제도적 계획을 제시하며
-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조직의 규모와 인력을 제안함
- 더불어 서울기록화 수집활동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 거버넌스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한 지속적 발전 체계를 간략하게 제시함

1. Action Plan의 의미

- 주지하는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서울기록원의 수집전략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수집전략의 핵심은 관리 대상기록을 선별하는 것임
- 대상기록을 명확히 한다는 것은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임
-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안팎으로 공유해 나가기 위해 기록물 수집 관련 활동에 대하여 개관 전후에 걸친 계획이 필요함
- 특히, 개관이전에 실현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활동의 기획, 실행, 콘텐츠개발 및 활용,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흐름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은 서울기록원을 내실있게 준비해 가는 과정이 될 것임
- 이러한 서울기록화 수집활동 계획을 부문별, 시기별로 정립하는 것이 ‘Action Plan’의 주요내용임

〈그림 24〉 서울기록화 수집 Action Plan의 의미



2. 부문별 계획수립

- 서울기록화 수집활동은 제도, 조직, 사업, 거버넌스, 예산의 측면에서 계획되어야 함
- 제도는 수집활동과 관련된 성문화된 규정을 확보하는 것으로 활동의 근거가 됨
- 조직은 내부적으로 수집활동을 전담할 인력을 정하는 문제로 예상되는 일의 규모와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되어야 함
-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집활동을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 ‘Action Plan’의 핵심이 되는 내용임
- 거버넌스는 수집전담 인력이 조직 내외부의 인사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여 수집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협력의 성격과 기능이 계획되어야 함
- 예산은 수집활동의 범위와 규모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필요한 업무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가늠하고 확보방안을 마련해야함

제도

- 서울기록의 수집활동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서울기록원 운영규정, 서울기록원 수집정책(문) 등이 필요함
- 서울기록원 개관 이전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수집정책에 따라 시범 수집을 수행한 후 평가를 통해 수집정책을 수정, 보완 할 수 있음
- 정책은 조직이 취하는 방향과 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음
- 수집정책(문)의 경우에는 3년, 5년 가량의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새롭게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수집정책(문)에는 수집활동의 배경이 되는 내용은 물론이고 수집지침 및 타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책 변화에 관한 사항은 수집부서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서울기록원의 장 또는 서울기록원 주요사안의 결정단위(예) 가칭 서울시 기록관리위원회 또는 서울기록원 운영위원회 등)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조직

- 지난 2013년 수행한 「서울기록원 건립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에서 서울기록원 개관시 총원 120명 규모로 조직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록수집과’의 정원을 25명으로 제시한 바 있음
- 2017년은 개관직전 해로서 시범수집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의 수집전담 인력을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음
- 수집업무 책임자를 포함하여 시정기록담당 1인, 시민기록담당 1인 등 최소한 3명의 수집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시범수집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사업

- 수집전담인력이 서울기록원 개관을 준비하며 약 1년간 할 수 있는 업무는 인력, 예산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
- 그러나, 시범수집 활동을 통해 사전에 마련된 수집정책에 따라 실행하고 평가와 개선을 통해 서울기록원 개관과 함께 안정적인 수집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범사업이 필요함
- 수집활동을 위한 위원회 등 조직화 및 운영, 서울기록화 주제 및 수집대상 선정, 실물기록 수집 및 디지털화 작업, 수집기록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업무가 될 것임
- 이중 서울기록화 주제 및 수집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2017년 초반부터 기록결정위원회 및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시범운영할 필요 있음
- 실물기록 수집 및 디지털화 작업은 수집전담인력으로 모두 수행할 수 없으므로 외주방식으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의거하여 3개의 대상에 대하여 수집활동을 하는 것을 제안함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주로 서울시의 시정기록을 근간으로 수집영역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되었으나, 순수하게 민간영역에 존재하며 시정기록, 협치기록과 매핑되지 않는 기록의 수집을 위하여 ‘사회’영역을 설정한 바 있음
- 시정기록은 기록물폐기심의회를 거쳐야만 폐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시민기록은 관리 및 통제가 되지 않음

므로 훼손 또는 멸실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범수집에서 ‘사회’영역에 비중을 두어 수집할 필요 있음

- 지금까지는 서울기록화 선별지침과 같은 구조화된 수집방식이 운용된 바 없고, 특히 ‘시민’영역의 선별과정에서는 시민들의 감성, 기억, 지향 등 주관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방식이므로 여러차례 시행착오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작업이므로 우선적으로 실행해 볼 필요 있음
- ‘사회’영역의 수집대상은 ‘시민기록기획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설정한 관계로 본 연구과정에서 시범적으로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진행 해 본 바, 물리적 객체로서 대상 기록을 설정하기 보다는 행위, 관습, 공간, 문화 등으로 대상을 설정하려는 경향을 띄었음
- 이와 함께 수집과정에서 확보된 리드파일(lead file), 케이스파일(case file)을 매핑하여 구술대상영역을 포함하여 중장기수집계획에 반영하는 일은 수집전담인력이 직접 수행해야 할 일중에 하나임
- 또한, 시범수집과정을 통해 수집정책문, 수집절차, 관련 서식 등을 보완 확정해야함
- 시범수집결과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전시도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며 이는 수집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서비스담당자, 콘텐츠담당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진행해야함

거버넌스

- 기록결정위원회는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에 따라 시정기록영역의 수집대상을 선정하는데 활동하게 되며 각 처리과 업무책임자들이 참여해서 수집전담 인력과 논의하는 구조로 운영됨
- 시민기록기획위원회는 민간영역의 수집대상을 선정하는데 활동하게 되는데, 민간영역은 수집활동과정에서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민아키비스트 제도를 둘 필요 있음
- 시민아키비스트는 체계적인 수집과 시민과 함께하는 수집을 목적으로 거주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을 안배하여 운영되는 시민조직임
- 시민아키비스트는 수집대상 기록을 발굴, 선별하며 수집활동참여하게 되는데 자치구별로 10명 내외로 구성할 것을 제안함

- 이들에게는 기본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시민아키비스트 신분증과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함으로써 활동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 시민아키비스트는 자신의 활동기록과 수집기록 등을 일정한 양식으로 제출함으로써 활동을 입증함
- 기록결정위원회, 시민기록기획위원회, 시민아키비스트 등과 협력하여 수집된 기록은 수집기록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가치있는 기록을 거버넌스체제로 수집하는 구조를 마련함
- 한편, 유관기관 소장기록의 연계를 위해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있음. 서울기록원이 발의하여 서울시 기록 관련 수평적 연대조직을 구성하는 개념임
- 유관기관은 본부, 사업소 / 공사, 출연기관을 망라하여 구성하게 되는데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주요문화기관(서울역사박물관, 서울도서관,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시립미술관 등)을 카테고리 1로 하고, 그 외의 기관을 폭넓게 카테고리 2로 하여 이중으로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네트워크는 대면회의식의 오프라인방식과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한 온라인방식을 병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연 1~2회 정기적인 모임을 추진함
- 유관기관 네트워크에서는 주로 실무자간에 기록물의 수집, 관리, 활용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안을 협력하고, 서울기록원과 각 기관과의 협조사항을 논의하고, 기록물의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 다만, 기관 대 기관의 협약, 다자간 협약 등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각 기관 대표의 승인을 네트워크에서 공동으로 요청하는 방식으로 협력함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원활하고 효과적인 서울기록화 수집활동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유관기관의 수집과 관련한 실무적인 네트워크가 필수적임
- 이에 더불어 수집활동의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나누고 활용하기 위한 기관 차원의 협력 네트워크도 한 축으로 고민되고 실천되어야 함
- 이에 따라서 국내·외의 유관기관들과 수집활동을 비롯하여 수집된 기록물의 활용과 공유를 위한 장기적인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필요한 경우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서울기록화 수집활동을 위한 것을 비롯하여 기관의 장기적 발전과 활동을 위한 거시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되어지고 결정되어야 함
- 이를 통해 서울기록화의 결과물인 서울기록의 다양한 기록정보 제공에 대해 서울기록원이 허브가 되어 이용자들에게 안내 또는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며
- 서울기록화의 특징인 서울기록을 모범사례로 다양한 도시와 기관, 국가에 전파할 수 있음
- 또한 서울을 연구하고 찾는 많은 연구자와 관광객 등을 위해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예산

- 위와 같은 시범수집활동기간에 중요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수집사업, 수집기록 디지털화 사업, 시민아키비스트 및 각 위원회 운영 등임
- 수집사업은 타 기관의 전례를 참고하여 대상별로 약 5천만원의 비용을 책정하여(2017년에는 3개 대상) 도합 약 1억 5천만원, 디지털화 비용 약 3천만원, 시민아키비스트 및 각 위원회 운영비 약 2천만원 등 총 2억원 정도의 예산 확보가 필요함
- 디지털화 작업과 위원회 운영 등은 실비정산이 거의 정확하지만 수집사업에 대한 예산은 가변적이어서 사업후 예산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임

3. 시기별 계획수립

- 서울기록원 개관이 2018년 5~6월로 예정되어 있는 바 2017년 1월부터 개관까지는 약 16개월 가량의 준비기간이 남아있음
- 이 기간에 대한 계획을 단계별로 세워 시범수집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전체적인 시기구분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0〉 서울기록관 시기별 계획표

구분	시기	주요내용	비고
준비기	2017년 1월~2월	정책점검, 수집전담인력 확보, 사업준비, 거버넌스 가동, 예산확보 및 점검	

실행기	2017년 3월~10월	사업발주 및 시행(수집 및 디지털화), 거버넌스 운영	
평가기	2017년 11월~12월	사업마무리 및 평가, 콘텐츠 개발	
활용기	2018년 1월~4월	콘텐츠개발, 전시 및 활용프로그램운영	

준비기

- 준비기는 2017년 1월~2월로서 수집정책을 점검하고, 수집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예산을 재확인하고, 사업타당성 검토 및 계획서를 준비하는 시기임
- 이 시기에 기록결정위원회 및 시민기록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화할 수집대상기록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함
- 이와 함께 시민아키비스트 모집 홍보와 기본교육을 진행함

실행기

- 2017년 3월~10월은 사업을 발주하고 시행하는 시기로서 사업자 선정시 오류가 없도록 행정적, 내용적 검토를 꼼꼼하게 진행함
- 동시에 여러 사업자를 선정하여 외주사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들간의 소통과 협력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기 위하여 보고회의를 공동으로 진행하거나 협력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기록결정위원회와 시민기록기획위원회가 개별 프로젝트에 적절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함(자문위원 등으로 참여)
- 민간영역의 기록수집시 시민아키비스트들이 적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시민아키비스트들이 수집사업에 제한적으로 조력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되 활동비는 시에서 직접지급하는 방법 등)
- 수집기록물 중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에 대하여 수집과 동시에 디지털화 추진
- 사업발주시 각 수집팀에서는 완료보고서에 수집기록물의 콘텐츠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이어지는 콘텐츠개발사업으로 기록물의 내용과 맥락이 원활하게 승계되도록 함

평가기

- 2017년 11월, 12월은 시범수집사업을 완료하고 평가를 진행하는 시기로서 사업발주 및 진행과정에 대한 운영평가 / 사업팀의 수집과정에 대한 평가 / 수집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 등을 주요 평가대상으로 삼게 됨
- 수집기록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수집기록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문성에 기반하여 면밀한 평가가 진행되도록 함
- 수집활동과 결과 등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팀 별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각각의 대상을 수집했기 때문에 평가시 신중해야 할 필요있음(일반적인 내용의 공통평가부분과 수집대상별 특징을 감안한 사업팀별 평가기준이 있어야 함)
- 수집기록물에 대한 콘텐츠 활용방안은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콘텐츠 개발 및 활용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활용기

- 2018년 1월~4월은 서울기록원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시기로서 서울기록원 개관홍보,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검증 등을 위해 콘텐츠 개발, 수집기록을 활용한 전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함
- 특히, 수집기록물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은 향후 서비스정책을 마련해가는 입장에서 다양한 이용자들이 흥미롭게 활용하되, 저작권, 소유권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 등을 검토하고 진행함
- 전시는 서울기록원 건립부지 주변 혁신파크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전시를 도모함(가족동반 참여프로그램 등 개발)
- 이밖에 수집기록물을 활용한 웹자보, 배너광고, e-book, 홍보영상,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홍보용 웹사이트 등을 제작함

4. 개관시까지 주요 활동

- 서울기록원 개관때까지 수집활동에 대한 시기별 업무를 맵핑하면 다음의 표와 같음
- 다음에서 제시하는 계획은 서울기록화 수집활동과 관련한 기초적인 계획이며 향후 구체적인 수집사업과 활동 등을 통해 고도화 시키고 상세화 할 필요가 있음

〈표 41〉 서울기록원 Action Plan 종합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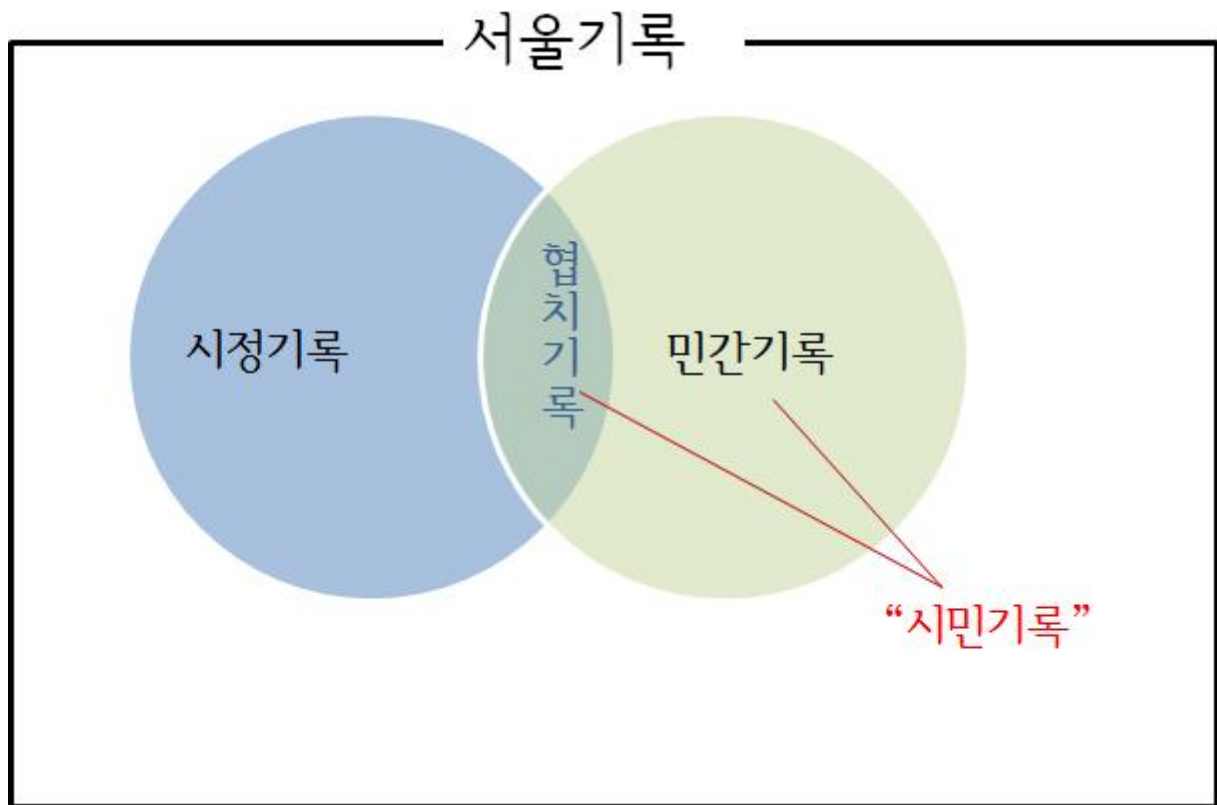
구분 시기	제도	조직	사업	거버넌스 및 협력 네트워크	예산
준비기 (2017년 1월~2월)	- 수집정책 점검	- 수집전담인력 확보	- 사업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기록결정위원회, 시민기록기획 위원회 회의 구성 - 시민아키비스트 모집 및 교육	- 예산점검 - 약 1천만원 소요
실행기 (2017년 3월~10월)	- 수집정책문(안) 마련	- 수집파트 인결계획수립	- 수집대상 3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 수집기록 디지 털화 - 콘텐츠개발	- 기록결정위원회, 시민기록기획 위원회, 시민아 키비스트 운영	- 약 1억 9천만원 소요
평가기 (2017년 11월~12 월)	- 수집정책 보완 사항 도출	- 타과 협력 업무분석	- 수집사업평가 - 콘텐츠개발	- 수집기록물 평 가위원회 운영 - 서울기록화 수 집활동의 결과 물을 통한 국 내·외의 기관 과 협력 네트 워크 구축	- 콘텐츠개발은 별 도예산
활용기 (2018년 1월~4월)	- 수집정책확정	- 타과 협업	- 전시 -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유관부서와 협 력 - 협력 네트워크 를 통한 서울 기록의 홍보와 공유	- 전시는 별도예산

6장. 연구결과 요약

1. 서울기록의 정의

- 본 연구의 전체적인 진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확정하고 정의하여야 할 항목은 ‘서울기록’이라는 개념의 정의임
- 연구팀에서는 주관부서와의 미팅과 의견을 교환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이 서울기록을 정의함

〈그림 25〉 서울기록의 정의와 구성



- 가장 큰 범주인 ‘서울기록’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을 총칭하며 ‘서울기록’은 당대 서울시의 정체성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정의함
- ‘서울기록’은 서울시 행정, 문화, 역사, 시민, 공동체 등의 포괄하며 그 유형 또한 기존의 기록의 유형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확장함
- 서울기록을 구성하는 주요 구성요소는 시정기록, 시민기록으로 나누며, 시민기록은 다시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으로 구성됨

- 시정기록 : 서울시의 공공행정 업무의 과정에서 생산되는 공식적인 모든 유형의 기록
- 협치기록 : 최근 몇 년 사이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시정운영의 특징인 시와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구성된 중간지원 조직의 운영과 활동의 기록
- 민간기록 : 서울의 시민 개인 또는 개별 단체 등에서 생산된 모든 유형의 기록
- 시민기록: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존의 기록물 유형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공간, 문화예술, 행동 양식까지의 범위를 확장하여 정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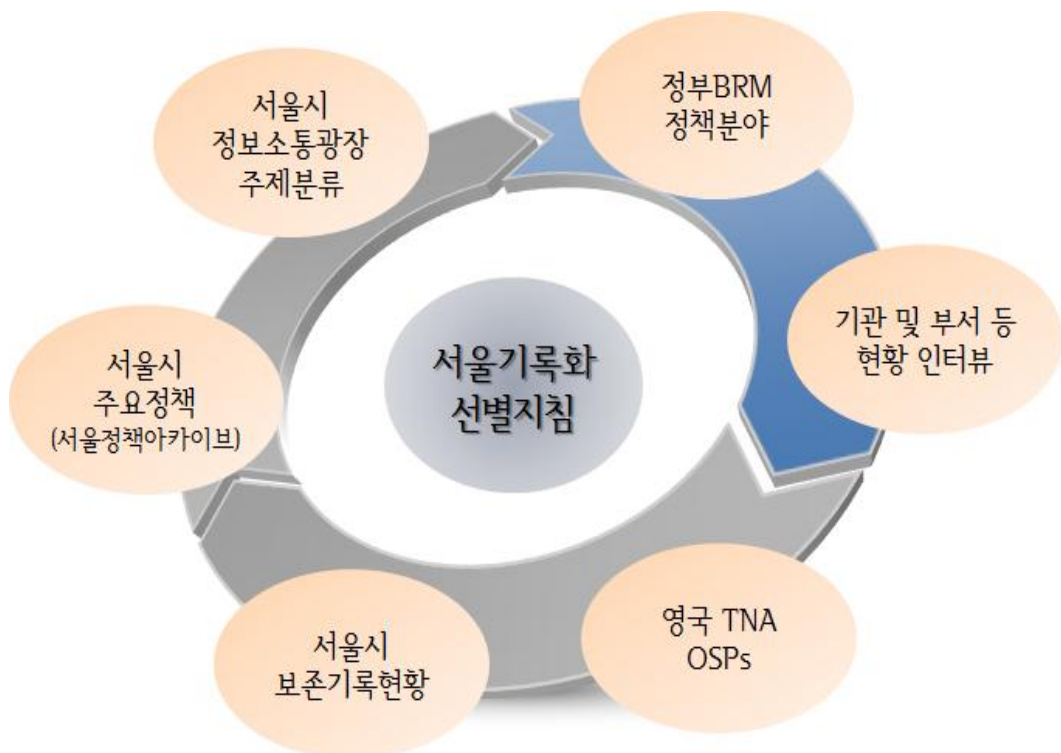
2.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앞서 정의한 서울기록의 구성을 위하여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개발한 서울의 기록화를 위한 일종의 표준 그릇임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영국 TNA의 OSPs의 개념을 차용하여 개발하였으며, 서울시의 기록화 대상 선별을 위한 기본 구상으로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체계임
- 또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서울의 기록화를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록화 대상 선별 체계로 향후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며 개념의 확장을 통해 고도화 할 수 있음
-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은 기존의 분류 및 평가체계인 기록물의 기능분류로 인해 발생하는 서울기록의 미수집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발함
- 서울시의 시정기록 중심의 기존 분류 및 평가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다양한 민간영역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 영역을 별도로 설정함
- 사회 영역은 서울의 다양한 민간의 기록화 대상과 기록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억의 장’²⁹⁾개념을 차용하여 설계함
- ‘기억의 장’ 개념을 차용한 서울의 민간영역의 기록화 대상은 아래와 같이 주요 서울의 모습을 확인하는데 주요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이후 점차적으로 심화 확대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29) 프랑스 역사학자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과거를 재현하는 데 활용되는 기제들을 ‘기억의 장’이라 명명함. 노라에 의하면, ‘기억의 장’이란 꼭 장소가 아니라 민족의 애기가 스며든 국기, 노래, 행사장, 길거리 이름과 각종 기념동상 같은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임. 노라의 관심은 기억의 장을 통해 민족적 기억을 재구성해내는 것에 있음.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에서는 서울기록의 범위에 시정기록 외에 협치기록, 민간기록의 범위를 포함하여, 공공기록관리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민간영역에서의 ‘사람(공동체)’과 ‘장소(로컬리티)’에 대한 기억을 능동적으로 남길 수 있는 전략을 포함해야 함. 기록을 통해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것에서 나아가 서울시민들이 ‘스스로의 기록활동을 통해 내러티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기록생태계 마련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에서는 참여아카이브 모델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들이 의사결정자로서, 수집주체로서, 그리고 이용자로서 적극적인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에 따른 혜택 제공, 이를테면 교육 프로그램 마련, 시스템의 보급, 디지털화 비용 지원 등 다원화된 자원책을 강구하여 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수집을 하나의 전략으로 고려함. 시민의 기록은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생산자(시민)의 자율적 통제권을 일정부분 담보하는 측면으로 고려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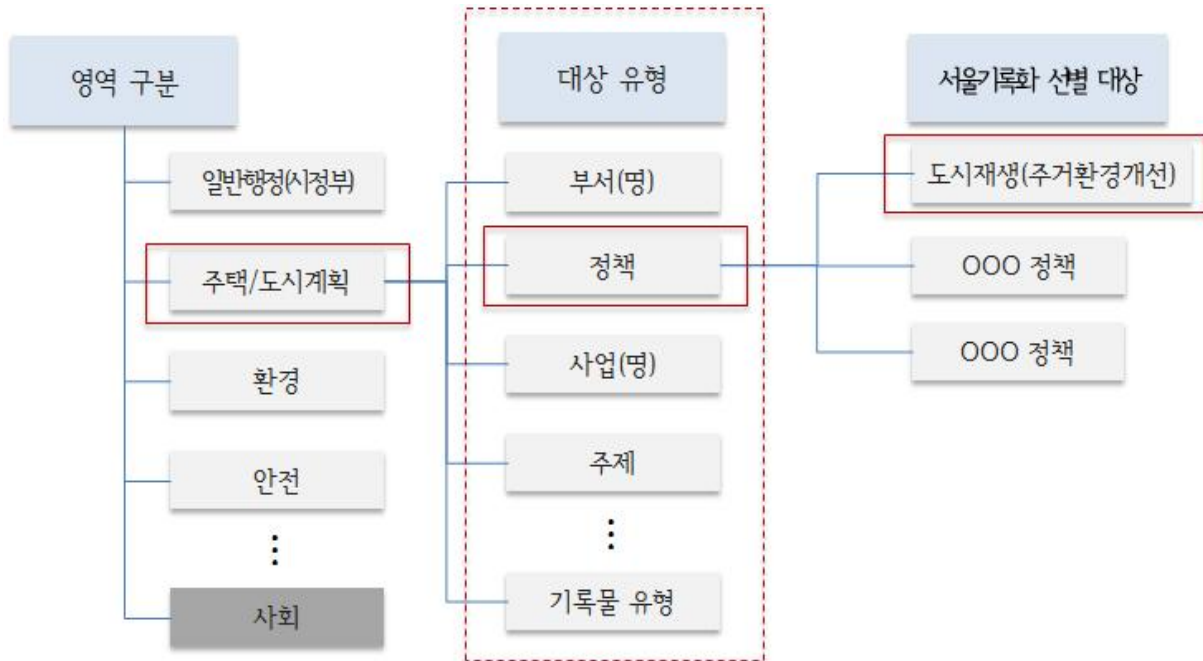
- 서울의 지리(확장과정) : 지도 및 인구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
- 수도로서 서울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 서울사무소, 외국대사관 등의 활동과 모습의 기록
- 서울의 문화 : 주거문화(달동네 등), 놀이문화(고무줄 놀이 등), 외래문화(외국 뮤지션의 공연 등), 세운상가 키즈(IT산업의 산실), 서울의 노래(대중가요) 등
- 서울의 교통 : 우리나라 최초의 전철, ‘콩나물 시루’ 시내버스 등
- 서울의 문화다양성 : 이주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등

〈그림 26〉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구성요소



- ‘기억의 장’ 개념을 통해 확보하고자 하는 민간영역의 서울기록은 지속적인 연구와 검증을 통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기획-조사·연구-샘플 수집 및 검토-본격 수집-전시 및 책자 등의 활용-심화 콘텐츠 개발 등의 절차로 운영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시범적으로 대상유형 중 정책과 주제를 선정, 정책으로는 ‘도시재생’, 주제로는 ‘서울거리예술축제’의 서울기록화선별지침을 개발함

〈그림 27〉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구조



3. 서울기록화 연계방안

- 서울기록화의 전략과 실천과제는 서울기록의 확보로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기록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물리적 수집뿐만 아니라 분산 보존을 기반으로 한 ‘연계’를 통한 기록 자원의 수집을 전제로 함
- ‘연계’란 개별 기록자원의 확인과 데이터 등의 공유를 통해 정보로서 효율적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며 서울기록화 전략을 통해 서울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기록이 확인되고 유지 보존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이를 위하여 연구를 통해 설정된 서울기록화 선별지침의 실제 기록 확인과 연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연계방안 마련을 위하여 연구팀은 서울시 유관기관, 본청 소속 부서, 협치기관, 민간기관 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실무자간 미팅을 통해서 주요 연계를 위한 요소를 추출함
 - 유관기관의 경우 49개의 본부·사업소, 공사·공단, 출연기관에 대하여 3차에 걸친 조사를 수행함
 - 서울시 본청 소속의 경우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의 공개 정보 가운데 ‘기록’, ‘기록화’, ‘아카이브’, ‘아카이빙’, ‘DB’, ‘DB구축’, ‘백서’의 키워드로 추출되는 기록화 사업을 확인하여 조사함
 - 협치기관은 서울시에서 활동하는 주요 중간지원조직 가운데 ‘창신/송인 도시재생지원센터’, ‘NPO 지원센터’를 조사함
 - 민간기관은 다양한 민간의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친구사이’³⁰⁾와 ‘느티나무 도서관’ 등의 담당자를 만나 내용을 청취함
- 추출된 요소를 중심으로 대상 유형별 연계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함
 - 연계를 위한 대상으로 우선 서울시 소속의 유관기관(문화기관 포함)에 대한 연계방안을 모색함
 - 다음으로 서울기록의 구성요소 가운데 특징적인 협치기관에 대한 연계방안을

30) 대한민국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 권익 보호 단체이다. 1993년 초동회가 조직되어 친구사이와 끼리끼리로 분리된 이후, 1994년 정식 시민단체로 출범하였다. 게이 인권, 성적 정체성 상담과 교육, 차별 반대 운동 등을 추진한다. 제휴 기관으로는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 성소수자 가족모임 등이 있고, 산하기관으로는 트랜스젠더 취업, 인권 정보 등을 상담하는 트랜스로드맵 등이 있다. 게이 합창단 자보이스(G Voice)를 운영한다.

<https://chingusai.net/xs/main>

모색함

-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록활동을 통해 생산, 유지되는 민간기관(개인 및 단체)의 연계방안을 제시함

4. 서울기록화 수집전략

- 서울기록화를 위하여 앞서 진행한 서울기록의 정의, 서울기록화 선별지침, 서울기록화 연계방안을 토대로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을 수립함
- ‘서울기록화 수집전략’은 서울기록원 개관 이후 수집업무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서울기록원 수집정책문(안)’을 작성하여 제시함
- 수집정책문 작성을 위하여 앞서 분석 정리한 내용과 함께 국내외 주요기관의 수집사례를 조사하여 특징을 확인함
- 수집정책문 작성을 위하여 조사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내기관 수집정책 사례 3개 기관
 - 수집정책 연구사례 3개 기관
 - 해외 주립기록관 수집정책 5개 기관
 - 해외 참여형 아카이브 사례 5개 기관
 - 해외 공동체 연계 수집 사례 3개 사례
 - 해외 수집전략 사례 3개 사례
- 다양한 수집전략 개발 및 수집정책의 사례를 확인하여 서울기록화 수집정책문의 기본 요소를 추출하고 실제 수집정책문(안)을 작성하여 제시함
- 서울기록화 수집정책의 주요 전략은 1. 분산보존 및 연계수집, 2. 이중평가 및 선별수집, 3. 쌍방향적 공유와 소통의 수집, 4. 파트너십에 기반한 유기적 협력, 5. 생산자의 자율적 통제권 보장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음

5. 서울기록화 Action Plan

- 본 연구에서는 수집전략을 마련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앞서 정리한 연구의 과정을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서울기록원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서울기록원 개관 전후에 걸친 Action Plan을 마련함

- 특히 Action Plan은 서울기록원의 개관 이전 실현가능한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집활동의 기획, 실행, 콘텐츠 개발 및 활용, 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업무 흐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계획을 정리함
- 이러한 서울기록화 수집활동 계획을 부문별, 시기별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제시함

〈표 42〉 서울기록화 Action Plan 요약 표

구분 시기	제도	조직	사업	거버넌스 및 협력 네트워크	예산
준비기 (2017년 1월~2월)	- 수집정책 점검	- 수집전담인력 확보	- 사업타당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 기록결정위원회, 시민기록기획 위원회 회의 구성 - 시민아키비스트 모집 및 교육	- 예산점검 - 약 1천만원 소요
실행기 (2017년 3월~10월)	- 수집정책문(안) 마련	- 수집파트 인결계획수립	- 수집대상 3개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 수집기록 디지 털화 - 콘텐츠개발	- 기록결정위원회, 시민기록기획 위원회, 시민아 키비스트 운영	- 약 1억 9천만원 소요
평가기 (2017년 11월~12 월)	- 수집정책 보완 사항 도출	- 타과 협력 업무분석	- 수집사업평가 - 콘텐츠개발	- 수집기록물 평 가위원회 운영 - 서울기록화 수 집활동의 결과 물을 통한 국 내·외의 기관 과 협력 네트 워크 구축	- 콘텐츠개발은 별 도예산
활용기 (2018년 1월~4월)	- 수집정책확정	- 타과 협업	- 전시 - 활용 프로그램 운영	- 유관부서와 협 력 - 협력 네트워크 를 통한 서울 기록의 홍보와 공유	- 전시는 별도예산

[별첨 자료]

〈본문 2장〉

1. 캐나다의 평가체계 분석

1.1. 캐나다의 거시평가 제도

캐나다 거시평가 등장 배경

-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엇을 선별하여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함. 이에 평가·선별에 관한 방법론들이 제시되기 시작하고 그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도큐멘테이션 전략이었음
-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사무엘스(H. Samuels)와 콕스(Richard J. Cox)에 의해 제시된 이론으로,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새로운 방법론이었음³¹⁾
- 도큐멘테이션 전략이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기록을 담고자 했으나 그것을 수행하는 것은 주관성을 가진다는 한계가 있었음
- 이에 테리 쿡(T. Cook)은 도큐멘테이션 전략보다 발전된 수집의 방법으로 ‘거시평가’를 제안함³²⁾

캐나다의 거시평가

- 거시평가는 당대의 사회상을 미래에 전할 수 있는 기록을 선별하여 사회의 집합적 기억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도큐멘테이션 전략과 일맥상통하나 기록의 선별 기준을 출처로써의 조직과 기능에 둔다는 점에서 도큐멘테이션 이론보다 객관적이며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음
- 테리 쿡은 기록 관리자가 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판단할 때 그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관이 평가과정에 개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음. 그는 객관적인 기록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상을 잘 알려주는 기관의 조직과 기능, 기록의 발생 기반인 사회의 기능,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관계 메커니즘 등을 다 함께 분석해야 함을 주장함
- 이에 캐나다에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억을 남

31)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p.85

32) 한국기록관리학회, 『기록관리론』, 아세아문화사, 2013, p.162

겨 ·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거시평가 방법론을 도입함

1.2.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Total Archives)’ 개념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 개념의 등장

- 캐나다는 1867년 영령 캐나다 자치연방(Dominion of Canada Confederation)이 성립된 후, 역사를 남겨야 할 필요성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에 대해 절실히 느낌
- 캐나다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함께 참여했으며, 구성원 개개인은 집단적 정체성을 개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³³⁾
- 그들은 1872년 처음으로 아카이브(Dominion Archives)³⁴⁾를 설립하고 이후 국가의 공공기록과 지방 기록물, 민간 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시작함으로써 토탈 아카이브의 근간을 마련함
-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를 단순히 거시평가의 선례로 이해하기 쉬우나 캐나다의 특수한 상황³⁵⁾에서 유래함을 염두해 두어야 함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

-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은 정부기관, 기록물 생산자 개인 등 사회 모든 구성원에게 기록물 수집과 보존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출발함으로써 기록유산에 대한 사회 구성원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음
- 캐나다 토탈 아카이브는 정부 기록보존소 안에서 공공기록물과 개인 기록물을 포함하는 모든 기록물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출발하여 사회의 모든 양상을 수집·관리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음
- 밀러(1998)³⁶⁾는 토탈 아카이브의 핵심은 캐나다 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사회 공동의 책임성을 가지는 것이며, 그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아카이브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무엇보다도, 캐나다 사회의 모든

33) 해리 H. 할러, 『캐나다 사회』,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김은가이미림 옮김, p.345

34) 캐나다의 최초의 아카이브는 1872년 설립된 영연방 자치령 아카이브(Dominion Archives)로, 1912년 캐나다 공공아카이브 (Public Archives of Canada)로 발전되었으며, 1987년 캐나다 국립 아카이브(National Archives of Canada)로 그 이름을 변경함.

35) 캐나다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이후 그들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음. 그 일환으로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고 후대에 전해주기 위한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이 등장함.

36) LAURA MILLAR, 「Discharging our Debt: The Evolution of the Total Archives Concept in English Canada」, 『Archivaria』 Vol.46, 1998

양상을 기록·보존하여 후세에 완전한 기억을 물려주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한다고 말함으로써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아카이브 컨선테이티브 그룹(Consultative Group)’³⁷⁾

- 캐나다 컨선테이티브 그룹은 주로 1978년부터 1982년 사이에 활발하게 활동을 함
- 아카이브 컨선테이티브 그룹(Consultative Group)은 아카이브 단체, 역사 학회, 영연방 아키비스트, 주(provincial) 아키비스트, 개인 아키비스트, 교육자, 기록물 생산자, 캐나다 아키비스트 협회(Association of Canadian Archivists, ACA) 소속의 아키비스트 등으로 구성됨
- 아카이브 컨선테이티브 그룹의 활동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토탈 아카이브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
 - 광범위한 사회의 기록물을 보존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철학을 발전시킴
 - 아카이브 간의 협력을 장려함
 - 공공기관과 개인을 이어주는 네트워크를 발전시킴
- 아카이브 컨선테이티브 그룹은 기관과 기관, 기관과 개인을 이어주는 ‘네트워크’, ‘게이트 웨이’의 필요성을 일찍이 느끼고 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노력함
-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캐나다의 토탈 아카이브는 1990년대 이후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Canadian Archival System)’으로 발전하게 됨

1.3.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Canadian Archival System)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의 개념

-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이란 캐나다의 아카이브 관련 기관들의 협력적 운영을 위한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음
- 아카이브 시스템은 기관 간의 더 나은 협력적 활동을 이루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아카이브 시스템의 구성원은 캐나다 전역에 있는 다양한 아카이브 기관이 될 수 있음
- 아카이브 시스템은 캐나다 아카이브 전체를 말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는

37) http://archivists.ca/sites/default/files/Attachments/Advocacy_attachments/larawilsonsummit.pdf

동시에, 아카이브 간의 기능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할 수 있음. 또한, 각 기관의 인력, 프로그램, 기록물 보존에 대한 문제 등을 포함하는 전체적인 틀을 가리킴³⁸⁾

1.4. 캐나다 아카이브 위원회(Canadian Council of Archives, CCA)

아카이브 위원회의 등장 배경

- 1985년 아카이브 위원회가 설립됨. 이후, ‘캐나다 공공 아카이브 법(Public Archives of Canada Act)’이 개정되었으며 이 시기에 캐나다에서는 지역 내 기관, 종교단체, 지방 아카이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였음
- 아카이브 위원회의 주된 임무는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 아카이브 기관과 아키비스트들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었음

아카이브 위원회의 임무³⁹⁾

- 아카이브 위원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 아카이브에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통해 각 기록관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아카이브 위원회는 국가적인 우선순위를 식별하고,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의 운영과 재정 조달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권고하며, 아카이브 커뮤니티를 돕는 프로그램의 실행과 관리 방법에 대해 개발·운영 하도록 지원함
- 국립 아키비스트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하고,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아카이브 기관의 요구를 전달하고, 의사결정자와 연구자, 일반 대중의 의사소통의 장(場)을 제공하는 것을 임무로 함
- 아카이브 위원회는 2013년-2018년까지의 행동 전략을 가짐
 - 첫째, 여러 기관을 위한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며, 그들의 조직 역량 구축을 위해 노력함
 - 둘째, 캐나다 시민의 기록 유산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38)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의 아키비스트인 라라 윌슨(Lara Wilson)이 캐나다 아카이브 시스템에 대하여 분석한 보고서의 내용
<http://archivists.ca/sites/default/files/Attachments/Advocacy_attachments/larawilsonsummit.pdf>

39) 캐나다 아카이브 위원회 웹 사이트(<<http://www.cdncouncilarchives.ca/cas.html>>)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킴

- 셋째, 캐나다 아카이브 공동체의 발전을 강화하여 캐나다의 기록 유산 향상을 강화함

아카이브 위원회의 활동

- 국가 전체적인 아카이브 기록물의 협력적인 수집 방안 마련
 - 1989년 ‘수집위원회(Acquisition Committee)’를 설립
 - 1990년, ‘수집 정책 개발을 위한 매뉴얼(Guidelines for Developing an Acquisition Policy)’을 발간
 - 1994 ‘수집 전략 세우기: 수집 계획 안내(Building a National Acquisition Strategy: Guidelines for Acquisition Planning)’ 발간
 - 국가 체계 안에서 수집위원회가 설립되어 수집전략 개발, 수집 정책 개발, 민간 기록 수집을 위한 평가 기준 등이 제시됨
- 국가 아카이브 발전 프로그램 (National Archival Development Program, NADP)의 운영
 - 2006년, 국가 아카이브 발전 프로그램(NADP)을 운영하기 시작함
 - 국가 아카이브 발전 프로그램(NADP)은 지방 아카이브에 재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작은 공동체들에게 그들의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는 아웃리치 활동과 교육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었음
 - 국가 아카이브 발전 프로그램(NADP)을 통해 기록물에 대한 기술(description), 온라인 카탈로그 개발, 자문의 제공,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 기회의 제공함
- 기록 유산 공동체 프로그램(Documentary Heritage Community Program, DHCP) 운영
 - 2013년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본격적으로 착수한 기록 유산 공동체 프로그램(DHCP)은 모든 지방 거점 아카이브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던 국가 아카이브 발전 프로그램(NADP)의 방식을 수정한 것으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 등을 제출하면 LAC에서 기관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함
- 청년 워킹 프로그램(Young Canada Works, YCW) 운영
 - 1996년부터 캐나다의 고용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 워킹 프로그램(YCW)을 개발하여 시행함

- 청년 워킹 프로그램(YCW)은 아카이브 기관에는 인력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직무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인 동시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음

■ 아카이브캐나다(ARCHIVESCANADA.ca) 웹 사이트 운영

- 아카이브캐나다(ARCHIVESCANADA.ca)는 아카이브 위원회에 의해 유자·관리되는 공식적인 아카이브 포털 사이트로, 캐나다 전역의 800여 개 아카이브 기관을 이어주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음
- 아카이브 위원회 소속기관들과 LAC는 아카이브캐나다(ARCHIVESCANADA.ca)에 아카이브 기술(description)과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하는 링크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아카이브캐나다(ARCHIVESCANADA.ca)에서는 캐나다 전역의 아카이브 소장 기관이 연동하여 ‘통합 검색’ 을 지원하며, 링크를 통해 캐나다 전역의 기록 보존소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이용자가 찾는 기록물에 대하여 소장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아카이브 기록물의 기술(description)과 디지털화 작업(digitization) 등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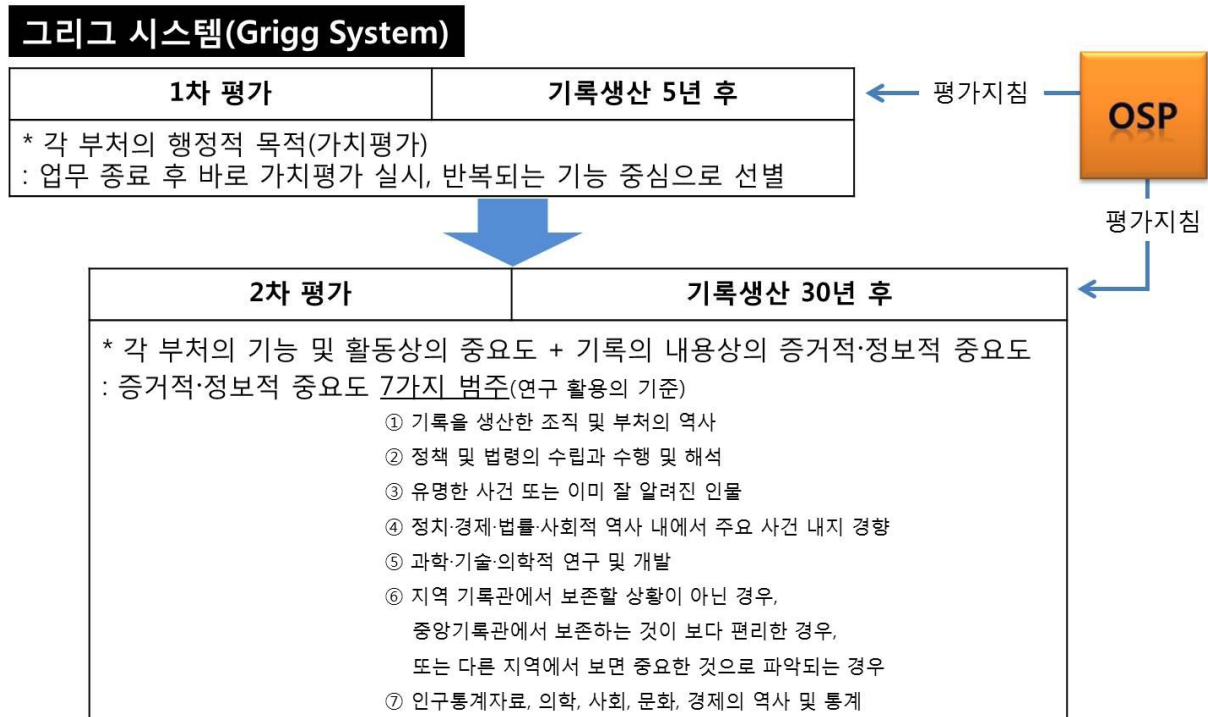
2. 영국의 평가체계 분석

2.1. 영국 국가기록원(TNA)의 평가체계

전통적인 평가체계: 그리그 시스템(Grigg System)

- 영국의 평가체계는 젠킨슨의 기록 평가 이론에 기반한 그리그 시스템(Grigg System)에 토대를 두고 있음. 그리그 시스템은 젠킨슨이 주장한 기록 평가 주체는 기록을 생산한 당사자가 수행해야 한다는 논리와 함께 미국의 셀렌버그가 주장한 기록물의 가치기반으로 기록을 선별해야 한다는 논리가 함께 합쳐져서 형성된 시스템임
- 그리그 시스템은 정부 행정기관의 각 부처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의 관리와 이관에 대해 체계적인 절차와 함께 지침을 제공하였으나 종이기록 환경에서의 평가는 새로운 전자기록의 평가와 평가 시점, 대량의 기록을 개별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TNA에서는 영구 보존할만한 중요한 기록 선별하기 위해서 거시평가 방법을 수용, 국가적 차원의 기록 관리 체제를 정비하게 됨
- 영국의 국가기록원(TNA)은 평가정책(Appraisal Policy)』, 『평가정책의 배경(Appraisal Policy: background paper)』, 『기록선별을 위한 일반 지침(General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records)』 등을 통해 기록물 평가의 기본 원칙과 프로세스, 평가 방식을 채택하게 된 이론적 배경과 근거, 보존기록과 연구목적의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캐나다의 거시평가 방법을 수용하여 영국은 자국의 기록관리 환경 및 체계를 감안하여 기록을 선별하고 처분, 수집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이에 영국은 주제중심의 거시 평가방법을 마련하여 국가가 영구 보존해야 하는 기록을 선별하기 위해 거시적 차원에서 특정한 주제를 기반으로 한 실행 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이하 OSP)을 수립하게 됨

2.2. 영국 TNA의 실행선별정책(Operational Selection Policies, OSP) 수립절차



〈그림 28〉 영국 TNA의 평가체계

TNA의 주제중심의 실행선별정책(OSP) 등장배경

- 전자기록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종이기록 환경 하에서의 평가체계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했으며, 정보공개법의 제정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대두됨. TNA에서는 OSP의 등장배경에 대해서 다음의 다섯 가지를 이유로 들고 있음⁴⁰⁾
 - 첫째, TNA를 비롯하여 영국 정부 내각 부처들이 새로운 기록관리 환경으로 대량의 전자기록에 대해 평가 기준의 필요성 대두
 - 둘째, 향후 20년 동안 TNA는 주로 종이기록을 수집해야하기 때문에 정부 부처들에게 그들이 생산한 종이기록의 평가와 보존 기간에 대한 제공 필요
 - 셋째, 영국 시민 서비스에서 기록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했으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자원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례 마련 필요
 - 넷째,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이 제정되면서 형성된 공공이용성 환

40) TNA, "Appraisal Policy",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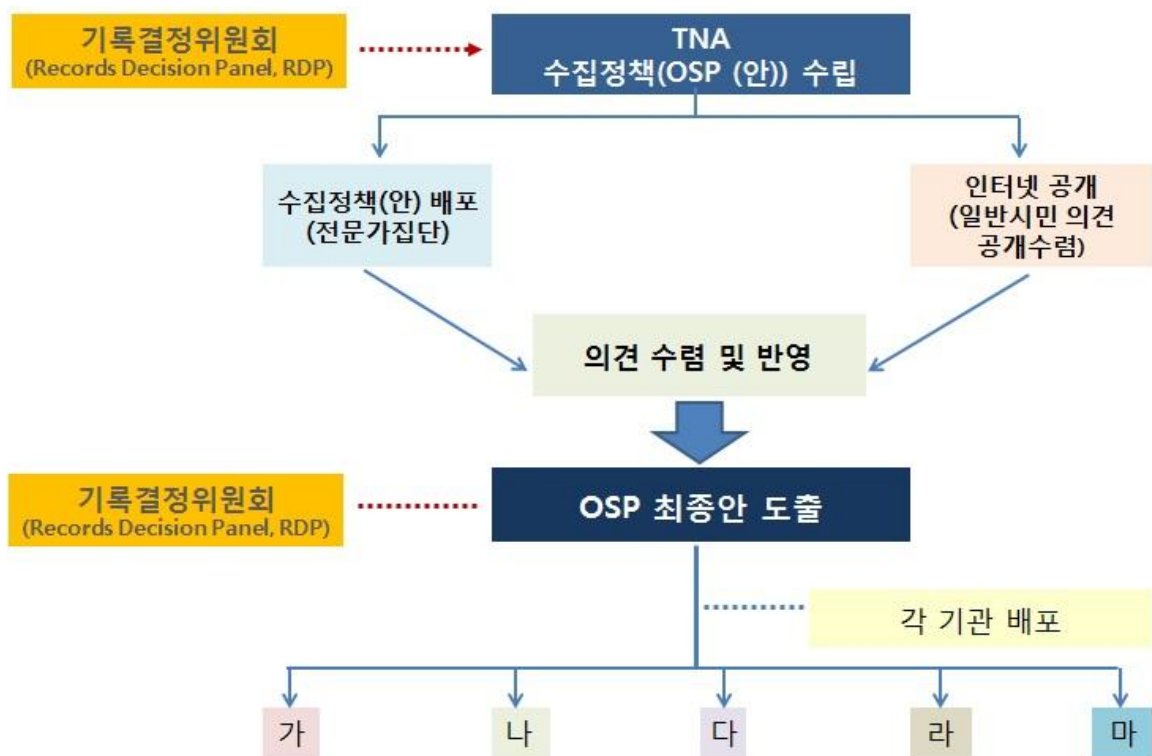
경은 정부부처들이 시행하는 평가 작업을 문서화하고, 기록을 보존하고 폐기하는 합법적인 이유를 제공받기를 원함

· 다섯째, 정부부처에서 마련된 정책과 자원구조의 범위 내에서 정부의 행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각종 기관 및 비공공 부문들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

- 1997년 영국의 TNA에서는 실행선별정책(OSP) 개발에 착수,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현재까지 기록을 선별함과 동시에 처분하고, 수집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으로 활용함

실행선별정책(OSP)의 수립절차

- 실행선별정책(OSP)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록결정위원회에 의해 초안 수립 → (컨설팅그룹)전문가 집단 및 일반시민의 의견수렴 → 실행선별정책(OSP)의 최종안을 도출 → 정부기관에 배포(기록물의 평가 시 지침으로 활용)의 단계를 통해 실제적인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있음



〈그림 29〉 실행선별정책(OSP) 수립절차

■ 실행선별정책(OSP) 초안 수립 단계

● 기록결정위원회(Records Decision Panel, RDP)⁴¹⁾

- OSP의 거시적 차원에서 선정된 상위 주제영역 및 개별 OSP의 다양한 주제를 선정을 위해 TNA에서는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음. 특히, OSP의 주제 선정을 결정하는 자문위원회는 기록결정위원회(Records Decision Panel 이하, RDP)에서 수행하고 있음
- 기록결정위원회는 TNA의 내부 직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영구 보존을 위한 기록선별을 포함하여 기록의 선별 및 처분과 관련된 문제들을 고려하는 위원회임
- 기록결정위원회(RDP)에서 특정 사안 또는 기능에 따라 당대의 사회상을 담고 있는 기록을 선별할 수 있는 주제로 초안을 작성 및 제출함

〈표 43〉 홈페이지에서 공개협의 중인 실행선별정책(OSP) 초안의 예

현재 공개협의(컨설팅)중인 실행 선별 정책(OSP) 초안과 평가보고서 (2016.10.24.)

Draft Appraisal Report - British Council

Draft Appraisal Report - Office of Qualifications and Examinations Regulation

■ 실행선별정책(OSP) 공개협의 단계

● 컨설팅(consultation, 공개협의(회담)) 제도

- 일반적으로 컨설팅 제도는 다양한 관점을 듣고 받아들여 더욱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성과의 질을 향상시키며 법률 입안 전에 이해 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법률 입안 전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등의 정부 규제 개선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음⁴²⁾
- 영국의 각 부처 및 기관들은 “내각(Cabinetoffice)의 컨설팅 시행령(Cord of Practice on Consultation)”의 적용을 받음. 이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각종 정책 결정 및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 영국 정부 및 부처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처별 다양한 컨설팅을 볼 수 있으며, 웹상으로 참여도 가능함

41) TNA, “BestpracticeguidetoappraisingandselectingrecordsforTheNationalArchives”, 2013, p.15

42) 청와대연구용역보고서, 「굿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국민참여적 정보공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2005, p.68

- 영국 정부부처인 TNA에서도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음
- TNA에서는 시대상을 반영한 영구보존대상 기록물 지정을 위해 프레임워크를 웹사이트에 공지 또는 뉴스레터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음
- 더불어 실질적인 의견 취합의 어려움으로 OSP 초안(기안)을 전문가 집단에 직접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병행함

■ 실행 선별 정책(OSP)의 의견수렴 및 최종안 도출

- 전문가 집단과 일반 대중의 공공 컨설팅(consultation)이 진행되는 동안에 기록결정위원회(RDP)는 컨설팅을 통해 수렴되는 의견에 대해 논의를 진행함
- 최종 OSP안이 제출되면 RDP는 최종 승인을 하게 되고 웹페이지에 게재함⁴³⁾

■ 실행선별정책(OSP) 배포 단계

- 컨설팅을 통해 OSP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OSP 최종안이 도출되면 각 기관에 배포함⁴⁴⁾
- TNA는 OSP의 정기적인 갱신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 재검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OSP의 구체적인 시행은 각각의 OSP가 완성되면 모든 정부 기관에 배포한 다음 그리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 시 하나의 평가 지침으로 기록선별을 가능하도록 함
- 이 때 1차 평가에는 기록의 행정적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평가 담당자가 역사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간과하지 않도록 기관의 연혁 및 주요 업무기능에 대해 제시해주고 있으며, 2차 평가에는 수집정책에서 제시한 8개의 범주를 바탕으로 사회적·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제시해주고 있음. 이 때 OSP는 해당 정책이 수집 정책의 어느 영역에 포함되는지를 명시하여 담당자로 하여금 수집정책과 유리되지 않은 선에서 기록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함⁴⁵⁾

43) TNA, "Records Decision Panel(RDP): Terms of Reference", 2011, p.2.

44) 유혜림, 「전자기록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p.46.

45) 유혜림, 「전자기록환경의 도래와 영국 평가수집제도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7, pp.56-57.

기록결정위원회(Records Decision Panel, RDP)⁴⁶⁾

- 공공 기록법(Public Records Act) 제3조에 따라 공공기록에 책임이 있는 기관은 기록을 평가하고 영구 보존 할 만한 가치를 지닌 기록을 선별해야 함, TNA는 이 작업(평가와 선별)의 조정 및 감독을 담당하고, 부서(department)에게 무엇을 선별해야 하는지와 평가와 선별의 방법에 대해 조언을 지원하며 안내(guidance)와 교육을 제공함
- 기록결정위원회의 목적은 정보관리컨설턴트(IMC)가 선택을 하는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선택 유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보존, 취급 및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TNA의 이해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고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기록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들
 - 인수 및 처분 전략, 평가 정책 개정 및 업데이트
 - 실행선별정책(OSP)(신규 및 실질적 개정)
 - 평가 보고서(신규 및 실질적 개정)
 - 현재 정책에서 벗어난 선별 결정
 - 선택 여부에 대한 정보관리컨설턴트(IMC)의 조언이 필요한 컬렉션
 - s.6에 따른 기록의 종료와 기록의 발생 및 파괴
 - 정책 문제를 제기하는 s.4(1)에 따른 기록의 위탁
 - s.4 (3)에 의거 TNA에서 위탁장소로 이관된 기록
 - 역사적 의미의 비공공 기록(non-public records)의 제공
 - 보존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드문 형식의 기록, 모든 전자 기록을 포함하여 접근이나 저장을 하기 어려운 기록
- 기록결정위원회의 구성원
 - 기록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실행선별정책)기록을 선별하기로 결정한 모든 부서의 장(Head of Department)으로 구성됨
 - 부서의 장(Head of Department)은 자신을 대신해서 참석할 사람을 지명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은 부서의 장이 토론 및 결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록결정위원회를 위한 준비사항

46) Records Decision Panel (RDP): Terms of Reference, (Revised July 2011)

- 기록결정위원회에 의해 승인 된 선별 기준은 TNA의 정보 관리와 실제적인 이관 계획에 반영될 것임. 선별기준은 명확한 견해를 제공함
- 안건(papers)은 표준 템플릿 사용을 준수해야 함. 보존, 취급에서의 위험 이외에 선별을 위한 주요 증거임
- 안건(papers)은 계획된 회의 10일 전에 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회람되어야 함.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우, 안건(papers)을 읽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회의 3주 전에 회람되어야 함
- 제출(submissions)에 대한 의견은 회의록에 기록되고 "객체(Objective)"로 저장됨. 이 보고서의 작성자는 회의에서 토론(논의)된 사항을 요약하고 웹 사이트에 제공함
- 실행선별정책(OSP)은 공개 협의(public consultation) 전에 초안 양식으로 기록결정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함. 협의 기간 동안 실질적인 의견이 접수되면 기록결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함. 실행선별정책(OSP)의 최종 버전은 웹 사이트에 게시되기 전에 기록결정위원회에 의해 서명되어야 함

■ 기록결정을 위한 회의 운영

- 기록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매주 셋째 월요일에 예정되어 있음. 회의 날짜는 연초에 결정되며 캘린더(달력) 초대장은 장관이 기록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냄
- 합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됨. 합당한 이유는 예를 들어, 위원 회의 회의 날짜가 모든 혹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다른 중요한 TNA의 행사와 날짜가 겹치는 경우, 토론거리가 없을 경우를 말함
- 기록결정위원회의 의장이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장관은 다른 위원들과 협의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회의를 변경하거나 취소해야 하는 경우, 장관은 가장 적합한 행동 방침에 관한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원들과 상의해야 함
- 회의가 취소되거나 변경이 되는 경우, 모든 참석자에게 가능한 조속히 알려야 함
- 긴급한 논의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예: 부처의 폐지와 같이 기록이 생존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 특별 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상 이 메일을 통해 논의 될 수 있음

■ 기록결정위원회 회의록 및 요약본

- 장관은 회의록과 요약본을 준비하여 회의 후 3일 이내에 핵심부서 및 광범위한 배포 목록

록에 회람되도록 함

- 회의록과 요약본은 다음 회의에서 합의되어야 하며, 요약본은 위원이 동의하는 즉시 TNA의 웹 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함. 회의가 취소된 경우 회의록과 요약본은 이메일을 통해 동의되어야 함
- 장관은 회의 1주일 이내에 기록결정위원회의 결정을 “객체(Objective)”로 업데이트 해야 함

■ 기록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 대규모 컬렉션과 드문 형식의 디지털 대용물에 대한 사례별 고려사항에 대해 실무팀의 고민을 대신함
- 기록결정위원회의 의장인 기록관리 및 실무 책임자는 예외적인 사안에 관한 권고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실무팀에게 전달하여 최종 결정을 내림.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구입과 사업 결과에 대한 확실한 자원 확보를 보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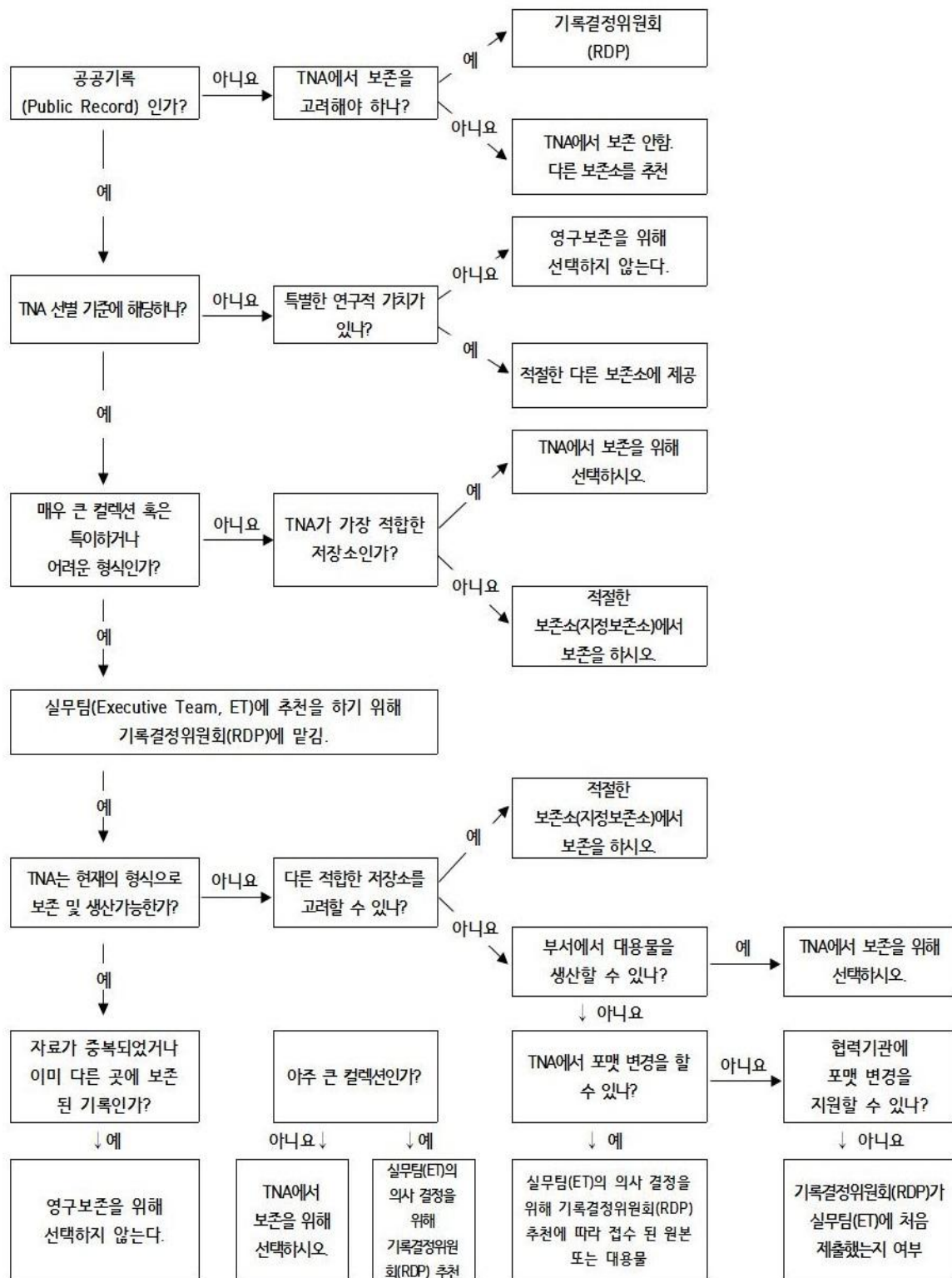
■ 기록결정위원회의 결정 트리

- 기록물 선별 평가 프로세스에서의 기록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을 도식화 하면 <그림 9> 기록결정위원회의 결정 트리임

2.3.TNA의 수집관련 기준

TNA의 기록 수집 정책(Records collection policy)

- TNA의 수집·폐기 전략의 목적은 영국 정부의 의사결정, 활동과 과정, 그리고 역사적 관점과 연구를 촉진(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기록화하기 보다는 ‘국가적 기억(national memory)’을 보존하기 위한 TNA의 고유하고 중요한 역할을 지원하기 위함임
- 기록수집의 이유
 -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원하고 정부가 그 행동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됨
 - 앵글랜드와 웨일즈를 위한 영국의 공식 아카이브로써 과거의 행동과 결정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정부에 대한 장기기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일반 대중의 검색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학술적이고 연구적인 공동체의 요구를 충족시킴



〈그림 30〉 기록결정위원회의 결정 트리

- TNA의 수집기준은 크게 1. 영국 중앙 정부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주요한 정책과 활동, 2.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3.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 4. 국가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구분됨⁴⁷⁾

〈표 44〉 TNA의 수집 기준(Criteria)

TNA의 기록 수집 기준(Criteria)	
영국 중앙 정부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주요한 정책과 활동	정부 정책과 법률의 제정 과정을 분명히 보여주는 기록 정책 형성의 연구와 다른 주요한 증거 및 정책의 검토와 개발과 관련된 기록 정책과 법률의 해석 및 실행/구현의 기록. (이는 주요 기능의 방향의 변화를 설명하 거나 명확성을 제공하는 기록이 포함됨) 영국(잉글랜드와 웨일즈 포함)정부의 조약 및 국제적 협정을 포함한 전략적인 기능 과 의무의 변화에 대한 기록 영국 경제 관리에서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기록 국제 관계와 방위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내각 위원회, 이사회와 정책 또는 사안에 뚜렷한 영향을 주는 공공분야의 프로젝트 또는 워킹그룹의 회의록과 페이퍼/논문, 또는 대중의 관심이 될 가능성이 있는 관련 된 비용, 위험 또는 생산된 영향 정부 체제 구조의 변화(부처 또는 기관의 생성, 합병 또는 해산)및 헌법 제도 등 국 가의 조직 구조의 개혁에 대한 기록 영국 정부와 행정부, 의회 또는 군주 사이의 헌법 관계를 설명하는 기록 장관과 관료에 의해 의사결정을 조사 또는 공공 정책의 변화를 추천한 행정 심판, 위원회의 기록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	영국 대중과 사회 공공 지식과 이해에 상당한 기여한 조직과 장소 또는 개인 또는 그룹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포함하는 케이스 파일, 데이터 세트 및 기타 기록 개인 또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당대의 중요한 관심 또는 논쟁과 관련된 기록 모든 영국 중앙 정부 기관과 그 기관과 일부 비정부민간기관의 웹사이트
국가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연 환경에 관한 정부의 제안 또는 정책의 영향에 관한 자세한 기록 토지소유자 또는 세입자로서 국왕 및 영국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정부의 재산, 권리 및 의무를 설명한 기록

- 특히, TNA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연속성, 발전을 기록화 할 수 있고 그러한 변
화에 대한 역사적 해석에 도움을 주는 기록을 주는 기록이 최고의 영구보존 가치를 가
지는 기록물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47) TNA, "Records collection policy", 2012, pp. 5-7.

『기록물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최선의 실무지침(Best practice guide to appraising and selecting records for The National Archives)』

- 평가 방법과 선별방법을 실행하는 경우, 부서는 기록물 수집 정책, 일반 기록물 선택 기준 및 관련 운영선별정책(OSP)을 참고하여 결정해야 함. 이를 통해 이관하는 기록의 선별 이유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일관성,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음
- 부서는 자신의 부서에 적합한 선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 다른 평가 작업의 결과물과 함께 『기록물 평가 및 선별을 위한 최선의 실무지침(Best practice guide to appraising and selecting records for The National Archives)』을 참고해야 함
- 일반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충분히 상세하지 않거나, 실행선별정책(OSP)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히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음

〈표 45〉 일반적인 기록물 선별 기준(Criteria)

TNA의 기록 선별 기준(Criteria)	
1. 영국 중앙 정부와 잉글랜드 및 웨일즈의 주요한 정책과 활동	부서가 주도하여 영국 또는 국제적인 사건 및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정책 결정의 기록 (예 : 외교 정책, 치안, 망명 및 기타 법적 사건, 군대 배치, 예산 설정, 외환에 대한 개입) 부서가 주도한 주요 법안의 개발을 보여주는 기록 (예 : 녹서와 백서⁴⁸), 법안, 법, 약관에 관한 사항, 정책실무그룹 또는 위원회) 부서가 주도한 2차 법안의 개발을 보여주는 기록(예 : 하위법령(SI: Statutory Instruments)) 부서가 주도한 법안이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 조직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기록(예 : 광범위한 정치 발전에 선례를 세우거나 영향을 미치는 결정) 특히 혁신적이었거나 비용, 위험 또는 영향의 관점에서 중요했던 프로젝트의 기록 (예: 밀레니엄 돔(Millennium Dome)프로젝트, 새로운 영국국립도서관(British Library)건설 프로젝트)
2. 정부의 구조와 의사결정과정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 기록(예: 내각위원회, 관리위원회, 핵심위원회, 장관위원회의 의제(agendas), 일정 및 문서)-OSP 35 참조-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 부서, 기관의 해체, 신설, 합병을 보여주는 기록(예: 2010년 11월 공공기관 개혁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의 최근 변경사항)- OSP 24- 정부 기구와 공무원 조직 관리와 관련된 기록(1974년 3월-2000년) 기관(body) 또는 기능이 어떻게 민영화/국유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예: 영국 철도의 민영화) 특정 공익이 있었거나 정책이나 프로세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tribunals), 수수료(commissions), 질문 또는 심문(inquiries or inquests) 기록에

	관한 기록(예: 증거, 사본, 보고서) 헌법상 관계(예: 정부와 위임 행정부와의 관계) 국무 장관/부장관이 참여한 토론/활동 기록(정당이나 선거 기록 등의 비공개 기록이 아닌 경우 - 정책의 주요 방향과 감독에 관한 OSP 12 참조) 핵심부서의 기능/구조의 신설/발전을 반영하는 기록
3.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	영국 개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집계 된 데이터 (Aggregated data)(정부와 시민 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OSP 30 참조), 장소 또는 조직(예: 인구 조사 기록(Census records)과 같은 케이스 파일이나 데이터 세트) 선례를 세우거나 논쟁의 원인을 알려주고 이미 알려진 것에 추가 할 중요한 사건/사람 / 조직을 보여주는 기록 - 케이스 파일에 대한 OSP 48 참조 (예: 실제로 특정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법적인 케이스) OSP 27에 따른 영국 정부 부처 및 기관의 웹 사이트
4. 국가와 물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	자연 환경에 관한 정책/제안의 영향에 관한 자세한 기록(예: 주변 지역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결정의 영향)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 사건(자연적/인위적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전례(예: 구제역) 영국 왕실의 책임(재산 및 주요 자산)을 설정하거나 재확인하는 기록(예: OS 지도, 템즈강 홍수조절 센터(Thames Barrier), 해저 터널인 Channel Tunnel, 올림픽 경기장(Olympic venues))
5. 항상 선택해야 하는 기록	1660년 이전에 만들어진 기록(1958년 공공 기록법의 요건) 내각부의 공식 기록의 작성에 인용되거나 언급 된 논문
6. 선택해서는 안 되는 기록	사본(예: 부서 간에 배포된 정책 또는 토론 (종이)사본) 참조 / 단기 가치 정보 운영상 또는 관리(행정)상의 기록(예: 청구서, 영수증 및 고충 처리 서류와 같은 노무관리(Human Resource,HR) 기록과 같은 재무 기록) 부서 또는 부서소속 과(branch)가 선도하지 않은 기록(예: 부서 사무국이 아닌 경우의 조회기록, 다른 정부 부서가 주도한 정책 서류) 신문 간행물/ 간행물 사본 기준(criteria) 3.1 또는 3.2에 속하지 않는 일상적이거나 독립적인 케이스 파일 TNA에서 이미 수집 한 기록/ 정보(예: 국회의사록(Hansard), 간행 된 조안-지침, 연례 보고서, 의회 문서) 비공공 기록(Non public-records) 법에 의해 보존되어야 하지만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지 않는 기록(예: 재무 기록, 건강 및 안전, 핵 폐기물 처분 기록) 최소한의 내용(예: 파일에 대한 문서가 거의 없음) 또는 이미 알려진 내용에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가되지 않는 부분 기준(criteria) 1, 2, 3 및 4에 따라 선별된 기록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 공공 서신(Public correspondence) 부서 웹 사이트에 게시 된 기록은 영국 정부 웹 아카이브에 완전히 포함되어 있음.

48) 각 부처는 입법계획 시안에 대하여 "Green Paper"를 발간하여 약 3개월간 입법계획 시안에 대하여 부처합의 및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Green Paper를 통한 부처합의 및 의견수렴 절차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후 각 부처 정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및 입법조치계획을

별도의 평가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

- 포괄적 기준의 한계를 감안하여 별도의 평가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을 선정하고 있음

〈표 46〉 별도의 평가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

별도의 평가 없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

- (1) 1660년 이전에 생산된 모든 기록
- (2) 연례 보고서
- (3) 부처의 주요 정책 기구(위원회, 자문기구)의 회의록 및 회람문서
- (4) 부처의 입법 또는 이들이 주도하는 입법 준비와 관련된 기록
- (5) 내각(Cabinet Office)의 공식 역사가가 거론한 기록
- (6) 법률에 영구보존이 명시된 기록

기록의 중요성과 정보적 가치의 판단 기준

- 기록의 중요성과 정보적 가치도 기록물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표 47〉 기록의 중요성과 정보적 가치 판단의 기준

기록의 중요성과 정보적 가치 판단의 기준

- ① 부처의 역사적 측면, 조직, 업무절차의 측면
- ② 정책과 법률의 입안과 해석 및 그 실행(더 세밀히 판단 필요)
- ③ 널리 알려진 사건·인물(추가로 새로운 의미부여 가능한 경우)
- ④ 정치, 사회, 법률, 경제의 역사에서 주요 사건, 발전 또는 경향
- ⑤ 과학, 기술, 환경, 의학 연구와 발전
- ⑥ 지역의 상황(해당 지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 ⑦ 통계와 양적 연구에서 필요한 수단으로써 인구, 의학, 사회, 문화, 경제, 역사와 역사지리

- 기록의 중요성과 정보적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부처의 기원과 관련된 기록, 주요 정책 문서(입법화 사안문서 등)나 장관보고 문서, 내각 제출 문서(초안도 포함), 지금은 담당하지 않은 부처 기능이나 실패한 프로젝트 관련 기록, 널리 알려진 사건이나 소송, 또는 당대 주목이나 논쟁 대상이었던 중요 사건과 관련된 기록 등을 일반적으로 영구보존기록물로 선정되는 기록물의 예로 제시하고 있음⁴⁹⁾

⁴⁹⁾ "White Paper"로 최종 확정하게 된다

49) TNA, "General guidelines for the selection of records", 2006.

2.3.1. 실행 선별 정책(OSP)의 주제 영역 및 세부 지침

실행 선별 정책(OSP)의 주제영역

- 실행선별정책(OSP)은 주제를 기반으로 한 특정한 사안 및 이슈에 관한 기록을 선별하고 수집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책으로 개별 부서와 기관의 기록 또는 부서 간 주제에 관한 수집 정책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2016년 현재, 8가지 주제 영역과 60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OSP는 모든 기관에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OSP의 주제와 관련된 부서에만 배포하고 있음

〈표 48〉 실행선별정책(OSP)의 주제영역과 세부주제

주제영역	주제(Subject)
Centre of Government and constitutional matters 중앙정부와 헌법	Ministry of Defence 1963-2014 appraisal report 국방부 1963-2014년 평가 보고서
	OSP7: The Welsh Office 1979-1997 웨일즈 정부(1979-1997년)
	OSP7: Y Swyddfa Gymreig 1979-1997
	OSP12: Central direction and oversight of policy, 1970-2000 정책의 주요 방향과 감독(1970-2000년)
	OSP20: Records of the Central Office of Information (COI) 중앙 정보국 기록
	OSP24: Records relating to the machinery of govern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civil service from March 1974 to 2000 정부 기구와 공무원 조직 관리와 관련된 기록(1974년 3월-2000년)
	OSP27: UK central government websites 영국 중앙정부 웹사이트
	OSP 59: Welsh Government 1997-2006 웨일즈 정부(1997-2006년)
	OSP 60: Welsh Government 2006-2011 웨일즈 정부(2006-2011년)
Defence, security and intelligence 국방, 안보와 정보	OSP8: The Security Service 영국 안전정보국
	OSP11: Nuclear weapons policy 1967-1998 핵무기 정책(1967-1998년)
	OSP14: Home defence and emergency planning 1972-2001 국가 안보와 비상 계획(1972-2001년)
	OSP28: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 and its predecessors

	정부 통신 본부와 그 전신
Environment 환경	British Coal Corporation (former National Coal Board) paper records 1947-2004 appraisal report 영국 석탄공사(전 국영석탄공사(NCB)) 1947-2004년 문서기록 평가 보고서
	OSP1: The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1970-1979 환경부(1970-1979년)
	OSP2: The Crown Estate, 1975-1985 영국왕립토지위원회(1975-1985년)
	OSP4: The use and conservation of the countryside for recreational purposes, 1974-1983 여가를 위한 시골의 이용과 보전(1974-1983년)
	OSP10: Nature conservation in Great Britain 1973-1991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포함)의 자연보호(1973-1991년)
	OSP17: Preservation of the built environment, 1970-1999 건축 환경(structures and landscapes)의 보전(1970-1999년)
	OSP45: English Partnerships 1999-2006 잉글랜드 협력(1999-2006년)
	OSP 58: Environment Agency (1996-2012) 환경부 (1996-2012년)
Financial matters 재정	OSP 57: Nuclear Decommissioning Authority - site records 1940 onwards 원전해체 전담기관(NDA)- 1940년부터의 사이트 기록
	OSP9: Fiscal policy 1971-1979 회계 정책(1971-1979년)
	OSP15: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expenditure, 1969-1997 중앙 정부 지출의 통제(1969-1997년)
	OSP22: Records of the Royal Mint 1975-2002 영국 조폐국의 기록(1975-2002년)
	OSP27: Web Continuity project ⁵⁰⁾ : The National Archives is currently reviewing its approach towards the capture and preservation of government web sites as part of its Web Continuity Project.
	OSP35: Board and committee records 이사회 및 위원회 기록
	OSP36: Publications / Grey literature 간행물 / 회색 문헌
	OSP37: Freedom of Information Act records 기록의 정보공개(자유)법
	OSP38: Records of internal administration 내부 행정부 문서

	OSP39: Inspection records 감사 기록
	OSP42: Records of Departmental legal branches 부서별 법적 기록
	OSP48: Case files 케이스 파일
Law and order 법과 질서	OSP6: Records created by and relating to coroners, 1970-2000 검시관과 관련되어 생산된 기록(1970-2000년)
	OSP16: Probation records, 1965-2001 보호 관찰 기록(1965-2001년)
	OSP21: Records of the Criminal Case Review Commission (CCRC) 범죄사건 재심위원회(CCRC)의 기록
	OSP29: Metropolitan Police Service (MPS) records 수도경찰청(MPS) 기록
	OSP32: Records relating to court actions for individual bankruptsy 개인 파산에 대한 법원의 조치관련 기록
	OSP33: Records relating to court actions for corporate insolvency 기업 부실에 대한 법원의 조치관련 기록
	OSP40: Records of the Crown Court and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형사지방법원(Crown Court)와 고등법원(Court of Appeal)의 기록(범죄별)
	OSP46: Records relating to military law and courts-martial 국법과 군사 법원 관련 기록
Overseas 국외	OSP 56: Attorney General's Office (AGO): Paper Records 1987-2012 검찰부(AGO): 1987-2012년 문서기록
	OSP13: Britain's diplomatic relations, 1973-1996 영국의 외교 관계(1973-1996년)
	OSP23: Records of Britain's overseas representation, 1973- 영국의 국외 대표 기록
Social and education 사회와 교육	OSP44: Records of UK government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uropean Community secondary legislation 유럽 연합의 이차적인 법률의 개발 및 시행에 있어서의 영국정부의 관여기록
	OSP5: The administration of social security, 1979-1991 사회보장 관련 행정부(1979-1988년, 보건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curity: DHSS) → 1988-1991년, 사회보장성 (Department of Social Security : DSS)기록)(1979-1991년)
	OSP18: Records of registration of births, deaths and marriages of United Kingdom citizens occuring overseas 출생, 사망신고 기록과 해외에서 발생한 영국 시민의 결혼등록 기록

	OSP19: Records of the Department for Education, 1974-1997 교육부 기록(1974-1997년)
	OSP30: Government and people: the interaction of the state with the citizen as documented in electronic case files and data sets 정부와 사람: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전자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OSP31: Post 16 education, 1974-1988 16세기 후기의 교육(1974-1988년)
	OSP55: Records of the Pensions Regulator (2005-2011) 연금감독기구 기록 (2005-2011년)
Trade and industry 무역과 산업	OSP3: Industrial policy, 1974-1979 산업 정책(1974-1979년)
	OSP25: The regulation of companies (경제적, 사회적)회사의 규제
	OSP26: The regulation of civil aviation, 1972-2002 민간 항공의 규제(1972-2002년)
	OSP34: Restrictive trade practices, 1956 - 2000 무역 관행의 제한(1956 - 2000년)
	OSP41: Records created 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between 1945 and 2000 inherited by the Food Standards Agency 194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식품규범청에 의해 상속된 농림수산식품부 기록
	OSP43: Competition - case files 1950-2008 경쟁 - 케이스 파일(1950-2008년)
	OSP47: Water Services Regulation Authority(OFWAT) paper and electronic records 1989-2010 상하수도서비스규제기구(OFWAT) 문서와 전자기록(1989-2010년)
	OSP 49: Records of the Export Credits Guarantee Department 1978 onwards 1978년부터의 영국의 수출신용보증기관(ECGD)의 기록
	OSP50: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1999-2012 지역개발기구(RDA) (1999-2012년)
	OSP51: Records of Royal Mail and its predecessors, 1969-2006 조폐국과 전임 조폐국장 기록 (1969-2006년)
	OSP 54: Food Standards Agency 1 April 2000 - 1 October 2012 식품규범청(2000년 4월 1일-2012년 10월 1일)

50) 웹 연속성 프로젝트(The Web Continuity project), TNA가 주도하는 웹 연속성 프로젝트는 정부의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웹 사이트의 보관 및 웹 링크 관리의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선택된 웹 사이트의 컬렉션을 기반으로 영국 정부의 웹 아카이브(UK Government Web Archive)가 2003년 시작되었다.

실행 선별 정책(OSP)의 세부지침

■ OSP 1. 환경부(1970-1979년)

〈표 49〉 OSP 세부지침 예시: OSP 1. 환경부(1970-1979)

	배 경	문서화 및 보존 대상 기록물 기록물 처리 방법 제안
주택 공급	광범위한 주택공급 관련 정책안 - 주택공급 재정관련 정책 - 세대주 지원 정책 - 주택공급 관리 정책 - 이민자 및 홈리스 지원 주택공급 정책 - 임차인 보호 관련 확장 정책 - 빈민가 재개발 관련 정책 ▶ 이러한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정책 및 임차조종정책에 의한 인플레이션 조종 정책에 영향을 받음	- 공영주택 매각(the sale of council houses) - 대출서비스의 확대 - 주택공급재정법(1972) 제정과정 및 개발, 실행 - 1974-1978년 사이 생산된 주택공급 관련 기록의 재검토 요망 -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1976)과 홈리스를 위한 주택공급법(1977) 검토
도시개발 계획	1979-1979년 지역개발 정책에 변화 발생 - 뉴타운 개발 붐과 더불어 빈민지역에 대한 정책적 누수현상의 급증 - 76년 뉴타운개발프로그램을 빈민가 개발정책으로 변화시킴	-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빈민지역 개발 관련 연구는 상세히 문서화 - 뉴타운 건설 과정은 정책파일 선별을 통해 문서화
환경오염	- 1972년 인간환경에 대한 UN스톡 홀름회의에서 환경의 질적 부분에 대한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름 - 영국의 경우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74년 오염조종법이 제정	- 동법의 시행관련 사안 - 환경오염 사건에 대한 연구기록과 주요 사건 관련 기록 - 소음관련 정책개발 기록
개발구역 과세 관련	- 1971년 Land Commission Act 통과로 택지개발 관련 과세부담 종료 - 1974-79년 정부는 다른 택지개발 표준 제공	- 이 영역에서의 정책 실행과 개발은 관련 정책파일의 보존을 통해 문서화
지방정부 및 수질개선 서비스 재구조화	- Local Government Act(1972;지방정부법) 제정 - 수질보호법(1973)의 제정	- 동법 개발관련 핵심사항, 즉 연구 및 정책적 고려, 컨설팅, 실행법률 사안들의 문서화 요망 - 지방정부 규칙, 연금, 계약관련 케이스 파일은 폐기

지방개발 계획	- 1970년대 기관은 EEC지역개발펀드 확충을 위한 전략업무 및 실행을 지속시킴 - 이 개발시스템은 74년 2단계 시스템으로 수정되었음	- 지역경제계획위원회의 업무 및 전략들은 환경부 파일 시리즈의 일부 이므로 보존대상 - 개발계획시스템의 재구조화와 관련 한 정책파일은 TNA에 이관 - 개별 개발계획과 이에 대한 논의들은 보존대상에서 제외
에너지 정책	- 1973년 석유파동은 에너지 보존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작시킴 - 이에, 환경부는 에너지 보존 정책과 이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 해당 연구 보고서 및 에너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부 캠페인 기록을 보존 대상으로 함
건설업 지원정책	- 공공기록법(1958) 3조 6항에 의거하여 환경부, 교통수송부, 국립아카이브즈는 해당 기록물 탐색에 노력해야 함	
지방 개발 계획	- 1971년 국립공원 보존위원회는 국립공원의 미래상에 대한 논의 - 1976년 핵폐기물처리와 관련한 논의	- 관련 기록물은 보존대상 - 개발과 관련한 일반 기록물은 보존대상에서 제외

- 영국 TNA OSP의 OSP 1은 1970-1979년까지의 환경부의 주요기능(주택문제, 환경계획, 지방정부, 수질 환경보존)을 중심으로 각각의 주요영역에 따른 배경 및 기록물의 수집과 평가에 대한 지침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2.3.2. 실행선별정책(OSP) 3. 산업정책(1974-1979년) 세부지침 분석

1. 권한(Authority)
2. 범위(Scope)
3. 산업부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
4. 산업부의 역사(Administrativ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
5. TNA의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관련 컬렉션 테마(Relevant Collection Themes)
6. 산업부의 주요 테마(Key themes within the Department of Industry)
7. 산업부의 파일링 시스템의 구조(Structure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s Filing System)
- 부속서(Annex) - 8. 문서화 될 사건 및 기능 (Events and Functions to be Documented)

1. 권한(Authority)

- TNA의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문에서 정부의 실행선별정책 개발 의도를 밝히고 있음. 전체적인 수집정책에 설명된 수집 주제를 개별 부서 및 기관이 작성하고 보존 중인 기록물에 적용됨
- 실행선별정책은 공공기록의 선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 도구임. 이 정책은 기록 이용자 또는 아카이브 전문가, (실행선별정책)이용 경험자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의 결과로 얻어진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음
- 공식적인 검토 주기는 없지만 언제든지 의견을 환영함. 검토 및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기 바람

2. 범위(Scope)

- 이 정책은 1974년-1979년까지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가 수행한 산업 기능을 다룸. 수집 될 모든 기록물에 대한 철저한 기술은 아니지만 수집 작업 및 검토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록물은 현재 통상 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보관되어 있음. 무역, 에너지, 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록은 별도의 실행선별정책이 적용

됨.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실행선별정책은 책임(lead)부서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의미함. 영국 노동당(정권) 1974-1979년의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3. 산업부의 책임(Responsibilities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

- 산업부는 1972년과 1975년의 산업법에 따라 일반 산업정책, 지역 정책과 산업 지원을 담당했음. 산업부는 철강, 항공 우주, 자동차, 조선을 포함한 개별 제조업을 후원하고 우편전신전화공사(The Post Office)⁵¹⁾와 케이블 앤 와이어리스(Cable and Wireless Ltd.)⁵²⁾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었음. 또한 산업, 산업 연구 개발 및 6개 산업 연구 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에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었음

4. 산업부의 역사(Administrative History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

- 노동당(정권)은 1974년 3월 통상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를 해체하고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 통상부(Department of Trade), 가격과 소비자 보호부(Department of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 3개의 부를 신설함. 처음 산업부 장관으로 토니 벤(Tony Benn)과 차관으로 에릭 헤퍼(Eric Heffer)가 임명되고, 로드 베스윅(Beswick)이 부장관(Minister of State)으로 임명됨. 1974년 4월, 우편전기통신성(Ministry of Post and Telecommunication)은 폐지되고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로 책임이 이전됨. 1979년 총선에 따라, 가격과 소비자 보호부(Department of Prices and Consumer Protection)가 폐지되고 통상부(Department of Trade)로 책임이 이전됨. 1983년, 총리⁵³⁾는 산업부와 통상부를 통상산업부로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함

5. TNA의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관련 컬렉션 테마(Relevant

51) 영국 우편전신전화공사(The Post Office)는 국영 통신사업자였다. 당시 영국인들은 전화를 구매하거나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오직 한곳을 통해야만 했음. 이 회사는 1980년 브리티시텔레콤(BT)로 이름을 바꿈. 대차는 1981년 우편전신전화공사를 우편공사와 전기통신공사로 분리했음. 같은 해 대차는 전기통신 사업을 1984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내용의 영국 통신법안을 발의함

52) 영국의 네트워크 인프라 보유기업임

53) 마거릿 대처(Margaret Thatcher)는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로 1979년-1990년까지 영국 보수당의 수장으로 영국 총리직을 수행함. 1975년 최초로 영국 보수당 수장이 되고, 1979년 수상이 되었으며 3번의 연임에 성공해 1990년까지 수상직을 수행함

Collection Themes)

-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문은 TNA의 향후 평가 및 선별 결정의 기초가 되는 특정 수집 테마를 설명하고 있음. 다음 주제는 산업부에서 수행하는 산업 기능과 관련이 있음

• Formulation of policy and management of public resources by the core executive (2.2.1.1) 핵심적인 행정부의 정책과 공공 자원 관리의 정책(2.2.1.1)
• Management of the economy (2.2.1.2) 경제관리(2.2.1.2)
• The economic, social and demographic condition of the UK, as documented by the state's dealings with individuals, communities and organisations outside its own formal boundaries (2.2.2.1) 영국의 경제적, 사회적, 인구 통계학적 상황 (국가가 공식적인 범위를 벗어나 개인, 지역 사회 및 조직과의 관계를 기록화 함) (2.2.2.1)
• Impact of the state on the physical environment (2.2.2.2) 물리적 환경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2.2.2.2)

6. 산업부의 주요 테마(Key themes within the Department of Industry)

- 다음 테마는 1974 ~ 79년 산업부의 핵심 산업 기능을 구성한 것임. 테마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음

6.1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

- 이 주제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1.1과 2.2.1.2과 관련됨
- 노동당은 산업계의 공적 소유권(국유화)을 확대한다는 선언을 함. 이러한 목표는 1974년 "영국 산업의 재생(The Regeneration of British Industry)" 백서에 요약되어 있음. 1975년의 이러한 조치를 규정하는 산업법에는 국가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의 설립이 포함되어 있었음. 국가기업위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외국 재산권에 대해 영국 제조업을 보호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정부는 조선, 항공기, 자동차 산업을 국유화 할 의향을 발표함. 특정정책 분야는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음

6.2 지역 지원(Regional Assistance)

- 이 테마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1.1, 2.2.1.2 및 2.2.2.1과 관련됨
- 노동당(정권)은 영국의 산업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영국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개발 기관(Welsh Development Agencies)의 창설을 포함하여 지역 사무소에 더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산업에 대한 선택적·지역적인 지원을 함. 특정 영역은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음

6.3 산업적 지원(Industrial Sponsorship)

- 이 테마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1.1, 2.2.1.2 및 2.2.2.1과 관련됨
- 산업부는 영국 산업계에서 다양한 제조 분야의 지원을 담당함.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철강, 조선, 기계 공학, 항공 우주, 우주 연구, 우편 및 통신, 석탄, 컴퓨터 및 전자 제품, 화학, 섬유, 자동차, 종이 및 목재, 광물 및 금속, 석유 등의 분야를 지원함. 특정 영역은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음

6.4 산업 혁신 (연구 개발)/ Industrial Innovation (Research & Development)

- 이 주제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1.1, 2.2.1.2 및 2.2.2.2와 관련됨
- (산업)부서는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위탁하였음. 주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수석과학자(Chief Scientist)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수석과학자는 6개의 연구소를 대표하였음. 6개의 연구소는 영국 국립 물리학 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 영국의 국가공학 연구소(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 워렌 스프링 연구소(Warren Spring Laboratory), 국립 해양 연구소(National Maritime Institute), 컴퓨터 지원 설계 센터(Computer-Aided Design Centre) 및 화학/바이오분야의 국가측정표준기관

(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임. 특정 영역은 부속서 1에 포함되어 있음

6.5 노사 관계(Industrial Relations)

- 이 테마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2.1과 관련됨
- 이 테마는 별도의 실행선별정책의 적용을 받음

6.6 규제 및 표준(Regulation and Standards)

- 이 테마는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의 섹션 2.2.2.1과 2.2.2.2와 관련됨
- 이 테마는 별도의 실행선별정책의 적용을 받음

7. 산업부의 파일링 시스템의 구조(Structure of the Department of Industry's Filing System)

-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파일링 시스템은 알파벳과 숫자로 구성되는 시스템(alpha-numeric system)을 기반으로 함. 이것은 파일 번호에 따라 생성하는 부(division or branch)를 식별하는 접두어로 구성됨. 대다수의 경우 하위 테마 번호(sub-theme numbers)는 사용되지 않음. 결과적으로 정책 파일, 사례 문서 및 참조 자료는 각 파일 시리즈 전체에 균등하게 분산됨.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영구 보존을 위한 파일의 선택은 실행선별정책에 포함 된 지침에 따라 파일 단위로 계속 진행될 것임
- 이 방법은 컬렉션 테마와 관련된 파일을 컬렉션 테마와 관련되지 않은 파일로부터 분리하는 데 사용됨. 선별 테마에 포함되지 않은 파일은 일반적으로 삭제됨

부속서(Annex) 1

8. 문서화 될 사건 및 기능(Events and Functions to be Documented)

- TNA는 다음의 영역을 기록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기록이 생존했는지 또는 다른 정부 부처로 이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는

상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8.1 산업 정책(Industrial Policy)

- 1974년 3월 통상산업부는 산업, 통상, 가격 및 소비자 보호 부서를 구성하기 위해 분할되었음. 이러한 개편(재조직)과 관련된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산업부는 1972년 산업법(Industrial Act 1972)의 제2부(Part II)에 따라 주요 사례를 평가함. 이 기능과 관련된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선도 기업(대기업, leading firms)과의 장기 계획 협정을 체결하려는 정부의 목적은 산업 정책의 주요 측면이었음. 이 기능과 관련된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산업 폐기물의 재활용 계획은 정부에 의해 발표됨. 이 기능과 관련된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4년 8월 15일에 발행된 『영국 산업의 재생 (제5710호)』 백서는 정부의 산업 정책 의제(agenda)를 제시함. 정부의 백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법안은 1975년 1월 31일에 발표 됨. 산업법(Industrial Act 1975)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제공함. (a)국가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 NEB)은 기존 기업을 지원하고 제조 산업의 수익성있는 영역에 대한 공적 소유권(국유화)을 확대함 (b)하용되지 않는 외국 재산권에 대한 영국 제조업을 보호 할 권한; (c)주요 기업의 산업 전략이 국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하는 자발적인 계획 협상 제도(시스템); (d)현재 및 미래 활동에 관해 기업이 정보를 공개하도록 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함. 법안의 준비와 통과 및 정부의 전반적인 산업 전략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정부는 국가경제발전위원회(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 NEDC)를 통해 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설립 함. 이러한 정부(노동당)에 대한 NEB의 개입과 태도에 관한 기록은 보존될 것임
- 1975년 3월 발간된 브리티시 레일랜드에 대한 라이더 보고서(Ryder Report)는 레일랜드가 영국 경제 기반의 중요한 부분을 유지해야하며 공장이나 시설을 현대화하기위한 대규모의 신속한 투자 프로그램을 권장해야한다고 결론을 짓고 있음. 보고서를 작성한 부서의 기록은 보존됨. 정부가 1,500만 파운드를 지원하여 국유화하는 브리티시 레일랜드(British Leyland Act 1975)법의 시행에 대한 부서의 역할은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 1976년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는 폐쇄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발표함. BSC의 경영진과 노동 조합과의 관계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8.3.1 참

조)

- 정부가 크라이슬러 사(Chrysler Corporation)에 1억 2천 5백 5십만 파운드를 제공하여 도산을(2만 5천개의 실업) 방지하기로 한 결정은 기록화 될 것임(8.3.11 참조)
- 산업 장관이 발표 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산업법 8조에 의거 한 기업 대출 및 자금 지원 한도가 550백만 파운드에서 1,600 백만 파운드로 상향되었음. 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의회 당국은 항공기 및 조선 산업을 국유화하려는 1975년의 법안은 하이브리드 조치라고 판단했음(공공 법안은 전체적으로 정의 된 인물, 재산 또는 자산의 그룹을 포함해야 하고 그룹 외부의 개별적인 우려 사항은 포함하지 않음). 이 논쟁은 영국에서 90개의 선박 수리 회사 중 12개의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 오려했던 법안의 부분에서 비롯되었음. 영국 정부는 결국 1977년 3월 17일 국왕의 재가(Royal Assent)를 받아 법안에서 12개 회사를 제외시킴. 1977년 항공기 및 조선 산업법(Aircraft and Shipbuilding Industry Act)에 따라 1978년에 영국 우주항공(British Aerospace)와 영국 조선(British Shipbuilders), 두 단체를 설립함. 이 법안은 전쟁 후 몇 년 동안 가장 열띤 의회주제였으며 영주는 이 법안을 3번 거절함.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영국의 영주 대 시민의 대결(Lords versus Commons battle)이라고 불림. 법안 통과와 관련된 기록은 기록화(documented)될 것임
- 총리(수상)는 랭카스터 직할령의 대법관Chancellor of the Duchy of Lancaster)의 장인 Lever하에,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연구를 발표함. 이 기관의 활동과 중소기업 지원부서에서 수행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북동부 및 북서부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기위한 2개의 새로운 지역위원회(영국 Regional Boards)는 실질적인 투자 역할을 가진 국가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에 의해 설립되었음. 이러한 사건(event)에 대한 부서의 역할은 기록화(documented)될 것임
- 1978년에 산업부 장관(Industry Secretary)은 국가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의 차입 한도를 1억 파운드에서 3억 파운드로 늘리기 위한 새로운 산업 법안을 발표했으며 하원의 확정안 통과로 4억 5천만 파운드까지 추가 인상을 약속했음. 이 결정과 1979년 산업법(Industry Act)의 통과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8.2 지역 지원(Regional Assistance)

- 1972년 및 1975년 산업법에 따른 지원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결정은 산업개발자문위

원회(Industrial Development Advisory Board, IDAB)에 맡겨져 검토됨. IDAB에 의해 작성된 회의록, 논문 및 공식 요약은 산업개발부서의 파일에 기재되어 있음. 이러한 파일은 1974-79년 기간 동안의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지역개발지원금(교부금)(Regional Development Grants)은 지역 산업 개발부(Regional Industrial Development Division)에 의해 처리되었으며, 해당 부서의 활동과 관련된 정책 문서만 보관(kept) 됨. 모든 일상적인 케이스 파일이 삭제(파괴)됨

- 1974년 4월, 국무부 장관은 1972년 산업법의 제1부 및 제2부의 7절에 따른 지역별 선택적 지원에 따라 지역개발보조금 제도의 지속을 발표했다. 1975년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해당 부서는 지역개발보조금을 총 171백만 파운드, 투자 보조금 101백만 파운드를 승인함. 이러한 기능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될 것임
- 1974년 7월에 국무부 장관은 본부를 방문하지 않고 원조를 제공하기 위해 부서의 지역 사무소에 권한을 강화함을 발표함. 대출 한도는 50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로 상향 조정됨. 1974년 8월 말까지 1,403건의 지원이 이루어져 지역(지원)보조금으로 8억 8,300만 파운드의 지출이 1972년 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승인되었음. 이러한 정책 결정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될 것임
- 1974년 8월, 국무부 장관은 1972년 지방 고용 법(Local Employment Act 1972) 및 1972년 산업법⁵⁴⁾에 따라 자원(보조) 지역의 지위 변경 사항을 발표함
 - i. 머지사이드(Merseyside)와 북 웨일즈(North Wales) 일부가 특별개발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됨
 - ii. 에딘버러와 카디프(Edinburgh and Cardiff)는 개발지역으로 업그레이드 됨
 - iii. 이전에 지원을 받은 영역 밖에 있던, 체스터필드(Chesterfield)는 중간지역으로 지정 됨
 이러한 상태의 변화와 관련된 기록은 보존됨
- 1975년 산업법의 통과와 준비에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스코틀랜드 개발청에 관한 법(Scottish Development Agency Act 1975) (스코틀랜드 개발청을 설립하고 스코틀랜드 산업 개발 자문위원회(Scottish Industrial Development Advisory Board)의 임명을 규정); 1975년 웨일즈 개발청에 관한 법(Welsh Development Agency Act) (웨일즈 산업 개발 자문위원회(Welsh Industrial Development Advisory Board)의 임명을 규정)
- 산업법 제8조에 따른 기업에 대한 대출금 한도는 5억 파운드에서 16억 파운드로 증가

54) 1972년 산업법에서는 지원지역을 낙후도에 따라 특별개발지역(SDA: Special Development Areas), 개발지역(DA: Development Areas), 중간지역(IA: Intermediate Area) 등 3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함

했음. 1976 년 산업(개정)법(Industry (Amendment) Act)에 관한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정부는 농촌 지역에 소규모 공장을 짓는 데 중점을 둔다고 발표함. 이 기능을 다루는 정책 기록은 보존됨
-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동남아시아 계획 지역 프로젝트의 산업 개발 인증서를 취득에 관한 결정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국가기업위원회(National Enterprise Board)에 의해 북동부 및 북서부 지역의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인 투자 역할을 하는 2개의 새로운 지역 이사회가 설립되었음. 또한, 산업부 장관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 아일랜드(Scottish, Welsh, Northern Ireland) 개발위원회의 차입 한도를 각각 3억 파운드에서 8억 파운드, 1억 5천만 파운드에서 4억 파운드, 5천만 파운드에서 1억 파운드로 증가한다고 발표함. 지역 정책의 이러한 측면을 설명하는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9년 산업법의 통과와 준비에 관해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8.3 산업적 지원(Industrial Sponsorship)

- 산업부는 영국 산업의 다양한 부문을 지원함. 산업부는 중앙 정부와 산업계 간의 의사 소통의 통로 역할을 함. 개별 지원 부서에서 수행 한 활동은 다양 했음.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산업부가 적극적으로 정책 과제(의제)를 제안했으며, 다른 부문에서는 단기 전망을 유지했음. 여러 부서에서 작성된 파일에는 이러한 다양한 역할이 반영되어 있으며 정책 파일, 케이스 종이문서(case papers) 및 일반적인 참조 자료가 혼재되어 있음. 수집 할 기록은 다음과 같 음

8.3.1 철강(Iron and Steel)

- 1974년 3월,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의 『10개년 개발 전략 (Ten Year Development Strategy(Cmnd 5226))』에 대응하여 로드 베스윅 (Beswick)이 산업부 부장관(Minister of State)은 영국의 철강의 기업 전략에 대한 재 검토를 시작했음. 특히, 이전의 보수당 정부가 합의 한 일부 제철소의 폐쇄 방안을 포함하여 합리화 프로그램 (2년 동안 1억 7천만 파운드를 절약하기 위한 계획)에 중점을 두었음. 당시 정부는 포트탈벗(Port Talbot)에서 제강 용으로 1억 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발표했음. 이러한 사건에서의 산업부의 역할과 철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반

적인 목표와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5년 2월 의회에서 카디프(Cardiff), 엡부 베일(Ebbw Vale), 하틀풀(Hartlepool), 클리블랜드(Cleveland), 쇼튼 및 셸턴(Shotton and Shelton)의 제철소에 대한 '베스윅 검토(Beswick Review)' 중간보고가 열림. 이 보고서는 카디프(Cardiff), 하틀풀(Hartlepool), 쇼튼(Shotton)에서 2년 동안 13,500개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폐쇄가 연기되었음. 스코틀랜드의 폐쇄 프로그램을 다루는 제안은 늦어짐에 완료되었음. 보고서와 관련된 기록은 보존됨
- 1975년 철강법(Iron and Steel Act)의 통과와 준비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6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압력으로 시작된 공공지출 삭감 노력으로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게 됨. 이러한 개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유지됨
- 1978년에 국영기업 특별위원회(Commons Select Committee on Nationalized Industries)는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음. 또한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의 회장인 찰스 빌리어(Charles Villiers)에게 회사 재정에 필요한 기밀 정보를 생성하라는 명령을 내렸음. 결국 찰스 경은 위원회 전에 비공개로 나타났음. 결국 영국 철강(British Steel)은 £443 million의 손실로 인해 야만적인 건축과 실업에 대한 확장 정책을 포기하도록 강요했음. 자세한 내용은 백서 『The Road to Viability(생존의 길(Cmnd. 7149))』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음. 영국 철강공사(British Steel Corporation, BSC)의 합리화 프로그램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8년 철강(개정)법의 통과와 시행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정부는 호주로부터 점결탄(coking coal)를 구입하기 위해 연간 1,500만 파운드가 드는 영국 철강 계약을 막기 위해 비 유럽경제공동체(non-European Economic Community(EEC)) 국가의 점결탄(coking coal) 수입에 대한 면허를 부과함
- 영국 철강 산업의 발전에 대한 영국의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가입의 영향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8.3.2 조선(Shipbuilding)

- 1974년 7월 31일에 조선, 선박 수리 및 해양 공학 산업의 국유화 제안이 발표되었음. 동시에 토론 문서가 생산되었음. 이러한 사건과 조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정책이 기록화(documented) 됨

- 9월에 (도산한 회사의)청산인과의 회담 후, 정부는 Court Line의 조선 및 선박 수리 회사의 주식을 완전하게 인수하기로 합의했음. 회사 간 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1600만 파운드의 금액이 합의 된 해당 그룹은 지속적인 관심사로 공적 소유권을 획득하게되었음. 이 사건과 그 이후의 영국여행업자협회(Association of British Travel Agents, ABTA)의 설립에 관한 기록이 기록화(documented) 됨
- 1976년, 국유회사인 고반 조선(Govan Shipbuilders)은 1974년에 530만 파운드의 적자와 비교하여 1976년 960만 파운드의 적자를 냈다는 것이 공개되었음. 고반(Govan)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조선(업계)의 국유화와 영국 조선소의 조성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9년에 영국과 폴란드간에 영국의 영토(yards)에서 선박을 공급하기 위해 1억 1500만 파운드의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 거래의 성공은 영국의 미공개 보조금을 기반으로 했음. 또한 민간 기업과 영국 조선소의 컨소시엄으로 칸톤(Canton)에 중국 광저우 항구복합단지(Kwangchow port complex)를 개축하기 위한 최초의 계약을 맺고 조선업계의 확장을 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함. 해외 홍보를 장려하는 부서의 역할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됨
- 방위 판매와 영국 조선소의 미래의 생존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기록은 보존 될 것임

8.3.3 기계 공학(Mechanical Engineering)

- 산업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지정 기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산업 구조 조정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영국이 고유(토착)의 공작기계산업을 계속 보유해야하는지에 관한 정책 문서도 보존 될 것임. 모든 케이스 파일은 삭제됨

8.3.4 항공 우주(Aerospace)

- 1974년에 의회에서 항공기 산업을 공공 소유(국영화)로 만드는 제안을 발표하고 1976년에 확정할 예정이었음. 항공 산업을 국유화하려는 정부의 결정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정부는 또한 유럽과 미국과의 향후 협력을 포함하여 영국 항공기 산업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장기 전략을 조사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위탁했음. 영국이 국제 공동 사업(international collaborative ventures)에 참여하는 것을 다루는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4년 7월 롤스 로이스 사(Rolls Royce(1971) Ltd)의 자본 재구성(재편)에 대한 세부 사항이 발표되어 회사는 자본금을 £122 million으로 늘릴 수 있었음. 합의에 따라, 이러한 금액은 보통주 £60 million 및 중기 정부 고정 대출 £25 million으로 연결되었음. 나머지 £27 million은 회사에서 요구하는 때에 가져온 것임. 자본 제공 외에도, 정부는 RB 211-22 엔진⁵⁵⁾ 생산 계약을 체결했음. 이 계약에는 보증 지불 계약 및 엔진 판매에 대한 과장금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그 세부 사항은 백서(Cmnd. 4860)에 명시되어 있음
- 또한 국무 장관은 롤스 로이스(Rolls-Royce)사가 RB-211 엔진의 524 버전을 생산하고 Lockheed Tristar에 사용하기 위해 RB 211-524 엔진을 출시 할 수 있도록 £20 million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음. 엔진 주문은 사우디 아라비아가 맡았고 11월에 롤스 로이스가 서명했음. 체결을 지지하기 위해 정부는 엔진 판매에 대한 부과금으로 회수 할 수 있도록 최대 £26.3 million의 단계별 기부를 1978년까지 승인하기로 합의했음. 영국 항공뿐만 아니라, 향후 발주가 예정되어 있던 보잉 747(Boeing 747)기종에 524 엔진을 공급하기 위한 원조도 발표됨. 이 사건과 관련된 기록과 롤스 로이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 1977년 항공기 및 조선 산업법(Aircraft and Shipbuilding Industries Act)의 통과와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8 년, 정부는 호커 시들리(Hawker-Siddeley)에게 영국 우주항공(british aerospace)의 회사 항공 이익 인수에 대한 £60 million의 보상을 지급하는 데 동의했음. 정부가 항공 엔진의 개발에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5년 이상롤스 로이스(Rolls-Royce)사에 £232 million를 추가 제공하는 것도 발표함. 자금의 대부분(£192 million)은 RB-211 엔진의 변형을 개발하는 비용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1979년 에어버스 A310s(Airbus A310s)를 £400 million 꾸준히 수주함. 영국의 에어 버스(Airbus) 프로젝트에 참여, 관련 정책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참고 : 콩코드(Concorde)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검토를 마쳤음

8.3.5 우주 연구(Space Research)

- 산업부는 유럽우주연구기구(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ESRO)과 유럽 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에 대한 책임이 있음. 1975년에 유럽우주연구

55) 영국의 롤스로이스 RB.211-22엔진

가구(European Space Research Organisation, ESRO)의 기능을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이 계승함. 유럽우주국(ESA)는 두 가지 주요 과학프로그램을 수립함(과학연구위원회를 통한 영국의 기여); 6개의 응용 프로그램(5개는 산업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참가함)

- a)통신 프로그램(Telecommunication Programme)
- b)해상 위성(마리오)프로그램(Maritime Satellite (MARIOTS) Programme)
- c)기상 위성(METEOSAT) 프로그램(Meteorological Satellite (METEOSAT) Programme)
- d)항공 통신(AEROSAT) 프로그램(Aeronautical Communications (AEROSAT) Programme)
- e)우주 실험실(Spacelab) 프로그램(Space Laboratory (Spacelab) Programme)
- 또한 유럽우주국(ESA)의 산업 정책이 수립되는 동안 영국의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위한 국내 우주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했음. 프로그램의 비용은 국방성 조달청(Ministry of Defence's Procurement Executive)이 계약자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계가 공유하고 있음
- 영국 우주 연구를 총괄하는 전반적인 정책은 내각위원회(Cabinet Committee)에 의해 결정되었음. CAB 124 & 132의 기록은 정책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제공함. 유럽 우주 프로그램에서의 영국의 역할은 플로렌스(Florence)의 유럽우주국(ESA) 아카이브에 잘 기록되어 있음. 영국의 우주 정책 수립에 있어 산업부의 역할과 관련된 기록만 보존함

8.3.6 우편 및 통신(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이 주제는 우편과 통신이 분리되어 다른 OSP에서 다뤄짐

8.3.7 석탄(Coal)

- 이 주제는 에너지 OSP에서 다뤄짐

8.3.8 컴퓨터 및 전자 제품(Computers and Electronics)

- 노동당 정부는 회원국의 공공 부문에 의한 전자 제품 및 컴퓨터 구매를 자유화하기 위

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토론에서 영국의 이익을 대표하는 작업반(working party)을 설립함. 산업부는 데이터 처리를 위한 커뮤니티 정책 위원회(Council on Community Policy for Data Processing)에서 승인 된 결의안을 이행하는 주요 부서였음. 이러한 사건들과 영국 전자 산업에 대한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의 영향을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 정부는 영국의 토착(고유의) 컴퓨터 산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범위의 컴퓨터를 위해 ICL에 £40 million의 지원을 제공했음. 또한 영국의 컴퓨터 회사가 첨단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initiatives)를 제공하여 업계를 지원했음: 영국의 컴퓨터 기업의 첨단 시스템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스템 개발 계약;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지원하는 고급 컴퓨터 기술 프로젝트; 영국 국립컴퓨팅센터(NCC: National Computing Center)의 역할 강화; 산업 및 과학 연구에 사용하기 위한 고급 계측기를 개발하는 첨단 계측 프로젝트; 기기 산업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 제작 주문 계획; 지식과 자동화 응용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동화 계약; 영국의 소유한 집적 회로 제조업체를 지원하는 마이크로 전자공학 체계(Micro-Electronics Scheme) 등을 포함함. 이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정용 영국 컴퓨터 및 마이크로 칩 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목표와 관련된 정책 파일은 보존 될 것임
- 1975년 페란티(Ferranti)는 심각한 재정난을 발표함. 회사의 붕괴를 피하기 위해 정부는 부분적으로 공공 소유권(국유화)을 취득 하는 구제 패키지를 준비했음. 이러한 사건은 기록화(documented) 됨
- 일본 TV의 수입은 영국 제조업체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음. 일본 전자 제품의 덤핑에 대한 정부의 고려와 대응책은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8.3.9 화학(Chemicals)

-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는 플라스틱 운영위원회 (Plastics Steering Committee)를 설립 한 수석 부서였으며 플라스틱 설계 및 개발 센터 비용으로 10만 파운드를 제공했음. 이러한 사건을 설명하는 정책 기록이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 모든 케이스 파일은 삭제됨. 픽스보로(Flixborough)⁵⁶⁾ 화학 공장의 폭발 및 영국 화학 산업에 대한 영향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56) 1974 영국 Flixborough에서 발생한 증기 폭발 사고

8.3.10 섬유(Textiles)

- 1974년 정부는 산업법의 조항에 따라 섬유 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발표함. 이 정책은 영구적으로 특별한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음. 세계 시장에서 생존 할 수 있도록 수입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 조치를 취함. 이 정책은 또한 영국 산업과 다른 선진국의 섬유 산업이 직면한 노동 관행을 조화 시키려고 노력했음. 이 정책의 실시(구현) 및 발전은 문서화 될 것임. 영국이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에 가입한 것과 관련된 기록, 특히 (섬유 수입을 규제하는) 다자간 섬유 협정(Multi-Fibre Agreement)의 이행은 보존 될 것임. 모든 케이스 파일은 삭제됨

8.3.11 자동차 및 상업용 차량(Automobiles and Commercial Vehicles)

- 정부는 1972년 산업법(Industry Act 1972) 제8조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국 산업이 중요한 분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함.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은 기록화(documented) 될 것임
- 1975년 브리티시 레일랜드에 대한 라이더 보고서(Ryder Report)가 발행됨.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은 1975년 브리티시 레일랜드 법(British Leyland Act)으로 제정되었는데, 정부가 1억 5천만 파운드의 지원을 주(state)에 지원하는 것이었음. 브리티시 레일랜드(British Leyland)와 관련하여 정부가 추구한 후속 정책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이러한 동향이 기록화(documented)될 것임. 브리티시 레일랜드(British Leyland)의 CEO 인 Michael Edwardes의 임명과 관련된 파일도 보존될 것임
- 1975년 11월 체커스(Checkers)⁵⁷⁾에서 총리(수상), 존 리차드(크라이슬러 CEO)와 산업국 장관 사이에서 크라이슬러(Chrysler)의 영국 사업의 미래에 대한 회담을 개최함. 정부는 2만 5,000명의 실업을 막기 위해 크라이슬러사(Chrysler Corporation)에 1억 6250만 파운드의 구제자금 지원을 발표함. 이러한 사건들과 이후의 푸조-시트로엥(Peugeot-Citroen)에 의한 크라이슬러 UK(Chrysler UK) 인계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 브리티시 레일랜드(British Leyland)가 외국 하가를 얻기위한 비자금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Daily Mail에서 제기되었음. 총리(수상)는 통상부 장관으로 델(Mr Dell)을 임명하여 정부 관행을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했음. 조사에서 발생하는 기록은 보

57) 영국 수상의 공식적인 지방 관저

존될 것임

- 포드가 4년 이상 공장의 현대화와 신형 차(모델)에 £1,000 million을 투자하겠다는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산업부와의 협상관련 기록은 문서화 될 것임
- 미국에 본사를 둔 드로리언(De Lorean) 자동차 회사는 서쪽 벨파스트의 트윈 브룩 교외에 북 아일랜드 최초의 자동차 공장이 될 조립 공장(assembly plant)을 건설한다고 발표함. 이 벤처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관한 기록은 보존 될 것임. 위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모든 사례 파일은 파기(삭제)됨

8.3.12 종이 및 목재(Paper and Timber)

- 이미 선택되어 있는 기록

8.3.13 광물 및 금속(Minerals and Metals)

- MME 시리즈의 대부분의 기록은 이미 선택되었음

8.3.14 석유(Oil)

- 이 주제는 별도의 에너지 OSP로 다뤄질 것임

8.3.15 어업(The Fishing Industry)

- 이 산업 부문은 환경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와 연계하여 별도의 OSP로 다루어 질 것임

8.4 산업 혁신 (연구 개발)/ Industrial Innovation (Research & Development)

- Cmnd⁵⁸⁾ 5046⁵⁹⁾이 발간 된 후,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y)는 정부의 전반적인 연구 개발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많은 연구요건위원회(Research Requirements Boards)를 설립함. 위원회는 정부의 산업연구기관(Industrial Research Establishments, IREs)내의 국립 물리학 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 영국의 국가공학 연구소(National Engineering Laboratory), 워렌 스프링 연구소(Warren Spring Laboratory), 국립 해양 연구소(National Maritime Institute), 컴퓨터 지원 설

58) Command Paper의 약자로 백서 등 영국 행정부의 공식문서 일련번호를 지칭함.

59) A Framework for Government Research and Development, Cmnd 5046(1972년).

계 센터(Computer-Aided Design Centre) 및 화학/바이오분야의 국가측정표준기관(Laboratory of the Government Chemist)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음. IRE의 관리를 조정하기 위한 연구기관회(Research Establishment Council)는 수석 과학자(Chief Scientist)가 의장을 맡음. 1979년까지 다음의 9개의 연구요건위원회가 설립됨

화학 물질 및 광물의 요건위원회(The Chemicals and Minerals Requirement Board) • 광물 자원(Mineral resources) • 광물 처리(Mineral processing) • 금속 추출(Metal extraction) • 폐기물 회수(Waste recovery) • 화학 공정(Chemical processes) • 심해 채굴(Deep sea mining) • 고무(Rubber) • 플라스틱(Plastics) • 가죽(Leather)
컴퓨터, 시스템 및 전자 요건위원회(Computer, Systems and Electronic Requirements Board) i. 컴퓨팅(Computing): 코럴 66(CORAL 66)⁶⁰⁾, 왕립 신호 및 레이더 기관(Royal Signals and Radar Establishment)의 비군사적 연구, 영국 원자력 공사(United Kingdom Atomic Energy Authority, UKAEA)의 전체 텍스트 문서 검색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품 계획, ICL. ii. 제어공학(Control Engineering): 워렌 스프링 연구소(Warren Spring Laboratory)의 제어 시스템 설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응용 프로그램, 인간 조작 기능(human operator functions). iii. 전자공학(Electronics): 왕립 신호 및 레이더 기관(Royal Signals and Radar Establishment)(민간), 집적 회로, 반도체 마이크로 전자공학 지원 체계.
엔지니어링 물질 요건위원회(Engineering Materials Requirements Board) • 유리(Glass) • 세라믹(Ceramics) • 고무(Rubber) • 플라스틱(plastics)
의류 및 연관산업 요건위원회(Garment and Allied Industries Requirements Board) • 섬유 및 의류(Textiles and clothing) •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Improved productivity through automation) • 환경 연구(Environmental studies) • 오염(Pollution)

60) 1966년에 영국에서 군사 프로젝트의 하나로 개발된 제어용 프로그램 언어임.

기계 공학 및 기계 요건위원회(Mechanical Engineering and Machine Tools Requirements Board) • 컴퓨터 지원 설계(Computer Aided Design) • 도로 운송(Road transport) • 시험(Testing) • 마찰(Tribology)
계측 및 표준 요건위원회(Metrology and Standards Requirements Board) • 참고 자료(Reference materials) • 광학 및 열적 특성(Optical and thermal properties) • 유량(유속)(Flow rates) • X 선 영상(촬영)(X-ray imaging)
선박 및 해양 기술 요건위원회(Ship and Marine Technology Requirements Board) 1976 년 7 월, 국립 해양 연구소(National Maritime Institute) 설립 이전에 국립 물리학 연구소(National Physical Laboratory)의 해양 과학 및 선박 부문에서 수행 한 업무를 점검함. • 선박의 운항 및 안전(Ship operation and safety) • 조선 및 해양 기술(Shipbuilding and maritime technology) • 기름 오염(Oil pollution)
수석 과학자(전기) 요건위원회(Chief Scientists (Electrical Technology) Requirements Board) • 배터리 및 전기 자동차를 포함한 에너지 절약(Energy conservation, including batteries and electric cars)
수석 과학자 요건위원회(Chief Scientists Requirements Board) • 장기 전략(Long term strategy)

8.4.1. 각 요건위원회의 회의록과 논문은 영구 보존을 위해 선별 될 것임. 웨렌 스프링 연구소(Warren Spring Laboratory)(주로 환경오염과 관련된)의 보고서도 영구 보존 대상으로 선별 될 것임. 기밀문서(보고서), 특별 보고서, 프로젝트 보고서 및 내부 연구 보고서를 포함한 기타 모든 보고서는 영구 보존을 위해 선택되지 않음

- 산업부는 국내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럽 사업(European initiatives)에 참여함. 여기에는 CREST(Committee on Research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기술 연구위원회); COST (European Cooperation in Science and Technology, 과학 기술의 유럽 협력); CSTP(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Policy, 과학 기술 정책위원회)가 포함됨. 이들 기관의 EU의 아카이브에 기록 보관소에 기록화(documented) 될 것이며 영구 보존을 위해 선별되지 않을 것임

2.3.3. 실행선별정책(OSP) 30. 정부와 사람: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전자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베이스) 세부지침 분석

1. 권한(Authority)
2. 범위(Scope)
3. 종이 데이터 세트와 케이스 파일 시리즈(Paper datasets and case file series)
4. 전자 데이터세트와 케이스 파일(Electronic datasets and case files)
5. 선별 과정(The Selection Process)
6. 선별 과정 개요(Summary guide to the Selection Process)
7. 반복 및 지속적인 데이터 세트
8. 동적 데이터 세트
9. 위탁 장소(Places of Deposit)
10. 접근(Access)
11. 링크(Links)

1. 권한(Authority)

- TNA의 수집정책(Acquisition Policy)문에서 정부의 실행선별정책 개발 의도를 밝히고 있음. 전체적인 수집정책에 설명된 수집 주제를 개별 부서 및 기관이 작성하고 보존 중인 기록물에 적용됨
- 실행선별정책은 정부와 시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모든 중앙정부 부처에 적용되도록 계획되었음. 기록의 선별에 대한 우리의 정책은 사회적으로 포괄적이라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TNA의 명시된 목표의 일부임. 이 정책은 주(state)와 시민의 상호 작용의 최상위 수준에서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함. 게시 및 승인 후, 특정 주제나 부서에 대한 주(state)와 시민의 상호 작용의 특정 영역을 다루는 특별한 정책이 계속 될 것임.(본문에 포함 된 데이터 세트는 정책의 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인용 된 예이다.)
- 실행선별정책은 공공기록의 선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 도구임. 이 정책은 기록 이용자 또는 아카이브 전문가, (실행선별정책)이용 경험자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의 결과로 얻어진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음

- 공식적인 검토 주기는 없지만 언제든지 의견을 환영함. 검토 및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기 바람

2. 범위(Scope)

- 실행선별정책의 개발단계에서는 원래 개인의 생활양식(라이프 사이클)을 기록화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양한 레벨이 사용됨. 이것은 중앙정부 기록을 통해 개인의 삶을 추적할 수 있다고 가정한 것임. 한편, 개인의 삶(출생, 결혼, 죽음)의 주요 단계는 이미 기록되어 비공개 기록 자료에서 이용 가능함.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삶의 많은 측면은 지방 정부의 지방기록(예: 선거 등록 집계 또는 교육)이거나 정부 기록(예: 취업 또는 이사)으로 포착되지 않음. 따라서 이 정책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이 더 정확하게 정의됨
 - 국가와 시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정보
 이것은 수집정책의 관련 컬렉션 테마인 ‘국가와 시민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 of the state with its citizens)’과 일치함. 또한 잠재적인 사용자를 혼동하지 않기 위해 정부 기록에 초점을 맞춘 제목이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부와 사람들: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Government and people: the interaction of the state with the citizen)”으로 제목을 다시 붙임
- 연구자들은 TNA가 정부 부서(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만을 선별할 수 있으며 기록물의 내용 또는 특정 그룹의 세부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함

3. 종이 데이터 세트와 케이스 파일 시리즈(Paper datasets and case file series)

- 이 실행선별정책은 주로 전자 기록의 평가와 관련이 있음. 국가와 시민의 상호작용을 기록화한 종이 기록은 본질적으로 방대하며 종종 구별이 어렵고, 평가, 처리 및 저장에 많은 비용이 듦. 이러한 문제는 영국공문서관(Public Record Office)이 종이 케이스 파일과 데이터 세트의 선별정책을 마지막으로 검토한 이후로 근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으며 동일한 고려 사항 및 기준이 그러한 종이 기록의 평가에 계속 적용될 것임

- 종이 케이스 파일의 평가방법 및 실행선별정책은 OSP 061)에 의해 선별됨

4. 전자 데이터세트와 케이스 파일(Electronic datasets and case files)

- 이 실행선별정책은 다음 두 가지 종류의 전자 매체를 다루고 있음
: 케이스 파일 및 데이터 세트는, 정책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 됨
- 데이터 세트는 일반적으로 종이에서 전사되거나 점차적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되는 양식(일반적으로 중앙 정부의 (인터넷)포털을 통해)에서 수집된 기록 집합임. 그렇게 수집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집계됨. 일반적으로 데이터 세트에는 설문 조사, 검토, 인구조사 또는 인벤토리의 결과가 포함될 수 있음.
- 케이스 파일은 개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정보는 데이터 세트보다 훨씬 구조화되어 있지 않지만 전자 케이스 파일은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또는 장소 등의 다른 기준으로 검색할 수 있음
이러한 기록 시리즈의 주요 역사적 가치는 개별 항목 또는 집계된 회신정보의 사용에 있음. 다소 정교한 통계 방법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추세가 드러날 수 있음. 단 한 번의 회신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특정 개인이나 조직에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선별은 주로 데이터로 만들어 질 수 있는 통계적 이용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함
- 견본 추출(Sampling)-전자 매체의 경우 TNA로 이전하기 전에 샘플링의 필요성이 없음. 선별된 정보는 TNA에 전적으로 전달되어 국가 및 시민들의 데이터를 가장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연구자들은 자신의 기준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샘플을 채취할 수 있음

5. 선별 과정(The Selection Process)

5.1 거시평가(Macro Appraisal)

- 선별은 거시평가의 지침(TNA의 평가정책에 명시)에 따라 수행됨. 개별 문서 또는 파일 수준이 아닌 정부, 부서 또는 단위 수준에서 기록의 가치를 평가함

61) OSP 0: 케이스 파일의 선별: 샘플링 기술(공간에 대한 제한 및 대량의 종이기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종이 기록의 샘플링이 수행됨). OSP 0은 OSP 48로 대체 및 확장됨.

2.4.3.5 거시평가는 다음과 같은 보조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잠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데이터 세트 및 케이스 파일의 식별
 부서 간 중복(겹치는) 영역을 식별하고, 아카이브를 위해 선택한 자료의 중복 방지

5.2 선별 기준(Selection Criteria)

- 이 실행선별정책(OSP)를 적용하려면, 정부 부처, (평가 정책의 배경 보고서의 섹션 2에 요약된 케이스 파일 및 데이터 세트의 인구조사 실시)는 다음 선별 기준에 따라 데이터 세트와 케이스 파일을 평가함
 - 1) 기록의 대상은 개인인가? 혹은 때로는 가족이나 가계와 같은 개인의 사회적 모임인가?(모든 기록에 개별적으로 식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 2) 그렇다면, '편집된 상황과 함께(together with the circumstances of its compilation)' 데이터는 핵심 데이터 세트에 있는 것 이외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나?
 - 3) 부서의 주요 기능을 기록하고 있나?
 - 4) 그렇지 않다면 소수자집단이거나 불리한 그룹을 고려하는가?
 - 5) '영구보존(archival) 할 가치가 있는가? 학자나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
- 이러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 기록의 대상은 개인인가? 또는 개인의 사회적 모임인가?
 - 선별실행정책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정의는 국가의 직원(공무원 및 군인은 국가에 의해 고용되어 국가와 상호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을 제외하고 주에서 일하도록 모집된 사람을 포함함; 「국적 이민 망명법(Nationality, Immigration and Asylum Act 2002)」에 의거하여 정식 시민권을 받지 못한 사람들; 납세자; 급여 청구자; 학생 또는 죄수를 포함함
 - 데이터 세트가 이러한 시민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정책의 적용을 받지 않음
 - 2) '편집된 상황과 함께(together with the circumstances of its compilation)' 데이터는 핵심 데이터 세트에 있는 것 이외에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나?

- 핵심 데이터 세트는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세트임. 선별 과정은 TNA에 이미 보존되고 있는 정보를 복제하는 것이 아님. 그러나 데이터가 중복된 것처럼 보일지라도(이름 및 주소 목록), 이름 및 주소를 수집하는 이유가 고려될 때(예: 이동식 주택(caravans)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한 개인 또는 가족에 대한 기본 데이터 세트는 관광객에 비례하여 비중(가중치)을 둔.), 영국인의 삶의 경험과 다양성을 반영하는 추가 정보가 해당 개인에게 제공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음. 데이터 세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거나 편집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핵심 데이터 세트는 부록 A에서 논의됨.
- 데이터 집합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선택되지 않음

· 3) 부서의 주요 기능을 기록하고 있나?

- 다른 정부 부서의 정보의 불필요한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의 주요 기능과 관련된 기록만을 선택해야 함. 예를 들어, 이민항소기구(Immigration Appellate Authority)의 IRIS 데이터베이스는 이민 항소 사례(case) 관리 또는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소득부가제도(Earnings Top-up Scheme)
- 그러나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거래를 제외함.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물어본 개인은 선택되지 않음. 한편, 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기록은 기록화(documenting) 함
- 주요 기능을 다루는 데이터 세트의 선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조언은 향후 실행선별정책에서 다루어질 것임
- 만약 핵심 기능이 확인된 경우, 질문 5로 진행하십시오.

· 4) 사회적 포용: 대표자가 불충분(과소대표집단)하거나 불리한 그룹을 고려하는가?

TNA의 사회적 포용 정책(The National Archives' Social Inclusion Policy)

- 사회 참여란 빈곤, 장애, 차별, 실업, 건강 문제, 주택 문제, 교육 및 보육 등과 같은 여러 불리한 이유로 기회에서 격리(고립)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어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이미 보존되어있는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에서 사회적으로 제외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NA에서 작업이 진행 중임
- 또한 사회적 배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민족, 종교, 기타 소수 그룹(예: 장애인, 노

인, 레즈비언, 게이, 실업자, 정신 건강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기록은 보존 될 것임. 그러한 기록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하기 위해 질문 3에서 주요 기능을 기록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이 불충분(과소대표집단) 또는 불우한 집단에 관한 것이라면 선택을 고려해야 함.

. 5) '연구보존(archival) 할 가치가 있는가? 학자나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연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

- . 선별을 위해 고려된 모든 데이터 세트는 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해야 함
- . 데이터 수집을 야기한 정부 정책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되어야 함.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연구자가 그것을 시작한 정책 이외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함. 예를 들어, 과세 기록은 국가(state)의 경제 상황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범죄 데이터 세트는 법과 질서 및 양형 정책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 실업 급여 기록은 산업사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음. 앞서 언급 한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날 계보 학자들이 관심을 보일 수 있음

. 6)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서의 작업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가?

- . 이 경우, 전체 데이터 세트가 선택되지는 않더라도 하나의 스냅 샷을 취할 수 있음

6. 선별 과정 개요(Summary guide to the Selection Process)

〈표 50〉 정부와 사람: 시민과 국가의 상호작용 기록의 선별 과정

질문(Questions)		가능한 답변(Possible answers)	
1	기록의 대상은 개인인가 아니면 개인의 사회적 집합인가?	예 - 다음 질문	아니요 -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면 질문 6으로 진행하십시오.
2	데이터를 편집 환경과 함께 핵심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 이외에 개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나?	예 - 다음 질문	아니요 -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면 질문 6으로 진행하십시오.
3	부서의 주요 기능을 기록하고 있나? 없는 경우 - 다음 질문	아니요 - 다음 질문	예 - 질문 5로 진행하십시오.
4	그것이 대표자가 불충분(과소대표)하거나 불우한 집단에 관한 것인가?	예 - 다음 질문	아니요 - 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면 질문 6으로 진행하십시오.
5	그것이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학계 또는 일반 대중의 광범위한 섹션에 연구 가치가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 하는가?	예 - 선택	아니요 - 6 번 질문으로 진행하십시오.
6	부서의 일하는 방식을 보여주는가?	예 - 단일 스냅 샷 찍기	아니요 - 이 정책의 적용 대상이 아님

7. 반복 및 지속적인 데이터 세트

- 반복되는(예: 몇 년에 걸쳐 실시 된 조사) 일련의 데이터 세트를 통해 사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 (합의 된)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TNA의 고객관리자와 공동으로 이관을 위해 선택을 결정해야 함.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항목은 정기적인 스냅 샷을 통해 영구보존(archived)되며, 부서 및 TNA가 빈도를 결정해야 함

8. 동적 데이터 세트

- 데이터 세트는 새로운 개인에 대한 정보 획득뿐만 아니라 기존 개인(동적 데이터 세트)에 대한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가 될 수 있음. 일부 정보는 접근되지 않을 위험이 있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데이터 세트의 전체적인 수명(lifespan) 내내 캡처 된 모든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임

9. 위탁 장소(Places of Deposit)

- 처분 정책의 2.2.1 및 2.2.2에 해당하는 지역 및 지방 기록(Local and Regional)은 (1958년, 공공 기록법 제4조 (1)에 의거)지역/ 지방 위탁을 위해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된 지정보존소가 전자기록의 장기 보존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제공 할 수 있을 때까지 TNA에서 보관함
- 절차 4에 따라 추가 범주(사회적 포용)가 고려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국가적으로)동일한 선별 기준이 지역적 또는 지방 기록에 적용될 것임
- 추가 범주(사회적 포용)의 고려: 특정 지역 또는 지방(국가 전체적으로 소수 민족)에 개인을 기록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없거나 이용할 수없는 정보를 포함하나?

10. 접근(Access)

- 이러한 기록에는 아직 살아있는 시민의 개인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세부 사항(개인정보)은 연구자가 즉시 이용할 수 없을 것임
- 접근 조건은 기록 선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적절한 정보 공개 기간은 2000년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에 따른 적절한 면제와 1998년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근거하여 관련 원칙을 고려하여 각 기록 수집에 대해 결정됨. 일반적으로, 개인 정보는 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비공개) 경우, 성인의 경우 16 세, 어린이의 경우 7 세라고 가정하고, 피보험자의 생년월일로부터 100 년간 정보 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개에서 면제됨. 공개가 신뢰의 침해로 이어질 경우 또는 피험자의 가족에게 극도의 정신적 손상을 일으킬 경우, 정보는 피험자의 사후에도 면제 된 상태로 유지됨

11. 링크(Links)

The National Archives:

Acquisition Policy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cquisition.htm>

Disposition Policy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disposition/policy.htm>

Appraisal Policy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appraisal.htm>

OSP 0: The Selection of Case Files: Sampling Techniques

<http://www.nationalarchives.gov.uk/recordsmanagement/selection/pdf/osp0.pdf>

Digital Preservation

<http://www.nationalarchives.gov.uk/preservation/digitalarchive/> (The National Archives' long-term preservation strategies for electronic data)

National Digital Archive of Datasets (NDAD)

<http://www.ndad.nationalarchives.gov.uk/>

External Digital Data repositories:

United Kingdom Data Archive (UKDA),

<http://www.data-archive.ac.uk/University of Essex>

2.3.4. 실행선별정책(OSP) 48. 케이스 파일 세부지침 분석

1. 권한(Authority)
2. 범위(Scope)
3. 배경 및 정의(Background and definitions)
4. 케이스 파일 선별 원칙(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case files)
5. 질문/케이스파일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 (Questions/points to consider when appraising case files)
 - 케이스 파일의 평가 선별 프로세스

1. 권한(Authority)

- TNA의 인수 및 처분 정책(2000)은(2007년 인수 및 처분전략으로 갱신됨) 부서 간 합의(컨설팅)하에 정부의 실행선별정책을 개발하려는 의도로 발표함. 이 정책에 설명된 컬렉션 테마는 개별 부서 및 기관의 기록물을 기술함
- 실행선별정책은 공공기록의 선택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업 도구임. 이 정책은 기록 이용자 또는 아카이브 전문가, (실행선별정책)이용 경험자 또는 새로 발견된 정보의 결과로 얻어진 의견을 고려하여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음
- 공식적인 검토 주기는 없지만 언제든지 의견을 환영함. 검토 및 개정의 범위는 접수된 의견의 성격에 따라 결정됨
- 의견이 있으면 이메일을 보내기 바람

2. 범위(Scope)

- 이 정책은 영구보존 케이스 파일을 선택하는 지침을 제공함. 케이스 파일의 샘플링 기술 - OSP 0을 대체 및 확장한 것임
- 다른 OSP나 평가 보고서에서 이미 선정기준이 지정된 케이스 파일은 다루지 않음
- 과학적인 것과 관련된 케이스 파일은 다루지 않음. TNA에서는 이런 유형의 케이스 파일을 다루기 위한 별도의 지침을 준비하고 있음. 또한 의료 케이스 파일도 다루지 않음

- OSP는 영구 보존을 위한 케이스 파일의 지침을 제공함. 정보자유 입법안에 적용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지 않음

3. 배경 및 정의(Background and definitions)

3.1. 경우에 따라 ‘특정 사례 문서(Particular instance paper)’라고 불리는 케이스 파일은 그리그 보고서에서 케이스 파일은 “각기 다른 사람, 조직 또는 장소에 관한 것이지만 종종 동종의 주제에 대한 아주 대량의 문서.. 개별 문서는 그 자체로는 거의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함께 또는 표본으로 이 문서들은 역사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추세에 관한 광범위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기록”으로 설명하고 있음. 케이스 파일은 아마도 정부 보유기록물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일부 기관 및 비부처공공기관(Non-Departmental Public Bodies)⁶²⁾에서의 수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됨

- 케이스 파일은 비슷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사람, 조직, 장소 또는 상호작용 그룹에 대해 같은 입법 또는 규제에 대응하여 생성된 기록물 시리즈임. 특정 그룹은 매우 클 수 있으며(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인구) 또는 상대적으로 작고 별개일 수 있음(예를 들어, 외국인 제한)

4. 케이스 파일 선별 원칙(Principles for the selection of case files)

4.1. 선별을 위한 TNA의 원칙은 2007년에 발행된 기록물 수집·배치전략(Acquisition and Disposition Strategy)에 기재되어 있음. 케이스 파일은 현재 특히 평가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왜냐하면, 경제적, 사회적, 영국의 인구통계학적 상태 또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국가의 영향 등에 대한 주요한 정보원(major source)이 종이로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TNA의 “다양성 전략(Diversity Strategy)”)을 지원하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

62) 영국의 공공기관은 비부처공공기관(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공기업(Public Corporation), 국가의료서비스기관(NHS: National Health Service Bodies), 영국은행(the Bank of England), 공영방송(Public Broadcasting Authorities)으로 구분됨. 비부처형 공공기관(NDPBs)은 준정부기구로 정부가 만들었지만 일정수준은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일정 수준은 관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간조직처럼 작동하는 조직을 지칭하며 준정부기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 4.2. 기록물 수집·배치전략에 따라 TNA는 케이스 파일의 선별과 보존비용을 의사결정시 명확히 함. 또한 민감성 검토 및 수정과 같은 문제도 고려함
- 4.3. 선별은 “보유된 문서라면, 가장 작은 공간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냐”에 근거하여 결정해야 함
- 4.4. 평가를 하기 전에 케이스 파일은 일반적인 검토 과정과는 달리 별도로 식별되고 고려되어야 함. 케이스 파일은 파일 단위(file-by-file)(영구 보존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별 파일을 검토하는 과정)로 선택해서는 안 됨
- 4.5. 중요한 문제(평가, 저장, 보존 등)를 야기할 수 있는 대량의 종이(paper) 케이스 파일은 해당 관리 컨설팅에 의해 TNA의 기록결정위원회(RDP)에 검토를 의뢰해야 함
- 4.6. 기록물 수집·배치전략에서 종이(paper) 케이스 파일을 위해 통계적 표본추출(statistical sampling)은 피해야 하지만 연구의 활용을 돕기 위한 다른 유형의 표본은 정책의 개발을 설명하거나 데이터세트가 어떻게 컴파일(구성)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음. 이 전략에서는 케이스 파일의 표본을 단순히 부서별 작업의 예를 위해 선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음
- 4.7. 케이스 파일의 선별은 (디지털 형식이든 종이 형식이든 관계없이)기록물 집합의 정보의 유일성에 관한 결정이 가능한 한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엄격하고 합의된 방법을 사용해야 함. 그런 절차에는 연구자의 일시적인 자문위원회 개최, 실행선별전략 및 연구 관심 분야의 특정 분야를 위해 개발된 선별기준의 사용이 포함될 수 있음
- 4.8. 전자 케이스 파일 및 데이터 세트는 종이 케이스 파일과 같은 종류의 저장 문제를 나타내지는 않음. 전자 케이스 파일은 TNA에 전체가 보관될 수 있음. 디지털 데이터세트와 지리정보시스템 또한 그들의 전체에서 선별할 수 있음. 그러나 전자 케이스 파일의 저장과 보존은 여전히 상당한 비용/자원

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섹션 4.2에서 설명된 대로 선별 결정을 내릴 때 이를 고려해야 함

- 4.9. TNA의 일반적으로 그들의 원래 포맷(형식)의 종이 기록물을 가져가길 원할지라도, 몇 가지 경우(저장과 비용의 관점)에는 전자 사본으로 대신하는 것이 적합(바람직)할 지도 모름, 그러나, 스캔 한 이미지는 보존과 접근을 위한 TNA 표준을 충족해야 할 것임.

5. 질문/케이스파일을 평가할 때 고려할 사항(Questions/points to consider when appraising case files)

5.1 기존 실행선별정책

- 케이스 파일의 선별에 대한 지침을 정해놓은 다수의 실행선별정책이 있음. 만약 케이스 파일이 기존 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 평가를 수행 할 때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함

5.2 케이스 파일은 핵심 기능이나 내부 관리에 관련이 있나?

- 부서의 핵심적이고 고유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생성된 케이스 파일은 역사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내부 관리와 관련된 케이스 파일보다 선별될 가능성이 높음
- TNA에서 보존을 위해 부서의 내부 관리(예를 들어, 인사 또는 재무)와 관련된 케이스 파일은 일반적으로 선택하지 않음. 그러나 기존의 보유 일정과 선별 지침을 확인해야 하고 이러한 기록물은 추후의 파기를 위해 기간을 부여함

5.3. 케이스 파일의 유형은(간단한 케이스 파일인가, 혼합된 케이스 파일인가)?

- 간단한 케이스 파일(simple case files)은 일반적으로 인쇄 된 서식(양식)이나 표준 설문지로 돌아옴. 여기에서는 입력과 출력이 표준이며, 케이스 파일은 본질적으로 운전면허를 위한 응용프로그램처럼 처리 작업을 기록함. 이것이 현재 일반적으로 데이터 세트에 입력되는 정보의 유형임
- 간단한 케이스 파일(simple case files)의 경우, 기록물 시리즈 또는 디지털 데이터 세트의 가치는 개별 항목 또는 반환물의 사용을 종합하는데 있음. 다소 정교한 통계 분석은 사회적, 경제적 또는 환경적 경향을 나타낼 수 있음. 1회 반환정보는 특정 개인 또

는 조직에 가치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선별은 주로 집계 된 데이터의 통계적인 이용에 기초하여 수행되어야 함. 10년간 인구조사나 군대의 인사 파일과 같이 매우 중요한 기록의 경우, 영구 보존을 위해 선별됨

- 혼합 케이스 파일(complex case files)의 경우, 동일한 법령 또는 절차에 의해 생성되지만 문서의 유사성이 낮고 파일 간의 편차가 클 수 있음. 혼합 케이스 파일에서 공무원들은 각 케이스의 정보에 대해 (예를 들어, 법적인 파일과 같이) 높은 수준의 고려를 해야 함. 이러한 케이스 파일은 하나의 개체에만 관련되어 있지만 정책 파일의 특성을 가지기 시작함. 그 결과에는 정책의 재해석과 정책의 즉각적인 재검토가 포함될 수 있음
- 혼합 케이스 파일(complex case files)은 질적인 특성 데이터를 생성함, 항목의 전체 세트는 정보를 표준 포맷으로 축소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표준적인 통계 테스트의 영향을 받지 않음. 이러한 경우, 특정 케이스 파일은 한 사람, 조직 또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지만 대기 재난 조사와 같이 심각한 재해 또는 테스트 사례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표준 조사와 같이 더 넓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음. 정책 입안과 강한 연계성을 가진 경우, 특별히 고려되어야 함

5.4. 법/판례를 해석하는가?

- 어떤 경우는 입법의 변화를 가져 왔을 수도 있고 특정 입법이 어떻게 해석되거나 시행되는 지에 대한 판례를 설정한 경우도 있음. 또한 새로운 법안의 입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 이러한 유형의 사례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미래의 연구가치는 더 높을 수 있음
- 이런 종류의 케이스를 찾기 위해 검토 직원이 모든 파일을 읽어야 한다는 제안은 아님. 그러나 부서별 지식이나 간행물을 사용하여 주요 케이스를 식별하는 것은 가능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주요한 케이스(key cases)가 연례보고서에서 강조될 수 있음. 일부 부서에서는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잠재적으로 영향이 큰 케이스를 강조하고 있음. 관련 케이스 파일은 제목에서 선택될 수 있음.
- 위와 같은 주요 케이스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 케이스 파일을 모두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케이스 파일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역사적 가치, 저장, 보존 및 접근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함. TNA는 때때로 보존을 위해 케이스파일을 가져감(예를 들어, decennial census(10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

5.5. 기타 중요한 케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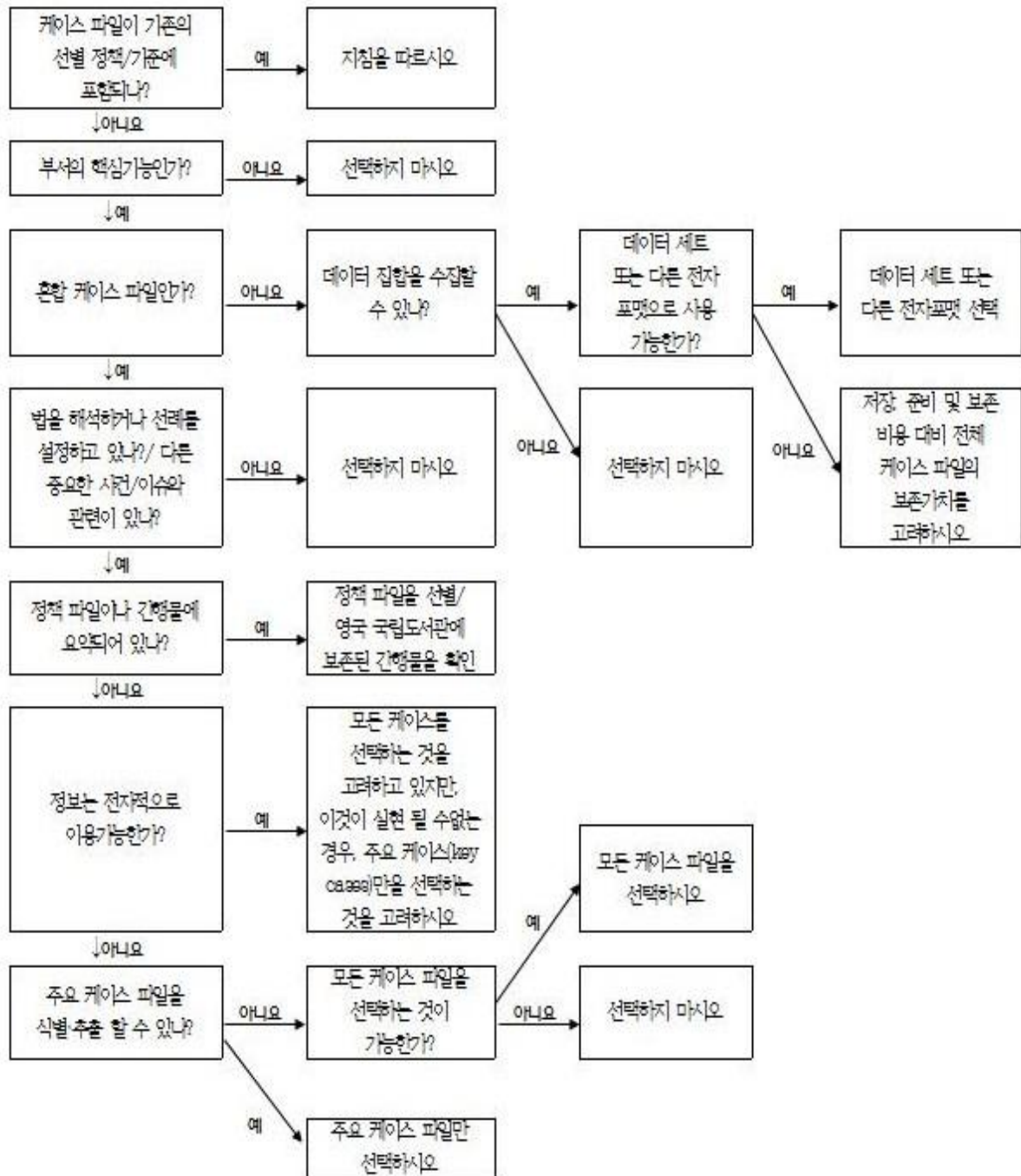
- 케이스 파일은 인물, 주목할 만한 사건/ 원인 또는 상당한 동시대의 관심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키거나 전국적인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다른 사건과 관련된 경우와 이미 알려진 기록물에 추가될 경우 가치가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검토 직원을 위해 추가 작업을 하지 않고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택되어야 함. 주요한 케이스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⁶³⁾의 모든(all or nothing) 옵션을 고려해야 함

5.6. 정책 파일이나 간행물에 요약되어 있나?

- 위에서 설명된 종류의 정책 파일이나 간행물에 의해 다루어지는 케이스의 경우, 보존을 위해 영국 국립 도서관(British Library)에 보존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음

63) 주요 케이스를 선별할 수 없는 경우, 케이스 파일을 모두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 케이스 파일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때는 역사적 가치, 저장, 보존 및 접근과 같은 문제를 고려해야 함. TNA는 때때로 보존을 위해 케이스파일을 가져감(예를 들어, decennial census(10년마다 하는 인구 조사))

케이스 파일의 평가 선별 프로세스



〈그림 31〉 케이스 파일의 평가 선별 프로세스

〈본문 3장〉

1. 소속부서 기록화사업 개별사례 (16개 사업)

1.1.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서울 도시농업 백서

- 목적 : 도시농업 원년 선포 후 2년 동안의 도시농업 활동을 종합·정리한 백서를 발간. 이를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발간방향
 -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형식
 - 사진과 인포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 도모
 - E-BOOK 제작, 유상 판매 등 대시민 공유 강화
- 수록 내용
 - 주요사업별 사업소개, 추진배경 및 성과, 향후계획
 - 도시농업 단체·전문가·공무원·시민 인터뷰
 - 기타 기록가치가 있거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각종 내용
 - 서울 도시농업 현황, 각종 통계자료
- 선정이유
 - 자연과 시민의 관계 맺음에 대한 기록화사업으로 판단됨
 -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동하는 사업으로써 시정-협치-민간영역의 기록물 구성 작업이 가능함
 - ‘도시재생’의 관점에서도 ‘농업’이 지나는 의미가 있음

1.2.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서울 스포츠 백서

- 목적 : 민선 5·6기 시민 체육활동 현황을 종합 정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체육 분야별 종합 평가를 통해 체육정책 재수립에 활용
- 발간방향

- 체육정책 영역별 종합평가와 성과를 정리하여 체육정책 수립에 활용
- 체육활동에 대한 통계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시민 체육 프로그램 제시
- 체육행정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통한 서울형 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국내외 체육관경과 법령, 제도의 변화에 따른 체육정책 제안
- 백서 제작형태 : 책자, E-BOOK
- 수록예정 주요 기록
 - 서울시 체육행정 조직 및 단체
 - 시민 여가활동/체육활동 현황
 - 생활체육 참여 실태
- 학교체육 현황
 - 국제교류/남북체육교류 현황
 - 장애인체육 조직 및 재정
 - 스포츠소비, 스포츠산업 현황
 -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 서울시 체육통계(시설, 시민 체육활동)
- 선정이유
 - 서울시민의 생활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됨
 - 스포츠를 매개로 하여 시민이 주체가 된 서울시 활동으로써 시장-협치-민간영역의 기록물 구성 작업이 가능함

1.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서울경관 기록화

- 목적 : 서울도시경관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도시 변천사 자료를 기록함과 동시에, 도시경관관리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및 홍보자료로 활용
- 기록화 범위
 - 서울경관대상 촬영 : 서울의 경관대상을 4계절 촬영 및 정리
 - 서울의 주요 자연, 인공적 요소(건축물) 및 주민 주요 생활상

- 성과 및 활용
 - 표준기록경관 선정
 - 사진기록화(디지털 사진 5,000컷)
 - 연속성 있는 화보집 발간(500권), 유·무상 배포
 - 화보집(PDF) 파일 E-BOOK 등재
 - 서울시 E-BOOK 홈페이지(<http://ebook.seoul.go.kr>) 게시
 - 화보집명 : 2015 서울화보집 인쇄본
- 선정이유
 - 서울 도시경관의 변화와 시민들의 생활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임
 - 부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록화 과정과 수집방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생산된 사진기록물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과정과 정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기록화 된 자료의 수집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1.4.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옛길 영상기록화

- 목적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2014년 완료)에서 발굴한 도심부 옛길에 대한 역사특성보존 현황을 영상자료로 기록화하여, 옛길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
- 기록화 내용
 - 옛길 영상기록 및 도면화 → 4계절 촬영기록화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옛길
 - 사진화보집 발간하여 서울 역사도심 홍보의 기초토대 마련
- 기대효과
 - 역사도심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옛길 역사특성 홍보 및 시민공감대 형성
 - 옛길 역사특성 보존을 통한 도심의 정체성 제고
- 선정이유
 - 도심의 옛길 주변지역은 자연요소나 문화재 등 중요한 장소들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는 공간임

- 옛길 주변지역은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어우러져 서울만의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음
- 점점 사라져가는 서울 옛길의 모습을 영상화하는 작업으로 ‘옛길’이라는 추상적 이미지를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는 작업임. 이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아카이빙 할 필요성이 요청됨

1.5.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해방촌 아카이브

- 정보소통광장 공개문서로는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움
- 향후 해방촌 마을박물관 콘텐츠 구성 및 운영방안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추정됨
- 선정이유
 - 해방촌은 해방 직후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마을이 형성되었고, 경제발전 시절의 서울의 모습과 현재 서울의 모습을 모두 간직하고 있음
 - 마을과 거리를 새롭게 꾸미는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 공간임
 - 외국인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해방촌과 주변의 거리들을 찾으면서 새로운 시민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음
 -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모습, 미래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는 사업으로 의미가 큼

1.6.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마을기업 백서

- 정보소통광장 공개문서로는 백서발간 관련 세부계획 확인이 어려움
- 마을기업 사업은 2010년 안전행정부 주도로 시작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었으나, 2011년 「마을기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고, 서울시에서도 2010년부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시작하였음
- 백서 수록 내용
 - 마을기업 사업에 대한 설명 및 사업 진행 과정
 - 서울시 마을기업 현황분석 및 평가전망 제시
 - 서울시 각 자치구별 마을기업 소개

- 선정이유
 - 마을공동체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한 중요사업으로 판단됨
 - 민간영역과의 다양하고 활발한 협치기록들이 생산될 수 있는 사업이며, 백서 발간 과정에서 이러한 기록들이 활용되었을 것임
 - 백서를 보관하는 수준을 넘어, 백서 발간에 활용된 자료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아카이빙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마을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아카이빙 필요성에 대해서도 판단하여야 함

1.7.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이웃사이다 백서

- 목적 : 아파트공동체 문화확산 및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추진되는 아파트 방송협력사업 ‘우리 아파트가 달라졌어요’와 관련해, 방송 전체 진행과정 전체를 백서로 제작해 기록
- 주요내용
 - 아파트공동체 방송협력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송 ‘이웃사이다’의 전체 방송과정을 담은 책자 발간
 - 촬영이 진행되는 12개 아파트 전체의 방송진행 과정, 참여주민 인터뷰, 방송전후 공유 공간 변화를 글과 사진으로 기록
- 기록화 대상(원고)
 - 방송전체 과정 및 기획, 진행내용, 총괄원고
 - 각 아파트 방송 진행내용
 - 촬영 참여 사람들의 참여소감 인터뷰
 - 해당아파트의 촬영 뒷이야기, 에피소드
- 기록화 대상(사진)
 - KBS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페이지 게재, 책자용, 영상용 고품질 사진
 - 아파트 전체 전경, 촬영 진행과정을 담은 홍보용 사진
 - 각 아파트별 참여 주민, 인터뷰용 사진
 - 제작자 및 촬영현장의 뒷모습을 담은 에피소드용 사진

- 선정이유
 - 현재 시민들의 주요 주거형태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추진된 영상기록화 사업으로, 시민들의 현재 생활모습을 담고 있는 기록물이 생산되고 있음
 - 시민들의 삶을 담는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영역 기록물이 생산될 수 있음
 - 방송용 결과 영상만이 아닌 촬영 준비와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남기고 있는 기록화사업임
 - 향후 이 기록화사업의 운영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서울기록원이 어떠한 연계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1.8.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청 운영 백서

- 추진배경
 - 개관 이후 1년이 지난 시점(2014년 현재)에서 비공식적,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업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화하여 정책자료화 할 필요
 - 시민청 운영의 근본취지와 사업성과의 시민공유를 위한 망라적, 체계적 홍보물을 마련할 필요
- 목적 : 시민청의 운영백서를 제작하여 그 존립 의미와 운영 노하우를 내외에 공유
- 기록화 내용
 - 시민청 500일 평가(시민, 전문가)
 - 향후 계획(프로그램, 운영시스템, 시설 및 장비 부문)
 - 시민청 정보화
 - 시민청 인쇄제작물
 - 시민청 언론보도
- 선정이유
 - 시민청은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주요 협치공간임
 - 백서 발간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 협치, 시정기록들이 활용되었을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에 대한 아카이빙이 필요함
 -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민활동들이 시민청에서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기록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울기록원과 공동 작업이 요청됨

1.9. 안전총괄본부 서울역일대 종합발전기획단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백서

- 목적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진행 전 과정을 기록화하여 행정 투명성 확보
 - 향후 유사사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사업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역사적 사료로서의 가치를 제고
 - 서울역 고가의 변화와 주변 시민들의 삶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고 역사적 평가 자료로 활용
- 기록화 내용
 - 서울역 고가 주변의 역사 및 서울역 7017 프로젝트 관련 기록 수집·분류·정리
 - 서울역 고가 주변의 역사, 고가 탄생배경부터 서울역 고가 보행길 조성사업 완료까지 전 과정의 모든 기록(문서, 박물관, 시청각류)
 - 유관기관(경찰청, 문화재청, 코레일 등), 민간단체(고가산책단, 도시연대, 서울시민연대 등) 일반 시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 다양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해 이벤트 수집 등 적극적 수집 활동
 - 기존 기록물뿐 아니라 정책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구술채록
 -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관련자료
 -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의 평가(인터뷰, 설문조사)
 -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화와 DB구축
- 선정이유
 - 서울역 7017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도시재생 사업임
 - 서울역 고가 주변의 과거 모습과 변화 양상을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기록들을 아카이빙하고 있음. 관계자와 시민들의 구술채록도 진행 중임
 - 앞으로의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아카이빙 방안에 대한 고민도 이루어지고 있음
 - 향후 수집된 자료의 디지털화와 DB구축까지 계획하고 있음
 - 수집·생산된 기록물의 관리방안을 확인하고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

1.10. 정보기획단 공간정보담당관

항공사진 통합관리 원스톱 서비스

- 목적 : 서울시가 보유한 항공사진을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한 후 방문하여 수령하는 방식을 개선, 집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 신규 촬영된 항공사진을 DB변환하여 직원 및 시민에게 서비스
- 추진배경
 -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계기로 시작된 항공사진 촬영(건축기획과)과 정부 3.0 정책에 맞추어 항공사진 대시민 공개
 - 2012년 2월 오픈된 시민서비스(aerogis.seoul.go.kr)의 불편 민원
 - 서울시 항공사진에 대한 DB변환 및 시스템 반영 필요
- 항공사진 보유 현황
 - 항공사진 : 1971년 ~ 2013년 항공사진 총 149,328매
 - 항공사진 모자이크 영상지도 : 흑백(1999년), 컬러(2003년, 2009년, 2013년)
- 선정이유
 - 서울사를 촬영한 항공사진이 1971년부터 축적되어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변화를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 기록물임
 - 디지털화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문제에 관한 고민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서울기록원과의 연계측면에서 중요한 기록물 제공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11. 주택건설국 한옥조성과

서울시 한옥포털 구축

- 목적 : 서울시 전역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활용
- 추진방향 : 「서울형 한옥」의 가치확립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서울시 한옥정책의 컨트롤 타워 : 서울시 한옥자산에 대한 통합적 DB 구축 및 활용시스템 마련
 - 주민 한옥살이 지원시스템 : “한옥살이” 지원 및 한옥마을 네트워크 강화 지원

- 시민 한옥콘텐츠의 중추(Hub) : 한옥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참여형 정보시스템 마련
- 향후(2017년) 중점 추진방향
 - 타 지자체 한옥마을을 포함한 전국 한옥정보 및 DB 구축을 통한 한옥포털 기능 수행 및 검색기능 강화 등 시스템 고도화
 -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한옥관련 3D 시뮬레이션, 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공 및 커뮤니티맵 고도화
 - 단계별 사업을 통한 사용자 요구분석으로 이용환경 최적화 및 언어별 차별화된 다국어 (영어, 중문, 일본) 콘텐츠 제공
- 선정이유
 - 한옥은 점차 사라져가는 고유 문화로, 기록화 하여 남길 가치가 있는 유산임
 - 도시에서 한옥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고유 문화를 통해 도시재생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도 유의미함
 - 서울시 한옥자산에 대한 DB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한옥 관련 콘텐츠 개발에 활용하려는 추후 운영계획이 존재함
 - 타 지자체와의 연계, 다국어 정보 제공 등의 사업계획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1.1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서울 역사가옥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조사

- 주요내용
 - 서울시 ‘역사가옥’에 대한 정의 정립 및 목록화 작업
 - ‘역사가옥’ 사업 우선순위 선정 스토리텔링 DB 구축(50건)
 - ‘역사가옥’의 유형별 활용모델 제시 및 스토리텔링 콘텐츠 가공(5건)
 - ‘역사가옥’ 목록화 약 340건
- ‘역사가옥’의 개념
 - 역사인물가옥 : 역사적 인물이 주거/활동했던 가옥 (역사에 남을 정치인, 종교인, 예술가, 학자, 과학자 등)
 - 역사가옥 : 보존가치가 있는 가옥 (건축사적, 민족사적, 종교사적 가치 등)
- 선정이유

- 서울은 조선시대 이래 600년 넘게 수도 기능을 하는 도시이기에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와 가옥들이 다수 존재함
- 이에 대한 보존과 기록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조사 과정에서 역사가옥에 대한 기록물이 수집·생산·정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록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함
- 시민들이 참여하여 만들어지는 사업으로써 시정기록 뿐만 아니라 민간기록과 협치기록이 다수 생산될 것임

1.13.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한강영상기록물 제작 영상 아카이빙

- 정보소통광장 공개문서로는 세부내용 확인이 어려움
- 한강영상기록물 제작을 통해 생산되는 영상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선정이유
 - 한강영상기록물의 결과물 영상만이 아닌 제작 과정에서 생산되는 영상 기록 전반에 대한 아카이빙 사업으로 보임
 - 생산되는 영상 기록물의 유형에 대한 확인과 향후 서울기록원과의 연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14.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서울광장 기록화

- 목적
 - 서울의 역사성·상징성을 보여주는 서울광장 관련 기록 수집을 통해 한국 현대사의 주요 맥락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살아간 시민들의 추억을 포착하고자 함
 - 서울광장 기록 수집을 시작으로 역사적 사건 또는 사연이 있는 서울사내 상징적인 장소 발굴 및 기록화 작업 추진 계기 마련
- 범위
 - 공간 : 서울광장 및 광장 주변일대(서울광장 조성 전 시청 앞 광장 포함)

- 시간 : 1945년 광복 전후부터 현재까지
- 대상 :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가치를 증거하는 공적·사적 행위의 기록
- 기록물 수집 기본방향
 -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거시사’와 시민들의 삶의 일상을 보여주는 ‘미시사’가 어우러지도록 함
 - 서울광장과 관련되는 공적·사적 행위의 기록을 수집함으로써 수집대상을 공공·민간 구분 없이 선정
 - 관련 단체와의 연대 협력을 통한 조직적 수집을 통해 일회성 수집을 지양하고 지속적 수집·관리·활용 네트워크 결성
 - 시민들의 흥미 유발 및 참여 유도를 위해 대시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시민들이 직접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
- 수집대상
 - 내부기록 수집
 - 내부기록 수집 대상은 서울시청 및 각 자치구청, 본부·사업소·산하기관, 공사·출연기관 등을 포함
 - 서울시에 관한 직접적인 기록을 생산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잠재적 소장처(자)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민간기관 기록 수집
 - 서울광장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사건, 행사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대상
 - 외부기관 소장 기록 수집을 통해, 내부기관 수집활동을 보완
 - 개인소장 기록 수집
 - 서울시청 직원이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서울 관련 기록과 퇴직한 직원이 소유한 기록
 - 시민들의 다양한 서울의 일상, 문화, 생활과 관련한 기록수집
- 수집방안
 - 조사수집 : 문헌자료, 언론자료 조사
 - 인물/기관 접촉수집 : 관련기록 소재정보 파악, 소장자(처) 방문 및 수집, 접촉/수집 활동 문서화 및 지적재산권 관리

- 이벤트 수집 : 수집활동 홍보, 이벤트 수집 및 접수기록 선별, 감사의 뜻 전달
- 선정이유
 - 서울광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진 공간이며, 동시에 많은 서울시민들의 삶이 묻어 있는 공간으로 평가됨
 - 서울광장 기록 수집을 바탕으로 서울시 내의 다른 공간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음
 - 기록물 수집 대상범위전략 등이 수립되어 있음
 - 향후 서울기록원에서 새로운 서울기록화 선별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수집방안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서울광장과 유사하게 중요한 공간을 새롭게 발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1.15. 행정국 총무과

서울시 청사 이전 백서

- 목적 : 청사를 신축하기까지 논의과정, 이사과정, 안정화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발간, 전시함으로써 청사이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유사사업 진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 발간방향
 - 청사신축 논의과정, 이사과정, 안정화과정 등 기록
 -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사진자료 등의 시각화
 - 주요 데이터와 시설관리의 어려움, 문제점과 해결과정 등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사 건립 전후 시민과 공무원의 기대, 그리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설문조사 시행 및 결과 분석
- 결과물 : 서울시청이전백서 『공사다망』
- 선정이유
 - 서울시가 새로운 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은 중요한 시정기록물로 평가됨
 - 백서 발간 내용을 살펴보면 청사신축 논의과정 단계부터 생산된 기록물을 활용하여 작성하였음이 확인됨
 - 백서 자체로도 자료적 가치가 있으며, 청사신축 논의과정 단계부터 생산된 기록물 아카이빙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 백서

- 목적 :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 세월호 합동 분향소 및 추모공간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 풍부하고 정확하게 정리하여, 시민들과 기억을 공유하고 향후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백서
- 필요성
 -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합동영결식이 엄수되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운영이 마무리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광장 및 서울기록문화관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을 설치·운영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할 필요
 -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소망리본, 소망종이로 추모공간을 가득 채우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였던 과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제작방향
 - 세월호 사고의 아픔과 국민적 애도 분위기를 생생하게 기록
 - 세월호 추모공간 설치과정, 운영과정 등을 사실적으로 기록
 - 추모공간 설치·운영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도출
 - 자원봉사자 인터뷰, 현장사진, 통계자료 등을 수록
 - 일러스트, 인포그래픽, 사진자료 등을 통해 시각화
- 기록화 대상
 - 4·16 그날의 기록
 - 세월호 추모공간 설치배경 및 추진경과
 - 서울광장 추모공간 운영 현황 : 세월호 관련 서울광장 주요 행사 일지
 - 서울기록문화관 추모공간 현황 : 설치배경, 추진경과 및 추진방향, 공간 및 내용 구성, 기획자 인터뷰
 - 세월호 추모공간 각종 통계 : 일자별 분향객 통계, 일자별 소망종이·소망리본 통계, 참여인원 통계, 소요물품 통계, 일자별 주요 방문 인사
 -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관련 제언 :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
- 결과물 : 서울광장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 백서 『별이 되다: 세월호, 슬픔, 그리움...』
- 선정이유

- 세월호 추모공간 운영은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며, 시민들의 활동가 참여가 적극적이었던 일로써 협치기록과 민간기록이 다수 생산되었을 것으로 판단됨
- 추모공간 운영백서를 서울시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와 관련된 기록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아카이빙 계획을 세우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향후 유사한 협치활동 공간이 생겼을 경우 기록화사업에 대한 선행 사례로써 분석·평가가 필요함

2. 유관기관 기록화사업 개별사례 (14개 기관)

2.1. 교통방송

기 관	한글	교통방송
	영문	SEOUL TRAFFIC BROADCASTING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tbs.seoul.kr/index.do?method=mainIndex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선정이유

- 교통방송은 서울시 사업소로서 서울시내 교통정보 안내방송 및 기상정보의 제공을 기본업무로 함. TV, eFM, eFM 중국어를 개국하면서 교통·기상정보뿐만 아니라 라디오방송·뉴스 등으로 콘텐츠를 확장하고 있음
- 최근에는 서울의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축적하여 미래유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역사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서울의 근·현대문화유산, 건축물, 동네 등을 영상·기록하는 프로그램 역시 제작하고 있음
- 서울의 영상기록 및 자료를 축적·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임. 구체적으로는 축적된 영상자료의 디지털변환을 통한 아카이빙, 서울의 매일을 고화질 영상으로 촬영·제작하는 영상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음. 또한 대외기관에서 보유 중인 서울관련 영상자료(사진 및 동영상)를 수집하고 있음. 향후 서울에 관한 영상자료가 필요한 대·내외 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영상기록 「서울, 시간을 품다」

- 서울의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방송하여 관련 영상자료를 아카이브화 함
- 매주 5분 내외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편을 제작·방송하고 대외에 배포 및 제공
- 2016년 주요 내용

주 제	2016년 주요 내용
문화·예술	옛 공간 사육
정차·역사	남산 안기부 터, 인천 아트플랫폼
의료·생활	서산부인과, 염천교 수제화거리, 서촌 통인시장
종 교	하우현 성당

「空間 사람」

- 2014.5.2.부터 총 90편 제작
- 건축상을 수상한 서울의 주요 건축물에 관한 영상물 제작
- 매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1편을 제작하여 방송
- 다양한 디지털미디어(유튜브, 다음TV팟, 네이버TV캐스트 등)에 게재
- 방송 이후 아카이브로 보존(주 1편)

「로드다큐 우리동네」

- 2015.4.23.부터 총 41편
- 서울 각 동(洞)의 역사와 명소를 영상기록하는 다큐멘터리(30분, 주 1편)

2.2. 도시기반시설본부

기 관	한글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문	-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infra.seoul.go.kr/
	주소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8층~15층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의 도로, 교량, 터널, 공공건축물 등과 도시철도(지하철), 경전철 등의 건설 업무를 수행함
-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중요 건설 기록물의 정보화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비용절감을 기하고, 중요기록물 활용을 통한 효율적 건설사업 관리,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종합적·체계적 정보화 기반 마련, 대시민 기록정보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설중요시설물 DB구축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향후 DB를 미래도시 서울의 시민 안전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건설중요기록물 DB구축 정보화」

- 대상기록물 : 도시기반시설본부 내 시설국, 도시철도국 자료실 건설 중요자료
- 사업 추진현황 : 현재 「건설중요기록물 DB구축 정보화전략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발주되어 2016.5.31.~2016.9.30.까지 진행되었음. 해당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향후 건설 중요기록의 구체적 아카이빙 및 DB 구축이 이루어질 예정임

2.3. 상수도사업본부

기관	한글	상수도사업본부
	영문	Office of Waterworks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ater.seoul.go.kr/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합동)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상수도사업본부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질관리와 시민 공감 형성을 통한 아리수 신뢰 향상, 상수도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서울시의 상수도 공급을 관리하는 기관임

-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박물관을 통해 연중계속 사업으로 자료기증을 받고 있음. 기증대상은 상수도에 관련한 모든 자료임

수도박물관 상수도관련 자료기증 사업

- 기증기간 : 연중계속
- 기증대상 : 상수도에 관련된 모든 자료
- 기증 자료의 처리
 -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수도박물관 유물로 등장하여 영구 보존
 - 기증 자료와 관련된 특별기획전에서 최우선으로 전시
 - 기증 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 기증 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으면 문화재 등재 추진

2.4. 서울도서관

기 관	한글	서울도서관
	영문	Seoul Metropolitan Librar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lib.seoul.go.kr/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도서관은 서울의 정보중심, 도서관의 중심도서관, 서울지역 도서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서울의 대표 도서관임
- 서울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정자료 디지털화 및 DB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으며, 책 실물에 대한 원문 구축 DB화를 진행하고 있음. 이를 통해 서울시에서 발행·납본한 시정간행물과 행정사무 감사자료의 원활한 접근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서울시정자료 디지털화 및 DB 구축사업

- 목적 : 과거 서울시정자료를 스캐닝을 통해 디지털 형태(PDF)로 제작하고, 해당 원문파일에 대한 목차 구축과 연계를 통해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디지털 자료 생성으로 접근성과 가독성을 높인 전자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대상자료 : 서울시정자료
 -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관련 자료
 - 특별보존서고자료('6~70년대 자료)
 - 기타 시정자료
- 작업내용
 - 자료 스캐닝 이미지 구축, 보정작업 및 파일변환
 - 북마크 입력, 링크, 검증
 - 원문파일과 목차 연계

2.5.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한글	서울디자인재단
	영문	Seoul Design Foundation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seouldesign.or.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283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디자인재단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운영과 서울시 디자인 진흥, 디자인 문화 확산을 주요 업무분야로 함. 디자인산업 육성 및 디자인문화 확산을 통한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기함으로써, 사람이 중심인 디자인, 시민이 행복한 디자인, 서울의 품

격을 높이는 디자인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개관 이후 생산된 기록물, 서울시에서 이관된 DDP 건축관련 기록물, 향후 생산 기록물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효율적 활용을 위해 아카이브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음

디자인 아카이브 구축

- 아카이브 대상
 - 서울디자인 재단 기관 기록물(경영정보, 산업 산출물 등)
 - DDP 자체 소장품(박재진 컬렉션, 가구 등)
 - DDP 건축과정 아카이브(설계도면, 사진, 영상 등)
 - 디자이너 정보, 포트폴리오 등
- 사업 프로세스
 - 1차 : 기록관리 현황 파악, 분류체계 수립, 문서고 구축
 - 2차 : 정리된 자료를 정보시스템화, 온라인 서비스
 - 3차 : 외부 서비스 가능 자료 수집하여 시민 서비스에 활용
- 중기계획 : 기관 아카이브를 우선순위로 시작, 디자인 아카이브는 기반연구 및 기획 후 추진
- 향후방향 : 기록관, 도서관, 전시관이 통합된 디자인 라키비움 실현

2.6. 서울문화재단

기 관	한글	서울문화재단
	영문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sfac.or.kr/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내 문화향수 기회 확대, 예술교육,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공간 운영 등을 업무분야로 하고 있음. 이를 통해 예술로 모든 시민과 공동체가 행복한 창조도시 서울, 예술로 활기찬 서울, 문화로 행복한 시민을 미션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은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와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 줘」 캠페인 등 활발한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 사업들은 서울시민의 민간기록물 가증과 구술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시민들의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 목적 :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목소리로 기록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콘텐츠를 창출
- 추진방향
 - 기억수집가의 소양교육 및 지속적 워크숍을 통해 기억수집활동의 전문성 확보
 - 서울에 대한 전방위적 기억수집으로 지역에 대한 보편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아카이브를 구축
 - 메모리스튜디오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콘텐츠 아카이브 서비스로 스토리 기반 아카이빙 플랫폼 실현
- 메모리 인 서울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www.sfac.or.kr/memoryinseoul>
- 연도별 진행과정
 - 2013년: 1기 기억수집가 선발, 서울도서관 메모리스튜디오 개관, 거점프로그램 〈충무로〉 기억수집 진행, MBC 다큐프라임 “길 위의 기억, 충무로” 제작지원 협찬
 - 2014년: 2기 기억수집가 선발, 이동식스튜디오 디자인공모전 개최, 도시게릴라 ‘Wonder-Present’ 연계 현장인터뷰(DDP, 한강 서울색공원), 기획주제콘텐츠(삼풍백화점, 동대문, 월드컵) 기억수집 진행
 - 2015년: 기획주제콘텐츠(삼풍백화점, 동대문, 월드컵) 기억수집 진행, 3기 기억수집가 선발, DAUM 뉴스펀딩 〈서울의 아픔, 무너진 삼풍의 기억〉 진행, 팟캐스트 〈나는 조명답입니다〉 오픈, 삼풍백화점 붕괴 20년 기획전시 〈이젠 저도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예요〉展 개최, 기획전시 연계 이동식 스튜디오 운영, 삼풍백화점 붕괴 20년 창작판 소리 〈유월소리〉 공연, 서울도서관 〈메모리인한강〉展 개최, 도시게릴라

‘Wonder-Present’ 연계 현장인터뷰(여의도 한강공원), 서울역사박물관 로비전시 <메모리인서울프로젝트>展 개최, 전시 연계 이동식 스튜디오 운영(서울역사박물관), 기획주제 콘텐츠(전통시장, 여성생애사, 종로 3가 기억수집 진행)

- 2016년: 4기 기억수집가 선발, <1995년 서울, 삼풍 구슬집> 발간, 2016년 올해의 기억주제 선정(외국인이 기억하는 서울, 피맛골 이야기, 오래된 상점 및 장인 이야기, 1997년 IMF 서울), 기획주제 별 모임(Cop) 구성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 ‘서울을 모아줘’ 캠페인」

- 목적 : 서울시민의 일상생활 속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공유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상 문화자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잠재기증자 자료를 전략적으로 수집, 선별하는 체계 구축
-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에 대한 체계적 홍보로 시민인식 개선 및 시민참여 확대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및 신설 예정인 서울특별시 박물관에 활용될 수 있는 콘텐츠의 발굴 및 수집
- 사업목표 : 문화자원 잠재기증자 자료 수집, 잠재기증자 네트워크 구축
- 잠재기증자 자료 수집
 - 기본방향 : 일반인 및 전문컬렉터를 구분하여 자료 수집
 - 수집대상
 - 1950년대 이후, 근현대 서울과 관련된 자료
 - 생활기록(사진, 편지, 일기장, 공연티켓 등)
 - 의식주 관련 각종 생활용품(교복, 주방도구, 간판 등)
 - 개인 애장품(책, 전자기기, 장난감, 우표 등)
 - 상업(광고 전단지, 오래된 가게의 간판 등)
 - 여가생활(통기타, 하모니카 등)
 - 사건, 인물(서울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사건, 인물 관련 자료)
 - 활용방안 : 서울시 신설예정 박물관(시민생활사박물관, 로봇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사진미술관, 민속음악전시관, 봉제박물관, 한양도성박물관, 서서울미술관, 도시재생박물관)에 기본 자료로 제공, 서울특별시 미래유산에 인증대상 기회 제공

2.7. 서울산업진흥원

기 관	한글	서울산업진흥원
	영문	Seoul Business Agenc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sba.seoul.kr/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상암동)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경영, 인력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서울시 산업진흥 및 중소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기하고자 함
- 서울산업진흥원은 「만화의 거리(재미로)」와 「만화박물관(재미랑)」을 조성하여 만화 콘텐츠 관련 기록물 수집과 그 전시기획을 진행하고 있음

「만화의 거리(재미로)」, 「만화박물관(재미랑)」 운영

- 목적 : 라이프사이클이 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디지털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한류관광 코스 및 인프라 조성. 명동과 남산을 잇는 테마 앵커시설 구축. 서울의 역동성과 디자인의 정체성을 지닌 창의문화거리 조성
- 주요사업
 - 거리축제 ‘재미로 놀자’
 - 만화박물관(재미랑 기획전시): 신진작가 및 창작자 참여와 웹툰만화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시(윤태호(미생), 홍승우(비빔툰), 박소희(궁) 등 다수 작가 참여)
 - 만화의 거리(재미로) 이색가게 조성
 - 만화의 거리(재미로) 아트마켓 마나마켓 개최
 - 만화박물관 재미랑 광복70주년기념 특별전시기획

2.8. 서울시설관리공단

기 관	한글	서울시설관리공단
	영문	Seoul Metropolitan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new.sisul.or.kr
	주소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40 서울시설공단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내 각종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유관기관임.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시민중심 도시 기반서비스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서울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11월부터 『생전 인터뷰』 기록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생전 인터뷰』 기록화사업은 인터뷰 작업을 통해 서울시민의 생애에 대한 시민기록을 기록화하고, 향후 아카이빙 구축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생전 인터뷰』 아카이브

● 목적

- 서울시민의 삶을 기록하기 위한 아카이브 : 아카이브 자료 조사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확보 및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제공하여 죽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인식 전환
-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감성공간(전시관) 구성 : 장례시설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여 장례시설에 대한 혐오적 인식 전환
- 현재 『생전 인터뷰』 기록과 제작설치(전시) 용역이 발주된 상태로 향후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진행할 예정

2.9. 서울여성가족재단

기 관	한글	서울여성가족재단
	영문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seoulwomen.or.kr/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시민 맞춤형 정책개발 및 실천가능 강화, 서울시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여성가족 소통공간 활성화, 혁신적 지속성장 시스템 구축을 사업목표로 함. 이를 통해 성평등 희망도시 서울 실현 및 서울시 여성과 가족의 미래를 열어가는 성평등 플랫폼 개발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 서울여성가족재단은 「서울여성 시민기록 프로젝트: Seoul Women's Walk」와 「여기」 조성 및 운영을 기획하여 서울여성의 기록을 수집·분석·역사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고 있음. 해당 사업들은 서울 여성의 시민기록, 특히 여성들의 기억을 기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서울여성 시민기록 프로젝트 : Seoul Women's Walk」

● 목적

- 성평등 역사 속에서 의미 있는 장소와 인물의 스토리를 영상 아카이빙하는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를 통해 도시 발전에 기여해 온 서울 여성의 역사를 발굴
- 시민들이 직접 스토리를 발굴·제작·공유함으로써 성평등 역사의 주체임을 체감하고, 도시와 공간의 역사를 젠더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계기 마련

● 내용

- 서울 여성 활동 스토리 발굴, 2030 청년여성 영상 제작단 운영
- 참가자 역량강화 교육 및 영상제작 작업 실시
- Seoul Women's Walk 상영회 실시 및 영상 아카이브 온라인 확산

- 16년 8월 현재 총 11작품 제작 중

「여기로」 조성 및 운영」

- 목적
 - 서울여성의 기록을 수집·분석·역사화하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여 성평등 가치 제고
- 내용
 - 강남역 추모기록 역사화
 - ‘강남역 사건’ 추모기록의 공유 공간 조성 및 운영
 - ‘강남역 사건’ 추모기록 및 관련 사회적 기록 콘텐츠화
 - 추모기록 사회적 공유 및 공동연구 (17년 사업계획 연계)
 - 여성기록전시 공간 조성 및 기록자료 아카이빙(17년 사업계획 연계)
 - 지역기반 여성연대·교류 플랫폼 조성을 위한 시민협력단 운영 등
 - 안내데스크 운영, 서울여성플라자 내 재단 사업 홍보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행
 - 서울여성플라자 큐레이션 : 공간개선안 도출 및 공간활성화 사업 기획 등

2.10. 서울역사박물관

기관	한글	서울역사박물관
	영문	SEOUL MUSEUM OF HISTOR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
	주소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

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학 연구조사」를 통해 재개발 등으로 변화하거나 서울의 뿌리 및 산업화·도시화 특성이 잔존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여 서울학 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음. 서울 로컬리티의 변화과정을 기록화한다는 점, 특히 민간기록물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서울생활자료 조사

- 목적 : 산업화·도시화 특성이 잔존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조사·기록
- 방법 : 문헌 및 현장조사, 실측, 보고서 발간, 사진 및 영상기록
- 대상
 - 성수동 : 성수 수제화 타운이 위치한 한국 수제화 산업의 메카
 - 신림동 : 고시원, 고시학원, 고시서점 등 대규모 고시촌이 형성되어 있는 메카
 - 황학동 : 골동품시장, 벼룩시장 등 서울의 대표적 만물상가 밀집지역

도시성장사 조사

- 목적 : 서울의 뿌리에 대한 조사·기록
- 대상
 - 동소문 : 서울 동북지역의 주요 관문인 동소문 일대 시공간적 변화 조사
 - 경화궁 : 경화궁 및 그 일대의 역사적·공간적 변화 규명
 - 서울성장의 주역 : 해방 이후 서울의 성장과 변화 재조명 위한 구술조사

2.11. 서울역사편찬원

기 관	한글	서울역사편찬원
	영문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historylib.seoul.go.kr/usweb/SET01/USMN000.asp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로 424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초, 전문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자 하고 있음. 또한 역사학술대회 개최, 강좌 및 답사 등의 운영을 통해 살아있는 역사지식을 전문 연구자 및 일반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역사편찬원은 서울시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 자료집을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음. 서울시 전(前) 공무원과 시민들의 민간기록물을 기록화, 대중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 및 구술채록

- 목적 : 서울시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시민들의 기억과 경험을 구술로 채록·정리하고 서울역사구술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보급하고자 함
- 추진방향 : 구술자료의 영역을 시정사·주제사·생애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채록
 - 시정사 : 역대시장 시정활동 조직 변천과 주요업무·서울시의회 활동 등
 - 주제사 : 서울시 공간변화·도시개발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주제
 - 생애사 : 서울에서 50년 이상 거주한 시민, 각 구별로 2~3인씩 선정
- 채록주제(2016년)
 - 제1주제 : 1960년대 서울시정과 공무원들(12건)

- 제2주제 : 1960~1970년대 서울의 아동·소년복지(8건)
- 제3주제 : 서울의 전통시장과 상인들(5건)
- 제4주제 : 1950~1960년대 서울의 전차와 교통(5건)
- 서울역사구술자료집 발간(2016년) : 『서울역사구술자료집 제7권: 미싱은 돌고 도네 돌아가네』

2.12. 서울주택도시공사

기 관	한글	서울주택도시공사
	영문	Seoul Housing & Communities Corporation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i-sh.co.kr/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울시 내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도시재생 전문 공기업의 지향함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16년 들어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기록화」 사업과 「돈의물 박물관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기존 도시지역의 민간기록 및 건축물을 기록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거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통한 구룡마을의 도시사회적 변화과정 기록화」

- 추진방향 1) 구룡마을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탐색
 -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의 지리·역사적 변화
 - 서울의 시가지 확산과정과 구룡마을(지도, 기사)
 - 서울의 도시화 과정 속 구룡마을의 형성
 - 무허가 판자촌의 형성과정과 확대과정

- 이주민들의 구룡마을 유입과 정착
- 구룡마을 서민거주지의 형성과 변화
 - 천막촌 조성 and 구룡마을의 형성
 - 자연녹지지역 내 구룡마을의 변화
- 위와 관련한 문헌자료, 도시계획 자료, 지도·도면·사진 등의 시각자료 수집정리
- 추진방향 2) 서울의 도시성장과 구룡마을의 공간적 특성 조사 및 기록화
 - 구룡마을 주민구성의 특성과 변화
 - 이주정착민, 세입자, 독거노인 등 주민구성
 - 이주민들의 정착과정과 주민의 변화
 - 구룡마을의 사회경제적 활동과 특성
 - 지역경제와 주민들의 생계활동
 - 마을공동체와 주민들의 생활문화
 - 마을 내 골목시장의 변화와 생활문화의 변화
 - 마을 밖의 경제 활동과 인근 지역사회와의 관계
 - 구룡마을의 사회지원체계와 마을공동체
 - 계층별 사회지원 및 경제활동 지원체계
 - 구룡마을 생활공간의 구성특성
 - 주거형태, 주거공간의 특성과 변화상
 - 골목길, 마을회관, 교회 등 공동생활공간
 - 위와 관련된 문헌자료, 도시계획 자료, 지도·도면·사진 등의 시각자료 수집정리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 목적 : 근현대 건축물 및 한옥 유형을 보존, 박물관·공방·상가 및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새로운 유형의 마을 재생사업
- 추진현황 : 2016.7.26. 현재 건축허가 완료

2.13.소방재난본부

기 관	한글	소방재난본부
	영문	Seoul Metropolitan Fire & Disaster Headquarters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fire.seoul.go.kr/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26길 52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소방재난본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하는 화재, 인명구조, 각종 위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각종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유관기관임
- 소방재난본부는 2013년부터 재난현장 기록물 DB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보관 중인 재난 현장 기록물의 디지털화와 영구보존 기반확보, DB의 검색활용에 활용하고자 함

「재난현장기록물 DB 구축」

- 추진성과
 - 20여 년간 보관 중인 재난 현장 기록물의 디지털화
 - 시청각 자료(사진·영상물)의 영구보존 기반확보 및 검색 활용
- DB 구축 현황
 - 1991~2010년 비디오테이프, 인화사진 등
 - 전체 71,155개(영상파일 22,958편, 사진 48,197장)
 - 아카이브 사이트 운영: <http://98.30.25.7/search>
- 공익방송 및 시민교육자료 제공, 소방연구 질적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14. 시립미술관

기 관	한글	시립미술관
	영문	Seoul Museum of Art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sema.seoul.go.kr/korean/index.jsp
	주소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61
기관유형		☒ 본부·사업소 ☐ 공사·출연기관 ☐ 기타 ()

■ 선정이유

- 서울시립미술관은 서울시 유관기관으로서 뮤지엄을 넘어서는 “포스트 뮤지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 포스트뮤지엄은 미술관을 “사람을 위한 공간”, “사회적 소통의 장”으로 인식하여 관객 중심의 미술관, 수동적 관객의 능동적 관객으로의 활성화 의지를 담고 있음. 시립미술관은 “글로벌 미술관”을 미션으로 제시하여 지역적 차이를 인정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과 함께 다매체, 탈장르, 융복합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음
- 시립미술관은 미술 전문자료를 확보·정리·보존해 일반 관람객과 미술관련 종사자 및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음

「미술관 아카이브」

- 목적 : 미술 전문자료를 확보·정리·보존하여 일반 관람객에게 다양한 미술정보를 제공하고, 연구논문 발간, 아카이브 자료 수집 등으로 미술 관련 종사자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소장자료 현황 : 전체자료(2014년 현재) 34,425건 [도서: 25,573, 팜플렛·포스터: 5,543, DVD: 911, 음반: 2,400]
- 사업내용
 - 미술관련 국내외 도서, 정기간행물, DVD 구입 등 자료 확보
 - 자료보존을 위한 보존서고 설치
 - 도서관리시스템 및 자료실 홈페이지의 원활한 유지 관리

- 관람객 및 미술관련 종사자에게 미술정보 제공
- 연구기능 강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 번역집 발간

〈본문 4장〉

1. 국내 주요기관의 수집정책 분석

1.1. 국립중앙도서관

기관	한글	국립중앙도서관
	영문	National Library of Korea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nl.go.kr/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국립중앙도서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6.10.기준)		자료구분 : 국내서 7,493,761권, 외국서 1,285,392권, 1,629,183권, 고서 277,274권 (총) 10,685,610권 소장 수입구분 : 납본 7,964,218권, 구입 1,088,564권, 기증 988,545권, 교환 460,810권, 자체생산 83,473권, (총) 10,685,610권 소장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인 OASIS(Online Archiving & Searching Internet Sources) : 디지털 지적 문화유산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보존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후대에 교육 및 연구용 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2004년 1월 시범 수집을 통해 2005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온라인 디지털자원의 수집·보존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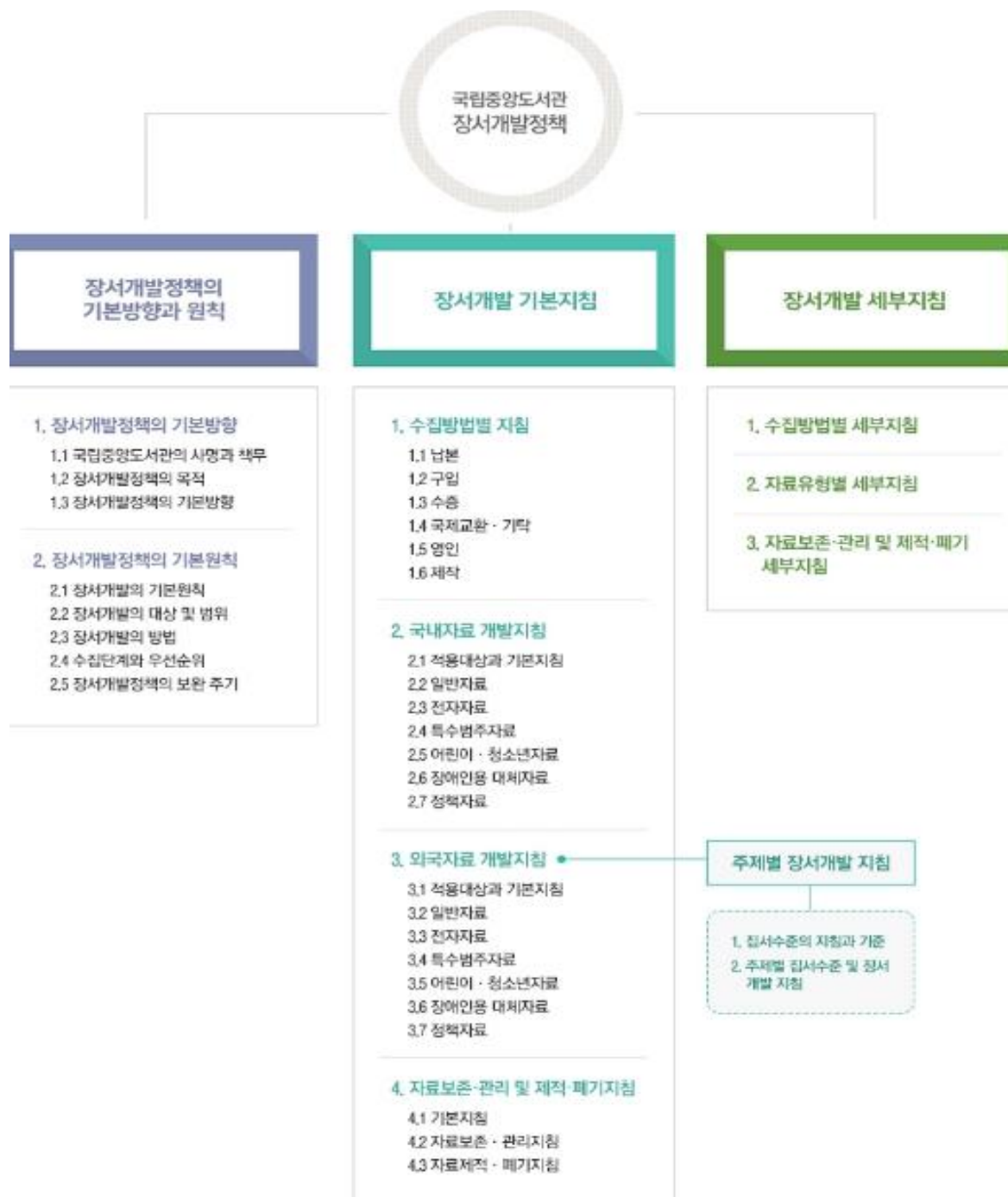
선정이유

-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써 국내외에서 생산·유통되는 지식정보와 지적 문화유산을 최대한 수집·보존하는 국가지식보고, 국민의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을 보장하고 정보취약(소외)계층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정보서비스센터, 전국 모든 도서관의 발전과 서비스를 지원·계도하는 선도자, 그리고 다른 국가의 도서관과 교류·협력하는 창구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임
- 국립중앙도서관의 책무와 역할은 체계적인 국가장서 개발을 근간으로 하기에 「도서관법」에서 규정한 업무 중에서 ‘국내외 도서관자료의 개발·수집·제공·보존관리’를 가장 중시하고 주력함
- 시대사조의 수용성, 수집자료의 융합성, 구성체계의 견고성, 현실적 적합성,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성 등을 함축하는 장서개발정책에 입각하여 국가장서를 개발·관리하고 있음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음
 -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통해 장서개발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장서개발 기본지침’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준에서 수집방법별 지침, 국내자료 개발지침, 외국자료 개발지침,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지침으로 구분하여 영역에 따른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장서개발 세부지침’에서는 수집방법별, 자료유형별, 자료보존·관리 및 제적·폐기에 관해 세부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 별도로 주제별 장서개발 지침을 제공하여 집서수준의 지침과 기준을 제시함



〈그림 32〉 국립중앙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기본구조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요소

- 국립중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의 기본요소는 사명과 책무, 목적, 기본방향, 기본원칙, 대상 및 범위, 장서개발의 방법,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장서개발정책의 보완주기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 국립중앙도서관은 뚜렷한 사명과 책무 및 목적을 명시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주요 국가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을 벤치마킹하여 보다 완결성 높은 장서개발을 하고자 노력함
- 또한, 장서개발방법의 일환으로 영인 및 제작,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해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분담수집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
- 장서개발, 도서관서비스, 국가장서의 보존·관리에 있어 「저작권법」을 준수함
- 장서개발정책의 보완 주기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장서개발정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관 내외부의 환경 및 인프라에 따라 수정·보완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음

〈표 51〉 국립중앙도서관의 수집정책(장서개발정책)

구성	하위분류	내용
사명과 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한국인의 지식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 지식정보의 망라적 수집, 안전한 보존, 신속한 제공을 통한 문화선진국 내지 지식강국화에 기여해야 할 사명을 가짐
장서개발의 목적		국립중앙도서관(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포함)의 장서개발과 보존관리를 위한 기본틀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다양한 주제·언어·유형별로 개발기준을 설정하여 미래 장서개발을 위한 일관성과 견고한 기초를 확립에 기여
장서개발정책의 기본방향	이념적 기초	국가대표도서관, 납본도서관, 보존도서관, 디지털도서관
	정책의 범위	장서관리의 자료선정~ 제작/폐기
	대상자료의 범주	하이브리드형 정보자료 = 아날로그 + 디지털
	자료개발방법	전통적 수집방법 + 디지털 장서개발
	장서개발 수준	국가장서로서의 중요성 및 수집강도의 자료유형별, 매체별, 주제별 기호화
	수혜(이용)집단	모든 국민, 외국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유형과 주제에 따라 이용집단 차등화
	벤치마킹	주요 국가도서관 장서개발정책의 취사선택

장서개발의 기본원칙		이용 대상, 복본사항, 우선순위, 매체 등 일반 사항
장서개발의 대상 및 범위		국가장서 또는 국가문헌을 개발·제공·보존하는 데 유용한 아날로그 자료 및 디지털 정보자원으로서 지식문화유산적 가치, 교육학술적 가치, 연구개발 활동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이용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정보자료
장서개발의 방법	납본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료를 납본방식으로 수집,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대상으로 선정
	구입	국내외 자료를 구입, 주요 대상 자료는 미소장 국내자료, 훼손 등으로 수선·복원이 불가능한 자료, 외국의 학술자료 및 한국 관련 자료, 라이선스 자료, 특정목적용 가지고 수집하는 자료 등
	수증	납본제도 시행 전후 발행된 자료나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일반도서, 학술도서, 연구보고서, 연속간행물, 정부간행물, 멀티미디어, 시청각 자료 등)는 수증으로 수집
	국제교환·기탁	외국의 정부간행물, 학술자료, 한국 관련 자료 등을 수집하는 한편, 기탁도서관으로 지정받은 국제기구의 발간자료도 수집
	영인	도서관이 소장하지 않거나 구입, 수증, 교환 등의 방식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 중에서 국내외 소재의 한국 고문헌 및 한국관련 근현대 자료를 영인, 매체변환(마이크로필름화 등), 디지털화 등을 통하여 수집
	제작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지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체자료를 개발
	기타	인터넷으로 유통되거나 홈페이지 및 웹사이트에 탑재된 디지털 파일은 인터넷(웹) 정보자원 개발지침에 따라 수집하고 보존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진행
수집단계와 우선순위	보존수집 (Archiving Collection)	자료의 유형과 매체, 주제, 언어 등을 불문하고 지식정보의 부존 자원화 및 선진국의 저작권 강화전략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보존기능을 가장 중시하여 1차 자료 중심의 실물 수집을 극대화
	완전수집 (Perfect Collection)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국내자료 수집의 완전성을 지향
	혼합수집 (Hybrid Collection)	장서개발의 중심은 인쇄자료에 두되,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는 라이선스 비용, 접근·검색의 편의성, 요구도와 이용가능성, 보존력 등을 고려하여 전자형 패키지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혼합하여 소장기능과 접근패러다임의 균형을 추구
	보완수집 (Back-up Collection)	미납본 자료의 확인과 구입, 연속간행물 결호의 보충, 훼손자료의 수선·복원·교체·매체변환, 미소장 자료의 복제 등을 통하여 보완
	분담수집 (Sharing)	국가수준의 다른 도서관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자료, 고가자료, Web DB, 회색문헌, 인터넷 정보자원 등을 분담형태로 개발함

	Collection)	로써 예산지출의 효율성 및 자료내용의 중복성을 최소화
장서개발정책의 보완 주기		3년을 주기로 수정·보완 단 국가정책의 변동 등 시급한 개정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시로 보완

1.2.국립중앙박물관

기관	한글	국립중앙박물관
	영문	National Museum of Korea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www.museum.go.kr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5.12. 기준)		(중앙박물관)소장도서 : 단행본 112,783권, 연속간행물 41,070권, 고서 428권, 멀티미디어자료 3,705권, 특수자료 341권 (총) 158,327권 소장품 : 금속 59,118점, 토제 100,481점, 도자기 91,672점, 석 29,038점, 유리/보석 50,428점, 초제 102점, 나무 7,339점, 골각/패갑 4,947점, 지 35,563점, 피모 227점, 사직 5,913점, 종자 151점, 기타 1,257점 (총) 386,236점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외국박물관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실을 지원하여 외국박물관 한국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선정이유

- 국립중앙박물관은 문화재의 수집·보존과 전시 및 교육을 통한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임
- 국립중앙박물관은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문화재의 조사연구와 전통문화의 홍보·보급, 외국박물관과의 국제교류 및 국외 홍보를 통해 한국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외국박물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실을 지원하여 외국박물관 한국실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국립중앙박물관의 예규편람

- 국립중앙박물관 예규편람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규정에서 자료의 수집에 관련된 정책 및 지침에 대해 안내하고 있음

〈표 52〉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집관련 규정

구성	하위분류	내용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관리규정】, 제2장 소장품의 수집		
문화재 구입	정의	문화재 구입이란 인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형 문화재 중 박물관의 연구와 전시에 활용할 수 있는 문화재를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매입을 말함
	구입방법	추천구입, 경매구입, 공모구입
	매도신청 및 문화재 접수	각종 관련 양식에 대한 안내
	매도신청의 제한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도난이나 도굴, 밀반입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경우 매도 신청자의 소유권 확인이 분명하지 않은 문화재이거나 공동 소유물로 판단될 경우 <신설 2014.1.16.> 구입대상 분야 문화재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구입대상문화재 평가위원회	3차례 운영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계약의 체결
	문화재 반환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문화재는 최종 심의일 기준 20일 이내 매도신청자에게 통보 및 문화재 반환
	구입 취소	구입 취소 사항에 관한 내용
문화재 수증	정의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전시·연구·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이라 함은 이러한 개인 또는 단체 소유 문화재의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한 일체를 박물관이 양도받아, 소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함
	기증 신청	기증 신청 관련 내용
	문화재수증 심의위원회	대상 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전시 및 학술 연구의 활용도 기타 관장이 부의하는 사항
	수납처 교부	수납처 교부 관련 내용
	수증 조건	무상으로 함을 원칙
	수증 제한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박물관에서 필요치 않은 문화재 또는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특수자료 취급지침】		

목적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의거 국립중앙박물관(이하 □ 박물관 □ 이라 한다)에서 소장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용어의 정의	특수자료취급지침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
	특수자료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간행물, 녹음 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를 포함한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는 내용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내용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특수자료실	북한의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자료 연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광부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아 설치한 북한관련 자료보관실
	특수자료를 전담 관리할 책임자	지침 제6조 제1항 및 4항에 따른 특수자료실 운영 및 자료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책임자
특수자료실의 인가해제		인가해제 관련 사항
특수자료의 수집 및 인계		특수자료의 입수는 북한의 박물관 연구에 필요한 고고학, 미술학, 박물관학, 역사학, 민속학, 인류학 등의 각종 단행본, 정기 간행물, 음악자료, 영상자료, 광매체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여 수집 특수자료의 입수는 구입, 기증, 자체발간, 자료교환 등 입수된 특수자료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서는 수집 부서에서 특수자료 인수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자료관리책임자에게 인계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운영 규정】, 제2장 자료의 수집		
구입	구입기준	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문화재, 고고학,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자료 박물관 업무 및 전시 활용, 직원들의 연구능력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료
	구입	연구, 전시 등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자료의 구입
	구입자문위원회	구입대상 자료 선정 또는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
수증 및 이관	정의	수증과 이관에 대한 정의

	기증 신청	기증 신청에 관한 내용
	수증 심의	수증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심의
	수증심의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내용
	수납서 교부	수납서 교부에 관한 내용
	수증 조건	무상으로 함을 원칙
	수증 제한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수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현저한 경우 도서관에서 필요치 않거나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이관	각 부서와 국립지방박물관은 발간한 자료를 발간완료 후 30일 이내에 2부씩 도서관으로 이관 박물관 업무상 또는 기타 사유로 취득한 자료 중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도서관에 이관하여 활용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이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도서관 자 료를 이관
	이관 조건	무상으로 함을 원칙

- 국립중앙박물관 예규편람의 자료수집관련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구입, 수증, 기증 등 자료를 수집해 오는 경우에는 자료의 적합성, 가치 등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또한 자료 구입, 수증의 제한사항을 두어 소장경위나 출처, 소유권 등이 불분명한 경우나 기관의 목적과 상관없는 자료 혹은 소장가치가 없는 자료의 경우 수집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음
- 문화재나 도서관 자료의 수증은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함

1.3. 서울역사박물관

기관	한글	서울역사박물관
	영문	Seoul Museum of History
	지역	한국/서울
	홈페이지	http://www.museum.seoul.kr/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소장자료 (2016년 기준)		소장도서 : 도서 37,920권, 비도서 2,946건 (2016. 10.11일 기준) 소장품 : (총) 69,065건 181,685점(2016. 9. 30 기준) 입수경로별 - 구입(31,402건, 77,419점), 기증(36,312건, 96,746점), 관리전환(1,351건, 7,520점) 수장고별 - 석재, 금속(4,646건, 10,637점), 목재, 섬유(4,891건, 20,592점), 도토(2,102건, 3,551점), 지류(43,422건, 82,428점), 석재(대형)(28건, 37점), 가등록유물(13,976건, 64,440점)
서비스 형태		온라인(한글), 오프라인
특이사항		소장자료의 구성에 있어서 구입이 45%, 기증이 53%로 기증의 비율이 높음

선정이유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시간과 공간과 사람을 대상으로 서울의 역사, 장소, 기억을 모으고 재해석함으로써 수도로서의 ‘서울’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기록하고 공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또한 박물관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물수집·관리 고도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일관성있는 수집업무를 추진하고 있음

설립목적

- 서울역사박물관은 유서 깊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서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서울시민 및 서울을 찾는 내외

국민들에게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의 대표적 문화중심이 되고자 함

- 서울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보존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애향심 고취하고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수집, 보존하고 도시로서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종합적으로 연구, 전시하고자 함
-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서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기관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세계 속의 서울의 위상을 높이하고자 함

사명 및 비전

- 미션 : 서울에 대한 호기심, 이해, 사랑을 불러넣은 서울역사박물관
- 비전 : 서울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도시정체성의 보루
 - 서울을 알고 사랑하게 하는 시민교육장
 - 학제적 서울연구의 지식정보 허브
 - 다음 세대에 오늘을 전하는 기억의 저장고
 - 서울의 개성과 매력을 알리는 관광거점
 - 시정에 역사지평을 제공하는 정책인프라
- 추진목표 : 고유성과 수월성 확보를 통한 허브박물관으로의 도약
 - 박물관 거버넌스 체계 확립
 - 서비스 확대와 수월성확보
 -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확충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283호, 2016.7.14., 제정]

-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시 소속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음

〈표 53〉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조례

구성	하위분류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가 건립추진 중이거나 운영하는 박물관의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정의	1. "박물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2. "박물관자료"는 법 제2조제3호의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라 함은 자료를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 전환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 4. "기증"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자료로 수입하는 것을 "수증"이라 한다. 5. "기탁"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기간 동안 위임함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이 위임받아 보관하는 것을 "수탁"이라 한다. 6. "출납"이라 함은 자료의 반입 및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7. "수장고"라 함은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임시 또는 항구적인 시설을 말한다. 8. "대여"라 함은 자료를 다른 기관 등으로 부터 빌려오거나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9. "열람"이라 함은 자료에 직접적인 접촉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10. "복제"라 함은 자료를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 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2장 자료 수집	제3조 자료구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고를 하거나 추천 또는 경매를 통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의 예비평가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및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자문위원회(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자체 위원회 포함)의 최종심의를 거쳐 평가범위 내에서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가격을 결정한다. ③ 시장이 경매자료,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공개구입 또는 현지구입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의 심의·평가를 받아 구입할 수 있다.
	제4조 자료기증	① 시장은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유상기증은 제3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단, 무상기증은 자료수집실무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다만,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료평가액의 2할 이

제3장 자료수집 실무위원회	제5조 자료의 기탁 등	내에 해당하는 기증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국내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로부터 받아 활용할 수 있다. ② 수탁 등의 결정은 필요시 개별 박물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운영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료 수탁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수탁 시에는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수집실무위원회	① 구입 평가대상 자료 등의 선정을 위하여 개별 박물관별로 자료 수집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별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위원은 관장과 박물관의 자료관리관을 당연직으로 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되 문화재분야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조사 및 범위선정 2. 평가대상 자료의 선정 3. 기타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당해 실무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① 구입 또는 기증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개별 박물관별로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분야별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원합의로 한다. ③ 평가위원은 서울시문화재위원 및 문화재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당해 분야 평가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 문화적 해석 및 고증 3. 기타 자료수집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⑤ 평가위원회는 참석위원이 서명한 자료평가서를 작성하여 수집자료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 구입대상 자료 최종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평가한 구입대상 자료는 개별 박물관별 운영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제9조 수당 등 지급	실무위원회와 평가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출장비 및 심의 평가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자료의 관리	제10조 자료관리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자료관리관은 자료의 관리, 수리, 복원, 복제, 출납,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자료출납공무원은 자료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1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훼손 또는 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자료는 일반 자료와 격리하여 보존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이동시에는 안전운반에 필요한 특수함 등을 사용하고 안전 운송에 필요한 특수차량 등을 이용한다. ④ 시장은 자료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수장고	① 시장은 박물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한 금고설치 등 자료를 격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자료를 제외한 자료는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수리 및 복원 중에 있는 자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방호 시설이 갖추어진 별도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제13조 자료의 대여 등	시장은 자료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 자료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단, 출판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변상책임	시장은 자료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망실, 도난, 훼손 등이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평가위원회가 정한 평가액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관장에게 위임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박물관별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근현대 생활자료 및 도시서울 성장 관련 자료수집”

- 수집대상 : 1950년 이후, 서울과 관련된 자료
 - 생활기록 : 가계부, 일기장, 편지, 영화관람권 등
 - 의식주 생활 : 과거 유행했던 옷, 재봉틀, 재단도구, 간판 등
 - 개인 애장품 : 전화카드, 우표, 토큰, 라이터 등
 - 직업 : 냄마주이, 인력꾼, 버스안내양 등
 - 산업 : 각종 산업기예, 설계도면 등
 - 상업 : 오래된 점포의 간판, 서울 광고지 등
 - 각종 캠페인 자료 : 포스터, 기념품, 사진, 동영상 등
 - 여가 생활 : 통기타, 하모니카 등
 - 선거 등 대규모 국책/시책 행사 관련 자료

· 기타 서울의 성장·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를 살펴본 결과, 자료의 구입 및 기증, 위탁 등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의 심사·평가 단계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적합성과 공정성을 담보함
- 『서울특별시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 외에 별도로 수집하고자 하는 영역에 있어서 구체적인 수집 대상 설정 및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자료수집 홍보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흥미와 기증을 유도함
- 서울역사박물관은 뚜렷하고 명확한 미션, 비전, 목표 등을 설정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물수집·관리 고도화 종합계획”등의 액션플랜을 구상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의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기획하고 있음

1.3.1. 국내기관 수집정책 종합분석

- 국내의 대표기관을 선정하여 수집정책을 분석하여 수집정책 작성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진행함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을 선정하여 수집정책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인 요소와 개별적인 요소가 되출됨
- 공통요소
 - 용어정의 : 기관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하고 있음
 - 사명문 : 미션, 비전, 수집 근거에 대한 내용을 통한 기관의 정체성을 나타냄
 - 수집장법 : 구입, 수증, 위탁 등의 보편적 방법 및 영인, 제작 등의 기타 수집 등에 대한 내용 포함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자료의 수집(구입, 기증, 위탁 등)에 있어서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집업무를 운영하고 있음
- 개별요소
 - 우선수집 대상, 수집(구입, 수증, 위탁 등)의 제한사항, 수혜(이용)집단의 세분, 분담수집, 수집정책의 보완 주기에 관한 사항이 있었음

〈표 54〉 국내기관의 수집정책 비교

기관 항목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사명문	목적, 비전	목적, 비전	목적, 사명 및 비전, 추진목표
용어정의	도서관, 도서관자료, 구입,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문화재 구입, 문화재 수증, 특수자료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박물관, 박물관자료, 수집, 기증, 기탁 등 수집과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의
수집 범주	일반자료	유형문화재	근현대 생활자료 및 도시서울 성장 관련 자료 : 1950년 이후, 서울과 관련된 자료(생활기록, 의식주 생활, 개인애용품, 직업, 산업, 상업, 각종 캠페인 자료, 여가 생활, 선거 등 대규모 국책/시책 행사 관련자료 등)
	전자자료	특수자료	
	특수범주자료	도서관자료(국내외 박물관 및 역사, 문화재, 고고학, 미술, 예술, 인류학, 보존과학 관련 자료)	
	소속기관자료		
수집 방법	납본, 구입, 수증, 국제교환·기탁, 영인, 제작, 디지털 아카이빙 등	구입, 수증, 이관 등	구입, 기증,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
위원회 운영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문화재 구입관련 평가위원회, 문화재 수증심의위원회, 박물관 소속 도서관의 구입자문위원회, 수증심의위원회 등 운영	자료수집실무위원회와 분야별자료평가위원회 운영
기타	우선순위 :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인쇄매체를 우선으로 함	구입, 수증의 제한 : 출처나 소유권 등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기관의 성격과 맞지 않는 자료의 경우	서울역사박물관의 성격 규정
	수집의 제한 : 특정 지역으로 한정하여 기술한 자료로서 납본수집의 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지역 도서관이 수집하도록 유도		
		보완주기 : 국가정책, 사회 환경, 지식 정보의 생산·유통 패러다임, 이용자 정보요구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3년 주기), 수시로 보완주기를 설정함	수증, 이관의 조건 제시 : 무상으로 함을 원칙

2. 해외의 주립기록관의 수집정책 분석

2.1.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마니토바 주립기록관
	영문	Archives of Manitoba
	지역	마니토바, 캐나다
	홈페이지	http://www.gov.mb.ca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마니토바 주(state)기록, 민간/학교기록, 허드슨 베이 회사 기록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캐나다 역사와 관련이 깊은 회사(허드슨 베이)의 기록을 수집·보존하고 있으며, 허드슨 베이 기록물은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

선정이유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은 마니토바 지역의 개인, 가문, 조직, 기업과 커뮤니티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존하여 마니토바 지역 사람들과 허드슨 베이 회사의 역사 및 연구를 위한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음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의 권한(의무)과 미션

- 권한(의무)
 -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은 좋은 기록 관리를 촉진하는 리더이며, 기록물의 지속적인 가치를 위해 보존 및 접근을 제공함
 -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은 『The Archives and Recordkeeping Act』 법에 의해서 정부나 정부기관, 법원과 의회의 보존기록을 보관하기 위한 독점적인 권한을 가짐
 - 법에 따라 기관, 마니토바 민간 부문의 개인기록 및 지방 공공단체의 보존기록의 수집함

■ 미션

- 모든 미디어의 정보를 보존하고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 지역 정체성의 기본적인 중요성과 개인과 집단의 자기인식 정보를 보호함

수집영역

레드강 정착 시기(Red River Settlement day)부터 현재까지의 서신과 저널, 일기, 조직 기록, 사진, 포스터들과 다큐멘터리, 동영상(영화, 비디오 등), 음성, 지도, 건축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수집함. 크게 정부와 민간 부분의 기록과 허드슨 베이 회사 기록으로 구분함

■ 정부와 민간 부분의 기록(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rchives(GPSA))

-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 보존기록의 이관, 수집 및 보존을 통해 마니토바의 경험에 대해 상호보완적인 균형 잡힌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마니토바의 넓은 단면과 마니토바 역사의 테마(주제)를 나타냄
 - 원주민, 이주, 정착, 농업, 노동, 건강, 예술과 문화 포함
- 마니토바 정부의 기록(Manitoba government)
 - 1870년 주(province)가 된 이후의 공공기록물
- 민간부문의 기록(private sector)
 - 레드강 정착 시기(Red River Settlement day)부터 현재까지의 서신과 저널, 일기, 조직 기록, 사진, 포스터 및 다큐멘터리, 영상(영화, 비디오 등), 오디오, 지도, 건축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록을 수집함
-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지역의 기록

■ 허드슨 베이 회사 아카이브(The Hudson's Bay Company Archives, HBCA)

- 1670년 왕립 헌장에 의해 설립된 허드슨 베이 회사는 현존하는 북미 대륙에서 오래된 무역회사임. 캐나다 건국에 중대한 역할을 한 허드슨 베이 컴퍼니(1670년 설립)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로, 모피 무역이 활발했던 시기, 북아메리카인들의 탐험과 정착 시대, 그리고 캐나다가 유통 산업 제국으로 발전할 당시 건국과 관련한 인물, 장소, 사건 등을 기록함. 이것은 허드슨 베이 컴퍼니뿐 만 아니라 캐나다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자료임.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됨⁶⁴⁾

64) http://theme.archives.go.kr/next/kor/main.do?menuCode=M2001404&right_num=1 <cited. 2016.10.08.>

수집제외

- 출판물(publications)
- 유물(artifacts)
- 별개의 기록건(discrete items)
- 중복된 자료(duplicates)
- 복사본(copies)
- 개인적 또는 조직에서 법적인 이유로 필요한 자료
- 재무 기록, 소득세 신고서, 여권, 출생증명서를 포함하여 매우 민감한 개인 정보로 구성된 기록

기증 시 고려사항

- 소유권 이전(Transfer of Ownership)
 - 기부자는 마니토바 주립기록관에 기록물의 물리적 소유권을 이전해야 함
 - 소유권의 이전은 주립기록관에서 기록을 소유하고 보존하여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의 양도(Transfer of Copyright)
 - 기록의 저작권자의 지적 권리는 캐나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음
 -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등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기증 시 저작권을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민간기록물 저작권
 - 원칙적으로 민간기록물의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음
 - 기록물의 보존과 활용 등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기증 시 저작권을 이전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기록물 제한(Placing restrictions on records)
 - 아키비스트는 기증자와 함께 적절한 제한을 결정함. 기록물의 특정 기간의 제한, 기간 만료시 연구를 위한 공개에 대해 제한사항을 둠

기증 기록물의 평가

- 기증된 기록물에 대한 시장가치에 근거한 세금계산서 제공, 기증에 대한 감사와 사례를 제공한다는 것을 명시함
- 최근 기증기록물의 제목을 안내하고 있어 기록관 소장기록물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함
- 기증 기록물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위원회(acquisition committee)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기록관에서 승인한 후 수집을 확정짓게 함

2.2.온타리오 주립기록관

기 관	한글	온타리오 주립기록관
	영문	Archives of Ontario
	지역	캐나다, 온타리오
	홈페이지	http://www.archives.gov.on.ca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개인, 기업, 클럽이나 협회 및 정치적 단체, 노동 단체 등 지방 역사의 중요한 기록물을 수집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기록물을 지역도서관의 상호대차서비스에 의해 열람할 수 있음

선정이유

- 1903년 설립된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지방 아카이브로 지속적으로 온타리오의 역사와 발전을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을 수집하여 제공함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기록물 구성

- 정부기록(Ontario Government Records): 18세기 후반~20세기의 온타리오

정부의 기록

- 지방 행정의 진화에 대한 설명
- 정부와 시민들 사이의 상호 작용의 기록
- 정치적, 법적 결정에 문서화
- 온타리오 사람들의 권리와 책임의 주요 증거
 - 지금까지 가장 인기있는 정부 기록은 출생, 결혼, 사망신고 기록임. 생명 통계 웹사이트를 통해 중요 통계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문서기록을 넘어, 사진 및 시청각 기록물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1만여 장이 넘는 천연자원의 항공사진은 최근 인수한 기록임
 - 아카이브의 열람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음. 많은 기록들이 마이크로필름이므로 지역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요청할 수 있음

■ 민간부문 기록(Private Sector Records)

1903년부터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민간 부문의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2,600여 개가 넘는 개인, 기업, 클럽이나 협회, 정치적 노동단체의 기록들이 존재함

- Horwood 컬렉션의 건축 기록, CFPL-TV의 필름 아카이브, T. Eaton Company의 사업 기록, 전 총리인 John P. Robarts 나 Simcoe 기족과 같은 개인의 기록 등 컬렉션이 다양하게 구성됨
- 아카이브의 열람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음. 많은 기록들이 마이크로필름이므로 지역 도서관에 상호대차를 요청할 수 있음

■ 특별 컬렉션(Special Collections): 사진, 다큐멘터리 예술, 설계도면 및 지도 포함

- 개인들과 온타리오 정부가 생산하고 모은 16세기~21세기의 자료로 구성됨
- 아카이브의 열람 자리에서 자료를 볼 수 있음. 일부 특별 컬렉션에 대해서는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시각 데이터베이스(Visual Database)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음

■ 음성과 영상(Sound and Moving Images): 오디오와 비디오 기록과 영화 필름

- 개인들과 온타리오 정부가 생산한 1920년~21세기의 자료임

■ 도서관(Library) 컬렉션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에 있는 J. J. Talman Library는 일반 대중 및 온타리오 역사와 주로 관계있는 약 70,000 건의 비순환 연구 및 참조 컬렉션임

- 책, 팜플렛, 온타리오 정부 간행물, 정기 간행물, 마이크로 필름, 마이크로 피쳐 및 다른

인쇄 및 출판물, 약 75,000건으로 구성됨

- 대부분의 도서관 컬렉션은 온타리오 지방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및 역사에 관한 것임
- 아카이브의 열람 자리에서 자료를 보고 이용할 수 있음

■ 아트 컬렉션(Arts Collection)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정부의 온타리오 예술 컬렉션을 관리하고 있음. 아트 컬렉션은 1855년에 교육적인 정보원을 목적으로 구성됨. 2,500여 개의 예술 작품 중 대부분이 법원 건물(퀸즈 파크, 토론토)에 전시되어 있음

- 회화, 벽화, 종이 작업, 조각, 골동품 가구와 장식 등이 포함됨

민간기록물 수집이유

-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온타리오 지방의 공식적인 기록관으로서 온타리오의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민간기록물을 통해 획득하고 정부와 시민사이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함
- 민간부문 컬렉션은 개인과 조직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과 함께 사건과 경향을 기록화하며, 지방의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함

민간부문 컬렉션의 범위

-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가족과 개인 및 기업, 협회 및 단체로 수집범주를 구분하고, 수집범주별로 수집대상 기록물의 유형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음

〈표 55〉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민간부문 컬렉션의 범위

가족과 개인 (Families and Individuals)	기업, 협회 및 단체 (Businesses, Associations and Organizations)	
▫ 서신 ▫ 편지와 일기 ▫ 사진 ▫ 앨범 ▫ 다큐멘터리 예술 ▫ 소리/ 동영상 ▫ 디지털 사진 및 문서 ▫ 지도 및 계획 ▫ 스크랩북	▫ 정관 ▫ 이사회 및 위원회의 회의록 ▫ 부칙 ▫ 서신 및 각서 ▫ 계획 문서 ▫ 요약 재무 문서 ▫ 보고서 ▫ 이메일 ▫ 지도 및 계획	▫ 소리/ 동영상 ▫ 디지털 사진 및 문서 ▫ 다큐멘터리 예술 ▫ 뉴스 레터 ▫ 디렉토리 ▫ 데이터베이스 ▫ 사진 ▫ 보도 자료 ▫ 직원 파일 등

■ 민간기록물 컬렉션 확장

- 온타리오 사회를 표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연령, 인종, 성별, 종교, 능력/장애, 사회경제적 지위, 정치적 관점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온타리오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록물

■ 민간기록물 수집 우선순위

： 정부와 시민 사이의 상호협력을 반영하는 영역의 기록물을 우선수집 함

- 건강(Health)
- 교육(Education)
- 환경(Environment)

■ 민간기록물의 차순위 관심분야

농업(Agriculture)	노동(Labour)	하부구조(Infrastructure)
문화(Culture)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u>스포츠</u> 및 관광 (Sports and Tourism)
에너지(Energy)	과학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지역사회서비스 (Community Services)
산업 (Business and Industry)	교통(Transportation)	소비자 서비스 (Consumer Services)

기증안내

-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에 기증하면, 기증자의 이야기는 온타리오의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됨. 기증되는 기록들은 온타리오의 기록관의 수집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함
- 기증이 가능한 기록물인 경우, 기증동의서(Donation Agreement)에 서명을 통해 기록관에서 수집되어 관리됨. 기증된 기록물은 온타리오의 전문직원에게 의해 미래 세대를 위해 보호되고 보존될 것임
- 기증된 기록물은 전 세계적인 공적이용을 위해 웹 사이트를 통해 기술될 것임

보존기록평가 기준

〈표 56〉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보존기록평가 기준

Provincial Significance Criteria(지방의 기준)	Standard Appraisal Criteria(표준 평가 기준)
(지역에서)개인이나 조직이 문화적, 정치적, 그리고, 인구 통계적, 과학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기여했는가? 개인이나 조직이 지역의 발전이나 진화에 큰 영향을 주었나? 개인이나 조직은 온타리오 전역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운영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지역에서)중요하고 고유하거나 특이한 기능이나 활동을 대표했나? (지역에서)그 분야의 선구적이거나 지도적인 역할을 했나? 눈에 띄는 개인이나 다른 조직과 관련이 있나? 지방의 중요한 이벤트나 동향을 기록화 했나? (예를 들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인구통계, 과학적, 종교적) 온타리오의 물리적 환경을 기록화 했나? (예를 들어, 물리적 풍경, 야생 동물)	기증은 아카이브에서 보유중인 정부나 민간기록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보완하는가? 온타리오 아카이브가 가장 적합한 저장소인가? (IPA는 다른 기록관의 수집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맥 마스터 대학은 중요한 문학 매뉴스크립트 기관이며, 레즈비언과 게이 아카이브(CLGA)는 레즈비언과 게이관련 조직들의 기록을 수집함.) 기증은 미적이나 전시적 가치가 있나? 기증은 풍인가? 개인이나 조직의 기록이 이미 다른 기관에서 보유 중인가? 기증은 이해할 수 있는 풍인가? (주제/개인/기능에 대해 기록) 기증은 추가적인 정보원이나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요구되나?(보존, 리포맷, 디지털 스토리지 등) 이용 가능한 형식인가? (즉, 접근하고 보존할 수 있는 형식.) 좀 더 안정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포맷의 다른 정보원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 기록이 원본으로 구성되었는지 혹은 다른 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원본 기록의 사본인지?

2.3.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영문	Tasmania Archives and Heritage Office, TAHO
	지역	호주, 태즈메이니아
	홈페이지	https://www.linc.tas.gov.au/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태즈메이니아의 유산 컬렉션과 기증 컬렉션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
특이사항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지역 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협력적 수집을 제시하고 있음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유죄판결 기록(The Convict Records of Australia)은 2007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됨

선정이유

-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사, 그들의 지역사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함
-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은 상상력의 자극, 문해능력의 지원, 즐거움과 휴식, 오락의 제공, 넓은 범위의 지식과 정보 제공, 전문적인 태즈메이니아의 자료를 목표로 컬렉션을 구성함
- 태즈메이니아 지역사회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사람들(People), 사건(Events), 정부(Government), 사업(Businesses), 조직(Organisations)의 기록을 수집하고 유지함
- LINC 태즈메이니아는 호주의 대학, 공공도서관, 정부 부처, 호주의 국립 및 주립도서관(NSLA)를 포함하는 네트워크의 일부임

태즈메이니아 주립기록관 비전 및 미션, 가치

- 미션

- 태즈메이니아의 주 기록을 포함하여 문화와 유산을 기록화하여 모으고 관리하고 보존함 태즈메이니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배우고 그들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과 지역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가치

- 배움(Learning), 서비스(Service), 공평(Equity),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 우리의 이야기(Our story), 관계(Relationships)

태즈메이니아 유산(Tasmanian heritage)컬렉션

■ 태즈메이니아 유산(Tasmanian heritage)컬렉션의 구성

: 태즈메이니아의 이야기를 기록화 한 다양한 형식의 역사적, 현대적 자료의 넓은 범위를 수집함

- 태즈메이니아 정부 기관(Tasmanian government agencies)
- 산업(businesses)
- 지역사회 조직(community organisations)
- 개인과 가족(individuals and families)
- 태즈메이니아 간행물(Tasmanian publications in all formats)

태즈메이니아 유산(Tasmanian heritage)컬렉션의 범주

- 연구적 가치, 역사적 관계, 사회적, 문화적 의미
- 희귀하고 독특한 자원의 수집

인쇄 및 전자책	영화	지도
저널	사진	계획
정부기록	음성녹음자료	웹 사이트
원고	예술 작품	기록의 생명이 짧은 기록(ephemera)

기증과 위탁

■ 기증과 위탁기록의 범주

- 태즈메이니아의 지역사회 단체, 기업, 교회와 그 밖의 단체기록
- 태즈메이니아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가족의 편지, 일기, 사진 등의 기록
- 태즈메이니아 사람들에 의하거나 태즈메이니아 지역을 배경으로 한 출판물
- 태즈메이니아의 사진, 인쇄본 또는 예술의 원작
- 남극 대륙에서의 고래잡이와 포장산업

■ 기증과 위탁의 권리사항

- 기증을 할 때에는 위탁 동의서를 완료해야 함, 위탁 동의서에는 소유권, 보관권, 접근과 다른 논의사항이 안내되어 있음
- 일반적으로 기증시에는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전제로 함

■ 기증과 위탁의 혜택

- 화재 및 무분별한 접근으로부터의 안전한 위치에 보관하며 적절한 온도와 습도 환경의 제공, 보존처리를 통해 기록물을 수리하거나 복원함
- 비밀에 대해 우려가 될 경우, 일정기간 공공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음

■ 호주의 문화기증프로그램(Cultural Gifts Program)

-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개인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증시, Cultural Gifts Program를 통해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4.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기관	한글	플로리다 주립기록관
	영문	State Archives of Florida
	지역	플로리다, 미국
	홈페이지	http://dls.dos.state.fl.us/archives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주정부기록, 지방정부기록, 매뉴스크립트 기록(비정부 수집기록), 플로리다 사진컬렉션, 족보(계보) 컬렉션으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	
특이사항	지방정부의 공공기록에 대해 제한적으로 수집함, 컬렉션별 수집내용과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으며 기록물평가요소로 세금관련 문서인지를 살피고 있음	

선정이유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은 주 정부의 아카이브로 중앙 저장소임. 넓은 의미에서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플로리다의 공공기록, 역사적 기록, 민간기록을 보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임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미션 및 권한

- 미션
 - 플로리다의 역사 기록물은 플로리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 문화적인 정보원임
 - 고유하고 대체할 수 없는 (플로리다 지역)기록물은 시민과 조직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책임과 한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임
 - 다양한 문화유산과 역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 정부 부서는 책임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하고, 역사학자, 계보학자, 교사, 학생들에게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함

■ 권한

- 보존을 위한 입수, 정리, 보존 기록과 매뉴스크립트 보관
-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공연구공간을 제공
- 플로리다 역사연구를 촉진·장려
- 정부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개인이 기록을 영구적이고 역사적인 기록으로써 보존하고 이용하도록 지원
- 가이드, 인덱스, 기타 간행물의 발간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컬렉션 구성

- 주정부 공공기록이 플로리다 아카이브의 핵심기록임.(1821년~현재까지의 플로리다의 영토와 주정부의 활동 기록)
- 시민(개인), 종교단체, 기업 및 비영리 단체의 다양한 컬렉션으로 구성
- 플로리다 사진 컬렉션은 19세기 중반~현재에 이르는 플로리다의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해 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수천 개의 영화필름과 테이프로 구성
- 계보(족보) 컬렉션은 책, 마이크로필름, 온라인 정보원, 다른 간행물 등을 통해 계보학자에게 광범위한 정보 자원을 제공

플로리다 주립기록관의 컬렉션 영역의 범위 및 우선순위

- 주정부 공공기록 컬렉션(State Government Public Records Collection)
 - 법률이나 조례, 또는 어느 기관과의 공적인 접촉에 의해 생산·접수된 플로리다 관련 모든 문서, 편지, 지도, 책, 테이프, 사진, 필름, 음성 등 (물리적 형태나 특징에 상관없이)모든 형태의 기록물
 - 수집영역
 - 영구한 가치를 가지는 법으로 명시된 기록
 - 기관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지속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가치를 가지는 기록 등

■ 지방 정부 공공기록 컬렉션(Local Government Public Records Collection)

- 자치주나 지방단체의 기록을 제한적으로 수집함. 공증, 세금, 투표, 다른 도시, 마을, 자치주 기관과의 위원회 자료를 포함함
- 수집영역
 - 생산기관에서 기록을 유지할 능력이 없어서 분실되거나 파괴될 위험에 직면한 기록
 -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법으로 지정된 기록
 - 기관이 작동하는데 중요한 지속적인 (행정적, 법적, 재정적)가치를 가지는 기록
 - 기록의 고유한 형태나 생산하거나 이용을 통해 야기되는 요소에 기반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내재적 가치 혹은 본질적 가치)
 - 기관의 정책, 프로그램 개발, 행정부 관련 형성과정을 기록한 기록
 -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을 반영한 기록
 - 확장되고 기간의 제한이 없는 기록은 기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해 균일하고 비교가능한 정보를 제공함
 - 지방정부, 지역사회, 사람(시민)의 역사적 발전을 기록한 기록
 - 기록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가능한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지방정부의 공공기록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지 않지만, 수집영역을 충족시키면 마이크로필름 사본으로 기록물을 이관 받음
- 원본자료의 경우, 19세기~20세기 초반의 기록물을 중점으로 수집하며 다른 컬렉션 영역에서 추가정보를 제공함

■ 매뉴스크립트 컬렉션(비정부기록)/ Manuscript Collection (Non-Government Records)

- 이 컬렉션의 기록은 일기, 서신, 저널, 비즈니스, 교회 기록, 지도, 사진 및 기타 관련 자료를 포함함.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은 영토 확정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플로리다 시민의 삶을 보여줌
- 수집영역
 - 공무원의 사적인 문서(papers)
 - 플로리다의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 역사를 반영하는 개인이나 가문의 사적

인 문서

- 종교, 사회, 시민, 교육 또는 경제발전을 반영하는 플로리다의 조직, 단체, 기업의 기록
- 국가의 개척, 정착, 발전을 기록화한 개인적인 문서
-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사적인 기록이나 공적인 기록을 보완하거나 기록화되지 않은 컬렉션 영역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적인 문서나 기록
- 기록의 고유한 형태나 생산하거나 이용을 통해 야기되는 요소에 기반한 내재적인 가치를 지닌 기록(내재적 가치 혹은 본질적 가치)
- 기록은 연구자들에게 가장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접근가능한 정보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고유한 플로리다 산업, 노동단체, 특별한 이익단체들을 대표하는 기록들은 수집이 강조됨. 또한 잘 드러나지 않은 그룹의 기록도 수집하고 있음

■ 플로리다 사진 컬렉션(Florida Photographic Collection)

- 플로리다의 “사람”, “장소”, “사건”에 대해 백만 개 이상의 이미지와 수천 개의 영화필름과 테이프로 구성하여 플로리다의 가장 완전한 초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함
- 사진 컬렉션은 아카이브에서 보관중인 플로리다 역사의 텍스트 문서를 보완하는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함
- 플로리다 아카이브는 플로리다의 역사와 발전에 관련된 사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 그림, 엽서, 초상화 등의 이미지를 수집함
- 수집주제영역
 - 플로리다 사진작가의 이미지나 플로리다를 주요주제로 찍은 사진작가의 이미지
 - 산업과 비즈니스, 정치적 행사, 가정생활, 농업과 토지이용, 사교 행사, 건축, 교통, 관광 등 플로리다의 이미지
 -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매뉴스크립트나 공적인 기록을 보완하고 지원하는 이미지
 - 예를 들어, 초창기 사진이미지는 daguerreotypes((사진술 초창기에) 은판 사진법으로 찍은 사진), ambrotypes((초기의) 유리판 사진), tin-types을 포함하는데, 사진술의 역사를 알 수 있음

■ 족보(계보) 컬렉션(Genealogical Collection)

- 족보(계보) 컬렉션은 가문, 주, 자치구, 지역의 역사를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구성함
- 이민목록, 인구통계 기록, 교회, 묘지, 군사기록, 족보(계보) 저널, 참고도서, 온라인 족보(계보) 연구 정보원을 포함함
- 족보(계보) 컬렉션은 플로리다와 다른 주와 관련된 자료로 구성되며, 아카이브는 가문 목록과 연구 노트를 포함함
- 수집영역
 - 가문의 역사, 주와 자치주의 역사, 주와 자치주의 인덱스 또는 번역본, 족보(계보) 핸드북 및 족보(계보) 저널과 뉴스 레터를 포함하여 공개된 족보(계보)자료의 기증 및 구입
 - 비공개 플로리다 가문과 관련된 가문의 역사와 성경 기록의 사본 기증 및 구입
 -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첫째로 플로리다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으로 동남, 동북과 중서부지역에 중점을 두고 수집함. 아카이브의 구매 자료는 많은 연구자에게 혜택을 줄 것임

수집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

- 아카이브의 평가
- 인수위원회
- 기록 이관(보관)
- 접근과 이용의 제한
- 자료의 제적과 처분
- 자료의 대출
- 참조정보
 - 아카이브의 자료가 정책의 카테고리나 표준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잠재적 가증자는 적절한 소장처(리파지토리)로 참고될 수 있음
 - 플로리다 관련 인쇄자료의 가증자는 플로리다 주립도서관의 플로리다 컬렉션에서 참고될 수 있음
- 세금관련 자료의 평가
- 저작권

수집방법

- 오직 기증을 통해서만 민간기록물을 수집함.(구입을 위한 수집예산이 없음)
- 기증시 민간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됨과 동시에 저작권에 속한 모든 권리가 주립기록관으로 이관됨. 이를 통해 기록관에서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민간 기록물의 인용이나 출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이용제한(접근제한)

- 기증자가 제시하는 이용제한(접근제한)에는 반드시 만료기간이 있어야 함
- 기록물의 처분에 있어서는 기증자에게 돌려주거나 동의서 상의 처분 조항에 따라 처리함
- 처리 조항이 없을 경우, 아키비스트의 재량에 의해 처리되나 외부에 기록물의 판매는 금지함

기증

- 구매를 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증을 원칙으로 함
- 기증동의서 양식을 PDF로 제공하고 있음
- 기증시, 기록관으로 기록물이 이관됨과 동시에 저작권에 속한 모든 권리가 주립기록관으로 이전됨
- 접근제한에는 반드시 만료기한이 있어야 함
- 기증혜택
 - 기증기록물은 중성 보관상자에 보관되고, 보안이 유지되고 적절한 보존환경이 유지되는 보관시설에서 보존됨
 - 기증기록물 컬렉션을 구성하여 (공공접근을 통해)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함

2.5.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기 관	한글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영문	South Dakota State Archives
	지역	미국, 사우스 다코타
	홈페이지	http://history.sd.gov/
기관유형		■ 아카이브 □ 연구소 □ 도서관 □ 박물관 □ 기타 ()
수집자료 구성		사우스 다코타 주(state), 카운티(county), 마을(town)의 정부 기록, 사진, 지도 및 기타 영구적으로 역사적이고 연구적 가치를 지닌 보존 기록자료로 구성됨
서비스 형태		온/오프라인
특이사항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은 1901년 의회에 의해 만들어짐. 고고학, 아카이브, 역사 보존, 박물관, 연구 및 출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선정이유

-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은 역사적인 사회를 이루는 업무를 수행하는 주 (state)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임
- 사우스 다코타 지역의 역사적 사회 컬렉션을 평가, 인수, 기술, 조직, 보존하고 중요성을 결정하여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을 이용가능하게 만듦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 미션

- 역사는 우리의 다양한 문화정체성을 정의하고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함
- 사우스 다코타 주립 역사 학회는 사우스 다코타의 주의 대체할 수 없는 과거의 증거를 모으고, 보존하고, 검색하고 해석함으로써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을 육성하고 지속시킴

-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러한 기록은 공적인 연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음. 아카이브의 문서는 정부 관계자, 교사, 변호사, 학생, 족보(계보) 학자, 역사학자, 역사 보호주의자, 전시 디자이너, 작가 그리고 기자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의 수집 컬렉션 개발 정책

- 컬렉션 개발 정책의 목적은 수집정책을 통해 직원들이 입법부의 명령에 의해 공개 또는 비공개 되는 자료에 대한 평가와 인수에 대해 지침을 제공함
- 사우스 다코타 주립기록관의 컬렉션 정책에 관심이 있는 대중들과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

관심 분야

- 다코타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다코타 지역과 사우스 다코타 주의 자연사, 정치적 세력과 시민에 관한 기록은 형식에 관계없이 수집, 보존함
- 일차적, 이차적 정보원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우선 수집 분야

- 정부 기록(Government Records)
 - 주 기관으로써 첫 번째 임무는 영구적인 가치를 가지는 주나 지역, 지방 정부의 기록을 모으고 제공하는 등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정부문서 중 공개된 자료는 컬렉션을 보완해줌
 - 영구적인 가치는
 - 1) 일반적인 기록 보유 스케줄 절차에 따라 주 기록은 폐기(파괴)됨
 - 2) 주 아키비스트의 평가에 의함
- 사우스 다코타와 지역의 역사(South Dakota and Regional History)
 - 주립 아카이브의 일차적인 책임은 주와 지방 정부의 기록을 보존하여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연구적 가치를 가지는 기록을 발행하는 것임. 또한 아카이

르는 수집 지침 내에서 자료 기증을 수용하지만 공식적인 국가나 지방정부 업무 활동 기록은 생산하지 않음

- 기증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보관 또는 자료를 구입 할 수 있음
- 지역의 사람, 자연 자원, 그들의 상호작용을 역사의 한 측면으로 나타내는 연방 정부 기록, 개인 서류와 원고, 민간 기업과 조직, 사진 이미지, 지도, 건축 및 엔지니어링 문서, 음성 및 비디오 녹음, 책, 기계 판독이 가능한 기록, 간행물의 다른 유형의 기록을 포함함

■ 특별한 도서관 자료(Special Library Materials)

- 아카이브의 수집 지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아카이브의 도서관 단위로 커다란 계보 참고 도서관에 추가할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함

■ 디지털 기록(Digital Records)

- 사우스 다코타 주립 기록관은 다코타 지역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자연사와 사우스 다코타 주를 문서화한 기본 및 보조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함
- 점차 이러한 기록 자원들은 디지털로 생성되고 디지털 형식으로 유지됨.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립 기록관은 디지털 자료의 장기적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보존 프로그램을 설계함

수집 제외(Materials Not Collected)

일반적으로 주립 기록관은 적극적인 수집을 하지 않음

- 3차원 객체(만약 수집이 된다면, 수집기록관(매뉴스크립트)이나 기록 컬렉션과 함께 하지만 가장 적절한 주립 박물관에 적합한 배치를 하거나 아이템이 작은 사이즈라면 아카이브의 단기 컬렉션에 추가할 수 있음)
- 다른 주(state)의 공공기록이나 사우스 다코타의 역사와 관련이 없는 수집기록관(매뉴스크립트)의 기록자료
- 우리 지역의 역사와 관련되지 않은 간행형태의 자료 ; 신문이나 신문스크랩의 원본(사우스 다코타 신문은 수집하여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보존함)
- 사우스 다코타 출신 작가(저자)의 출판물은 일반적인 수집 지침 범주에 속함

때에만 적극적으로 수집함

기증안내

- 기증동의서 양식을 PDF로 제공함
 - 컬렉션 유형을 정부, 도서관, 매뉴스크립트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음
 - 기증기록물이 주립기록관의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돌려주거나 폐기(삭제)를 선택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을 원할 경우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

3.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수집기관의 연계

3.1. OAC(Online Archive of California)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
	영문명	Online Archive of California
	홈페이지	http://www.oac.cdlib.org/
수집자료 구성		20,000이상의 온라인 컬렉션 가이드, 220,000이상의 디지털 이미지와 문서 제공
특이사항		지역 내의 기록 소장기관들이 기록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용자들에게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하고 참여함

선정이유

- 캘리포니아 온라인 아카이브(OAC)는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소장 기록, 200여 개의 캘리포니아 소재의 도서관, 특수 컬렉션, 아카이브, 역사협회,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일차자료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웹사이트임
- OAC는 협력기관들의 가상 아카이브임. 컬렉션 가이드를 위한 캘리포니아의 중앙 저장소로서 캘리포니아의 풍부한 컬렉션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 정보원을 제공함
- 아카이브, 도서관 및 박물관 컬렉션의 실제 위치 및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수집정책

- OAC에서는 기술된 자료들을 소장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지만 분산되어 보관 중인 컬렉션들에 대한 통합적인 검색을 제공하고 있음
- 제공되는 컬렉션에 대한 기술, 원문 연계 등을 통해 캘리포니아 지역 기록에 대한 접근에 도움을 주고 있음

- 기록물의 직접적인 기증은 받고 있지 않으며, 기록의 기증을 원하는 이용자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도서관, 박물관 등에 기증을 통해 기록물을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음
- 공유 및 협력에 따른 이익(혜택)제공
 - 소속기관 이용자에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의 강화
 - OAC에서 제공하는 도구, 서비스, 교육에 접근기회를 가짐
 - 캘리포니아 대학의 디지털 도서관(California Digital Library, CDL)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엄청난 기회의 확장을 보장함

3.2.MemoryBC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메모리BC
	영문명	Memory BC
	홈페이지	https://www.memorybc.ca/
수집자료 구성		Memory BC 포털은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약 200여 개의 보존소들의 검색 가능한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함
특이사항		Memory BC는 브리티시컬럼비아 지역의 아카이브 네트워크 서비스(BC Archival Network Service)의 일부분으로 브리티시컬럼비아 아카이브 협회(Archives Association of British Columbia, AABC)가 관리하고 있었음. 2009년에는 'BCAUL'로 알려졌으나, AABC가 BCAUL의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인 AtoM소프트웨어로 마이그레이션함으로써 'Memory BC'로 이미지를 새롭게 할 기회를 가짐

선정이유

- Memory BC는 기록, 문서, 사진. 다양한 유형의 역사적인 정보 자료에 접근, 검색,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기록컬렉션의 통합검색을 제공하는 사이트임
- 컬렉션/풍(fonds)에 대한 집합적 기술을 제공하며 일부 원문이 제공됨
- 디지털화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 소장기관의 웹사이트로 연결 가능한 링크를 제공함

- 디지털화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이용에 대한 안내정보를 제공함

MemoryBC의 디지털 객체 정책

MemoryBC에 업로드 되는 디지털 객체의 속성과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디지털 객체 정책 개요

- MemoryBC의 업로드는 간단한 디지털 객체의 업로드만을 허용함. 복잡한 디지털 객체의 업로드는 허용되지 않음
- 기여자(Contributors)는 메타데이터의 인코딩 및 전송 규격(METS)에 따라 디지털 객체와 아카이브 기술(archival description) 사이에 1:1 관계를 적용해야 함
- 기여자(Contributors)는 MemoryBC에서 디지털 객체를 관리하기 위한 세 가지 옵션을 가져야 함
 - 설명에 디지털 객체를 추가하지 않음
 - 연구자들을 위해 다른 위치에 저장된 디지털 객체가 저장된 URL을 제공함.
MemoryBC는 내부적으로 저장된 썸네일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함. 이 옵션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음
 - 저장을 위한 저해상도 jpeg를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픽셀이어야 함. 기여자(Contributors)는 매년 Artefactual Systems에 저장하기 위해 직접 계약해야 함

■ 기여자의 책임 및 권한 관리(Contributors' Responsibilities and Rights Management)

- 기여자는 각 디지털 객체에 적용되는 권리에 대한 책임이 있음, AACA는 저작권 및 기타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 기여자는 기관의 인수 정책(acquisition policy)에 따라 정식으로 검증된 디지털 객체만 업로드 할 수 있음
- 기여자는 보존기술규칙을 준수하는 디지털 객체의 기술을 유지하고 업로드 해야 함

- 기여자는 MemoryBC에 업로드 되는 디지털 객체를 유지관리 해야 할 책임이 있음
- 기여자는 기술과 관련된 디지털 객체에 적용되는 모든 권리를 정의해야 함
- 기여자는 디지털 객체에 대한 모든 복제 및 활용을 관리하는 정책을 수집해야 할 책임이 있음

주제영역

농업(Agriculture)	사건과 행사 (Events and celebrations)	법과 정의(Law and justice)
예술과 문화 (Arts and culture)	탐사, 발견과 여행 (Exploration, discovery and travel)	군(Military)
건물 및 구조물 (Buildings and structures)	가족 및 개인 생활 (Family and personal life)	천연 자원 (Natural resources)
산업 및 상업 (Business and commerce)	캐나다 원주민(First nations)	조직(Organizations)
어린이와 청소년 (Children and youth)	지형지물(Geographic features)	정치(Politics)
소통(Communications)	정부(Government)	종교(Religions)
공동체 생활 (Community life)	건강 및 사회보장 (Health and social services)	과학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문화단체(Cultural groups)	산업(Industries)	스포츠, 레크레이션과 레저 (Sports, recreation and leisure)
교육(Education)	노동(Labour)	교통 및 운송수단 (Transportation and utilities)
환경(Environment)	토지, 정착 및 이민 (Land, settlement and immigration)	여성(Women)

3.3. People's Collection Wales

기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영문명	People's Collection Wales
	홈페이지	https://www.peoplescollection.wales/
수집자료 구성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는 국가와 지역 조직, 개인이나 지역공동체 그룹에 의해 기증되고 공유되는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됨
특이사항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웨일즈의 스토리에 대해 찾고, 배우고, 기여할 수 있는 2개 국어(영어/웨일즈어)로 구현된 혁신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함.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의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며, 콘텐츠 생산에 이용자가 참여함

선정이유

- People's Collection Wales는 웨일즈 디지털 문화유산 아카이브로 웨일즈에 관한 사진, 음성, 문서, 비디오, 스토리 등을 통해 개인의 기억을 공유하고 서비스하는 웹사이트임
- 지역사회, 가문, 마을, 도시, 산업 그리고 전통의 역사를 수집하고 있음

컬렉션의 주제영역

- People's Collection Wales는 10개의 주제영역으로 검색을 지원하고 있음

◦ 예술과 문화(Arts and Culture)	◦ 대표적인 자연(Nature Represented)
◦ 생물학(Biology)	◦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 지역 사회 및 사회(Community and social)	◦ 종교와 믿음(Religion and Belief)
◦ 지질학(Geology)	◦ 스포츠 및 레저(Sport and Leisure)
◦ 산업과 상업(Industry and Commerce)	◦ 전쟁, 시위 및 정치(War, protest and politics)

디지털 문화유산 영역

- 디지털 문화유산 영역은 박물관이나 도서관들로 구성되며, IT나 디지털 장비에 의해 접근이 가능함
- 검색, 역사적인 아이템들의 디지털화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보존을 촉진함

발견(Discover) 영역

발견 영역은 장소, 시대, 관심에 따라 키워드나 태그를 사용하여 검색이 가능함

- 프로필(Profile) : 개인이 소장한 콘텐츠를 업로드 하면 기증자가 됨. 댓글, 즐겨찾기, 공유에 대한 모니터링 할 수 있음. 인기 많은 콘텐츠는 웹 사이트상 주요 검색으로 선택됨
- 즐겨찾기(My Favourites) : 가장 매력을 느끼는 컬렉션에 대해 클릭 한 번으로 즐겨찾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저장된 즐겨찾기는 이야기, 시리즈, 컬렉션을 만드는데 사용될 수 있음
- 이야기(Stories) : 개인 또는 즐겨찾기를 통한 다른 사람들이 기증해준 아이템에 의해 발생될 수 있음.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
- 추적(Trails) : 추적은 자동차나 도보로 통해 역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음. 추적은 종종 예를 들어 지역의 교회가 있던 장소 등의 특별한 테마를 구상함, 자신만의 추적, 경로와 이동 등의 항목을 추가한 자신만의 추적을 만들 수 있음. 지역의 역사적 풍경을 발견하고 추적할 수 있음
- 지도(Maps) : 웹 사이트의 장소 영역을 이용하여, 현재와 역사적인 (영국, 아일랜드의)육지 측량부 지도를 탐색 할 수 있음. 관심 위치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을 정밀 탐색할 수 있음. 1868년부터 현재까지의 풍경을 볼 수 있음

기증해택

- 기증자의 콘텐츠를 새로운 이용자와 공유하기 위한 무료 플랫폼의 제공함
- 기증자의 서비스를 촉진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기증자의 컬렉션을 보여줄 수 있음
- 기증자의 컬렉션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제공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보존함

- 공개 프로필의 증가, 공유 자원, 새로운 기술에 의한 검색을 포함하여 더 넓은 영역에서의 혜택을 제공함
- 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교육지원

지역 문화유산에 관심이 있는 그룹이나 개인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하루 종일 교육지원을 요청한 지역(your area)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웹 준비나 디지털 큐레이션에 대한 마스터 파일을 만드는 방법 등의 모범사례를 공유함



〈그림 33〉 교육지원의 예: Training day at Newtown Library

- 2014년 이후 웨일즈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34개의 이상의 교육과정을 통해 300여명 이상을 지원함
- 저작권, 메타데이터, 스캐너, 폴더 생성하기와 같은 요소를 교육에 포함함

3.4. Calisphere

기 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미국 캘리포니아의 캘리스피어(Calisphere)
	영문명	Calisphere
	홈페이지	https://calisphere.org/
수집자료 구성		400,000여 개의 사진, 문서, 편지, 아트 워크, 일기, 구술, 영화, 광고, 음악 등을 서비스함 Calisphere의 컬렉션은 10개의 캘리포니아 대학 캠퍼스와 다른 중요한 도서관, 아카이브, 그리고 박물관에 의해 기부된 디지털화 자료로 구성됨
특이사항		지역의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교육 콘텐츠로 개발하여 제공함 Calisphere은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의 프로젝트로 출발하여, California Digital Library(CDL)에서 발전·유지되고 있음

선정이유

- Calisphere은 캘리포니아의 기관(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역사협회 등)들이 협력하여 세워진 디지털콘텐츠 및 메타데이터 집합체로서 캘리포니아의 고유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을 연구, 교육, 흥미위주 탐색에 자유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게이트웨이의 역할을 수행함
- 협력기관들이 소장한 수천의 사진, 문서, 예술작품, 기타 역사자료의 디지털원문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고 있음
- 장서 내 수많은 뛰어난 자원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접근을 확대하기 위해 만듦
- 지역의 역사기록을 선별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및 디지털 콘텐츠로 개발한 사례임
- 캘리포니아 주립도서관에서 협력기관들이 컬렉션을 디지털화하는 데 지원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음

Calisphere의 컬렉션

- 주제별 컬렉션(Themed Collections)
 - 시기별로 주요 주제를 선정하여 설명하고 관련된 일차정보원을 제공하며 학습적인 면과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문화(California Cultures)
 - 아프리카계 미국인, 아시아계 미국인, 히스패닉계 미국인, 토박이 미국인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그룹에 대한 이미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일본계 미국인 이민 디지털 아카이브(Japanese American Relocation Digital Archives)
 - 2차 세계대전 동안 일본계 미국인 수용의 역사를 보여주는 개인문서 및 공문서, 구술사, 예술작품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3.5.Digital Library of Georgia

기 관	유형	수집기관 기반의 아카이브
	한글명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
	영문명	Digital Library of Georgia
	홈페이지	http://dlg.galileo.usg.edu/
수집자료 구성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은 60 기관, 100여 개의 정부 기관에서 제공한 200개 이상의 컬렉션을 통해 1만여 개의 디지털 객체를 제공함 조지아 문화유산의 일부를 나타내고 있지만,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은 주 전역에 걸쳐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제휴를 통해 성장을 계속하고 있음
특이사항		텍스트 기반의 원고, 편지, 일기, 책 등과 팸플릿, 사진, 지도, 예술, 유물, 오디오 및 비디오, 건축 계획 및 도면,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 그래픽 자료 형태의 작품 등을 포함하며, 원본 형식을 제공함

선정이유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은 디지털화 된 책, 원고, 사진, 정부문서, 신문, 지도,

오디오, 비디오 및 기타 정보원을 제공하는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게이트웨이임

- 자료 또는 컬렉션이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을 준수해야 하며,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 있어야 함

컬렉션 개발 정책

■ 디지털 컬렉션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은 조지아의 도서관, 아카이브, 박물관, 다른 문화유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온라인 디지털 컬렉션 및 자원의 지속적인 개발, 유지 보수 및 보존을 통해 조지아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함. 텍스트 기반의 원고, 편지, 일기, 책 등과 팸플릿, 사진, 지도, 예술, 유물, 오디오 및 비디오, 건축 계획 및 도면, 마이크로필름을 포함한 그래픽 자료 형태의 작품 등을 포함하며, 원본 형식을 제공함
-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의 이용자(5가지 유형): 일반 이용자, 학생/K-12/평생 학습자, 정보검색자/아마추어, 학자/연구자, 정부/업계

디지털화하는 컬렉션 기준

- 미션 : 자료 또는 컬렉션이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의 사명을 준수해야 하며,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와 관련 있어야 함
- 제한 : 권한을 얻지 못하는 한, 기증자나 소유자가 제한하는 자료는 디지털화할 수 없음
- 저작권 : 공유저작물(저작권 소멸)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저작권에 대해 미심쩍은 경우, 사례별로 판단함. 저작권 제한이 있는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자료는 디지털화할 수 없음
- 기록화/기술 : 완전히 또는 부분적인 기술, 해설, 라벨, 처리, 또는 카탈로그로 된 자료나 컬렉션에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부여함
- 접근성 :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접근이 어렵거나 보안 제한으로 제한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부여함
- 이용 : 연구자, 협력자, 직원에게 의미가 있는 자료에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부여함.
 - 다양성 : 조지아의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지리적 또는 경제 다양성을 나타내는 자료

에 디지털화 우선순위를 부여함

- 가치 : 높은 연구적, 예술적, 증거적 가치 또는 핵심 이용자들이 특히 관심 있는 자료를 디지털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부가가치 가능성
- 이용자에게 더 나은 이해, 안내, 컬렉션 이용을 지원하는 보충자료의 생성, 추가
- 자료사이의 연계
- 작성자, 주제, 제목, 또는 유사한 테마를 기반으로 한 자료의 가상컬렉션
- 새로운 메타데이터, 기술, 전자적 형태의 검색도구
- 전자문서 생성을 통한 검색가능성
- 원본을 이용하거나 분석하는 새로운 방식

- 중복자료 : 다른 곳에서 같은 수준의 품질을 제공하는 곳이 있다면 디지털화하지 않음 DLG 포털서비스는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의 미션과 관련된 항목과 연계될 수 있음
- 협력가능성 : 이미 디지털화 되었거나 디지털화가 고려되는 자료를 보유한 다른 저장소나 조직이 있는 경우 혹은 협력하거나 다중 컬렉션 디지털화 이니셔티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 디지털화에 우선순위를 부여함
- 지역 또는 부가 정보원의 가용성 : 특히 지역기반이라면 다른 저장소나 조직에 인력, 장비, 자금 지원을 제공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함. 조지아디지털도서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획득한 컬렉션은 협력가능성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함
- 기술 :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술, 프로세스, 모범 사례는 디지털화 우선순위가 부여됨. 탐색하거나 새로운 기술의 구현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는 자원과 자금에 의해 우선순위가 고려됨

DLG 포털 서비스

- DLG 포털 서비스는 DLG의해 디지털화 된 역사적, 문화적인 컬렉션을 연계하고, 문화단체나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디지털 컬렉션, 자료, 사이트, 아이템 또는 유사한 정보원을 통해 주와 다른 지역에 선택적인 포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포털 서비스의 핵심은 개별 정보원에 대한 기술적인(descriptive) 정보를

포함한 메타데이터 카탈로그임

- DLG 포털 서비스에서 메타데이터를 기록하거나 사이트를 연계하는 기준
 -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컬렉션을 위한 디지털 정보원을 제공함
 - 무료로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함
 - 지속가능성 및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계획
 - 공유저작 또는 공공배포를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준수함
 - 우선순위에 의해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에서 권장하는 디지털 이미징 표준 모범 사례에 따라 디지털화된 문화적 자료를 제공함
- 소유권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은 DLG 포털 서비스에 연계된 디지털 객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음
 - 소유권은 원래 사이트로 남아있음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이 생성한 메타데이터는 자유롭게 복제, 공유 가능함
- 정확성
 - 데이터, 사실,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디지털 자원을 제공한 기관에 남아있음
 - 조지아의 디지털 도서관은 포털로 연계된 사이트의 정보품질을 보증하지 않음
- 접근성
 - DLG 포털 서비스는 월드 와이드 웹 컨소시엄의 웹 액세스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개발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함
 - 그러나 조지아 디지털 도서관은 DLG 포털에 의해 링크 된 사이트가 이러한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지 않음
- 삭제 정책
 - 사용성과 신뢰성의 지속성이 유지되지 않는 사이트
 - 부정확한 데이터, 사실, 또는 정보
 - 저작권 위반
 - 사이트나 콘텐츠가 더 이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삭제함

4. 해외의 참여형 아카이브 - 수집기관과 공동체의 연계

4.1. Connecting Histories

기 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영국 버밍엄의 공동체 아카이브 Connecting Histories
	영문명	Connecting Histories
	홈페이지	http://www.connectinghistories.org.uk/
수집자료 구성		8개의 컬렉션으로 구성됨(All Faiths For One Race (AFFOR), 버밍엄 반 아파트트 헤이트 (Anti-Apartheid)운동 기록, Pogus Caesar(버밍엄 사진 작가, 예술가 및 영화 제작자)의 사진모음, 교회 선교사 협회/버밍엄 대학교 특수 컬렉션, Nick Hedges(사진 작가), Paul Hill(사진작가), Terry Lo(사진 작가), 노예제도/노예제도 관련 자료, 스파크 부록 (Sparkbrook)협회의 기록으로 구성됨)
특이사항		2005년 2월 시작하여 2007년 7월에 끝난 공공아카이브가 주도한 지역공동체의 기억을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임 공동체의 구성원이 기록의 수집,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원함 기록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에 대해 언급함

선정이유

- Connecting Histories는 Heritage Lottery Fund의 지원을 받아 버밍엄시 아카이브가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 교육대학, 워윅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의 사회학과, 흑인의 과거와 버밍엄의 미래 그룹(Black Pasts, Birmingham Futures group)과 협력하여 진행한 파트너십 프로젝트임
- 영국은 다문화국가로 묘사되지만, 새로운 영국의 이야기를 구성하는 다양한 역사적 경험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음. Connecting Histories는 20세기 영국 웨스트미들랜드 역사를 중심으로 하지만, 이러한 역사는 아카이브 컬렉션에 잠재되어 있음
- 과거와 현재를 연계하여 공유된 정체성, 상식, 여러 문화유산에 대한 토론을

장려할 수 있도록 컬렉션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Connecting Histories 비전

- 버밍엄의 다양한 공동체들의 역사에 관한 문서와 사진을 제공함
- 공동체가 자신들의 역사를 아카이빙 하는 데 참여하도록 지원함
- 공동체의 역사를 알리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

Connecting Histories의 목표

-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다양성을 간직한 아카이브 컬렉션을 목록화하여 제공함
- 2명의 피교육생을 아키비스트로 양성함
- 소리와 사진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보존과 접근을 보장함
- 웹 기반 학습 패키지 개발 : 연구기법, 흑인계 영국인의 역사, 이주와 정착, 사회정의운동, 공연이 저항과 변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포함하는 테마와 연계되는 패키지를 개발함
- 공동체와 자원봉사자 집단이 자신들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역적, 국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아카이브와 문화유산 영역의 활동 모델 제공함

Connecting Histories의 테마

- 사람, 장소, 주제, 시대로 구성함

Connecting Histories의 저작권 정책

- 자료의 소유자가 저작권을 유지함
- 교육 또는 개인의 비상업적인 사용에 한해서만, 특별히 허가받아 사용이 가능함

4.2.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기 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영문명	Cambridgeshire Community Archive Network(CCAN)
	홈페이지	http://www.ccan.co.uk
수집자료 구성		CCAN은 캠브리셔의 도시와 마을 등 32개의 지역공동체 아카이브 네트워크로 주의 지역 역사를 함께 기록함
특이사항		CCAN은 2008년 중반부터 자원 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어왔으며, 캠브리셔 주 의회 연계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 여분의 기금을 지원함 CCAN은 커뮤니티 아카이브의 가장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 중 하나임 2013년부터 CommunitySites < http://www.communitysites.co.uk/ >로 이전됨

선정이유

- CCAN 프로젝트는 2006년~2008년 지방정부의 지원(Heritage Lottery Fund(HLF)의 재정지원을 받아)을 받아 캠브리지 지역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목표로 구축됨
- 캠브리셔의 지역 공동체들이 자신들의 기록을 업로드 하고 있으며 업로드 한 기록들에 대한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기록의 맥락을 풍부히 함

CCAN의 미션 및 비전

- 커뮤니티 접근점(Access point)으로서 우체국, 술집, 교회, 마을 회관 등 기존의 네트워크에 사회적 관련성을 더함
- 화합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 그룹의 형성을 북돋움
- 디지털 기술과 지역 문화에 대한 학습을 북돋움

CCAN의 주요 콘텐츠

CCAN의 주요 콘텐츠는 9가지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음

◦ (동물)운송수단 (Animal transport)	◦ 운송수단(Bicycles)	◦ 군중(Crowds)
◦ 서신(Letters)	◦ 군(Military)	◦ 뉴스거리(Newsworthy)
◦ 철도(Rail)	◦ 지방의 광경 (Rural landscapes)	◦ 도구와 장비 (Tools and equipment)

CCAN의 저작권 정책

- 저작권은 자료의 소유자에게 있음. 업로드 된 자료의 디지털 저작권은 CCAN 웹사이트와 다른 비영리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사용을 제한함
- 웹 사이트의 자료는 비영리 목적의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공공 참조(public reference, 도서관, 커뮤니티, 박물관과 기록실)로 사용가능
 - 교육적 사용 : 논문, 학위 논문 또는 유사한 연구에서 포함하여 학교, 대학, 전문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공연, 강연이나 이야기(텔레비전, 라디오 포함)를 위한 정보 원(인쇄, 오디오/비디오 미디어 및 인터넷 포함)으로서 사용

4.3. CAW(Community Archives Wales)

기 관	유형	공동체 기반 참여형 아카이브
	한글명	웨일즈 공동체 아카이브
	영문명	Community Archives Wales(CAW)
	홈페이지	http://www.ourwales.org.uk
수집자료 구성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공유함
특이사항		기록관, 아카이브, 대학아카이브, 남웨일즈 광부도서관 등 웨일즈 지역의 수많은 공동체 문화유산 그룹들이 생산, 관리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공유하기 위한 웹 사이트임 영어와 웨일즈의 2개 국어로 포털이 서비스되고 있음

선택이유

-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브는 자신들의 언어로 자신들의 역사를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화하고 해석을 제시함
- 웨일즈 전역의 11개 집단이 자신들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CAW 웹사이트를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사진과 기술(description)을 제시하며, 이용자들은 서로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통해 맥락을 풍부히 하고 있음

CAW의 비전

디지털 공동체 아카이빙을 통한 웨일즈 공동체와 주민 권력의 강화

CAW의 카테고리

- CAW는 7개의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구성하여 검색을 지원하고 있음

◦ 산업과 상업(Industry and Commerce)	◦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
◦ 예술과 문화(Arts & Culture)	◦ 지역사회와 사회(Community and social)
◦ 전쟁, 시위와 정치(War, protest and politics)	◦ 종교와 믿음(Religion and Belief)
◦ 스포츠와 레저(Sport & Leisure)	

CAW의 저작권 정책

- 웹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는 지역사회 단체에 의해 기부되고 있음
-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자료를 재생산하기 위해 저작권소유자로부터의 사용허가를 담보하지 않음
- 저작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자료의 게시를 철회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행정국장	강태웅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기록문화팀장	강남태
담당자	김은아 원종관

연구팀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연구책임

손동유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장)

공동연구

이경래 (한신대학교 기록관리학과 강사)

참여연구원

조성희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부원장)

권용찬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재중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종연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객원연구원)

김진성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객원연구원)

성효주 (협동조합 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객원연구원)

문민기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이주봉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유정환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